


 KIRA 한국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호2동 13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 137-857
 전화 : 02-681-5711~4 팩스 : 02-686-8823 E-mail : gods@kira.or.kr
<http://www.kira.or.kr>

건축사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s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47 / July / 2006

0607

- 칼럼**
 신문의 죽음은 학원에게 달렸다
 - 건축문화신문의 창간을 준비하며
- 사론**
 현재와 내 모습이 미래 내 모습을 형성하는 일그림
- 회원작품**
 탄탄스튜디오하우스
 송인교회
 삼성거재호텔
 배재학원
 미동산 생태관
- 기획연재**
 문화의 교류, 한국의 외국건축-06
- 법령**
 건축물의 파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자재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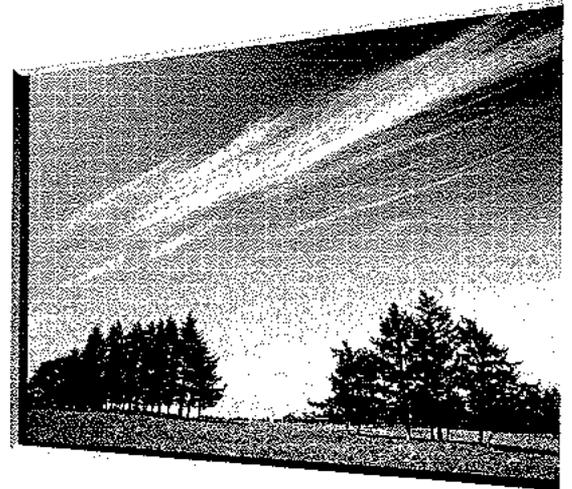
사진: 김민준, 김민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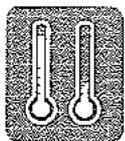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보이지 않는 단열재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친환경 단열재 에너포르(ENERPOR)는 자연 그대로의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립니다.



자연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신소재 단열재 - 에너포르



고열효율 단열재로 연료 절감
유기질로 합성된 독립기포 구조층으로 인한 고열효율로 연료가 절감됩니다.



건강 우선시하는 웰빙 단열재
독립기포구조로 수분, 습기, 세균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차별화된 단열재입니다.



안목치수 적용 용이로 높은 공간 활용도
저밀도에서 열관류율 적용시 단열재의 허용 두께를 15~20%까지 절감해 내·외벽 두께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원료비 절감으로 합리적인 가격
발포 배수를 높여 비중을 낮추고 우수한 열전도율을 유지함으로써 원료비가 절감됩니다.

특허출원(10-2004-0078931호)



'가' 등급 단열재 획득!
에너포르(ENERPOR)는 동일한 비중의 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에 비해 열전도율을 10~20% 향상시킨 신기술 제품입니다.

황토대리석 - 신미인 - 경명특기 - 흙블

원적외선방사
428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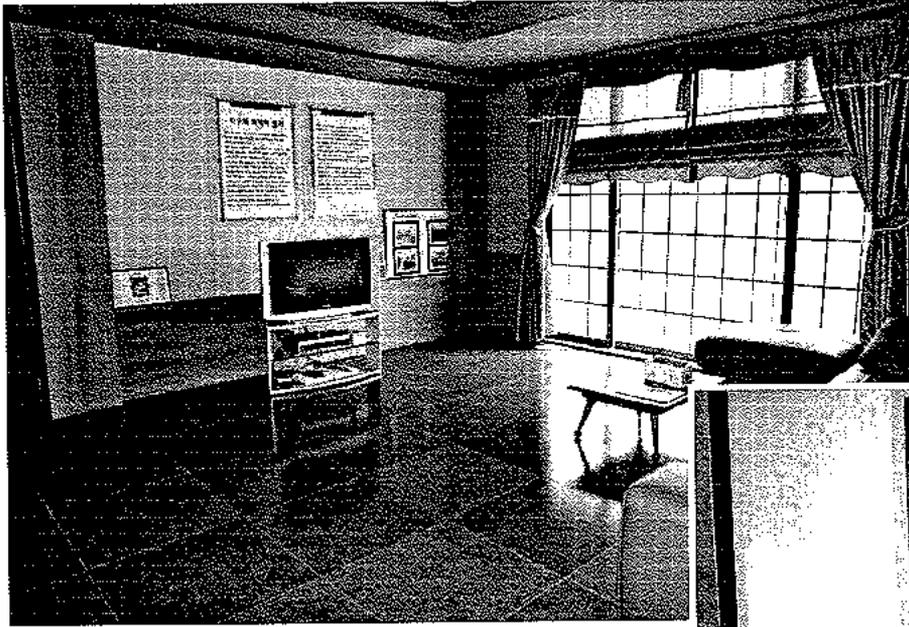
단위기능
96.0%

흡수기능
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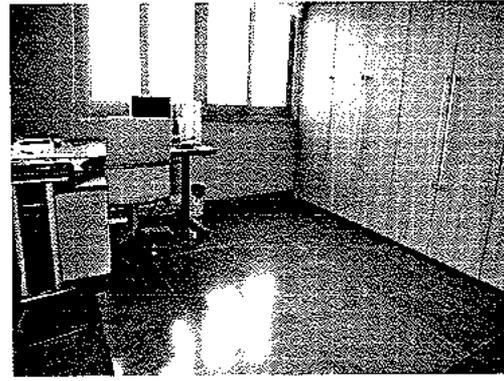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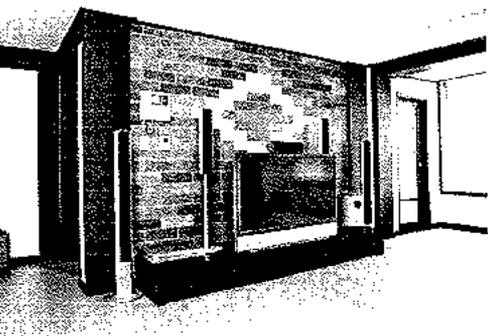
방사기능
96.0%

세균질차단
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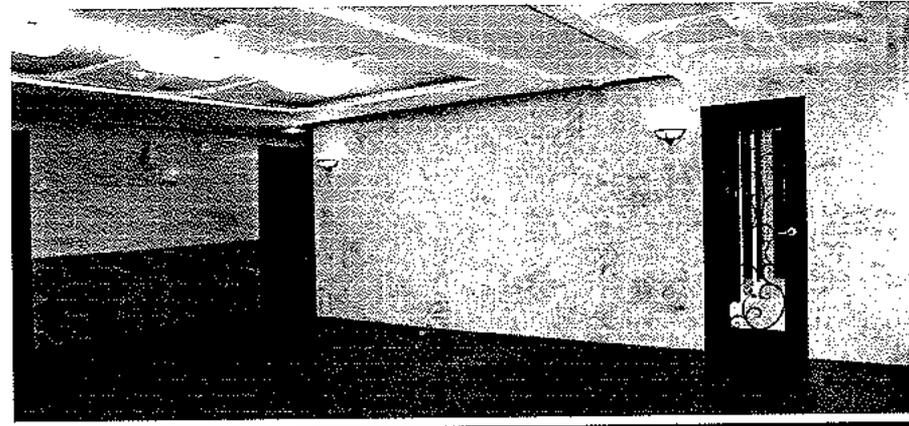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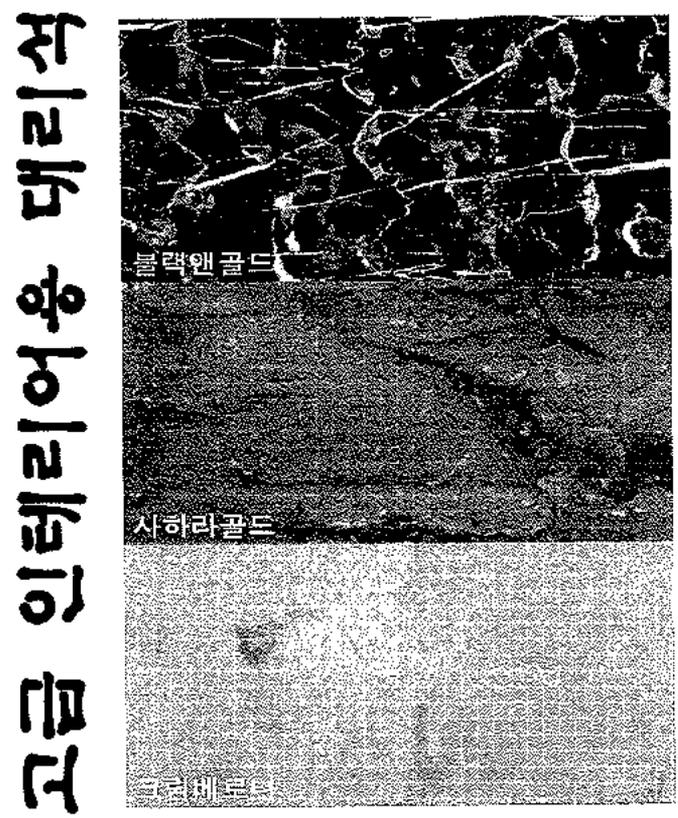
냉·난방
에너지절감



열을
거실 바닥이나 벽면 등에서
황토 대리석으로 마감하면,
실내공기 오염을 줄여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기능성마감재입니다



안방이나 공부방, 주방 등을
황토 대리석으로 마감하면,
냄새억제, 집중력강화, 숙면
효과 등으로 건강관리 도움과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고급 인테리어용 대리석

미진교역
MIJIN TRADING CO.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연곡리 206. <http://www.mijin.net>
TEL : 031-763-6688. FAX : 031-769-8690

당사는 균일한 품질의
제품만을 공급합니다

세·계·최·초·독·자·문·명·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게·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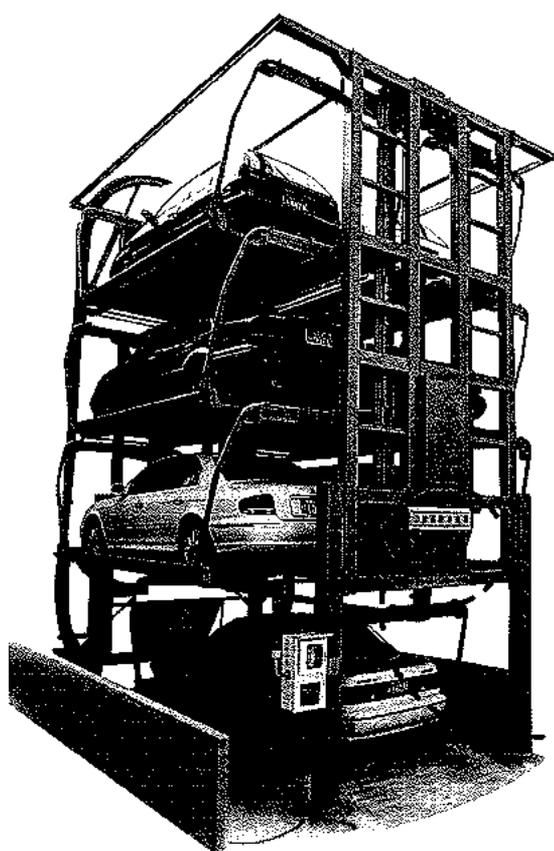
미노타리식 입체주차장치



ISO 9001 인증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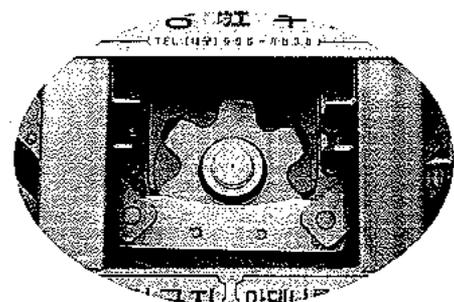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 최초의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 메커니즘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 초슬림형"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이렇게 따릅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 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 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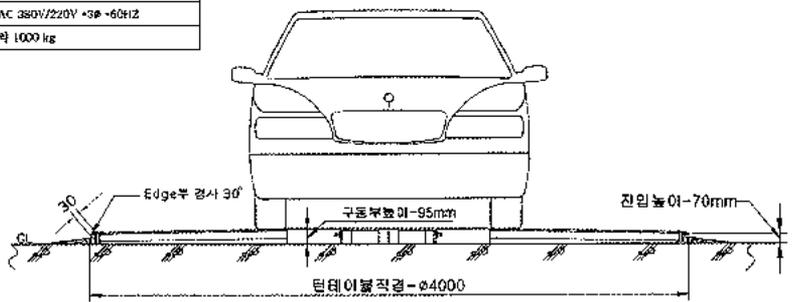
■ 사양 (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 폭(最小)	주차기 길이(最小)	소요높이(最小)
SKY PARK-5	5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대	4570	6090	9390
SKY PARK-9	9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대	4570	6090	13060

▼ 신제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명	상	참고사항(신형)
수용 차량	중소형 승용차(무게 2000kg 이하)	
구동 방식	구동방식	마찰구동식
	구동모터	0.15 KW x 4P = 3기
	정격속도	약 1 RPM
조작 방법	PUSH BUTTON	
인원 전원	AC 380V/220V *3P-60HZ	
차체 중량	약 1000 kg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www.Juchagi.com
한글도매인 : 주차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전국 대표전화 (상담, A/S) **1544-3335**
E-mail : cgp210@kornet.net FAX : 054)973-0067
서울사무소 : 서울시 마포구 망원1동 385-2번지 1층 A/S : 02)323-4448
부산사무소 : 051)303-2296 광주연락소 : 062)942-6923



국내 최초 난연 3급 - 프로폴 샌드위치패널 성능 인증 획득!!

스스로 불이 붙어 잘 안타요!

아직도 인체에 해롭고 시공이 불편한 패널을 쓰십니까?
뛰어난 안전성과 보온성을 위해
이젠 바꾸십시오!

PROPOR SANDWICH PANEL

KSF-4724
KSF-4731
KSF-2271

난연 3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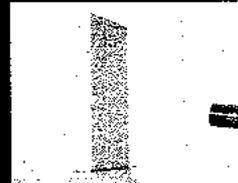
프로폴 샌드위치패널 전문 생산업체

"프로폴 패널은 가장 경제적인 비용으로 화재사고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 대표적 난연패널이며, 기존의 EPS패널의 장점을 모두 유지하여 어떠한 건축물에도 폭넓게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난연패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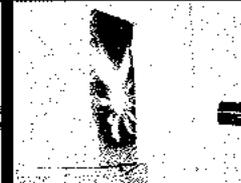
중기청 제 22-008호

단열재 화염 테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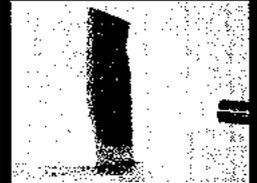
단열재 화염 테스트 결과
난연성에서 획기적인 저품질임이
인증되었습니다



테스트전



테스트 30초



테스트 60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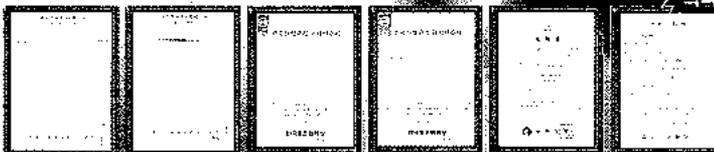
프로폴 패널의 특징

- 우수한 난연성
- 우수한 경제성
- 보온 유지 기능
- 인체 안전성
- 우수한 내후성
- 내구성 및 취급성
- 뛰어난 보온성

취급품목

- 건축용 철강재 벽판 (KSF 4724)
- 건축용 철강재 지붕판 (KSF 4731)
- 난연 3급 (KSF 2271)

- 미국특허출원 : AN20050266244
- 미국 UL94-VO등급 획득 ● 중기청 제 22-008호
- 국내발명특허 : 제 0479218호, 제 10-0589433호



관급자재 구매시 성능보혐으로
보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강릉 속현 하나로마트 시공 현장

상담문의 033)261-8600

인터넷 주소창에서도 다음, 야후, 네이버에서도 영훈패널 을 쳐주세요!

조립식 패널 생산
영훈패널주식회사

춘천시 퇴계동 858-3번지(퇴계능공단지) FAX : 033)262-61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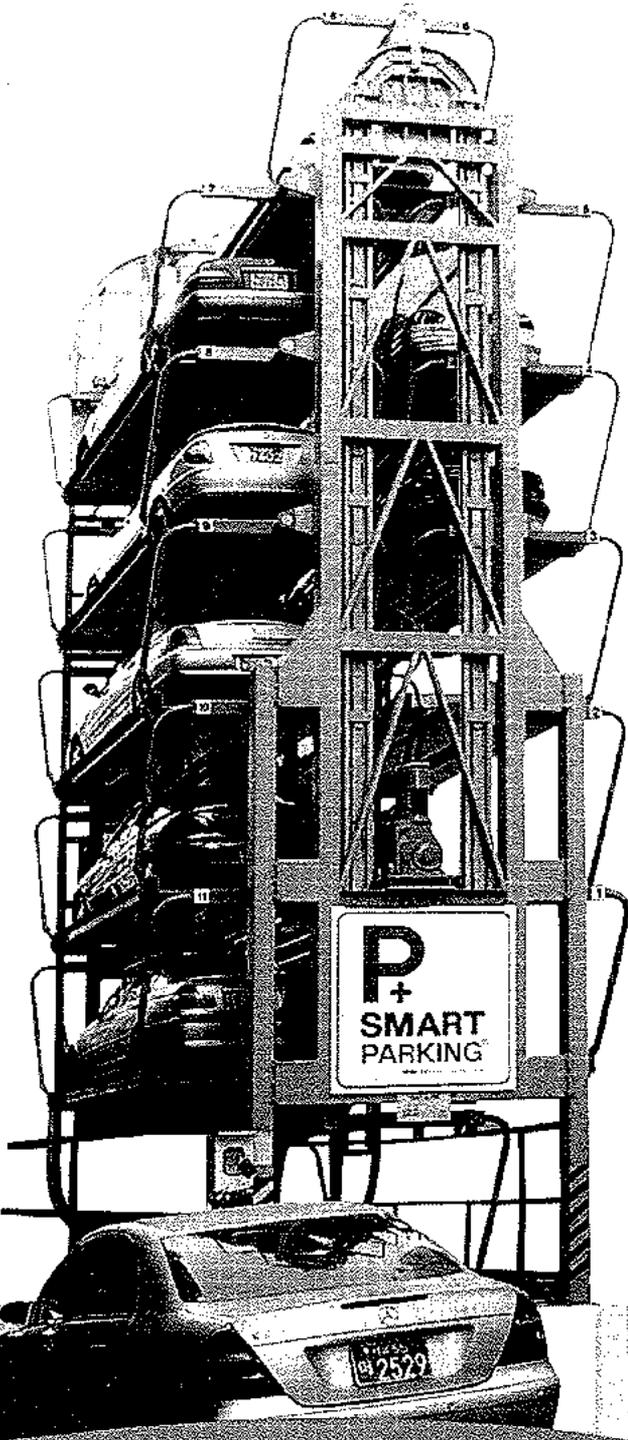




ISO9001:2000인증
 전문건설업등록
 동부화재 책임보험가입
 러시아 수출증

DYPC
 www.dysmart.com

“ 좋은 미니로타리 주차기를 고르는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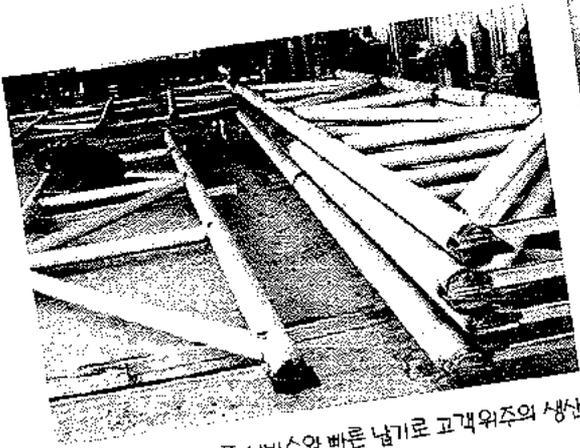
조작이 쉬운가
 잔고장이 없는가
 소음없이 조용한가
 도시미관에 잘 어울리는가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가

21세기를 선도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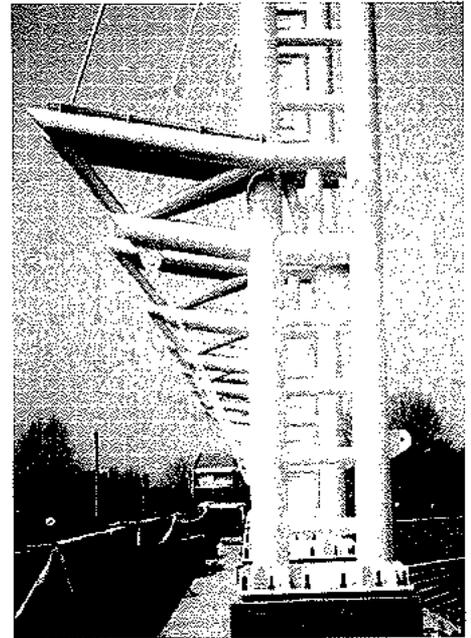
파이프 레이저가공 전문업체

레이저 가공방식은 재래형 가공방식보다 생산성이 높고, 생산비용이 저렴합니다. 고객 위주의 생산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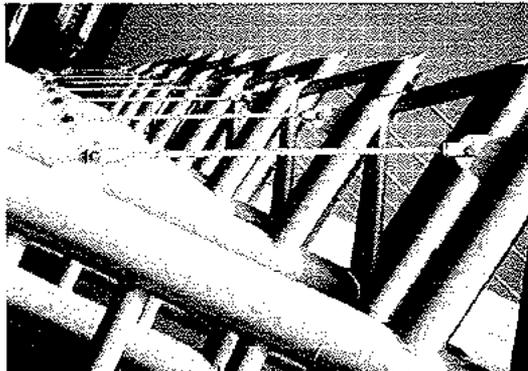
삼신레이저는 국내 처음으로 최첨단 레이저 가공기를 도입하여 탁월한 레이저 가공 기술의 Know-How로 업계 최고의 가공 기술로 더욱 향상된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판재가공기술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파이프 레이저 가공 기술과 여러 형태의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생산에 대한 편리성과 원가 절감, 빠른 납기 등이 가능하므로 많은 상담 부탁 드리며 고객님들께 최선을 다하는 삼신이 되겠습니다.



▣ 신속 정확한 제품 서비스와 빠른 납기로 고객위주의 생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파이프 레이저 가공기를 이용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의 구조물도 쉽게 가공할 수 있고 새로운 디자인을 가능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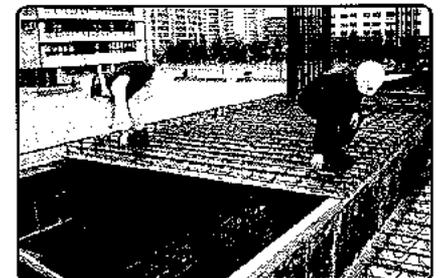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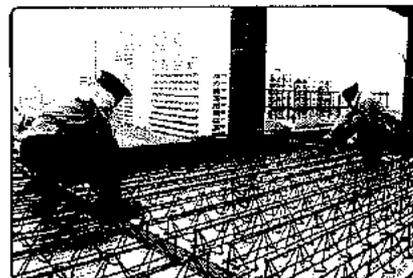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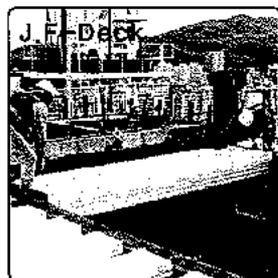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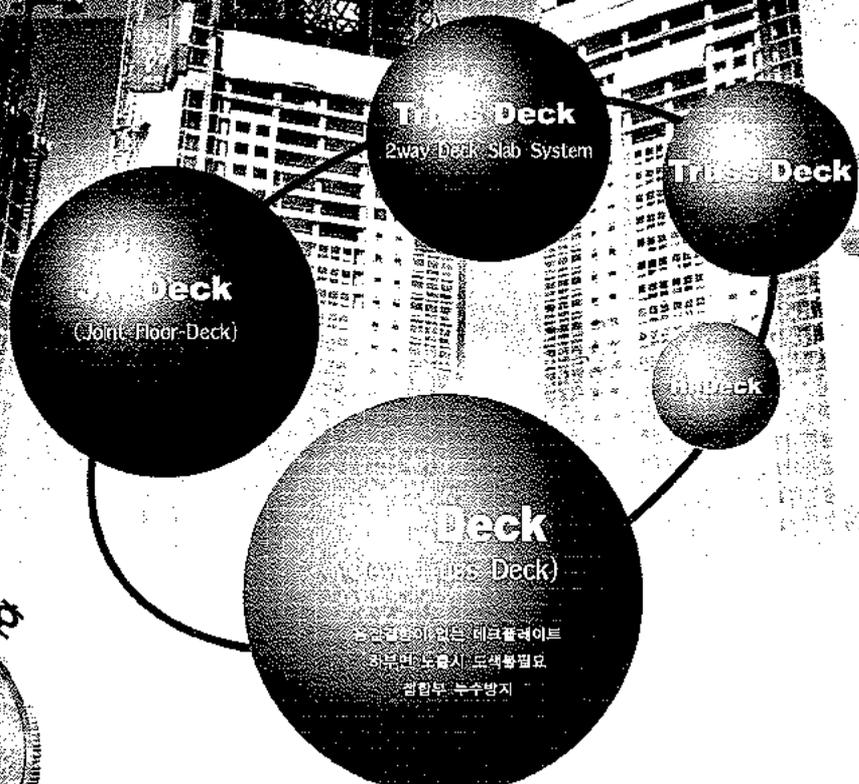


▣ 파이프 안에 판재 버팀물(지지물)을 서로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파이프 안에 파이프를 삼입 연결할 수 있어 내구성을 높여 줍니다.



▣ 용접위치를 표시해 줌으로써 준비과정을 간단히 할 수 있을뿐 아니라 용접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과 비용의 절감을 가져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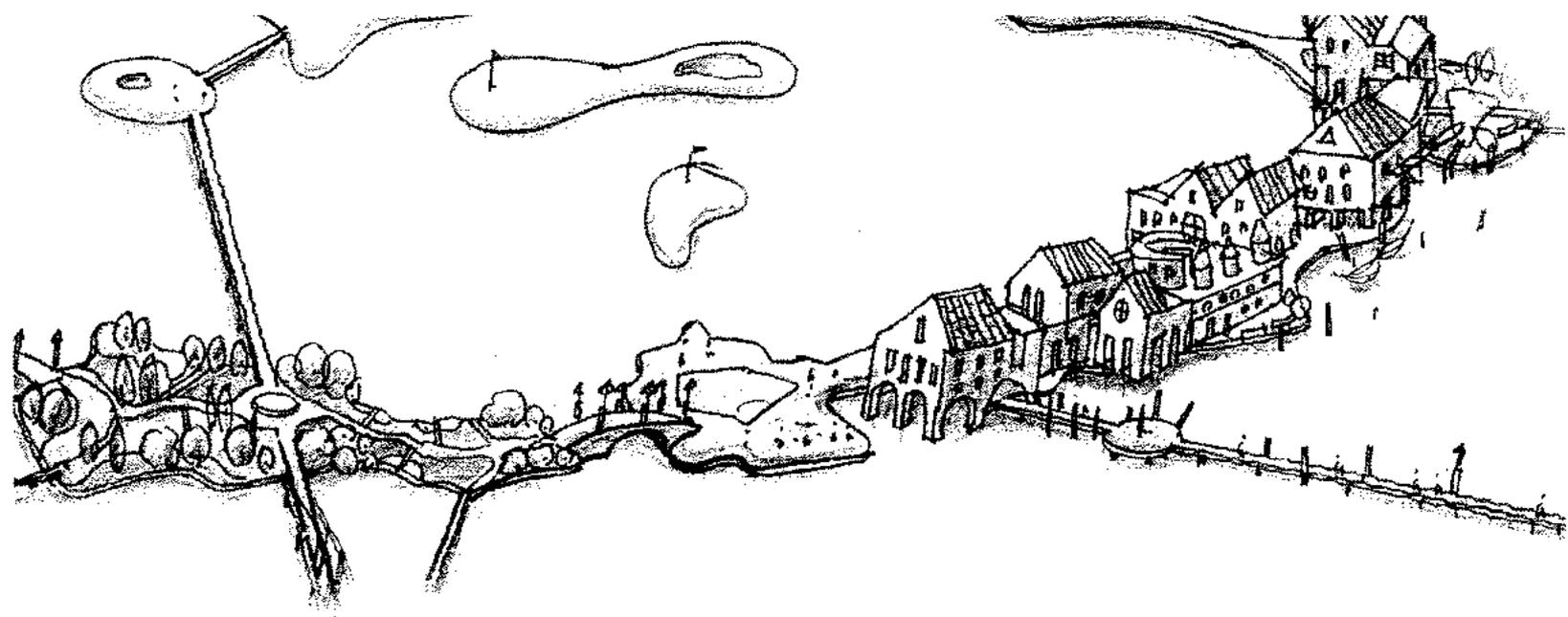
- 조달청 우수제품 인정서 취득
(제 2005-153호)
- 산자부기표원 EM MARK 취득
(2005-046호)
- 대한건축학회인증
- 한국구조기술사회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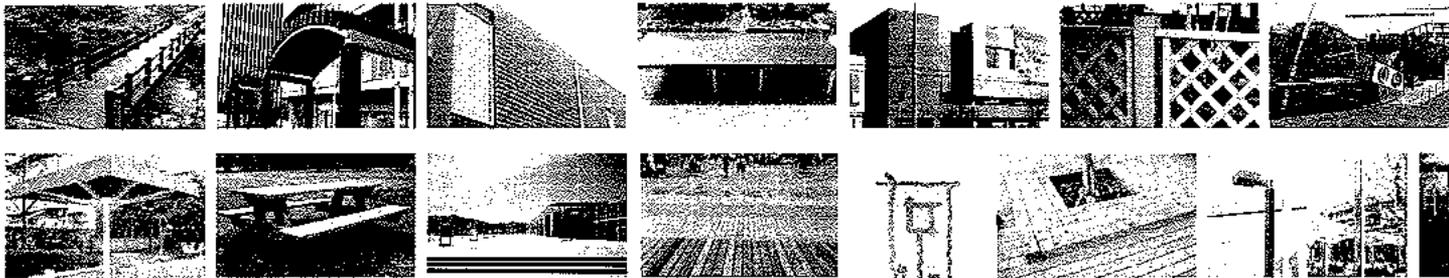
<http://www.jeil21c.co.kr>

본사 _____
경북 포항시 남구 장흥동 1850번지 (철강공단 2단지)
TEL : (054)278-2841(代) / FAX : (054)278-2917

서울 사무소 _____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2-6 남도빌딩 5F
TEL : (02)555-2055(代) / FAX : (02)554-14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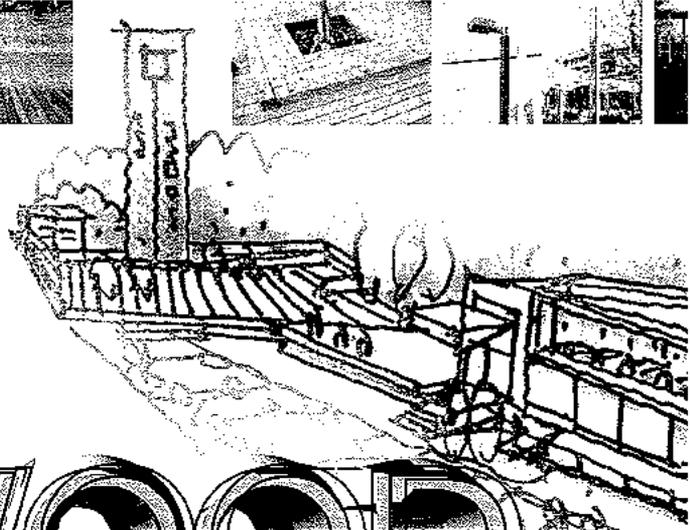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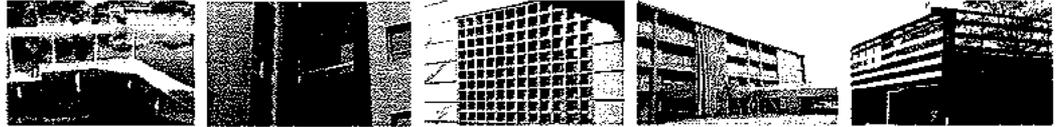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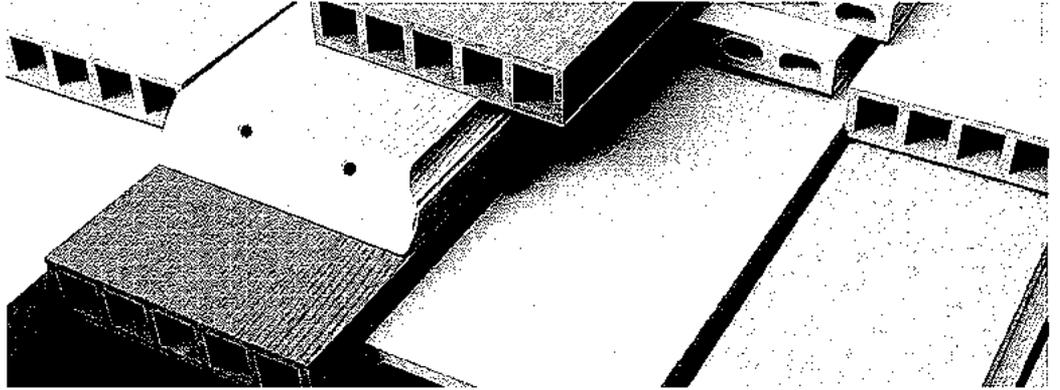
[이우드 파크!
천연목 느낌이 어느 곳에서도 돋보입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이 만드는 첨단 소재과학

E-WOOD





21세기는 나무를 공장에서 만듭니다.

E-Wood™는 플라스틱과 나무 섬유가 견고하게 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얇은 플라스틱 막이 형성되어 물과 벌레들로부터 나무를 보호하고, 나무섬유 부분이 천연목의 질감을 그대로 살려줍니다.

E-Wood™는 나무와 똑 같은 무늬, 촉감 그리고 나무의 향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또한 유해균 서식이 불가능하고, 뛰어난 방수 효과로 제품이 썩지 않으며 부서지거나 쉽게 변형되지 않습니다.

E-WOOD™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114 골든벨3차 515호

Tel : 02-456-3252, Fax : 02-456-3251

<http://www.e-wood.co.kr>

▶ 수도권 총판

(주)청산조경 / (주)에코그린

135-854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16번지 정석 B/D 2층

Tel. 577-8895(내) Fax. 578-2876

▶ 호남 총판

(주)에이치엠건설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동 무원스타운 105동 201호

Tel. 062-610-5177 Fax. 062-610-5904

▶ 영남 총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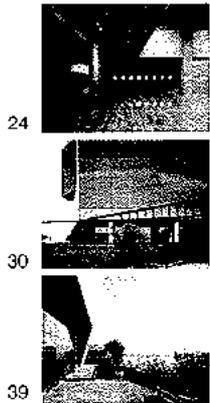
아이비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2동 472-5

Tel. 052-249-7385 Fax. 052-900-7385



Contents



24

30

39

건축사 korean archit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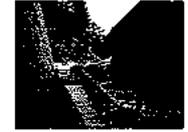
차례 2006 07 447호

칼럼	신문의 죽음은 회원에게 일어났다 - 건축문화신문의 창간을 준비하며	장강순	14
시론	현재의 내 모습이 미래 내 모습을 형성하는 밀그림	강성이	16
건축리뷰		유원재	19
회원작품	탄탄스튜디오하우스	방철민	20
	대한예수교 장로회 송인교회	이충기	28
	삼성경제호텔	한종률	36
	배재학원	김진한	42
	미동산 생태관	김성민 · 홍사원	48
설계경기	서초장애인 정보문화센터		54
	경상북도 학생종합문화회관		62
기획연재	서구건축문화의 역사(통로·원조프로그램) 한국건축계 재편	안창모	69
기고	평양 안과병원 설계 · 김리후기(上)	한규봉	78
	한국전통건축의 좋은느낌, 사진전을 열며	김석환	85
건축마당	협화소식		88
	건축계소식		95
	건축인터넷정보		98
	법령		102
	동계		116
	건축사시험합격자공고		119
	해외잡지동향		121
	지재정보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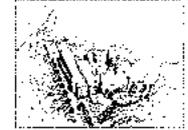
발행인 이찬호
 편집위원 장양순, 양태권, 유원재, 박호기, 이관직, 이종훈, 신호근
 취재·편집 최리침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521-6 동아타워빌딩 2층
 우편번호 137-857
 전화 대표 (02)561-5711-4
 팩시밀리 (02)566-8823
 인터넷 http://www.dka.or.kr
 인쇄점 정문사문화(주)
 광고부호 0000000000



45



51



55

Column

Membership is most critical - preparing for the launch of 'Architectural Culture Paper'

Chang Yang-soon 14

Focus

What I am ; A draft to form what I will be Kang Seong-ik 16

Cartoon

Yoo Won-jai 19

Works

TanTan Story House Bang Chul-rin 20

SOONGIN Church Lee Chung-kee 28

Samsung Geosje Hotel Jang-R. Han 36

Bae jae Academy Kim Jin-han 42

Midongsan Arboretum Eco-Hall Kim Sung-min · Hong Sa-won 48

Competition

Seochu disabled culture center 54

Cyeongsangbuk-do Multiculture Center for Students 62

Serial

Foreign Aid Program and Restructuring of Korean Architectural Field
in Postwar Restoration Period Ahn Chang-mo 69

Feature

Alternote on design & Supervision for Pyongyang Ophthalmology hospital
Han Kyu-bong 78

Holding a Photo exhibition of 'Favorable Impression o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Kim Saek-hwan 85

Architects' Plaza

Kira News 88

Archi-Net 95

Archi.w.w.w 98

laws & ordinances 102

Statistics 116

Overseas Journal 121

Product Information 127

Korean Architects

Vol. 447

July 2006

Publisher Lee Chul-ho
 Assistant Editor Chang Yang-soon, Yang Hae-yun, Yoo Won-jai, Park Ho-gyun,
 Lee Kwan-jick, Lee Jong-houn, Shin Ho-guen
 Editor Choi Rak-chung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321-6 Seochu-2dong, Seochu-gu, Seoul, Korea
 Zip Code 137-657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신문의 死活은 회원에게 달렸다

- 『건축문화신문』의 창간을 준비하며

Membership is most critical

- preparing for the launch of 『Architectural Culture Paper』

경제와 부동산 등 물리적 지표를 지향하는 건설신문은 있으나 예술과 문화로써 건축을 논하는 신문이 없는 국내 현실에서, 건축문화신문은 정부와 국민에게 건축을 문화예술로 바르게 인식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며, 범 건축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독자에게 국내외 최신정보를 전달하여 아름다운 창작의 밑거름이 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세계의 건축문화 향상에 이바지 한다.

위의 글은 본 협회에서 9월에 창간할 건축문화신문의 목적을 담은 것이다. 또한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1. 건축문화 발전과 정부 및 국민의 건축문화 함양.
2. 범 건축계의 유일한 정론지로서 역할 담당.
3. 건축사 업무활동을 위한 전문적 지식의 보급.
4. 올바른 건축정책 구현을 위한 여론 수렴 및 대안 제시.
5. 건축사 및 협회의 이미지 제고.
6. 웹진 및 건축방송과 결합한 24시간 쌍방향 신문 지향.
7. 독자층의 다변화.

그간의 준비과정을 돌아켜 보면 제호의 결정, 목적과 목표의 설정, 자문위원, 논설위원, 편집위원의 선임, 건축사기자의 모집, 창간호의 준비, 광고대상 선정 및 문안작성, 각 면의 편집내용 작성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작업을 해왔다. 이중 위원의 선임 외에는 가능한 한 독자 회원과 같이 하기 위해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그 호응도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제호공모에서는 소정의 현상금도 걸었으나 다섯분만이 참여하였다.

주관자로서는 최소한 수십명이 참여하리라 추정하였고 그 결과 동일한 제호가 많은 것이 당선작이 되고, 수상은 그 중에 제비뽑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건축사기자 모집에서도 나타났다. 각 시·도주재 기자는 시·도회에 위임한 결과 두분씩 모두 선임이 되었으나 자율적으로 공모한 기자 모집에는 지방회원 세분만 응모하고, 정작 가장 많이 뛰어야 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는 단 한분도 자원이 없었다. 결국 동분서주하여 20여분의 건축사를 기자로 모시기로 하였기에 한숨을 돌리기는 하였으나 기자연수 등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형편이다.

신문은 건축사의 권익신장과 건축문화 발전을 위해 필수적
독자의 적극적으로 참여만이 신문을 활성화, 영속화 할 수 있어
원고모집 요강에 따라 자신 있는 부문에 스스로 참여하자

인재의 구성과 더불어 난제로 봉착한 것이 광고의 수주이다. 대개 당년도 광고예산은 그 전에 작성되는 관제로 4/4분기를 앞둔 현실에서 광고의 수주는 지난하기 그지없는 현실이다. 지금은 내년도 광고수주를 위해 뛰어야 할 시기이다. 더구나 어려움은 광고전담 직원의 부재이다. 기존의 홍보편찬팀 3명으로 그간 해오던 일 외에 신문을 만들고 광고까지 수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전담직원의 부족이 어려움이다.

8년 전 건축사신문의 창간을 위해 전직 일간지 기자를 채용하여 시험호까지 제작하였는바, 주간 신문을 만들기 위한 최소 인원이 6명이었다. 따라서 6명의 인건비를 감당할 경우 수지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본 건축문화신문은 목표와 목적에서 보듯이 급하게는 우리의 처한 현실을 돌파하기 위한 도구로서 멀리는 미래 후배들에게 좋은 토양을 물려주고 이 나라 건축문화의 창성을 위하여 발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년 후에는 협회의 보조 없이 재정적 독립도 해야 하는 명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인건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집국장을 회원으로 보하여 최소한의 파트타임 인건비만을 지급하고 그 외에는 소정의 원고료만을 지급하는 건축사 기자제도를 활용하려 한다.

신문의 지면구성을 살펴보면 뉴스와 사실, 평론 그리고 해외건축작품, 신기술 등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회원을 비롯한 독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도시경관이나 건물 간판에서 도로나 화장실 등 실내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것은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추한 것은 고쳐 반복하지 않기 위해 독자 사진으로 게재하고, 건축주나 시공자 등에게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겪은 기막힌 사연들과 도면으로 표현할 수 없는 뒷이야기를 정리한 설계야화, 학창시절의 은사부터 건축사보 시절의 소장 건축사 또는 친지 등 잊지 못할 분들에 대한 단상, 삶을 바꾸게 한 애독서, 현실문제에 접근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오피니언, 일상의 일에서 잠시 벗어나 삶을 관조하면서 쓰는 수상록, 작품의 계획부터 완공까지 스케치와 글로 기록하는 작품노트, 자신의 작품을 게재하는 금주의 작품, 독자만평과 독자문단, 그 밖에도 나의 집 공개, 나의 컬렉션, 나만의 특별한 취미 등 지면의 70% 이상이 독자들의 참여로 꾸며진다. 이러한 독자나 시청자 참여가 많아지는 현상은 경제적인 면 외에도 최근 매스 미디어의 공통된 현상이기도 하다.

이제 한 달 후면 태어날 신문은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의 참여로 지면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만 된다면 앞서 기술한 자원인력 부족, 광고 부족, 전담인력 부족은 헤쳐 나갈 수 있다. 본 신문이 모든 건축인은 물론 국민과 정부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회원들의 참여에 달렸다. 지금 원고 모집 요강이 본지에 실렸다. 또한 기자들은 인터뷰를 요청하고 원고청탁도 할 것이다.

교회의 찬다운 신도는 10의1조를 준행한다. 이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도 할애하는 것이다. 불도들의 보시 등 다른 종교도 이와 유사한 가르침이 있다. 내가 가입한, 나를 위한 단체라는 이기심이 아니라 같은 길을 걸어가는 동지들과 서로를 나누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전 회원이 3년에 하루, 1,000의1조만 시간을 할애해도 월 25건의 원고가 생산되어 풍성하고 사랑받는 신문이 될 것이다. 재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

현재의 내 모습이 미래 내 모습을 형성하는 밑그림

What I am ; A draft to form what I will be

지루한 장마와 더위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7월이다. 기운을 내고 마음을 활기분하게 가져보려 해도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다. 아무 리 주변 환경에 끌려 다니지 않고 소신껏 살아보려고 해도 쉽지 않으니 아무래도 심신이 많이 약해졌나 보다. 이런 나 자신을 추스르며 차 분하게 생각에 빠져본다.

“산은 날보고 산간이 살라 하고, 물은 날보고 말없이 살라 한다.”는 말을 늘 마음에 담아두고 사는 내가 노사문제로 지쳐있던 서울시건 축사회를 정상적으로 돌려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선 것이 벌써 2달 전이다. 나를 아끼시는 선배들의 만류와 조언을 뒤로 하고 감히 이 자리에 나서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고민이 있었다. 그분들의 염려대로 취임 이후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 고 있다.

주지하는 대로 지금의 우리 협회 사정은 그리 좋지 않다. 건축경기는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가고, 국제시장 개방에 따라 외국의 유명 설계자들이 물밀듯 쏟아져 들어오는가 하면 날로 감소하는 국내 설계 물량을 무시한 당국의 건축사 배출 계획은 우리 회원들의 위기 의식을 더욱 절실하게 만든다.

게다가 건축사 자격의 운영도 국제적 시대의 흐름에 따라 다각도로 변화되고 있다. APEC 건축사회원국간의 상호자격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오는 9월부터는 희망자에 따라 APEC건축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2007년 2월부터 APEC건축사 자격인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건축사 등록원'을 신설하여 건축사의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건축사 등록원 제도의 운영에 대한 내용을 건설교통부와 그 외 유관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창립 40년 이래 최대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 곧 있으면 '건축사등록원협회', 'APEC건축사협회'가 새롭게 탄생할지 도 모를 일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 회원들은 2중, 3중의 경비성 회비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우리 협회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건축사자격 국제 인증제도의 시행에 맞춰 우리 건축사회 회원들도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를 해야 할 중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지금 건축계는 그야말로 대대적인 지각 변동의 몸살을 앓고 있다. 건축에 몸담은 지 어느새 30여 년이나 되었지만 일찍이 이러한 변화 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큼 낯설고 놀라운 변화가 시시각각 조여들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 협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미래, 한국 건축의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오히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 아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안타까운 상황이다.

건축을 하나의 종합예술로 보지 않고 한낱 기술로만 치부하고, 건축사를 미를 창조하는 예술인인 동시에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영

인으로 보기 보다는 단순한 기술자로만 보려 하는 우리 사회의 인식은 이미 상식이 되어 버린 지 오래다. 건축을 문화로 뿌리내리게 하려는 것은 우리의 구호일 뿐이고,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현실이다.

지난 3월2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건축문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대한건축사협회 주최로 열렸다. 신축·중축·개축·재축의 개념을 넘어서서 건축을 하나의 당당한 문화요, 예술로 자리매김하게 하려는 업계의 결박한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나는 본다.

건축사 보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이 사회 인지도 면에서 앞서있고, 건축사라기보다는 건축가라고 불리어지기를 선호하는 우리 건축사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한 이러한 토론회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삼삼오오 갈라졌던 우리 건축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하나 분산된 능력을 한 군데로 결집하여 우리 건축사들의 지력을 보여야 한다. "건축은 문화다, 건축사는 사회 문화의 리더다"는 이제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것을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현실을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그 뒤에는 사랑하는 우리 후배들에게 자신있게 물려주어야 한다.

어려서부터 그림을 좋아하는 나는, 현재의 내 모습이 미래의 내 모습을 형성하는 밑그림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새기곤 한다. 혼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뜻난 약자만이 하는 일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공통된 숙제가 있다.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함께 중지를 모으고 마음을 합해야 할 때다. 그것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강하다!
우리는 위대하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답답한 마음에 이래저래 말이 길어졌다. 나 자신과 건축사와 협회를 생각하고 있자니 민감이 떠올라 그리 된 것 같다. 이 글을 읽으시는 회원님들 한분 한분도 다 같은 심정이시리라 생각한다.

우리가 더 나은 내일을 꿈꾸려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현주소를 냉정히 진단한 다음 정확한 처방전을 가지고 최상의 치료계를 써야 한다. 병을 두려워하면 병을 고칠 수 없듯이 우리는 우리를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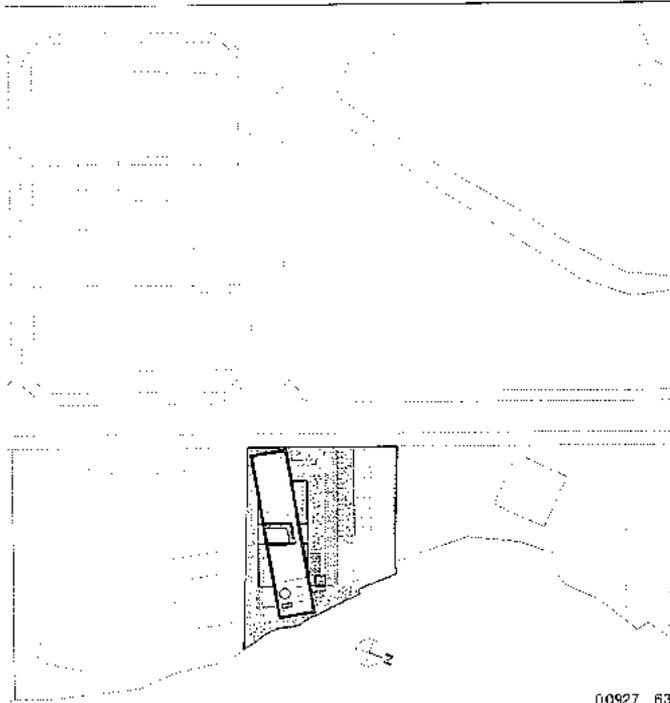
이번 여름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

탄탄스토리하우스

TanTan Story House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519-1
지역/지구 준공업지역
주요용도 전시장, 공연장
대지면적 1,629.0㎡
건축면적 581.5㎡
연면적 1,679.1㎡
조경면적 374.0㎡
건폐율 35.7%
용적율 60.0%
규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ZINC판, 노출콘크리트, 후동석잔다듬, THK18복층유리
설계담당 박운정, 박재성, 김윤경, 유정환
구조설계 신기술알트구조진단연구원
설비설계 기한엔지니어링
전기설계 동호기술단
인테리어 칸 종합건축사사무소(주)
시공 삼공종합건설
건축주 (주)한국가드너
설계기간 2004년 10월 ~ 2005년 3월
공사기간 2005년 4월 ~ 2006년 5월
사진 채수옥

0.0927 6.3m



Location 519-1, Muntbal-ri, Gyoha-eup, Paju-si, Gyeonggi-do, Korea
Site area 1,629.0㎡
Bldg area 581.5㎡
Gross floor area 1,679.1㎡
Bldg. coverage ratio 35.7%
Gross floor ratio 60.0%
Structure SRC
Bldg. Scale B1, F4
Design period 2004, 10 ~ 2005, 03
Construction period 2005, 04 ~ 2006, 05

탄탄스토리하우스는 심학산 가까이 파주출판도시 경계에 접하여 위치해 있다. 파주출판도시 내 6책티에 속해 있는 데지는 아시아출판문화센터와 길 하나를 두고 접해 있으며 동쪽으로는 심학산 방향으로, 서쪽으로는 출판도시의 주 도로방향으로 열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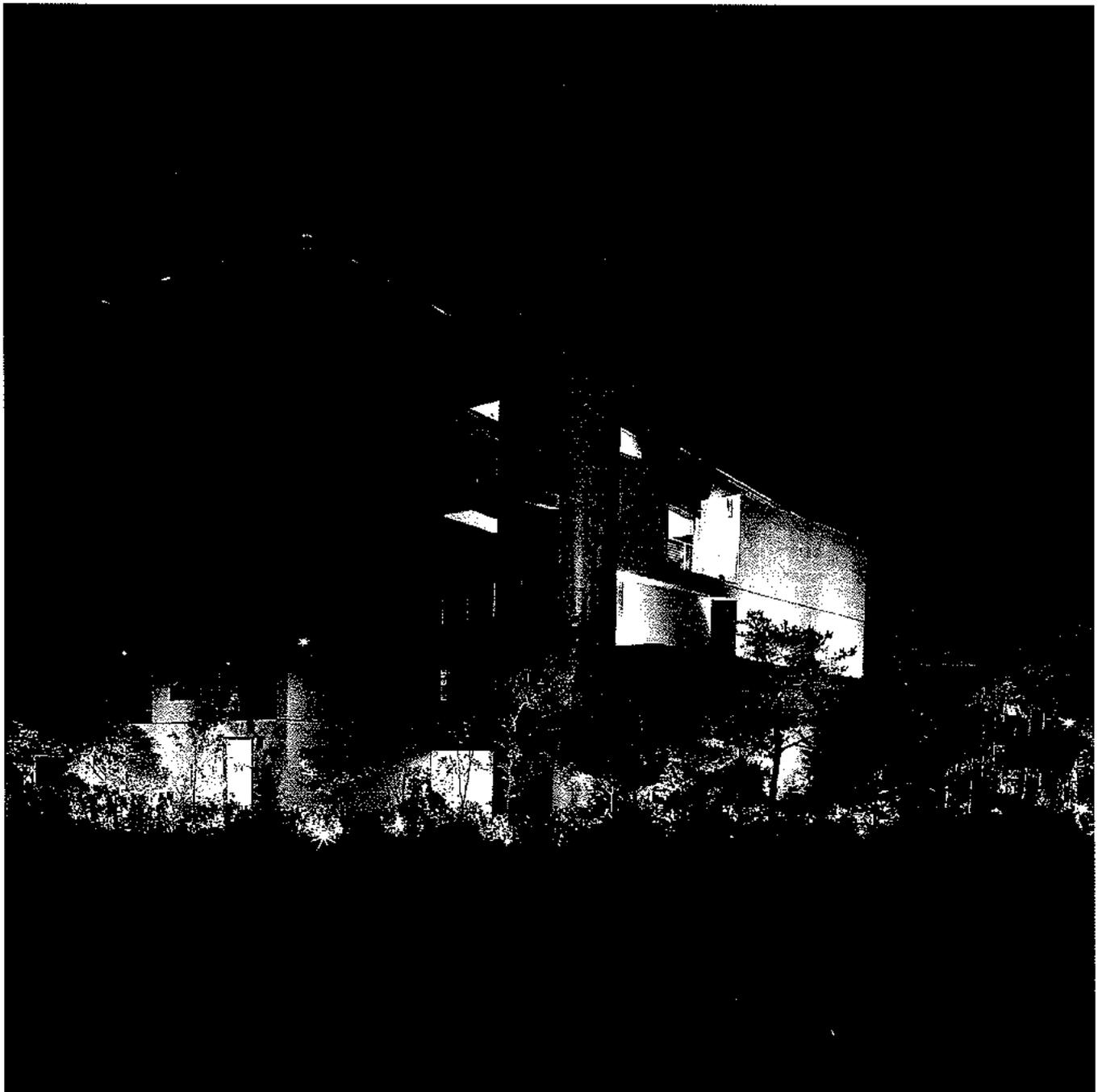
1, 2층의 공연장과 3, 4층의 전시장에서 어린이들은 한국가드너에서 출판한 동화책들의 삽화를 보고 들려주는 구연동화를 경험하며 실감나는 동화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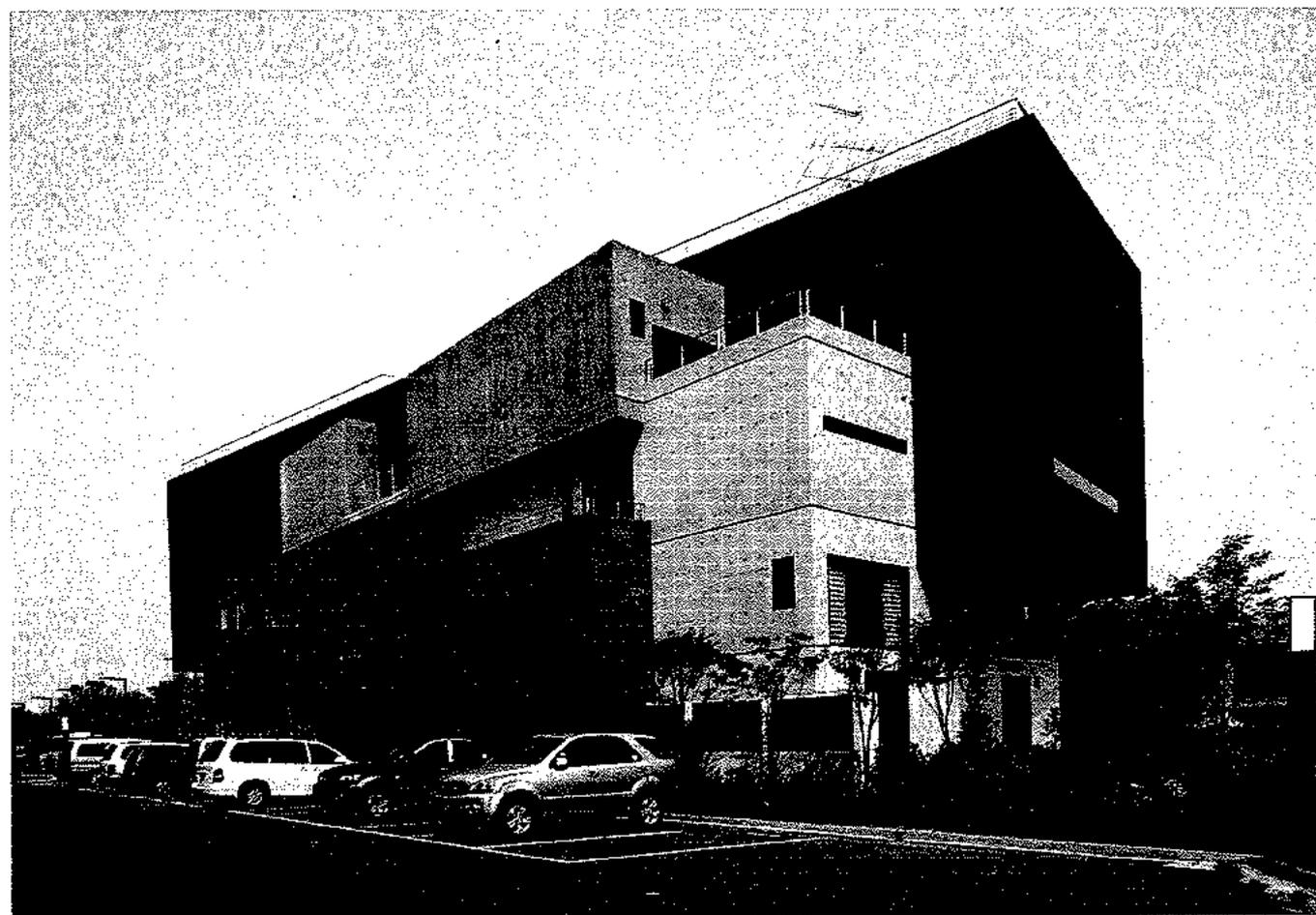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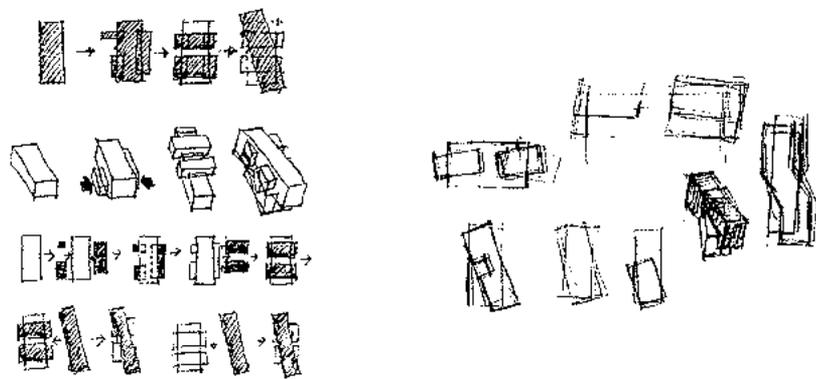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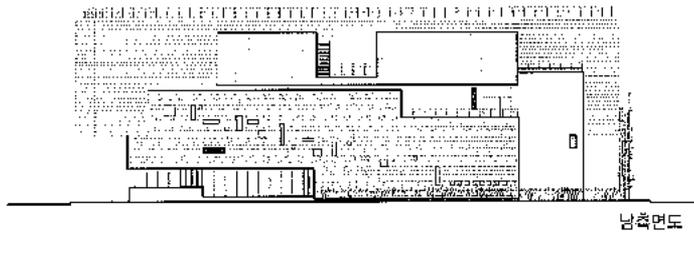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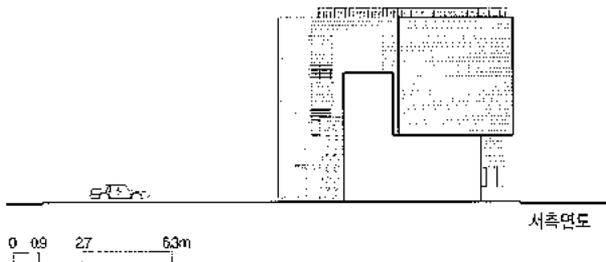
초고속 인터넷과 게임에 노출된 현대사회의 어린이들은 사람보다 컴퓨터와 더 친해지게 되어 다른 어린이들과 서로 스쳐 지나가도 이들에게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곳 탄탄스토리하우스에 온 어린이들은 '서로를 만나 교류하고', '누군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감상하면서' 그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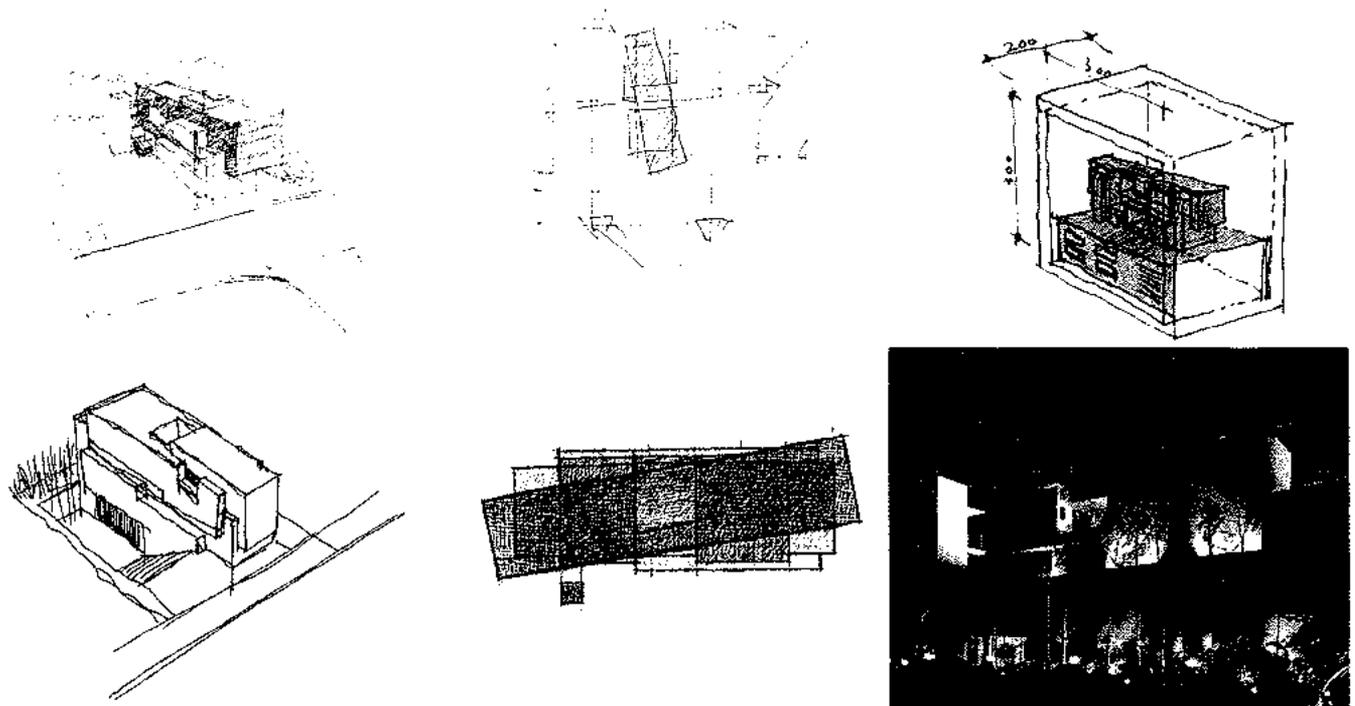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감성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본다.

마스터플랜상 지정된 건축물 유형은 거점 유형으로 비교적 형태가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장방형의 형태는 도시의 흐름에 순응하고 있지만 섬세한 각도로 틀어지고 결합된 형태의 다양성은 이곳을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 특별한 곳으로 만들어준다. ■

1. 전경
2. 심학산 풍자택터스 본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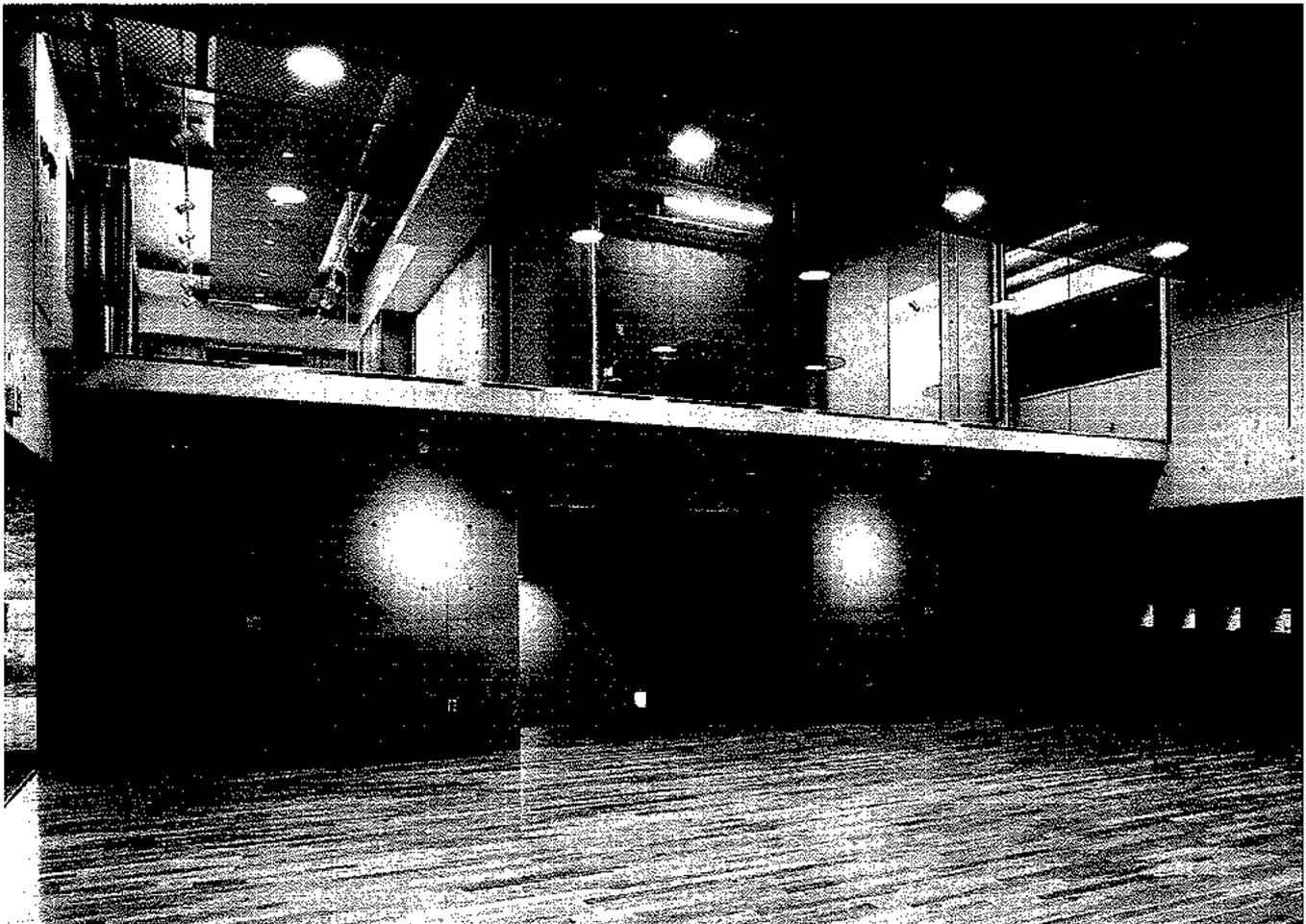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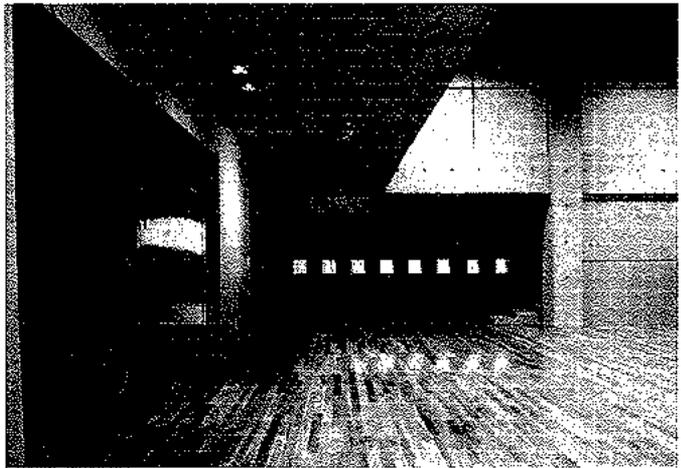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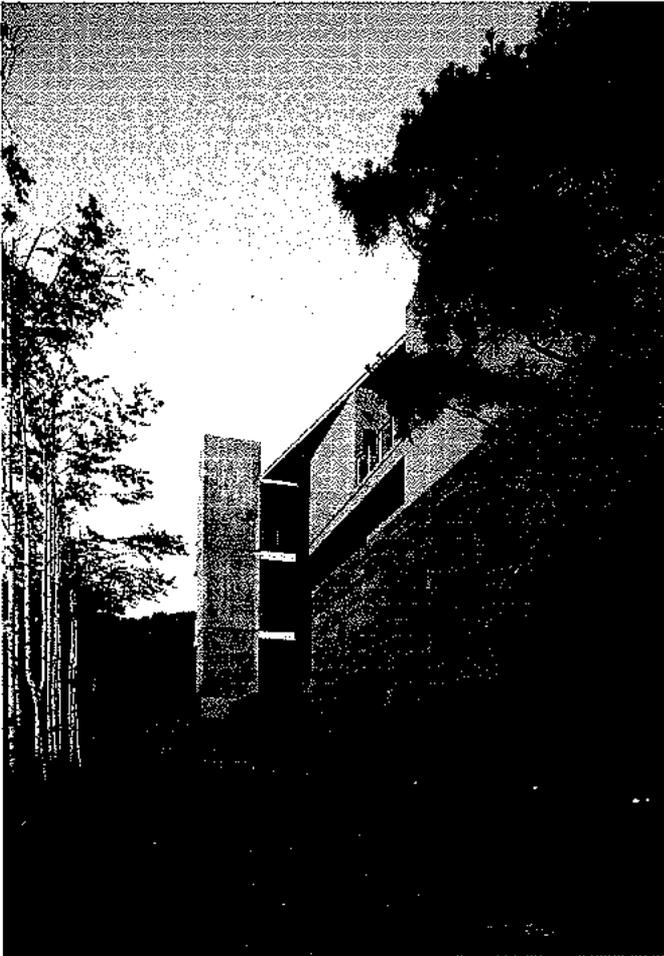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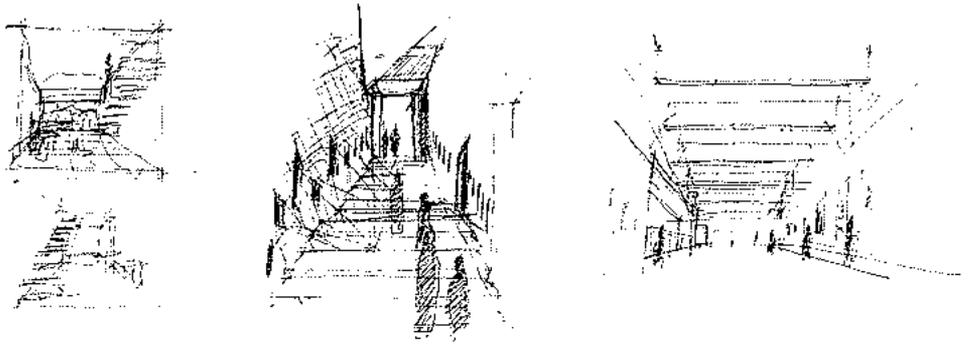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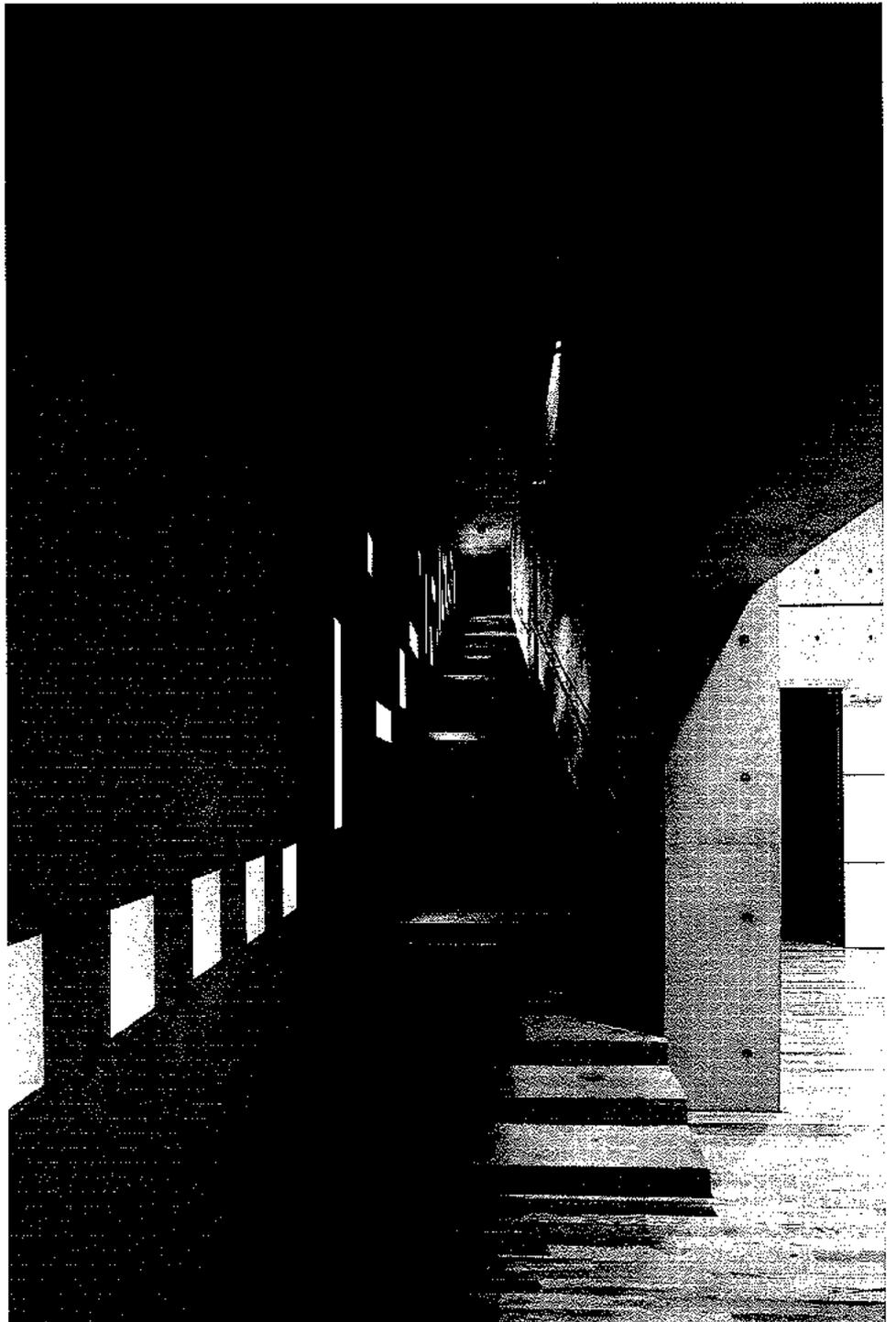
1. 광시읍 조망
2. 평면도 조성
3. 주차장에서 바라본 야경
4. 무인입구용 표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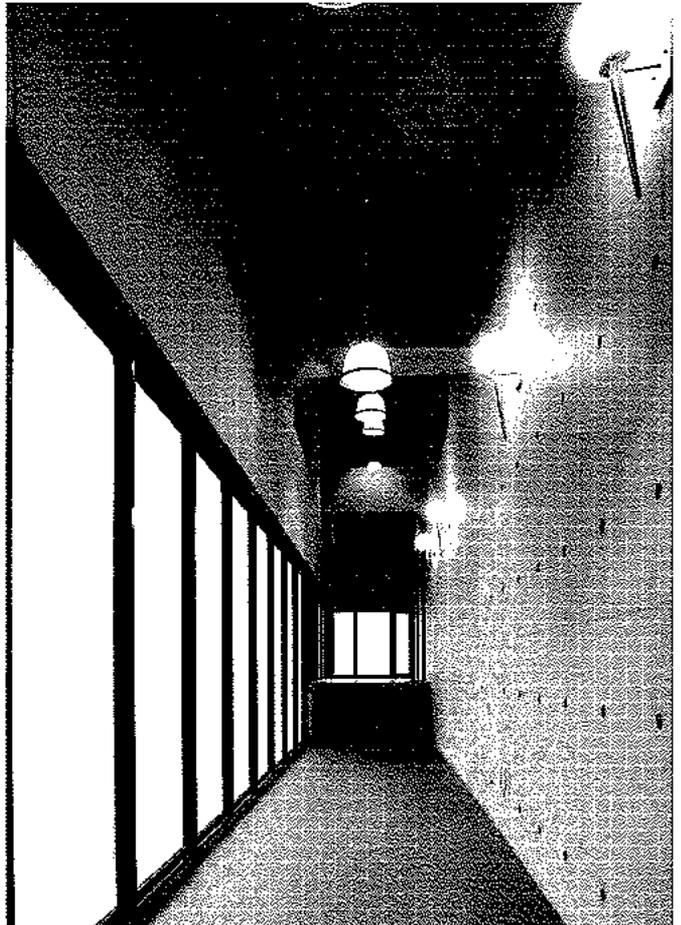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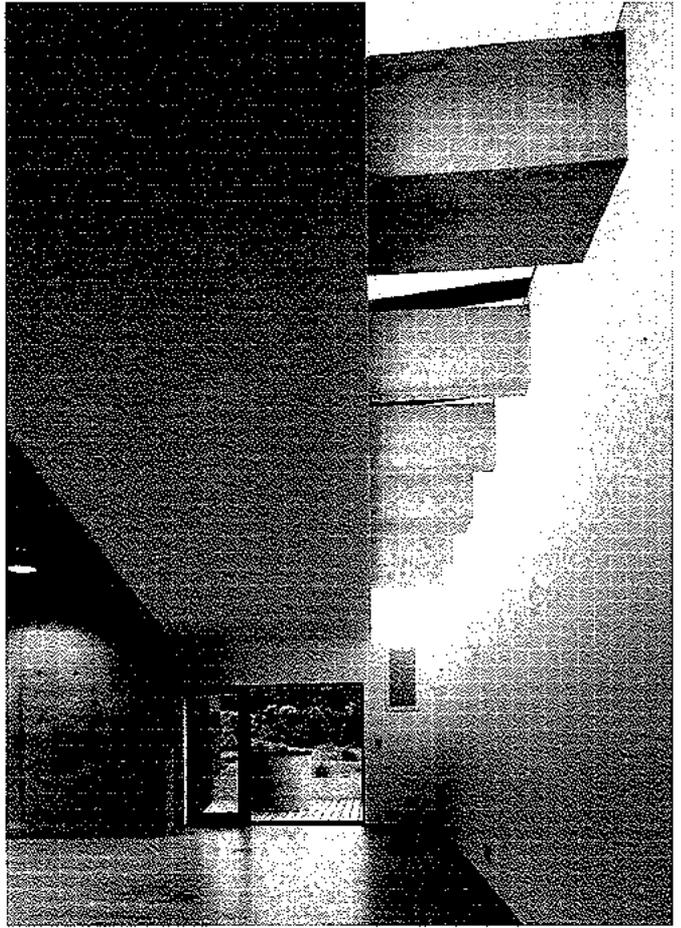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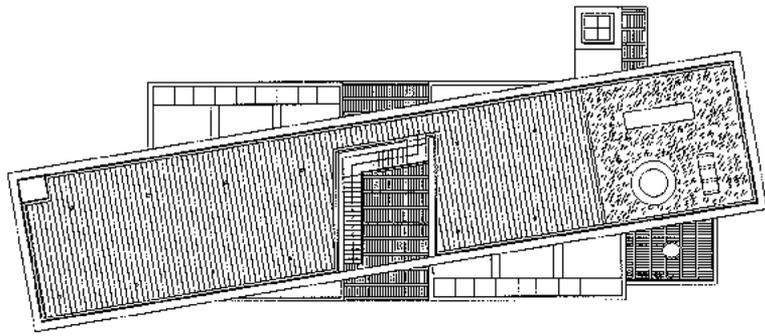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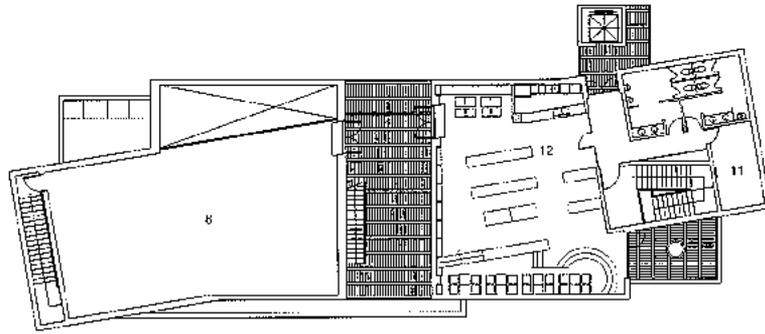
1. 주층연구로 횡단 단면도
2. 로비에서 바라본 복도, 오름계단과 창
3. 로비에서 바라본 2층 시장실과 회의실
4. 3층에서 내려다 본 오름계단
5. 전시실로 향하는 오름계단과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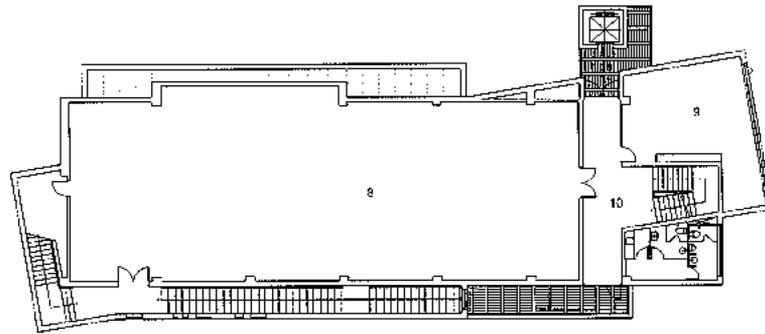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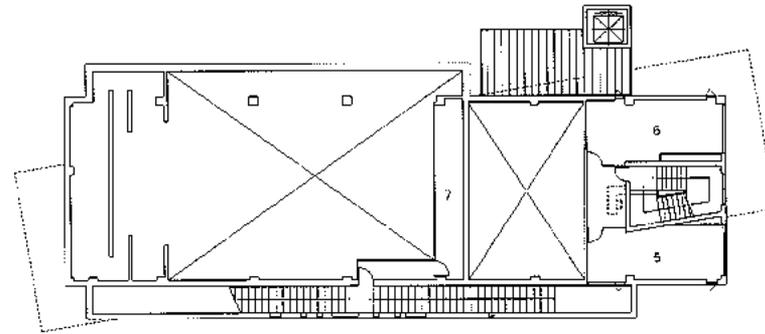
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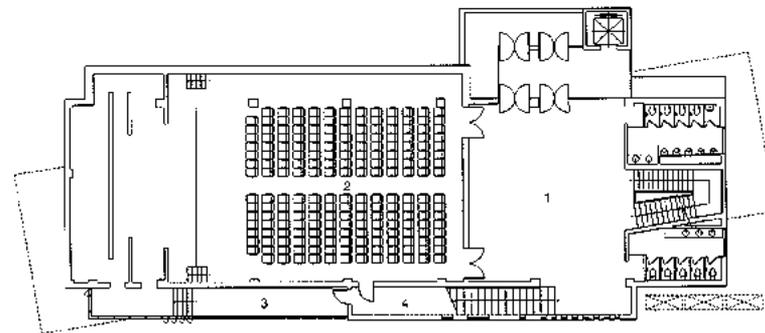
4층 평면도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 01. 로비
- 02. 중앙연습실
- 03. 공연홀
- 04. 창고
- 05. 시청각실
- 06. 회의실
- 07. 연습실
- 08. 연습실
- 09. 사무실
- 10. 복도
- 11. 창고
- 12. 복카피

- 1. 3, 4층 중시각의 트윈고 구조
- 2. 4층 복카피 천장과 디크
- 3. 지면으로 열려 조경상
- 4. 공연장 준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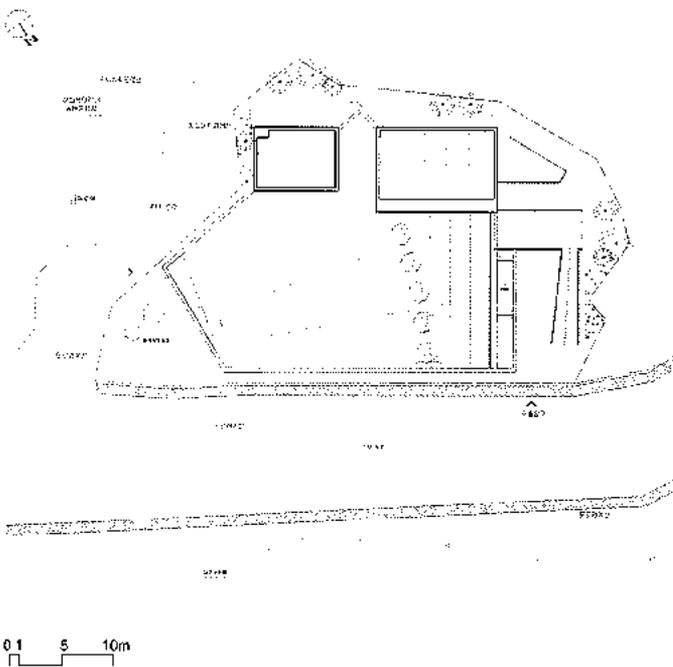
0 09 27 63m

대한예수교 장로회 승인교회

SOONGIN Church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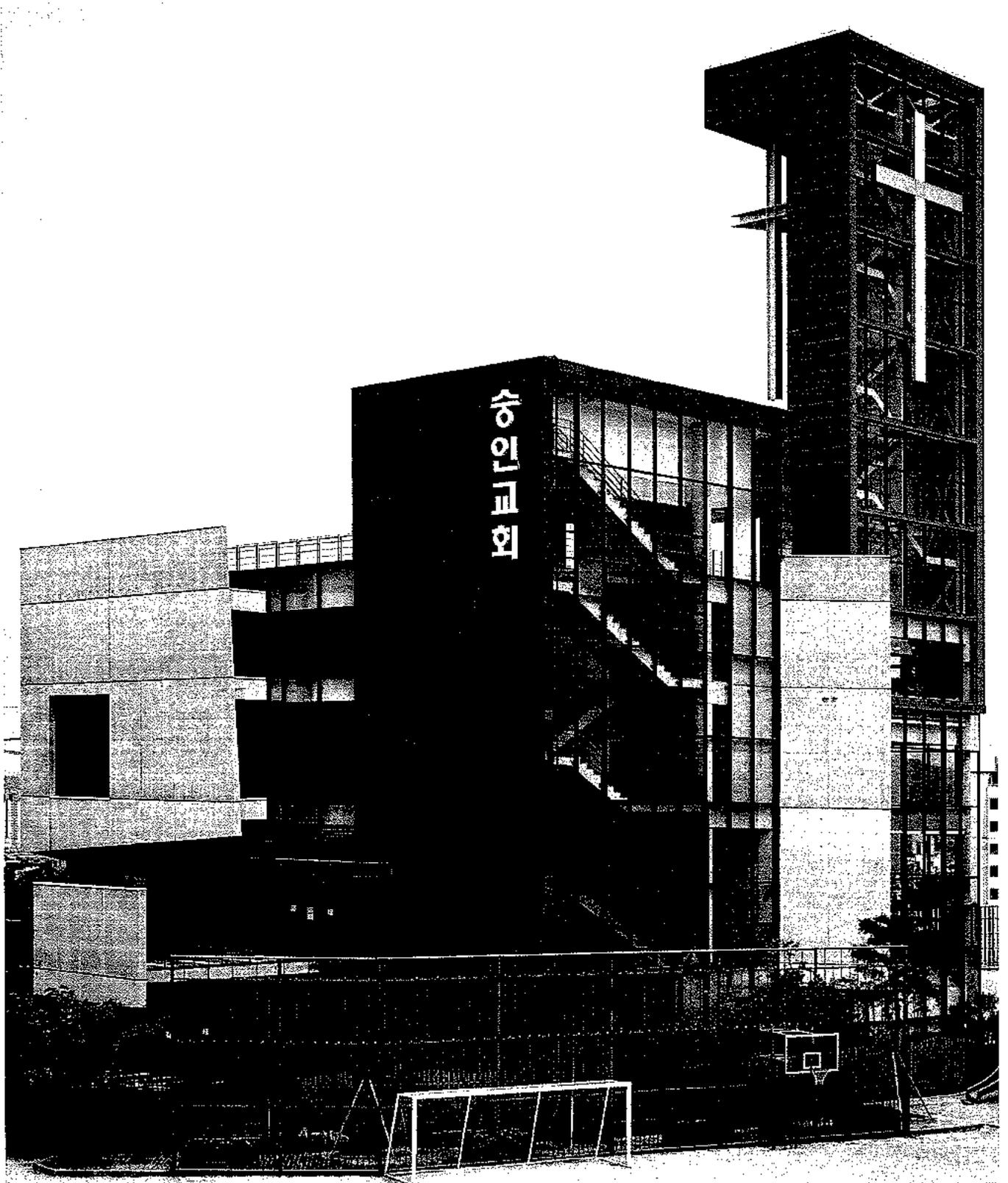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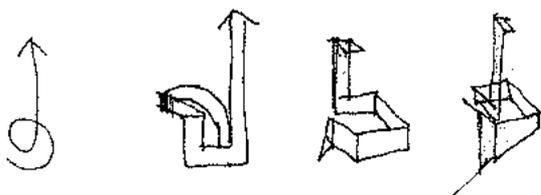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승인동 324-4, 324-28 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종교시설(교회)
대지면적	1,178.60㎡
건축면적	703.69㎡
연면적	3,457.65㎡
건폐율	59.71%
용적율	146.64%
규모	지하 2층, 지상 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트러스지붕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비닐페인트, 폴리싱타일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THK30화강석버너구이, THK0.7라인징크, THK24칼라복층유리
설계담당	정낙권, 이상복, 임은규, 송주연
감리담당	서용균
구조설계	세원구조
설비설계	(주)범창종합기술
전기설계	극동문화전기
시공	대륙건설(주)
설계기간	2004년 5월~2005년 3월
공사기간	2005년 5월~2006년 5월
사진	건축사사무소제공(촬영: 박영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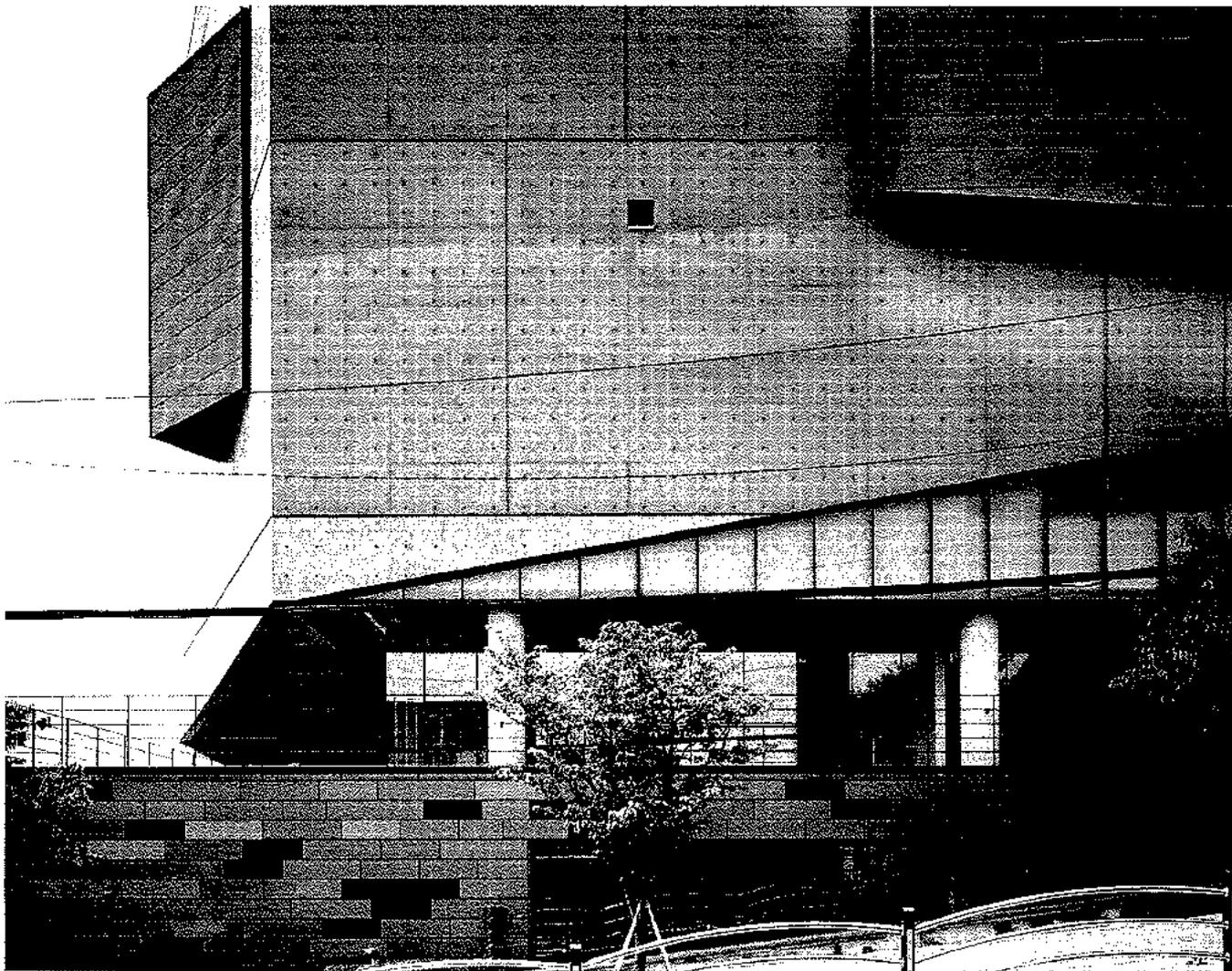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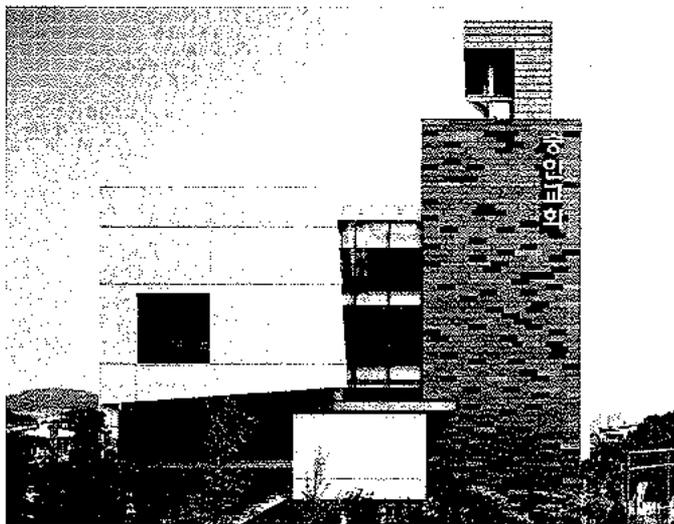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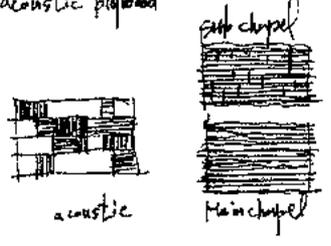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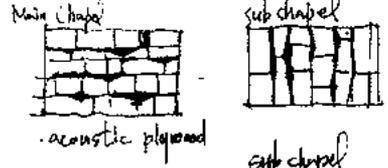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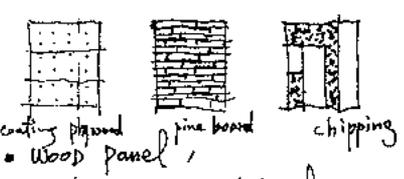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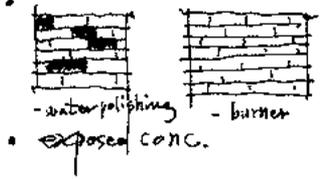
Location	324-4 - 28, Sungin-dong, Jongno-gu, Seoul, Korea
Site area	1,178.60㎡
Bldg area	703.69㎡
Gross floor area	3,457.65㎡
Bldg. coverage ratio	59.71%
Gross floor ratio	146.64%
Structure	SRC
Bldg. Scale	B2, F4
Design period	2004. 5 - 2005. 3
Construction period	2005. 5 - 2006.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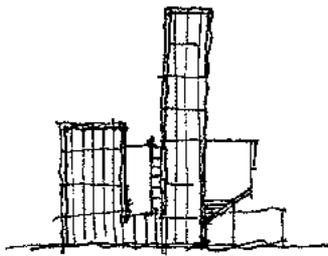
1. 남측 야경
2.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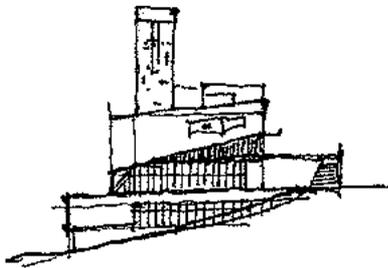


Stone c/bl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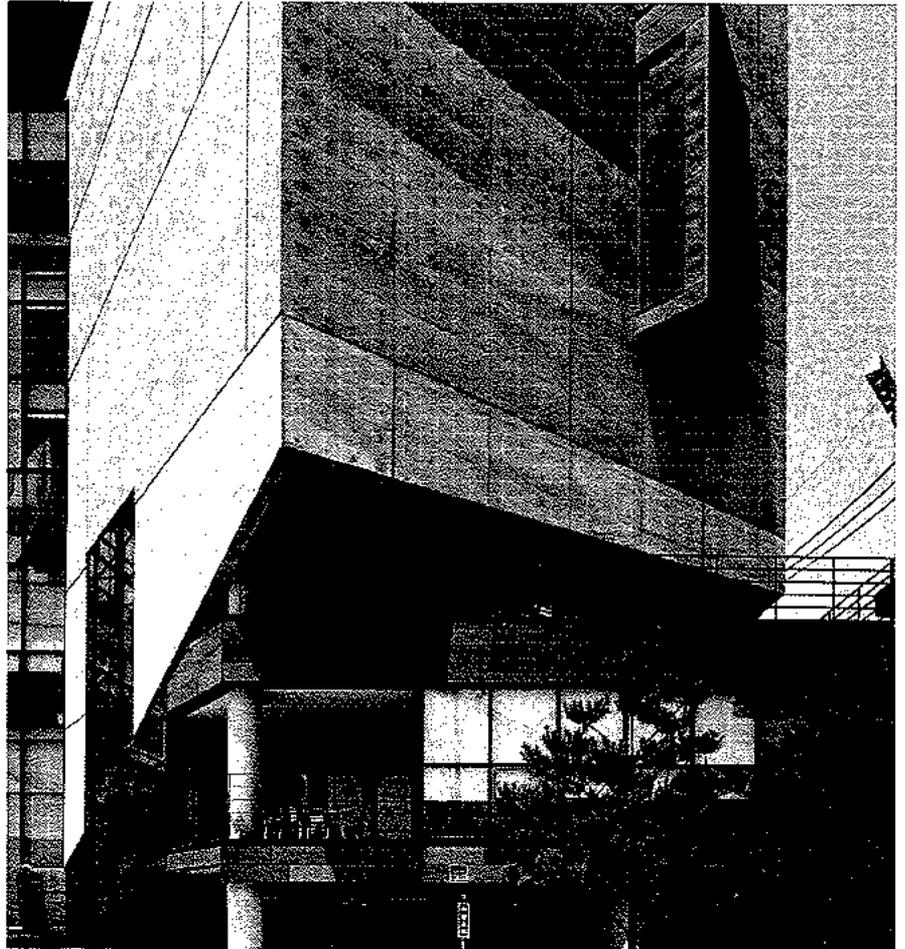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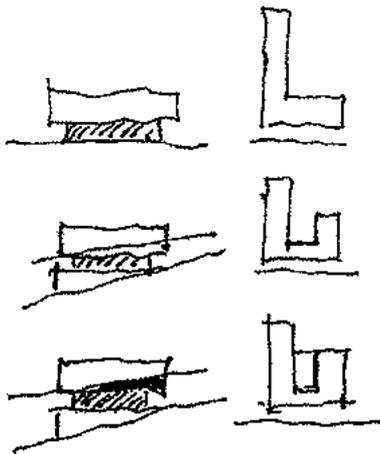




남쪽입면



동쪽입면



대지

승인교회는 장소, 모양, 높이 등 여러 면에서 아주 독특한 대지를 가지고 있다.

청계천과 종로를 교차하며 남북으로 뻗어있는 도로의 동방봉 터널 위, 창신역·동묘앞·신당동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낙산의 동쪽자락에 위치한다.

땅 모양은 이곳이 오랜 주거지였음을 나타내듯 불규칙한 선들로 이루어진 특이한 형태이며 대지레벨은 남쪽과 북쪽이 6.5m 정도 차이가 나는 경사지이다. 대지로의 진입 역시 이곳이 서울 성곽의 역사와 함께하는 오래된 동네임을 알게 하듯 창신역에서 동방봉 터널 옆 길을 따라 올라가다 S자 형태로 오른쪽 왼쪽으로 급하게 꺾여지면서 오르게 된다. 이 진입도로 주변은, 지명 현상을 통해 설계를 시작할 때만해도 오래된 산 동네의 다양한 삶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소규모 주거들이 재미있는 골목길을 구성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북쪽과 남쪽은 아파트 재개발지구로 지정되어 교회가 완공될 시기를 전후하여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에 있었다. 따라서 대지

레벨이나 땅모양을 극복하는 것이 주된 해결과제였을 뿐 아담하게 자리했던 기존교회와 주변 동네의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에 대한 고민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면 새로 지어질 교회의 높이는 아파트 숲에 묻혀 버릴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설계와 시공과정에 현장을 다니면서 크게 아쉬웠던 부분은 이른바 강북 뉴타운이란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땅이 가지고 있는 역사나 환경을 무참히 파괴하고 거대한 아파트 숲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개발을 해야 된다면 강남의 아파트단지와는 다른 강북의 아파트 특히 서울 성곽자락에 접한 오래된 동네인 이곳만이라도 아파트 대신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어우러진 동네로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떨칠 수 없었다. 이제 대지는 건물형태로 남았지만 기존의 골목과 주변경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곳에 아파트 동 사이에서 교회만이 외롭게 서있게 되었다.

1. 건축 전경
2. 북쪽부단입면
3. 북동쪽 부단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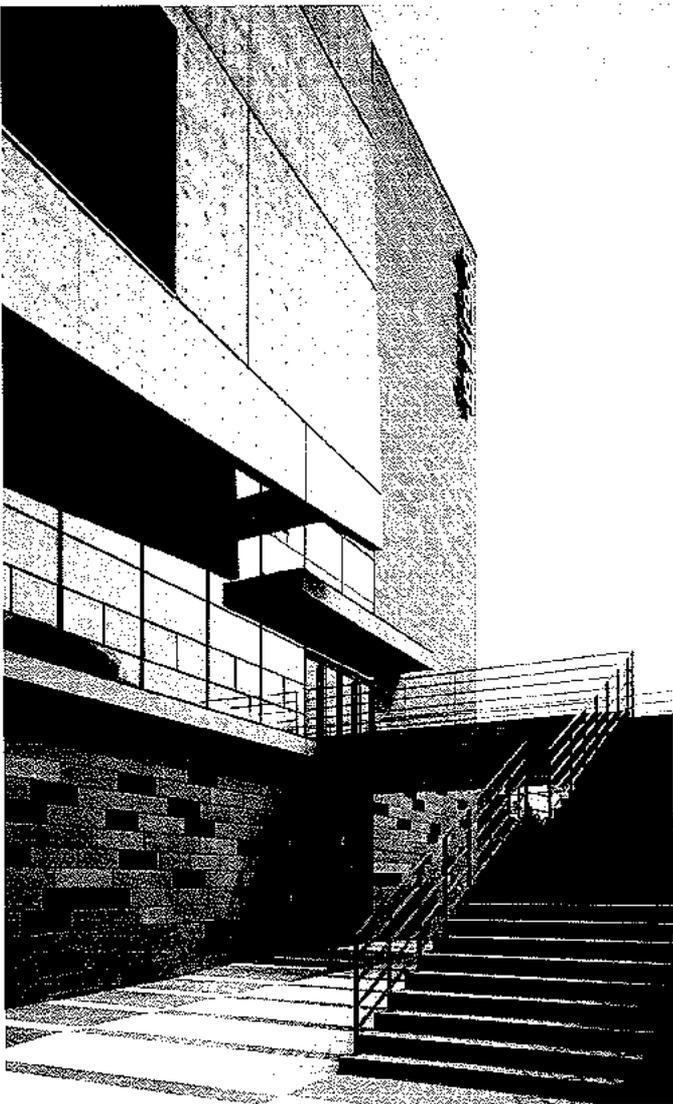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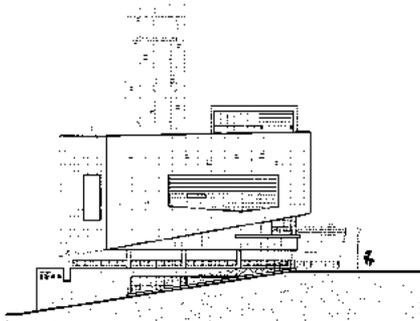
교회는 대지의 형태를 따라 본당을 중심으로 계획하였다. 6.5m의 레벨차를 반지하 2개 층으로 극복하고 지상 2층에 대지형태를 따라 본당을 배치하여 위쪽 레벨에서 1개 층만 올라가면 본당에 진입할 수 있도록 외부계단을 두었다. 이 외부계단은 서쪽의 넓게 열린 학교운동장과 북쪽의 아파트단지를 의식하면서 비교적 닫힌 입면으로 계획한 북쪽의 주진입구로 연결된다. 반면 남쪽으로는 왼쪽의 동망봉 주변의 밀집주거, 남쪽의 창신역, 종로의 동묘앞, 청계천, 오른쪽의 학교운동장을 조망할 수 있도록 커튼월로 계획하였다. 남서쪽의 커튼월을 경계로 북동쪽의 외관은 노출콘크리트의 겹

질을 대지경계를 따라 말아 올리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이는 대지의 진입에서 형성되는 느낌을 경사대지의 레벨을 따라 휘감아 올라가는 형태로 반영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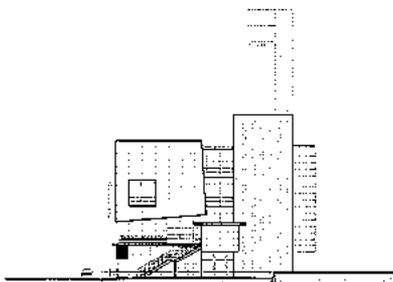
새로 입당하게 될 교회는 새로 들어선 아파트만큼이나 교인들의 입장에서선 천레임을 동반하겠지만 시점의 편리함이 장소에 대한 기억을 빨리 지우게 할 것이다. 그러나 변화의 중심에 있는 땅을, 아파트 숲으로 둘러쌓이게 될 땅을 과거와 현재 미래를 생각하며 계획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었고 그것은 아파트가 다 들어서게 될 수년 후에 다시 한번 나의 고민이 불필요한 것이었음을 확인하게 함지 모르겠다. <글-이충기> 圖

- 1. 주진입구
- 2. 북동쪽 입면
- 3. 본당 내부
- 4. 주차장 입구 주차 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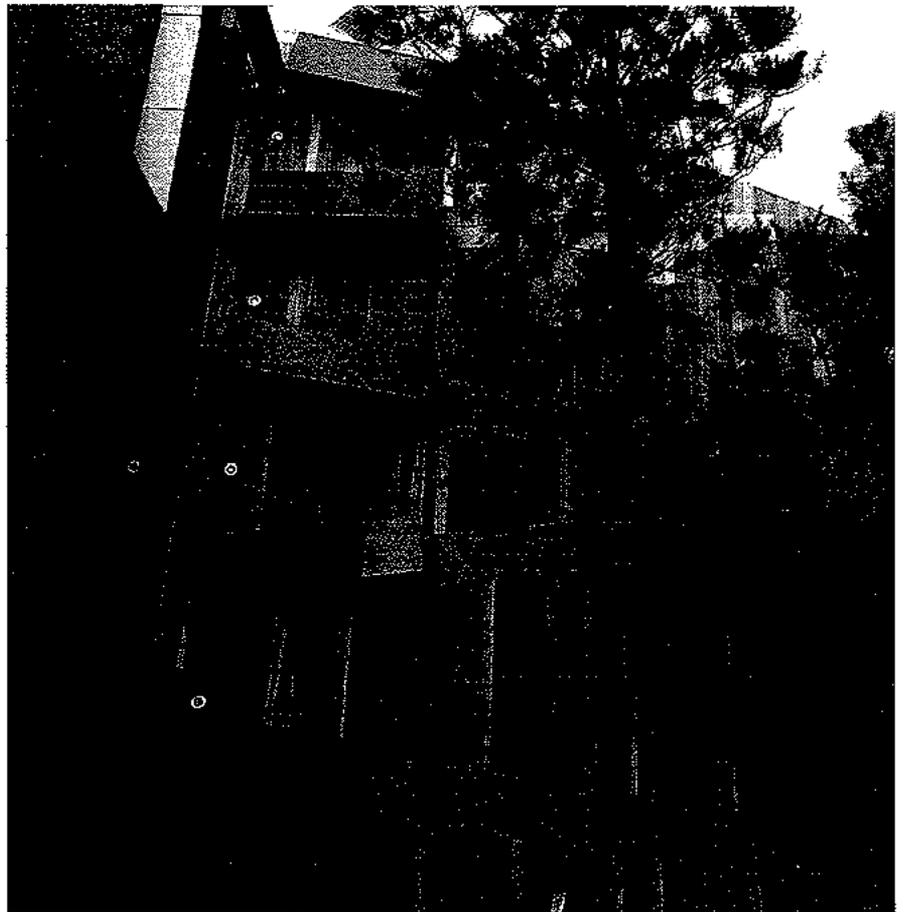


북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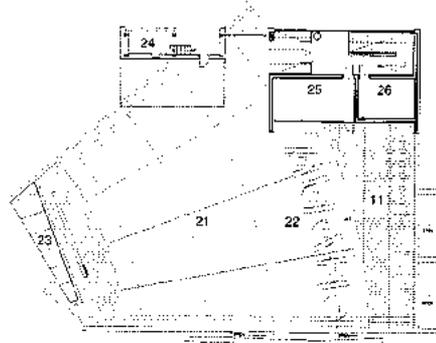
0 1 5 10m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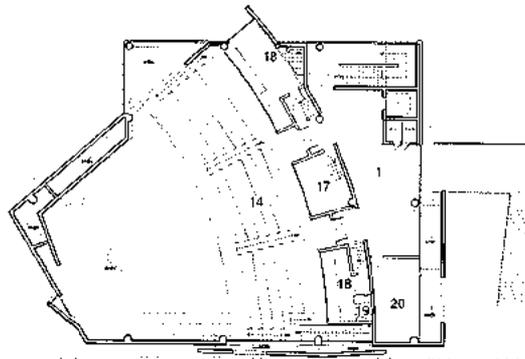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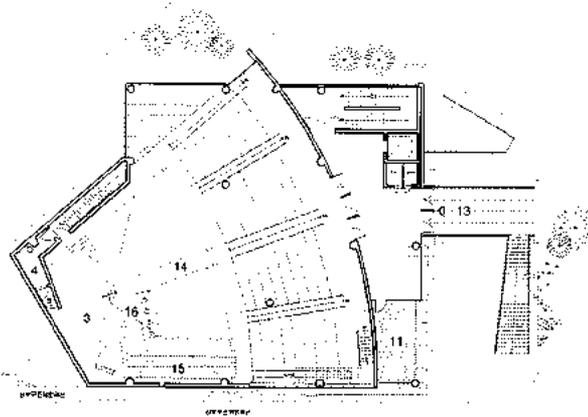
1. 송유정 의자
2. 서태웅 건축사
3. 송유정 의자



4층 옥상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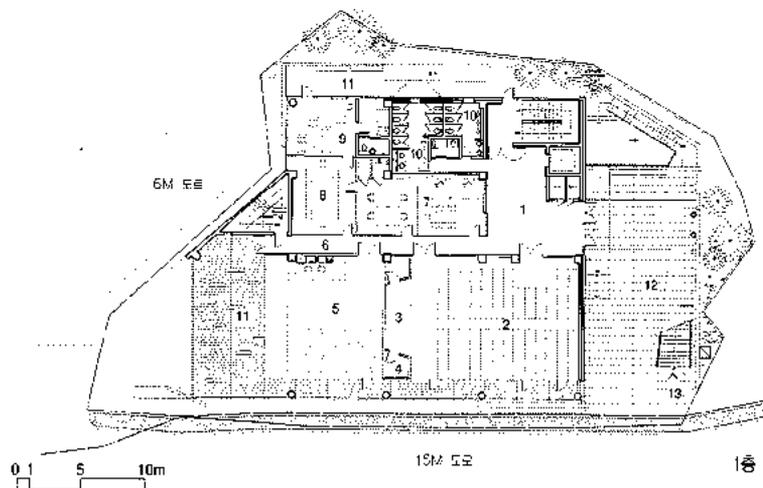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01. 오피스
- 02. 소예배실
- 03. 강단
- 04. 준비실
- 05. 소그림모임실
- 06. 복도
- 07. 사무실
- 08. 당회실
- 09. 당회장실
- 10. 회강실
- 11. 국의유계대교
- 12. 신교마당
- 13. 복영출입구
- 14. 대예배실
- 15. 성가대소
- 16. 장애인소
- 17. 방송실
- 18. 유아실
- 19. 수유실
- 20. 재정부실
- 21. 온상정원
- 22. 유계면치
- 23. 천정
- 24. 중탑개단
- 25. 플랫폼실
- 26. ELEV/기계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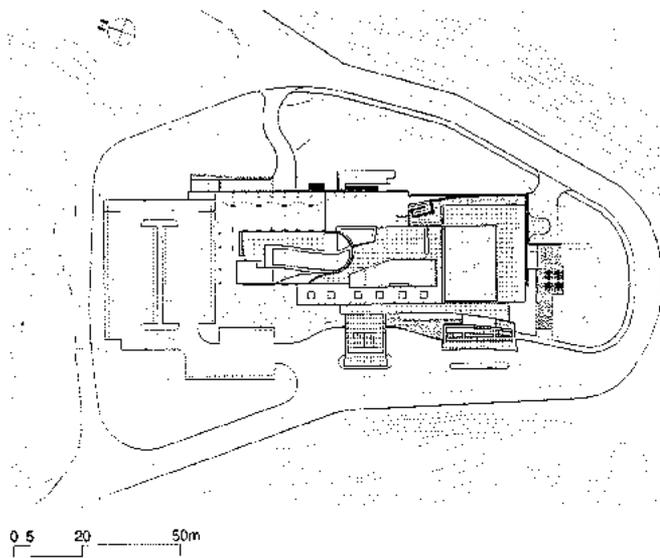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삼성거제호텔

Samsung Geoje Hotel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남도 거제시 신현읍 장평리 산 2-10번지 외 7필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 일반주거지역
주요용도	숙박시설
대지면적	9,975㎡
건축면적	3,741.23㎡
연면적	11,255.23㎡
건폐율	37.5%
용적율	89.14%
규모	지하 1층,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외부 마감	인도사암, 마천석, Glass Curtain Wall, 알루미늄패널
설계담당	이 봉, 김우영, 원보연, 한태권, 최정윤, 이진아
구조설계	경재구조기술사사무소
토목설계	새길이앤씨
기계설계	ENG에너지디자인연구소
조경설계	(주)피엠티조경기술사사무소
전기설계	삼우전기건설턴트
시공	(주)삼성중공업건설부문



Location San 2-10, Jangpyeong-ri, Sinhyeon-eup, Geoje-si, Gyeongsangnam-do, Korea

Site area	9,975㎡
Bldg area	3,741.23㎡
Gross floor area	11,255.23㎡
Bldg, coverage ratio	37.5%
Gross floor ratio	89.14%
Structure	SRC
Bldg, Scale	B1, F6

1. 주심안무 전경
2. 로비 전경

거제도 호텔 설계에서는 '거제도'라는 지역성을 살리는데 설계의 중점을 두었다. 대표적인 바닷가 휴양지이자 어항인 진해, 통영, 남해의 주변 지역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및 조선업을 하는 건축주의 정서를 고려해 디자인을 전개했다. 흐르는 물결 위에 떠 있는 배의 이미지를 모티브로 입면 디자인 계획을 세웠다. 매스의 구성은 크게 객실 매스와 연회장 매스의 둘로 나누어, 객실 매스에서는 수평 부재를 강조하여 건물의 모서리 경계를 부드럽게 해 줌으로써 주변으로 확장되어 주변 풍경과 동화되도록 계획하였다.

건물을 타고 옥상까지 피어오르는 중앙부의 유연한 곡선 장식은 다시 물결과 배의 이미지를 반복하면서 빛을 발하게 된다. 낮에는 햇빛에 반사되어 찰랑찰랑 반짝이는 모습으로, 밤에는 빛을 발하며 피어오르는 꽃의 모습으로, 거제도 호텔은 거제도의 새로운 랜드마크(landmark)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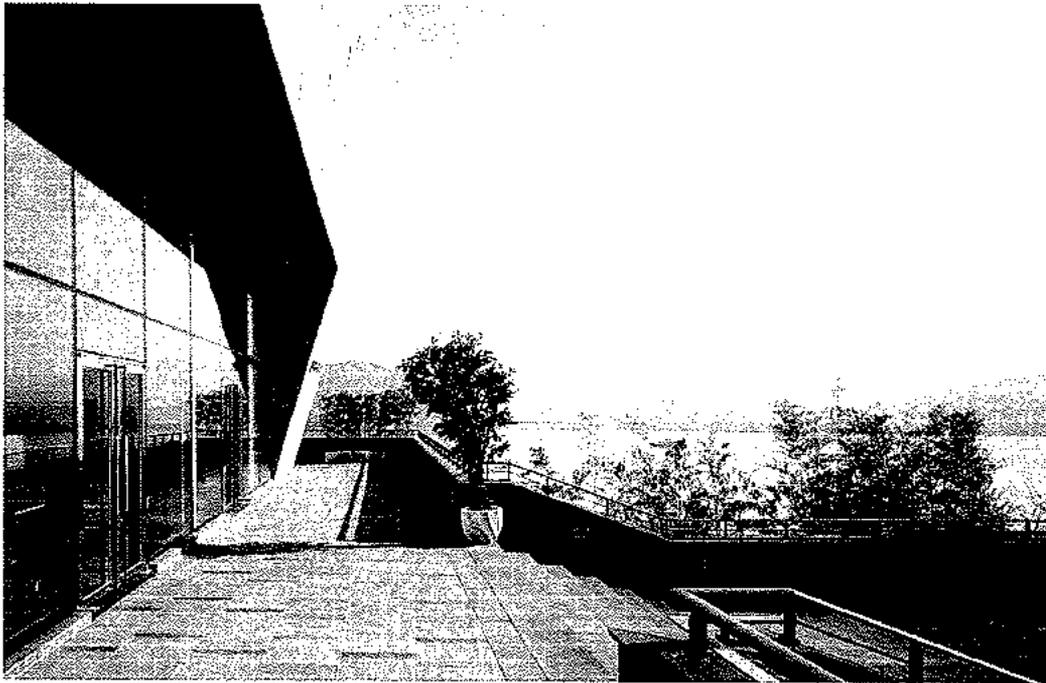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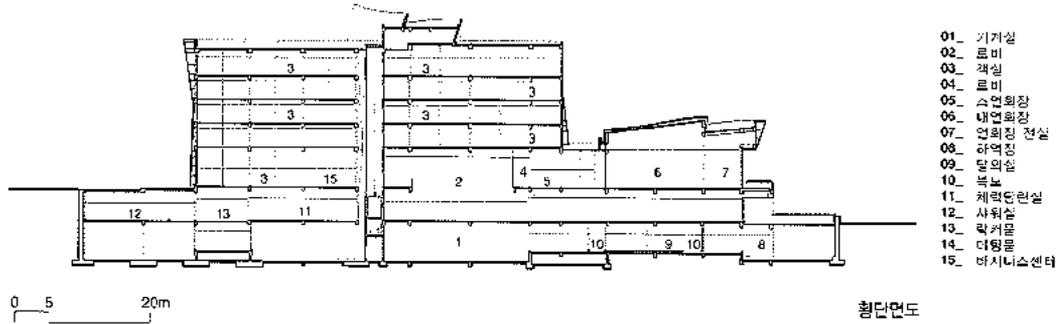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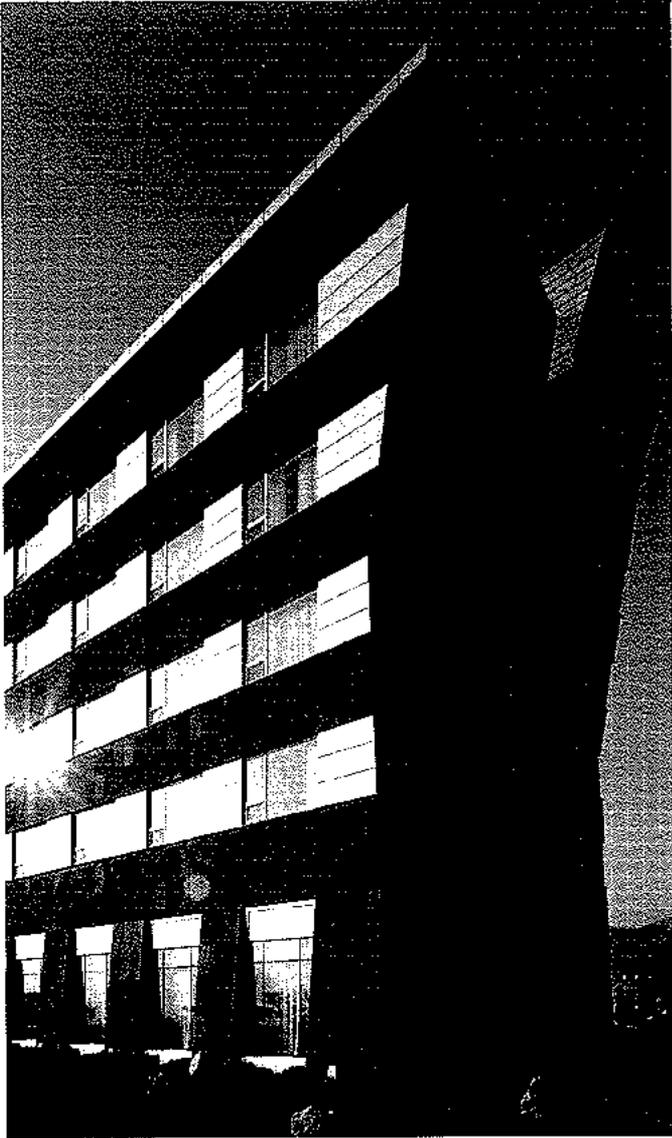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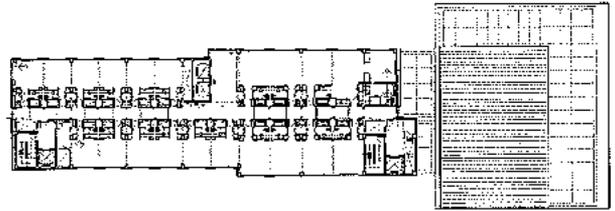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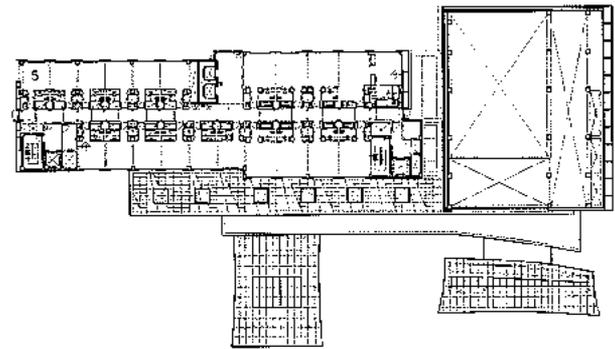




5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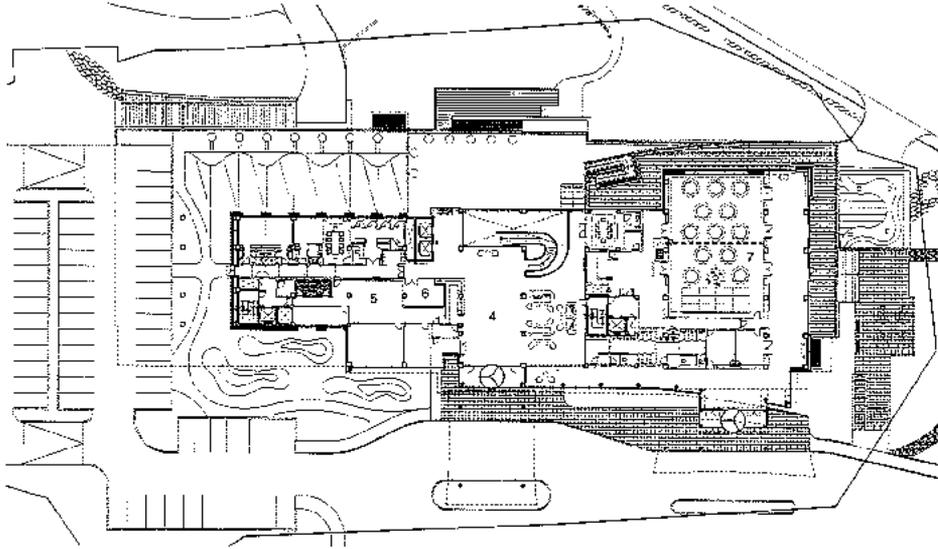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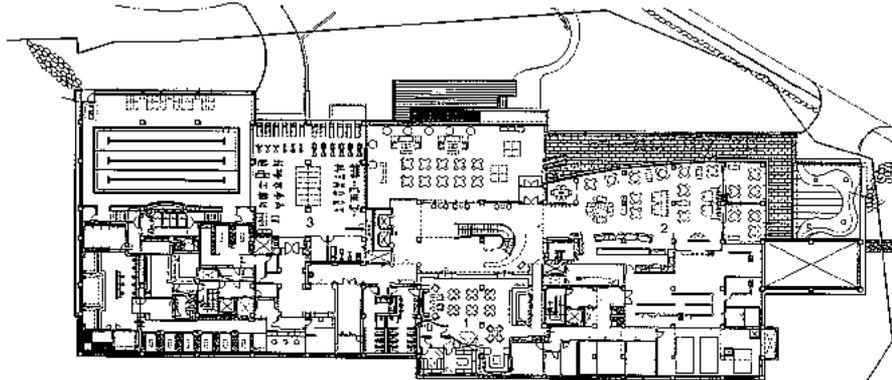


3층 평면도





2층 평면도



0 5 20m

1층 평면도

- 01_ 바
- 02_ 식당
- 03_ 제2회의실
- 04_ 로비
- 05_ 사무실
- 06_ 기동충검
- 07_ 대연회장

- 1_ 객승부 승편
- 2_ 컨퍼싱 홀비
- 3_ 리스도일
- 4_ 로비 전경
- 5_ 스위트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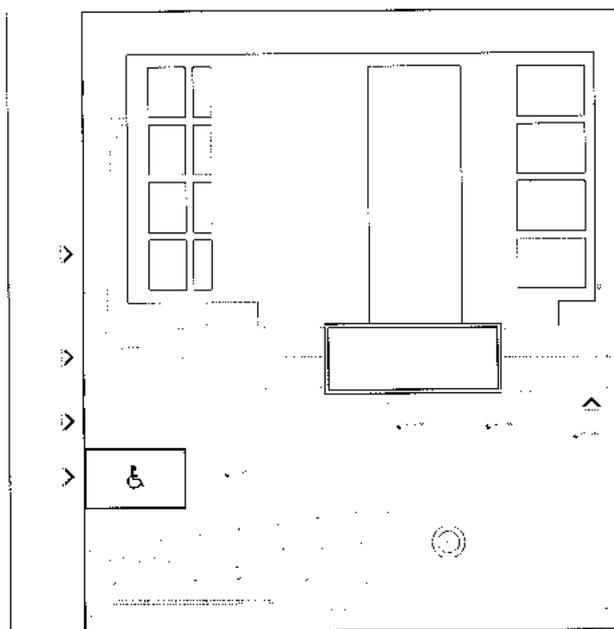


배재학원

Bae jae 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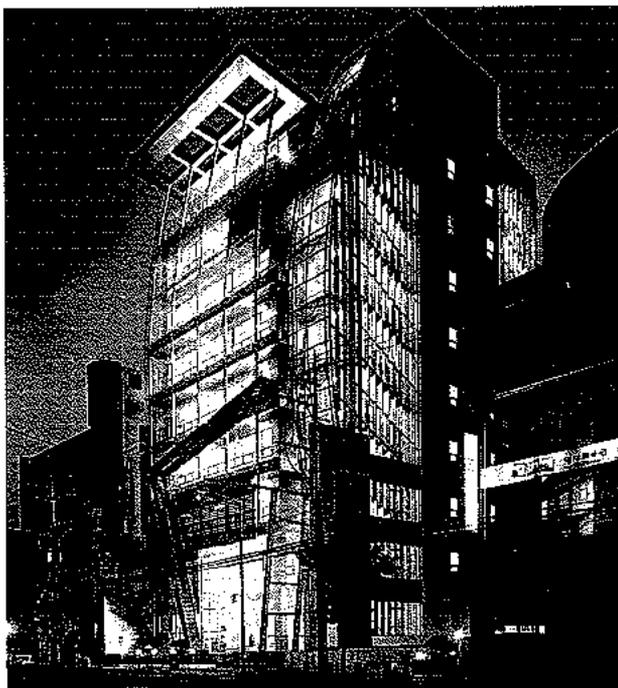
● 배치도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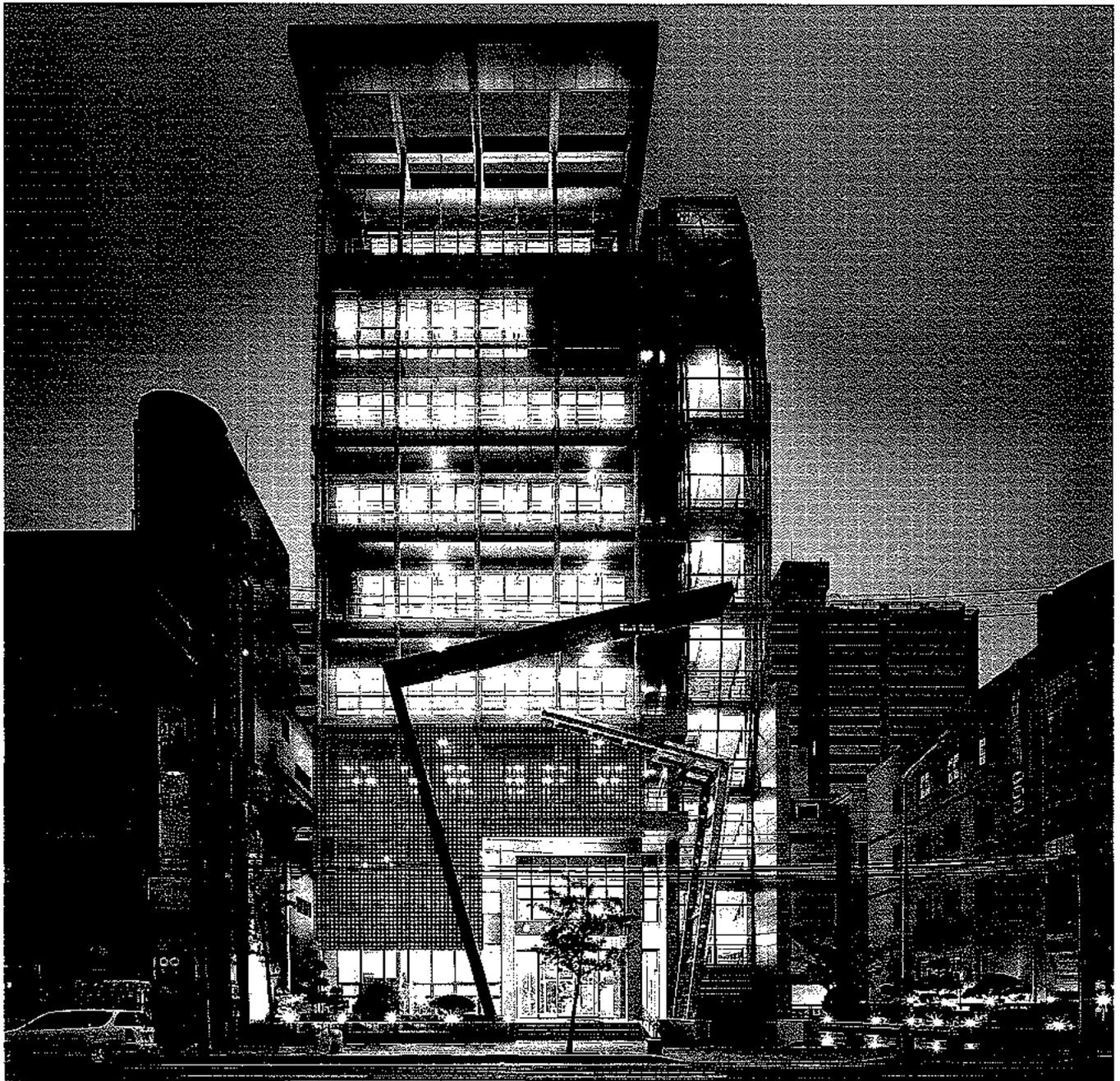
0 1 3 6 10m

- 대지위치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46-8
-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학원)
- 대지면적 985.00㎡
- 건축면적 466.95㎡
- 연면적 3,781.85㎡
- 건폐율 47.41%
- 용적율 331.35%
- 규모 지하 1층, 지상 9층
- 구조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 내부마감 인조석 타일 및 무늬목 마감
- 외부마감 알루미늄복합패널, 동판, 아연도금강판, T12강화유리(TPG), T16칼라복층유리
- 설계담당 김강현, 김제환, 김나영, 박삼조, 김대순, 유충훈
이은경, 고영주, 이상미, 이현주, 이태봉
- 구조설계 킨트 ENC
- 설비설계 그린 ENC
- 전기설계 그린 ENC
- 시공사 세신종합건설(주)
- 설계기간 2005년 02월~05월
- 공사기간 2005년 05월~2006년 1월



- Location 1546-8, Samsan-dong, Nam-gu, Ulsan, Korea
- Site area 985.00㎡
- Bldg area 466.95㎡
- Bldg. coverage ratio 47.41%
- Gross floor area 3,781.85㎡
- Gross floor ratio 331.35%
- Structure S,R,C
- Bldg. Scale B1, F9
- Design period 2005, 02-05
- Construction period 2005, 05-2006, 01

1. 본사벽 신장
2. 북쪽 신장



도시적 상황

초기계획을 위해서 대지 주변의 도시적 환경을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울산에서도 이 지역은 금융, 상업, 문화, 교육, 주거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삼산동에 자리잡고 있다. 대지는 상권의 배후에 위치하며, 주변 아파트 단지들과 가깝게 자리잡고 있다. 주변빌딩들은 대부분 임대용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공간만 만들어주는 무표정의 건물들로 채워져 마치 회색의 창백함을 감추기 위해 형형색색의 간판들만이 건물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런 맥락에서인지 주변의 건물들은 본모습을 잃어가며 단지 효용의 극대화라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최대한의 용적률 확보와 단기간의 공사를 우선시 하는 건물들로 채워져 가고 있다. 설계를 하면서 생기를 잃어 가는 기능에만 충실한 도시의 모습이 아닌 생동감 넘치는 도시의 모습을 되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전면의 TPG를 이용한 더블스킨 표피와 등판과 아연도 골강판 등은 도시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모티브다.

형태

건축물의 형태적인 은유는 '비상'이다. 학원이 가지는 학생들의 지식 함양과 발전적 비상을 표현하기 위해 원과 사선을 도입했다. 즉 둥근 형태의 더블스킨(Double Skin, 이중외피)과 건축물 상부의 사선을 통해 '비상한다, 날아간다, 발전한다'는 의미를 건축물에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더블스킨(Double Skin)

건축적 의미는 공간의 완충성이다.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완충 단계, 더 붙여 형태의 변화를 함께 의도했다. 두 번째는 형태의 변화에 민감한 공간감, 사이공간은 완전한 외부도 아닌 그렇다고 완전한 내부도 아닌 공간이다. 껍질의 안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공간의 매력에 있다. 외부와 내부를 절점에서 바로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킨을 하나 더 만들어 한 단계 완충시키고자 했다. 세 번째 기능면에서는 전면 30m가 넘는 대로에서

발생하는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부 소음의 차단 효과는 물론 학업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시원한 바람과 같은 역할을 해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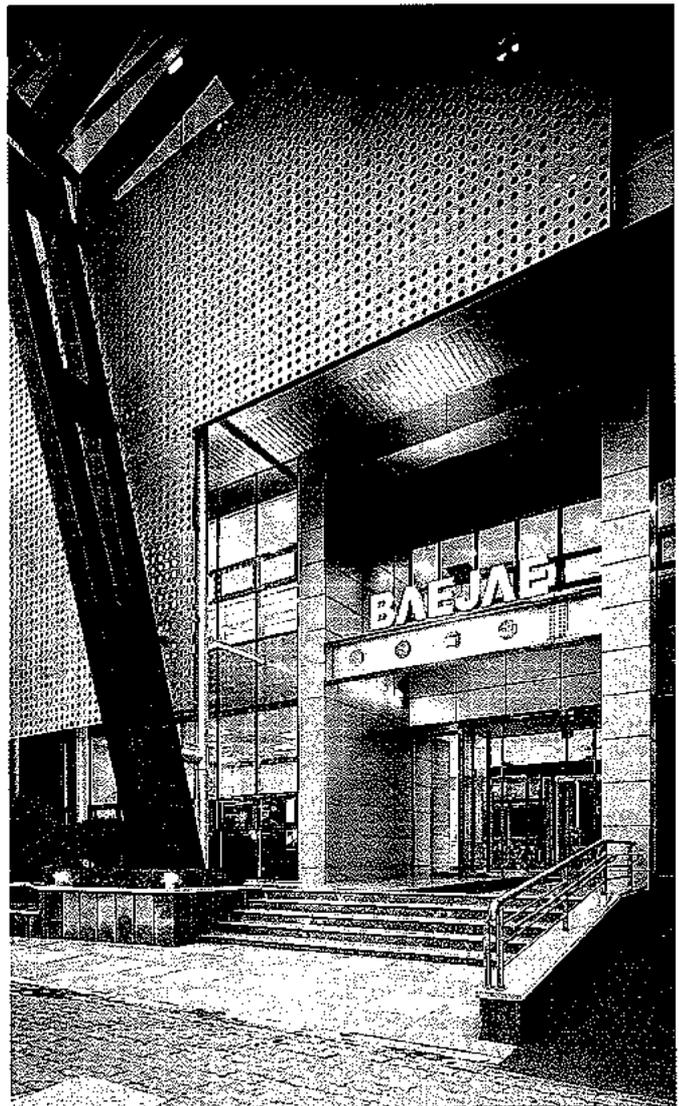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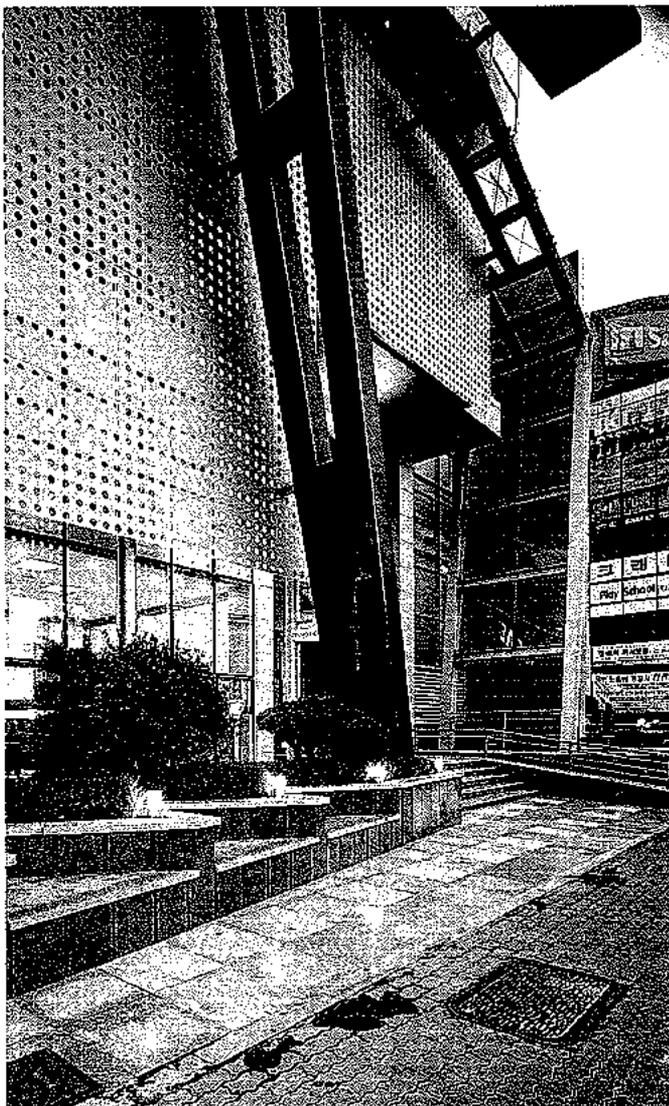
프로그램

주차를 지하로 몰아넣고 대지의 1/3가량을 학생들을 위한 녹지와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입구에 7자구조물과 목재데크는 전형적인 학원 이미지 탈피와 엄마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따뜻한 느낌을 전해주기 위해 디자인되었다. 또한 1, 2층 홀을 오픈시킴으로써 복층내부공간의 채광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동시에 홀의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3~8층은 학원의 강의실과 교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9층은 다목적홀이다. 기존의 다목적홀이 다소 폐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면, 배재학원의 9층 다목적홀은 양쪽을 개방하여 무대화시킴으로써 학원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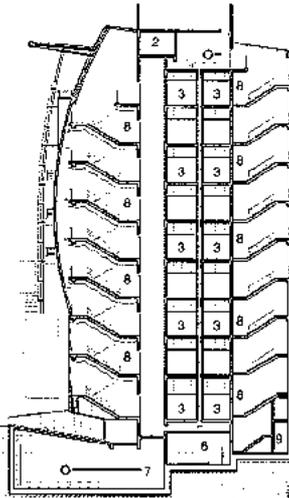
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학생들의 자습실로 이용되고, 대형스크린을 설치하여 주말에는 영화를 상영한다.

투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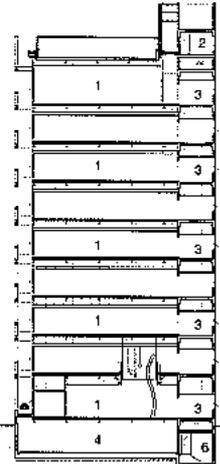
건물의 전면이 북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채광에서는 상당히 불리했으며, 기존의 학원시설들이 학습공간에 대한 명확분위기를 위하여 다소 폐쇄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반하여, 배재학원은 주변의 도시적 환경을 투명성을 통해 한번 걸러줌으로써 푸른 나무와 채광, 맑은 공기, 물과 사람(학생) 등의 자연적인 요소가 충분히 내재되게끔 하였다. 학원이란 시설이 학생들을 위한 배움의 장인만큼 투명성을 통해 열린 공간을 학생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며, 좋은 대학 진학이라는 명제로 명들어 있는 수험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를 제공하고 기존학원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게 하였다. 미래를 위해 배움을 쌓아가는 속에서 빛으로, 도시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圖]



- 01.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
- 02. ELEV기계실
- 03. 화장실
- 04. 주차장
- 05. 통풍크실
- 06. 전기실
- 07. 지수조
- 08. 계단실
- 09. 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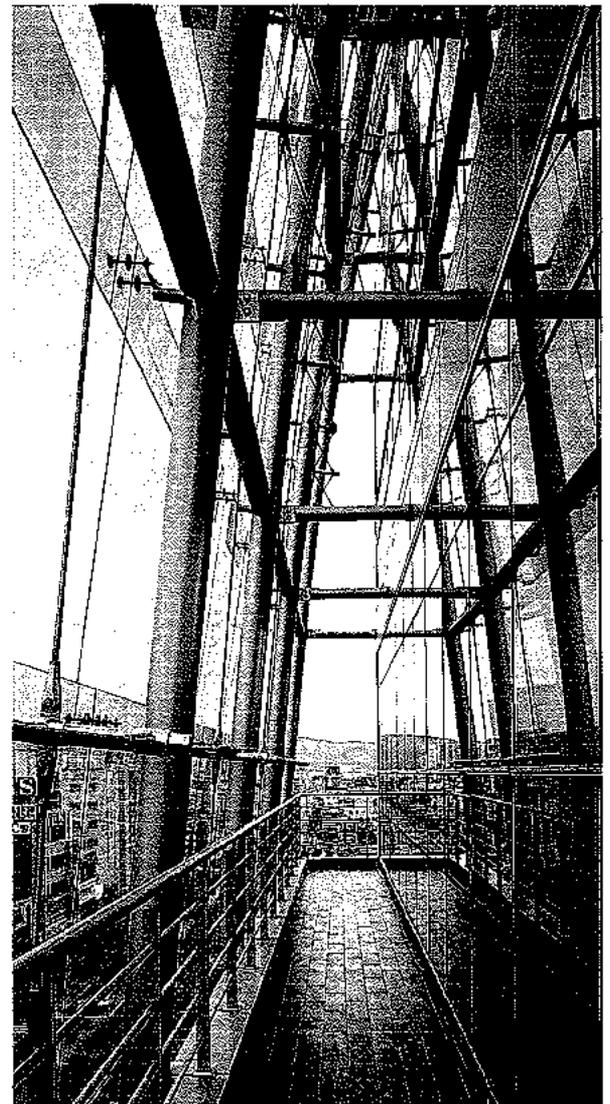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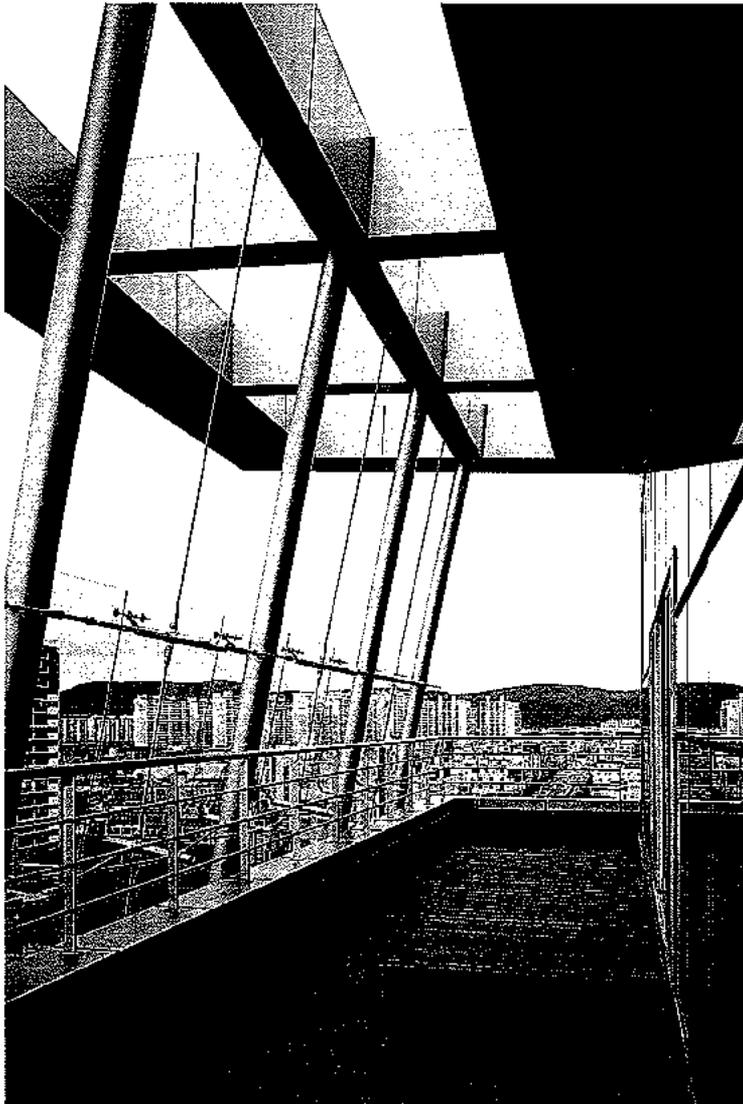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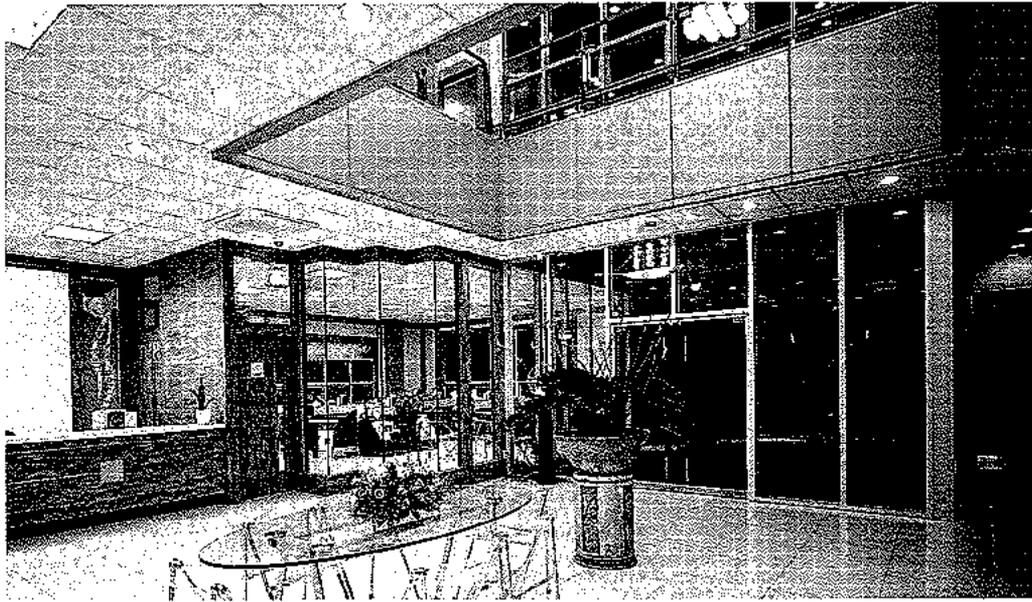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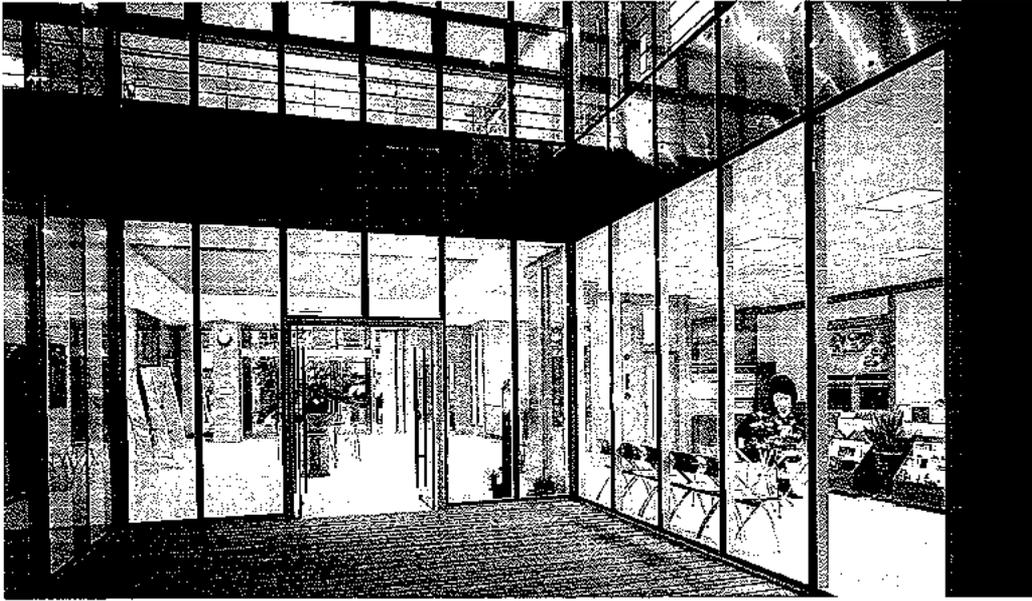
중단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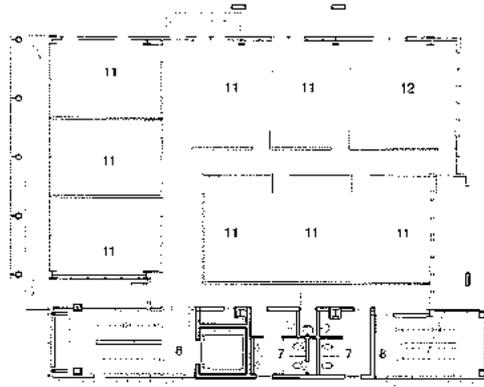
- 1. 1층 주출입 휴게공간
- 2. 주출입구
- 3. 라임을 감회실에서 바라본 건물 케노피와 계부
- 4. 7층 데크스칸과 강의실 사이 발코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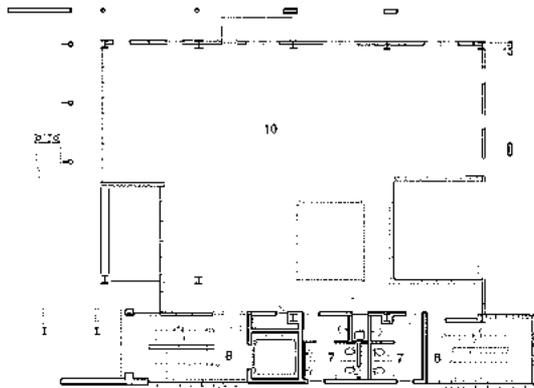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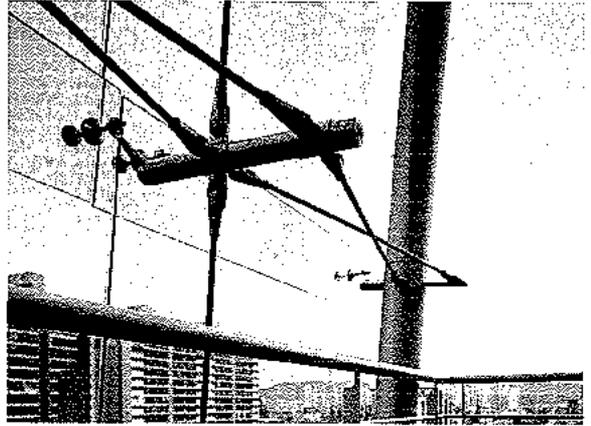


1. 1층 중정
2. 1층 중정 외부공간
3. 9층 디베이션 전당
4. 디베이션 내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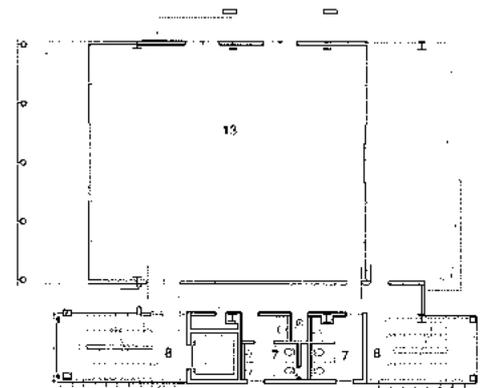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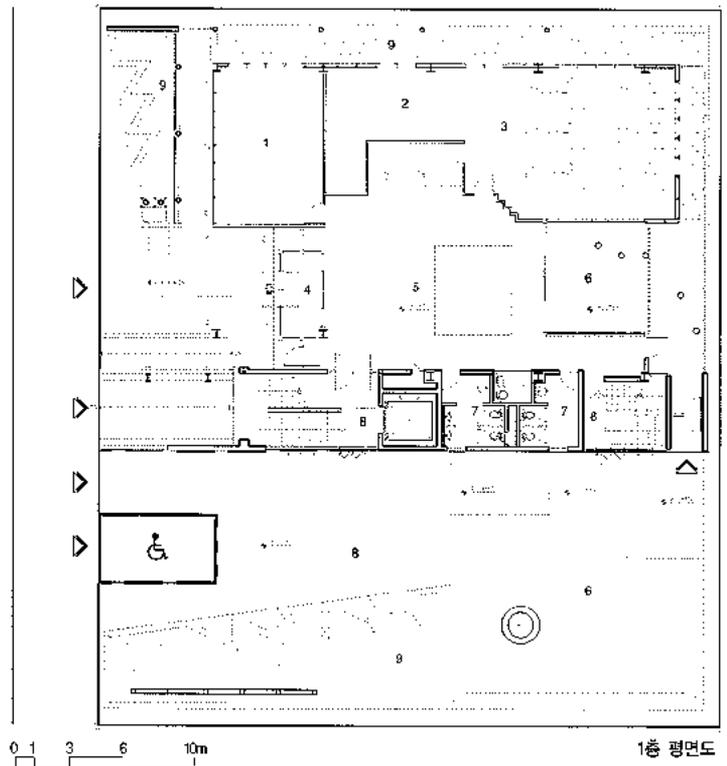


2층 평면도



9층 평면도

- .01 원장실
- .02 사무실
- .03 상담실
- .04 방음실
- .05 홀/로비
- .06 데코
- .07 화장실
- .08 계단실
- .09 조경
- .10 피육연구 및 복지시설(회원)
- .11 강의실
- .12 심혈관
- .13 다목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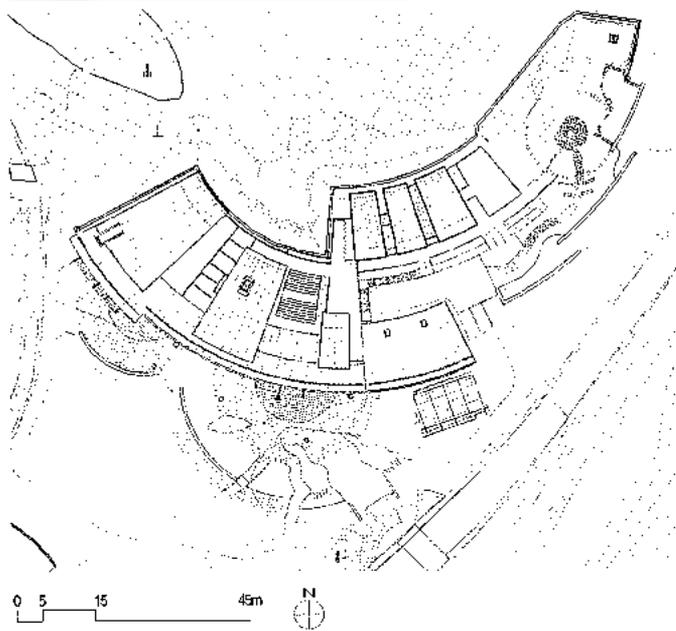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미동산 생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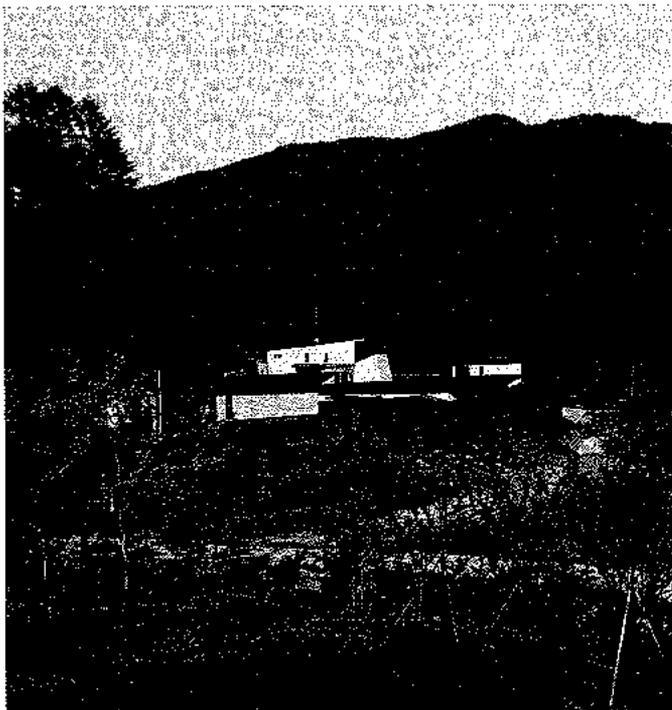
Midongsan Arboretum Eco-Hall

● 배치도

● 건축개요



대지위치	충청북도 청원군 미원면 미동산 수목원내
지역·지구	준농림지구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978,000㎡
건축면적	1,721.10㎡
연면적	1,618.07㎡
건폐율	0.176%
용적율	0.165%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 철골조
내부마감	30T화강석물갈기, 무늬목위투명락카, 수성페인트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목재, 0.5t 동판
설계담당	권력중, 강창근, 김태현, 이정원, 윤지호
조경설계	(주)삼성에버랜드
구조설계	구조기술사사무소 지성-DS
설비설계	(주)남진설비
전기설계	건창기술단
시공사	주식회사 동명종합건설
설계기간	2001. 10 ~ 2002. 05
공사기간	2002. 10. 15 ~ 2006. 04



Location	Miwon-myeon, cheangwan-gun, Chungcheongbuk-do, Korea
Site area	978,000㎡
Bldg area	1,721.10㎡
Gross floor area	1,618.07㎡
Bldg. coverage ratio	0.176%
Gross floor ratio	0.165%
Structure	S,R,C
Bldg. Scale	F2
Design period	2001, 10 ~ 2002, 05
Construction period	2002, 10, 15 ~ 2006, 04

1. 전망 1
2. 전망 2



삼성에버랜드와 공동으로 수행한 환경친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국토중앙부 충청북도 청원군의 미동산 수목원내의 산림환경 생태원 계획안이다. 수생식물원, 동물서식원(고라니, 노루 등), 관찰로 등 옥외 체험시설과 더불어 전시관, 학습교육장, 문화공간 등의 다기능을 수용하는 생태관은 청정지역인 충청북도 산림환경의 중요성 및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차세대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기본방향

자연에 순응하는 우리의 전통적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재구성하여 생태체험의 장을 제공하려 한다. 이는 건축물에 대한 단순한 개념에서 현재와 후세에 걸친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 분체에 기여하기 위한 건축분야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생태체험의 장이라 함은 방문자들이 미동산의 주인인 동식물을 재인식하는 장소로서, 자연과 호흡하며 모든 사람을 배려한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서까래, 처마 등의 전통요소를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현대적인 요소들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처리하였다. 하나하나 독립적으로 보이면서 공통적인 요소(화랑, 마당)로 얽혀있는 유기적인 형태는 전통건축의 공간 개념을 도입한 것이며, 설비를 간략화하기 위해 자연채광, 자연환기 등을 도입했다.

공원의 정의

'생태공원에서의 생생한 체험'이라는 것은 현재 대상지의 전역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 모두가 생태학습으로 연결되고, 그 조합으로 새로운 감동을 전하면서 점점 대상지(nature)가 건강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미동산 수목원이 사람에 의한 산림의 조성이라면 생태학습원은 동식물이 주인(host)이 되는 장소로서, 그 영역이 구역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출현장소를 사람이 인지해 가며 발견의 기쁨을 누리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건축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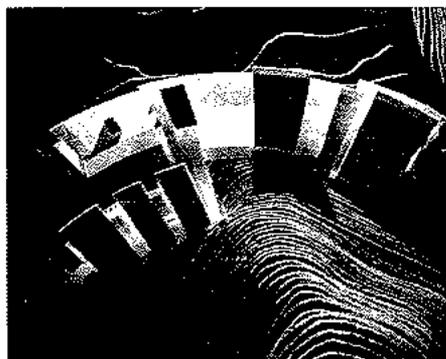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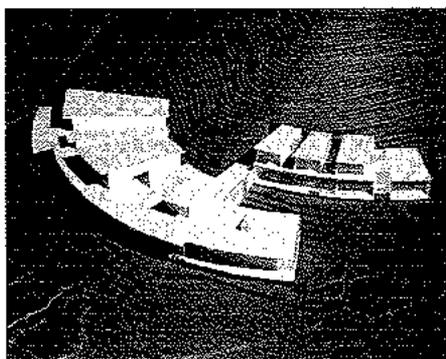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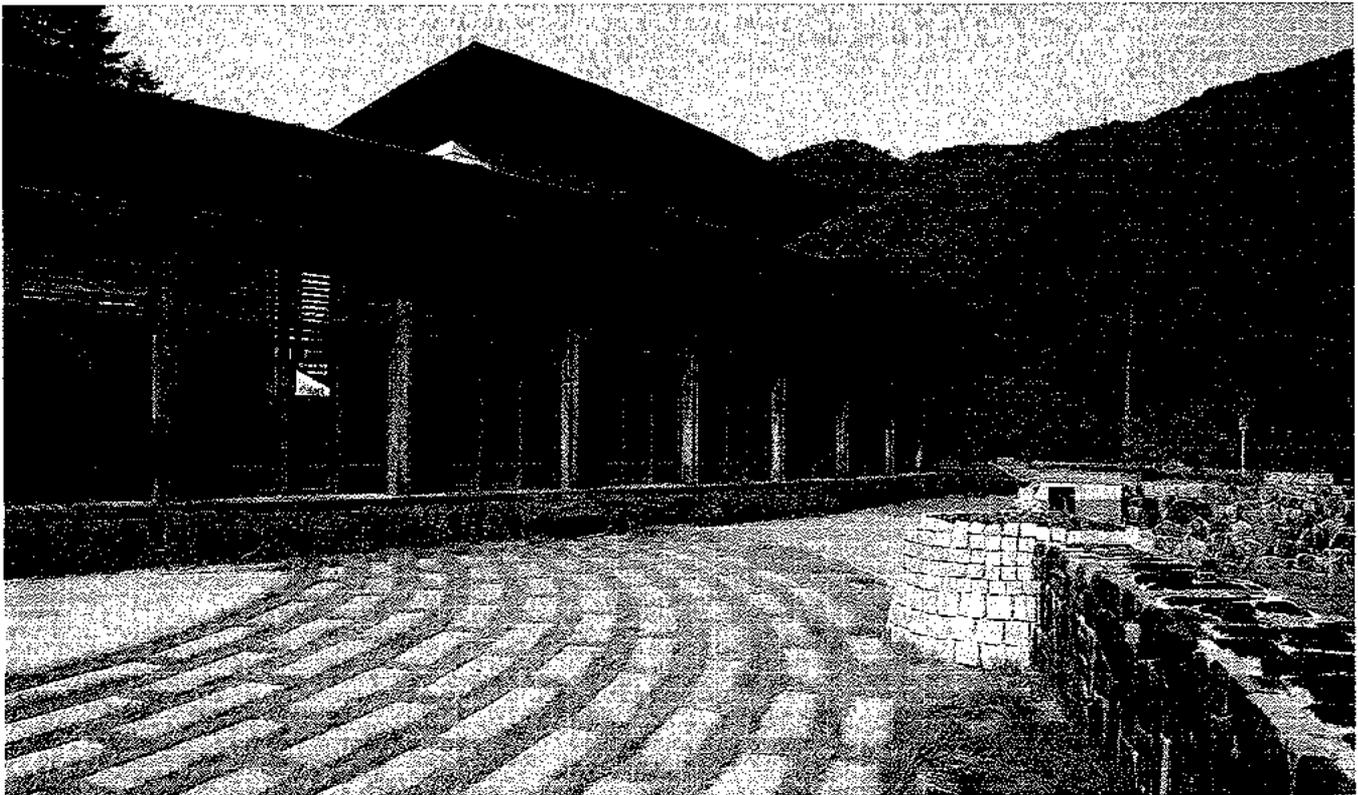
생태원의 배치개념은 기존 녹지 및 수리체계를 보존, 활용하는 것과, 지형·향·수계의 축을 조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Activity의 종류 및 빈도에 따른 기능실의 배치와 함께 이용자 유형별 동선의 분리로 공간의 효율성을 고려했다. 이에 부합하여 기능특성별 공간을 분리하여 독립성을 유지하고, 회랑을 통하여 각 개체를 통합시켜 연계성을 확보하였다. 투명한 외피의 회랑에서 자연의 모습을 투영하며, 빛과 그림자로 연출되는 자연의 극적 효과를 외부적 내부공간에서 체험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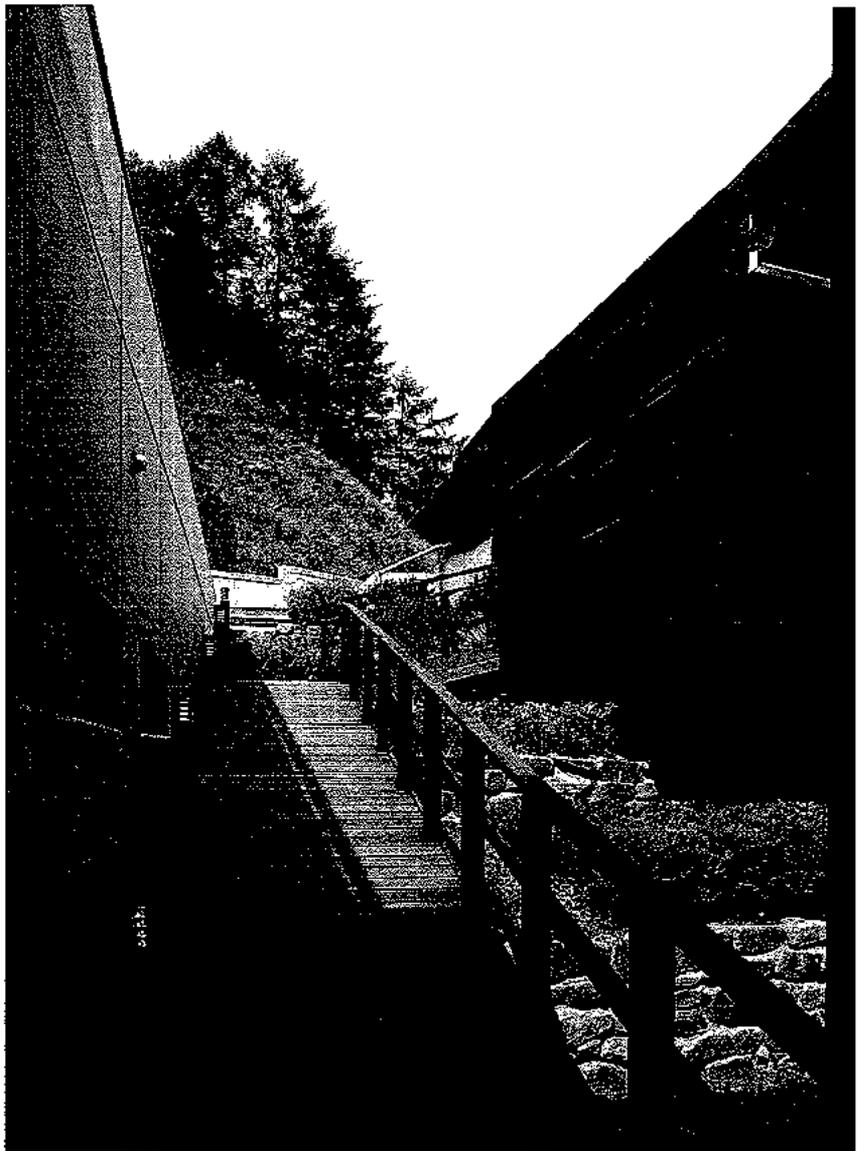
지형을 따라 계획된 단면형태는 레벨차가 연출해내는 공간감을 실내로 전해주고, 평활한 콘크리트, 유리면 위에 요철이 생기는 목재 루버 등의 사용으로 입체감이 느껴지는 형태는, 매스의 점진적 변화와 함께 수직과 수평의 균형적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제공한다.

Green Building의 개념을 도입한 자연친화적 건축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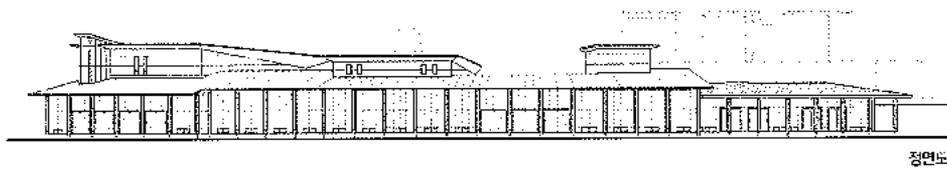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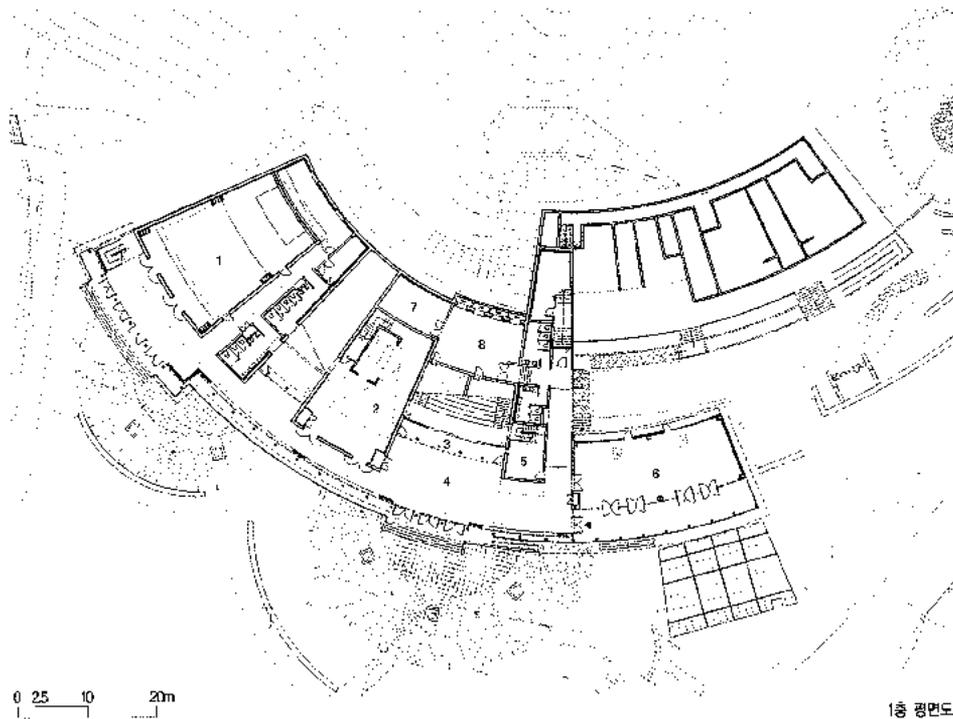
낮은창과 높은창, 천창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바람을 이용한 자연형 통풍을 유도하였다. 각 기능실은 고창 및 천창을 통해 자연채광이 이루어지며, 전면의 유리외 루버를 통한 적극적인 자연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건물 전면에 흐르는 처마는 여름철 일사량을 조절하며, 겨울에는 따뜻한 공기가 보존되어 온화하고 양지바른 외부공간을 형성한다.

본 프로젝트를 통해 충청북도 지역 내에 산림을 주제로 한 산림환경 생태원을 조성함으로써, 동식물에 대한 생태를 연구하고 자연자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노력했다. 현상설계방식으로 진행된 '미동산 생태관'은 생태에 대한 이해 및 교육의 장을 제공하며, 여가활동과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을 꾀하여 자연생태의 장(場)으로서 충청북도만의 독창적인 환경 메카를 조성할 것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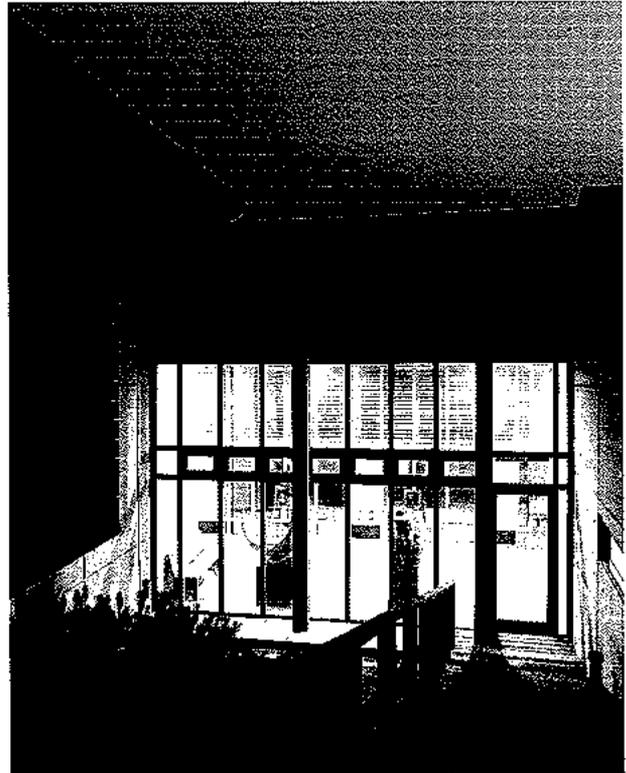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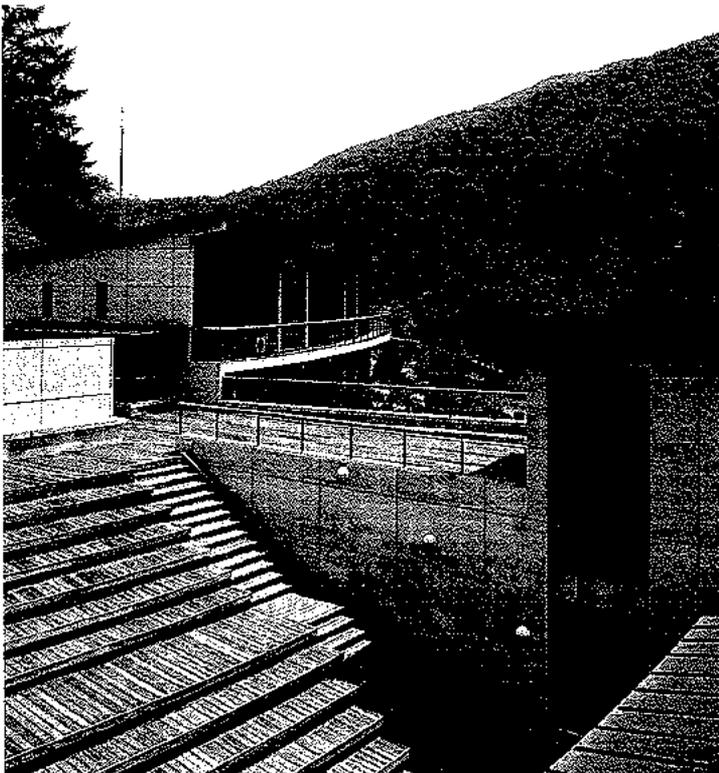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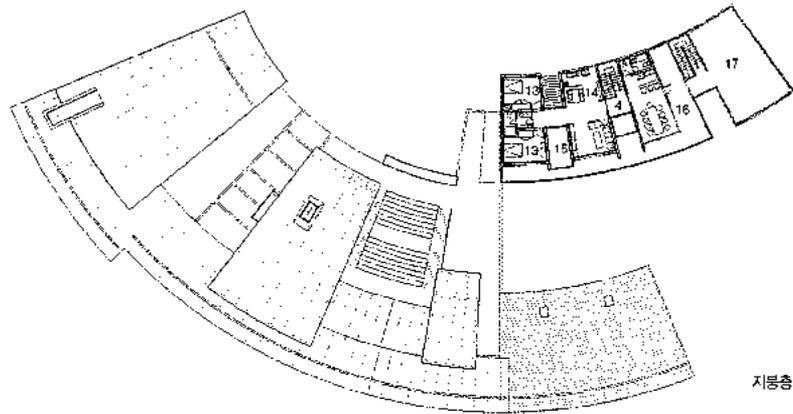


- 1. 정경
- 2. 앞마당
- 3. 숙소들 풍경
- 4. 로비전시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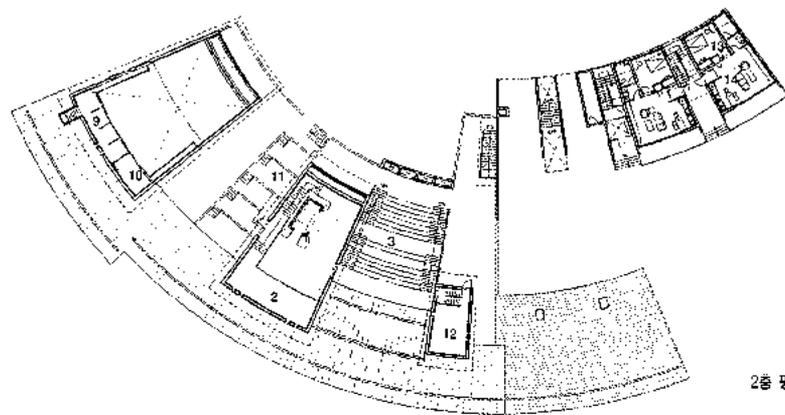
- 1. 야외무대
- 2. 옥외신시각어장
- 3. 중입문
- 4.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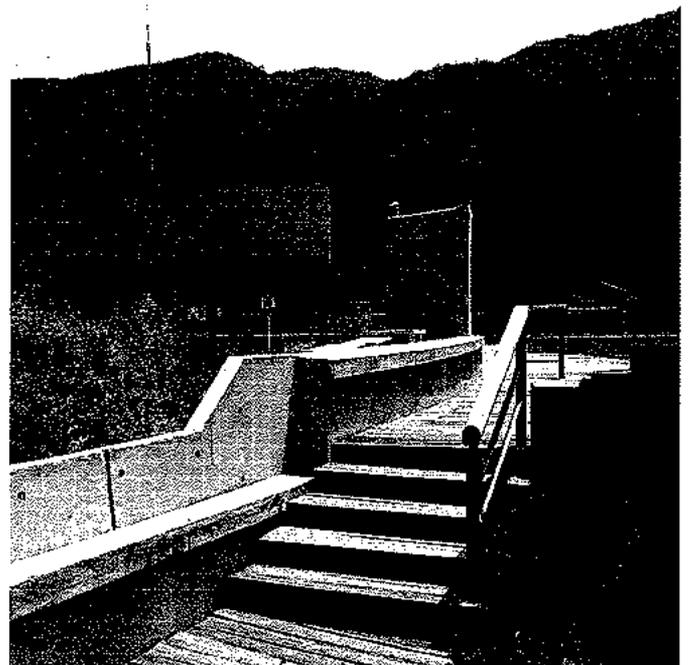


지층 평면도

- 01_ 대화의실
- 02_ 전시실
- 03_ 아와무대
- 04_ 중앙홀/휴게실
- 05_ 자료보관실
- 06_ 다목적실
- 07_ 전기실
- 08_ 기계실
- 09_ 동시통역실
- 10_ 화장실
- 11_ 회의전시장
- 12_ 관리사무실
- 13_ 침실
- 14_ 거실/주방
- 15_ 거실
- 16_ 옥상지
- 17_ Rooi Garden



2층 평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서초 장애인 정보문화센터

Seocho disabled culture center

서초구청은 급변하는 사회여건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가변성, 융통성 있는 공간구성과 경제성(관리 및 기능의 합리성) 및 환경과의 조화와 더불어 예술성을 갖춘 건물을 건립하고자 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는 (주)일건건축사사무소 + 이제훈(단국대학교)의 안을, 우수작은 (주)에림종합건축사사무소, 가작은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와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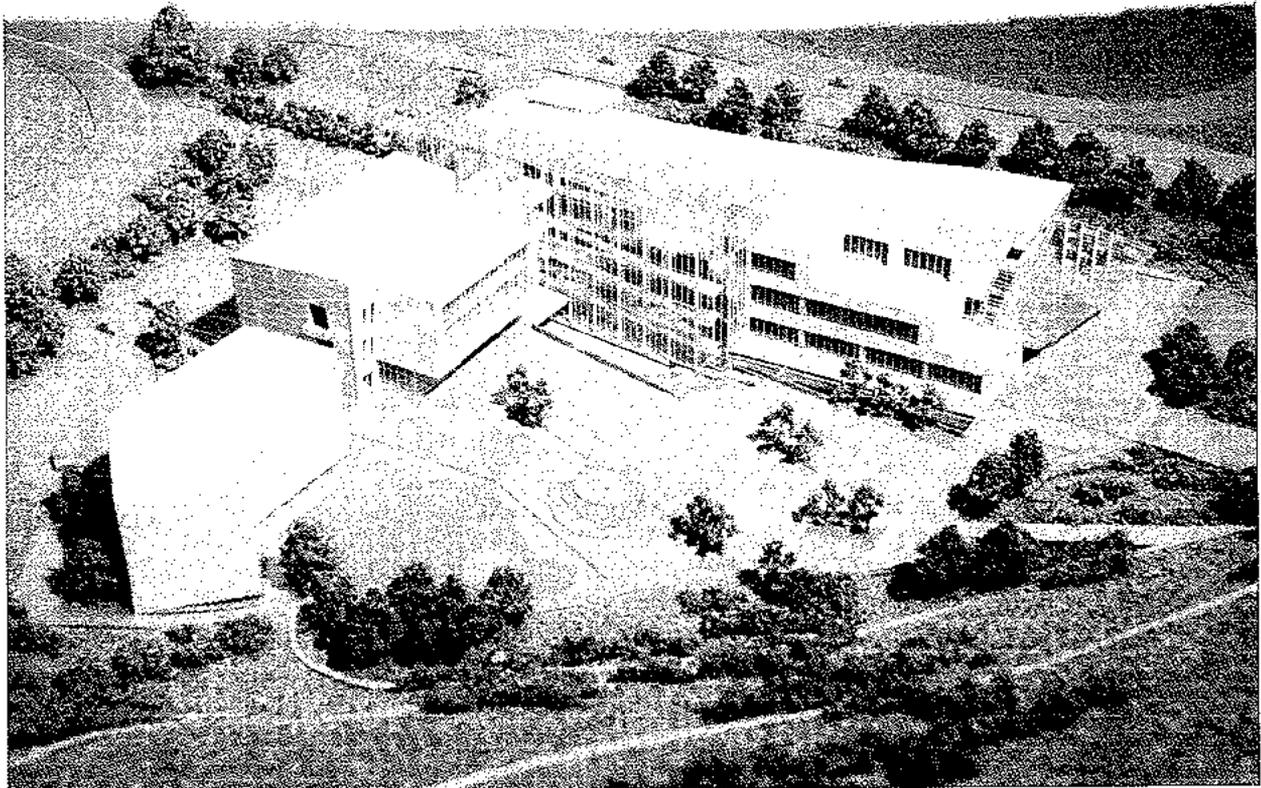
당선작 / (주)일건건축사사무소
(김종찬)+이제훈(단국대학교)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82-2일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2,539.00㎡
도로현황	전면 12m 도로
연 면 적	7,702.30㎡
건축면적	2,133.00㎡
건 폐 율	19.65%
용 적 율	49.64%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층 수	지하 2층, 지상 3층
최고높이	16m
외부마감	50 입출성형 시멘트판, 20적삼목, 24 투명복층유리
설 계	일건-안성준, 정용주, 장만희, 최성철, 홍성식+단국대-윤원, 홍현표

장애인들은 신체적인 이동 제약, 물리적 환경 장애와 일반인들과의 차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족한 편견으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 정보문화센터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생활, 교육, 재활 등과 같은 복지시설 개념을 갖고,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능적, 형태적,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건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계획의 대상지는 북측은 경부고속도로 서초IC에 인접하고 남측은 우면산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평평한 대지이다. 서울 시내에서 고속도로를 달려 내려가다 보면 도심의 건물들이 끝나는 순간, 탁트인 전경과 함께 만나게 되는 대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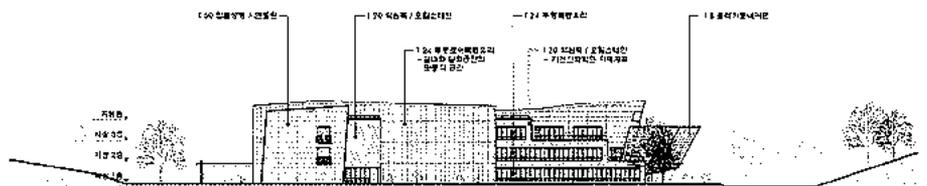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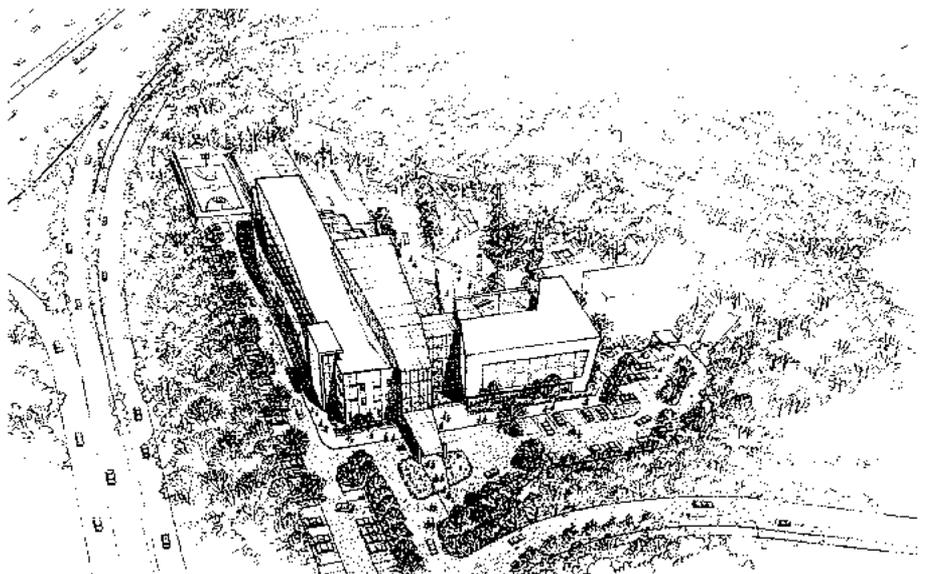
계획의 전제로서 고속도로에서의 인지성 및 소음문제 해결, 주변 우면산 공원과 연계된 친환경적 외부 공간 계획으로 열린 마당 조성,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성 구축이 고려되었다. 건물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장애를 느끼지 않고 건물과 대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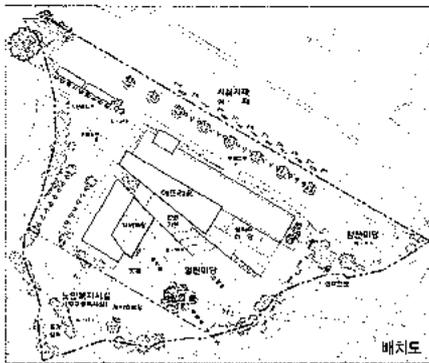
하나의 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고속도로에 접하여 약 30m폭의 차폐시설녹지가 있고, 옥외 주차장을 설치하여 건물이 충분히 이격이 되도록 하고, 소음차단벽의 이중 차단으로 고속도로의 소음이 완벽히 차단되도록 건물을 배치하였다. 또한 이 소음차단벽은 장애인 정보문화센터를 알릴 수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로 활용, 고속도로에서의 인식성을 높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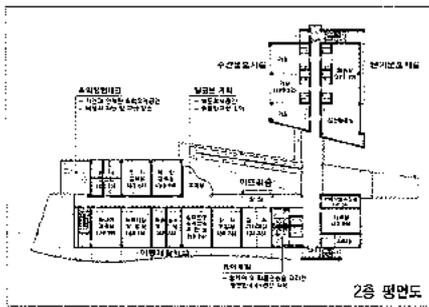
"L"자형의 건물의 북쪽 배치를 통해 남쪽에 넓은 옥외 마당을 조성하였으며 이 옥외마당은 주출입구 부분으로 건물 내부를 관통하여 주변 우면산 공원이 서로 연계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건물 내부 아트리움 및 옥외 테크를 통해 자연을 실내로 깊숙이 끌어들이 친환경적 내부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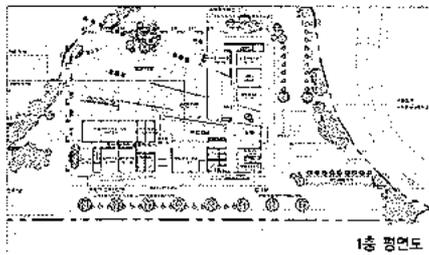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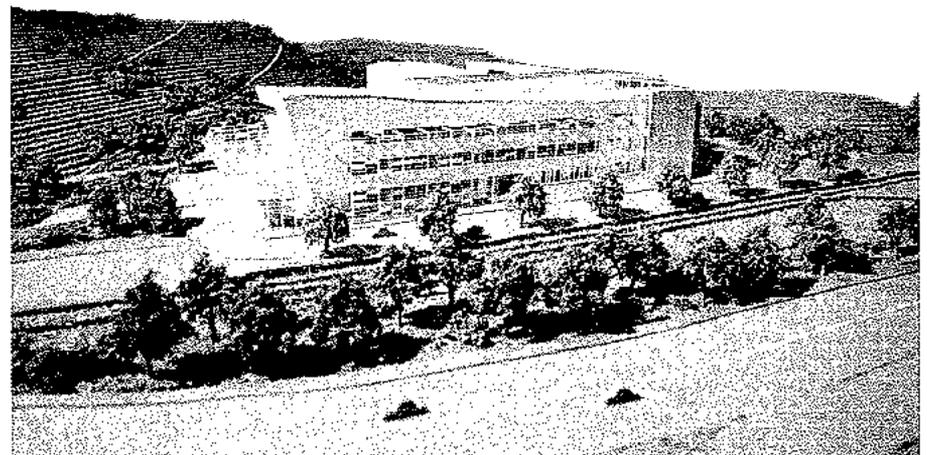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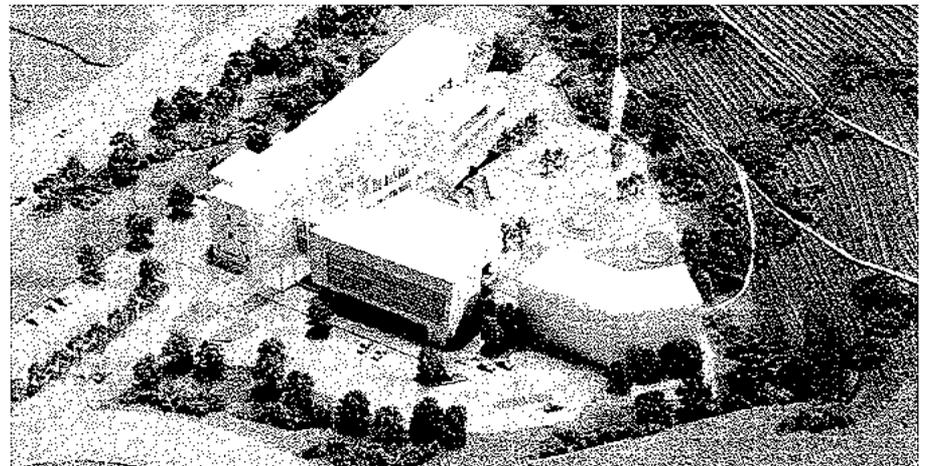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서초 장애인 문화센터

Seochu disabled culture center

우수작 / (주)에림종합건축사사무소(박관수)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382-2일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12,539.00㎡
도로현황	15m
연면적	8,143.36㎡
건축면적	1,964.31㎡
건폐율	15.67%
용적율	37.78%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 2층, 지상 3층
최고높이	15.1m
외부마감	칼라복층유리, 외경용 메탈패널, 고밀도 목재외장패널

장애우 부모의 꿈

자연과 도시가 만나는 이곳에 지역주민에게는 쉴 수 있는 숲을 제공하고, 장애우에게는 재활과 통합을 위한 재활시설을...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게 소원인 장애우 부모에게는 평안한 마을을 줄 수 있는 시설을 그려본다

배치계획

1. 치유지중심의 중정계획
2. 정보의 숲만들기 (양재시민의 숲과 연계)
3. 남향배치 및 고속도로로부터 이격
4. 명확한 보차분리
5. 저층화 (지하1층, 지상2/3층)
6. 노인시설 증축에 대한 접근동선 단축

평면계획

1. 휠체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의 공간인식을 위한 직각평면계획
2. 지하층의 지상화(선큰도입) - 모든 재활시설

및 주차장

3. 편복도 계획으로 자연채광, 자연환기 유리
4. 로비에서 아트리움을 통한 중정 조망권확보
5. 강당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 공공성부여
6. 주거개념의 보호시설을 남향배치
7. 모든 실의 출입문은 미닫이문 설치
8. 시각장애인과 중증휠체어장애인의 통행을 고려한 주출입문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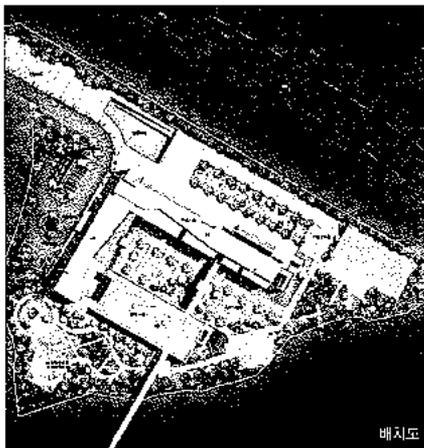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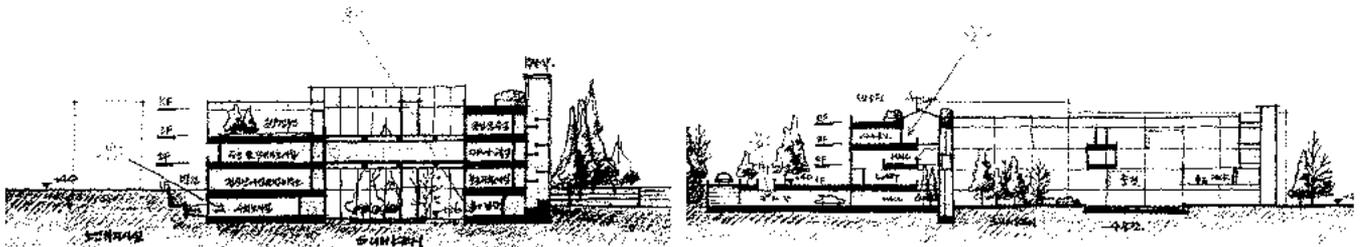
입면계획

1. 새의 날개이미지를 형상화하여 재활의 건축적 이미지로 표현
2. 정보의 창 이미지로 하이테크하고 현대적인, 서울의 관문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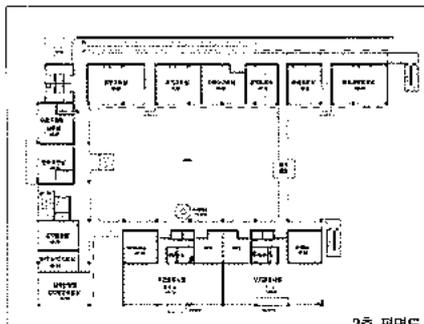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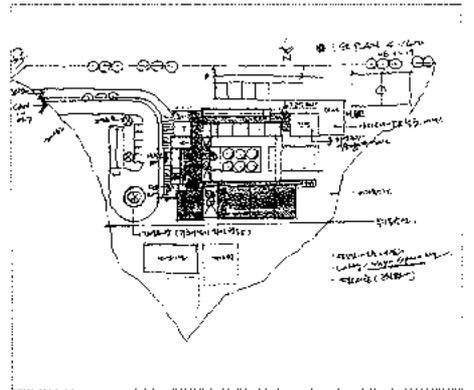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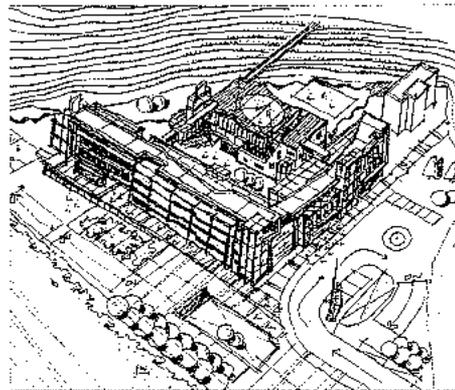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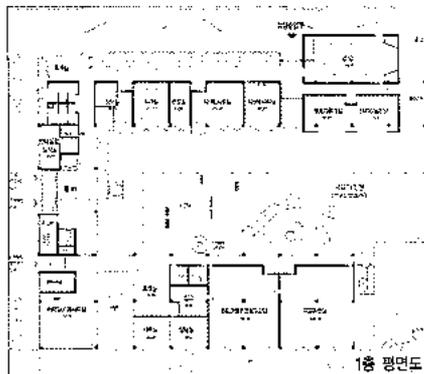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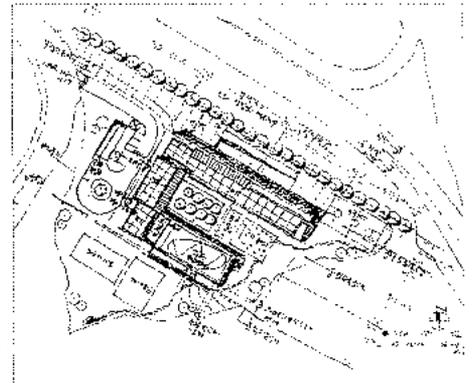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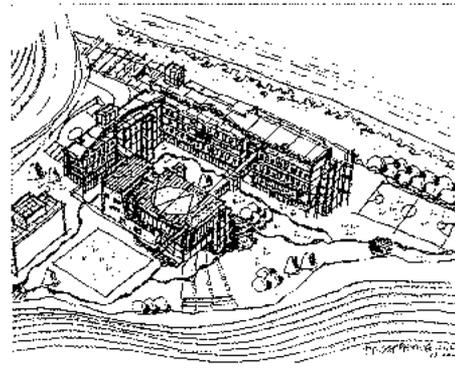
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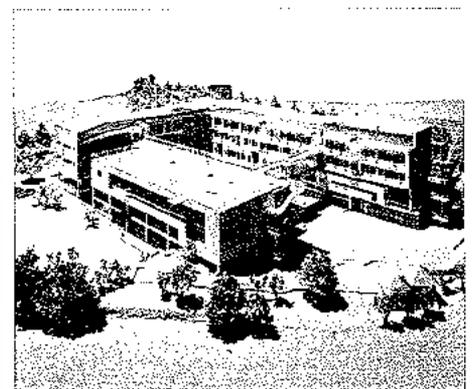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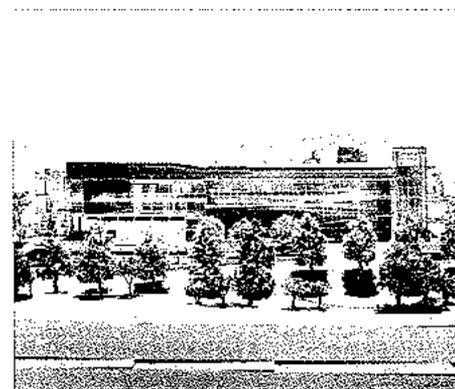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서초 장애인 정보문화센터

Seocho disabled culture center

가작 / (주)에이텍종합건축사사무소(김상길·김희옥)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282-2 일대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복지시설
 대지면적 12,539m²
 건축면적 2,106.57m²
 연 면 적 8,169.54m²
 건 폐 율 16.80%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설계담당 전병욱, 조준호, 이명재, 황정순, 강진구,
 최준석, 정석현, 김낙훈, 고경석, 김준현

감각의 풍경(Sense Scape)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는 기존 장애인 시설의 한계인 관리위주의 패러다임을 넘어선다. 이를 위해서 정상화(定常化)와 탈시설화(脫施設化) 이론을 도입하고 장애인과 정상인과의 벽을 허물고 사회통합을 실현한다. 더불어 관리위주의 시설이 아닌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함께 모일 수 있는 안전한 복지관을 추구한다. 더 나아가 쾌적한 치유환경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삶까지 풍요롭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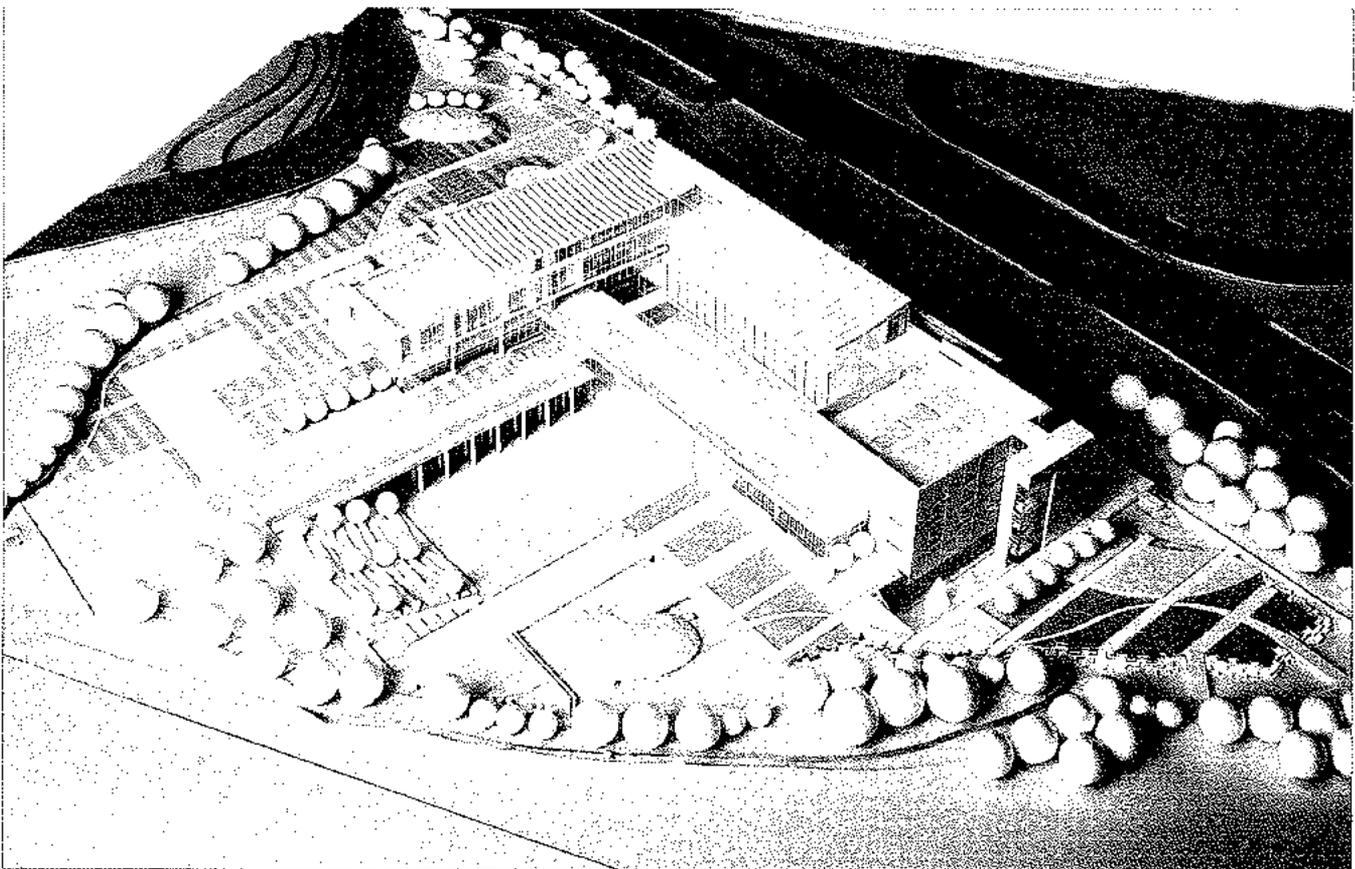
서초장애인정보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의 설계주안점은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는 자족적인 도시로서의 문화센터이다. 이는 고립된 대지의 성격에 대응하는 것이며 동시에 관리자 위주의 '시설'이 아닌 사용자 위주의 문화센터를 추구한다. 즉, 기존의 시설이 갖는 위계적이고 중심 공간으로 계획된 구조가 아니라 자율적인 도시구조와 같은 네트워크 구조로 계획을 하였다. 예를 들어 아케이드(교감의 거리)는 도입된 활기찬 도시가로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매개공간이며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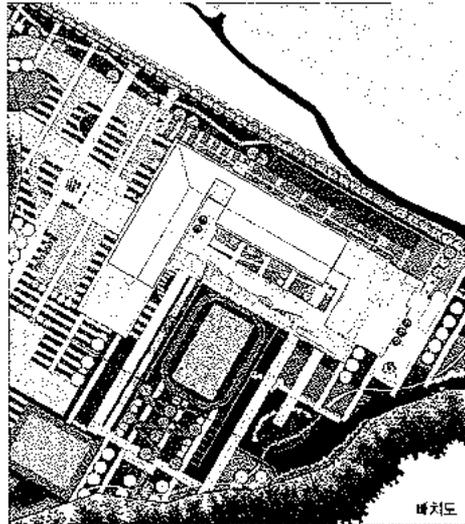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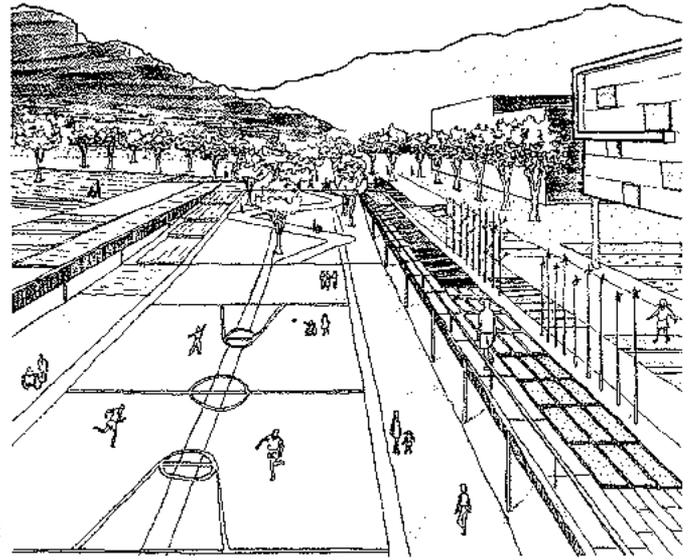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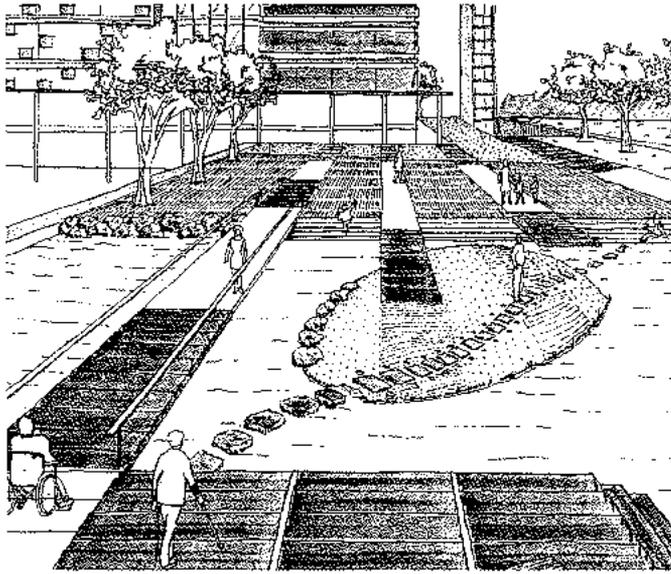
두 번째는 '치유환경으로서 외부공간'이다. 치유

환경요소를 프로그램화하여 외부공간에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치유환경을 도입하였고, 각 공간마다 그 성격에 대응하는 정원과 중정, 외부공간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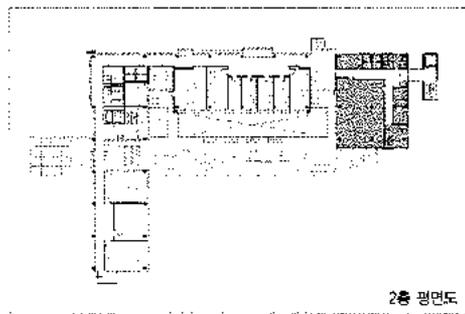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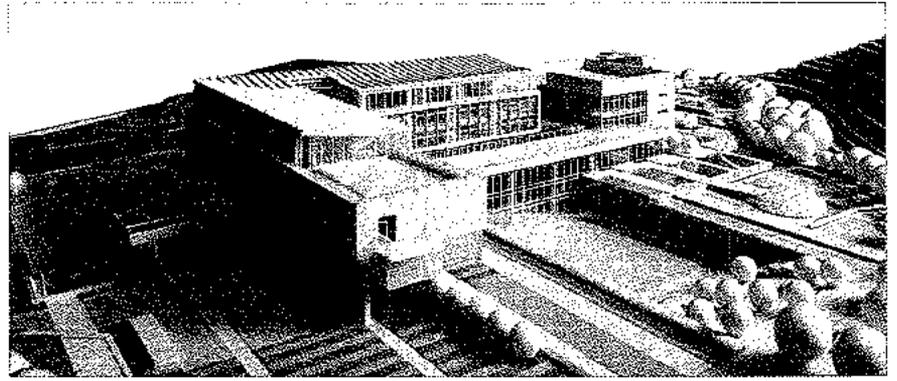
세 번째는 '감각의 지도'의 구축이다. 장애인의 인지 조건은 좀 더 다양하며 새로운 인지 환경의 구축을 요구한다. 그래서 색, 소리, 향기, 냄새와 같은 다양한 감각 요소를 지도처럼 재구성하여 공간을 인지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마지막은 '시설의 공간화'이다. 본 문화센터는 기존 관리 및 관리자 위주의 시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건축적 대안을 제시하고 장애인 시설이 가지는 성격을 건축적인 요소로 공간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수직 동선을 이용한 vertical corridor로서의 엘리베이터, 지하공간을 공간화한 '교감의 거리'로서의 아케이드, 옥상정원인 누리마당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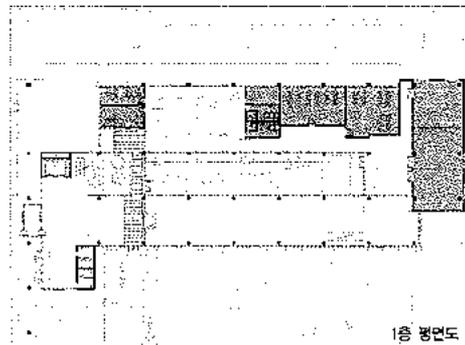




배치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서초 장애인 문화센터

Seocho disabled culture center

가작 /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김정환)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82-2번지 일대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대지면적	12,539.00㎡
건축면적	2,006.24㎡
연면적	7,931.89㎡
건폐율	16.00%
용적률	39.90%
규모	지하 2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주차대수	44대(장애인4대포함)
외부 마감	회강석, 두께 24mm칼리복층유리, 금속패널, 탄성페인트도장
설계담당	남광호, 최천, 이효우, 김진희, 신미라, 이병택, 김진경, 인성희, 김효영

차단과 열림

대지의 동측으로 고속도로의 차량소음과 트인 조망이 있는 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건축 장치로서 투명한 Green Filter 공간을 두었다. 소음을 차단하면서 전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수목식재로 환경을 조절할 수 있는 실내 정원으로서의 휴게 공간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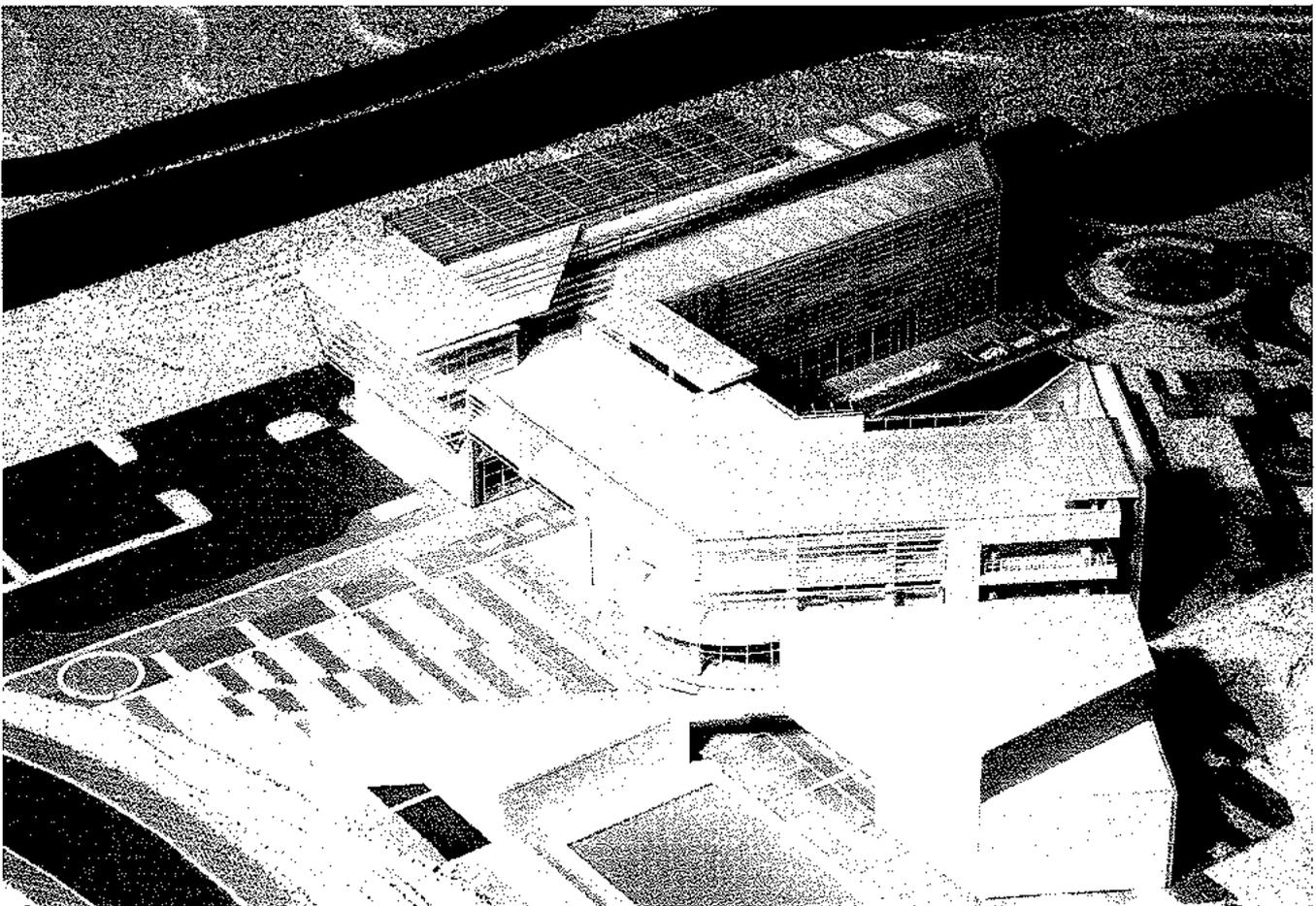
펼침과 연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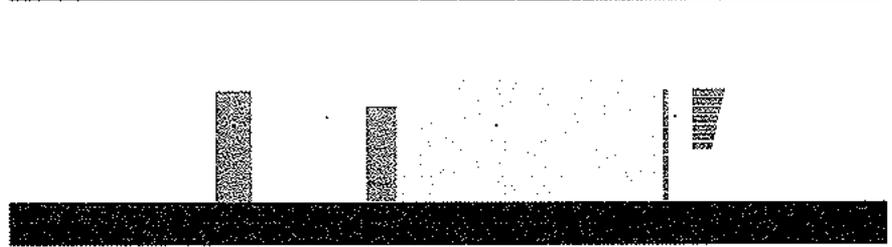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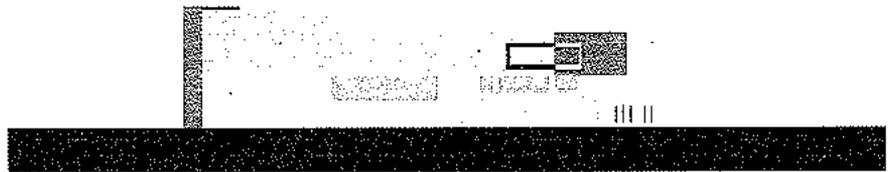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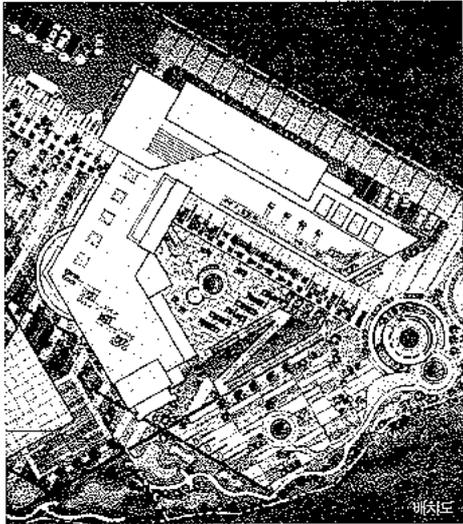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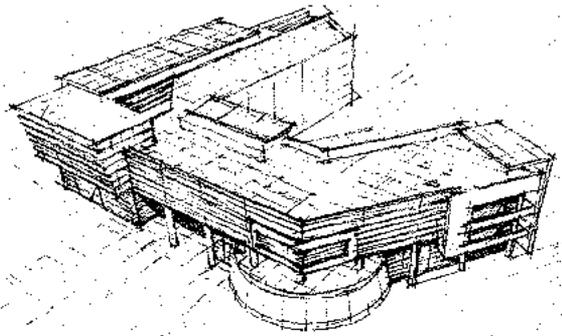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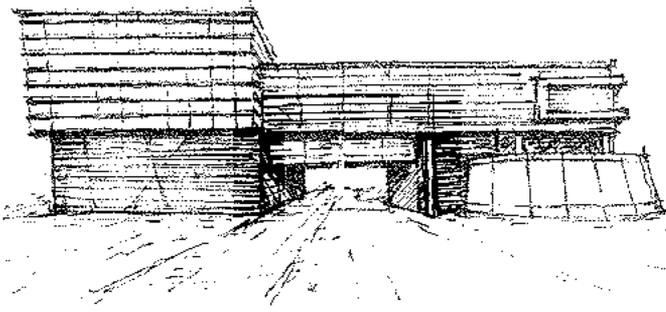
대지의 형상에 의해 세 개의 대지축을 갖는 형태에서 남향으로 펼쳐(SPREAD) 건물과 자연으로 위요된 외부공간을 형성, 사용자의 정신적 안정감을 주는 치료정원으로서의 역할과 일부 저층부를 피로티하여 진입광장과의 연속성을 부여한다.

공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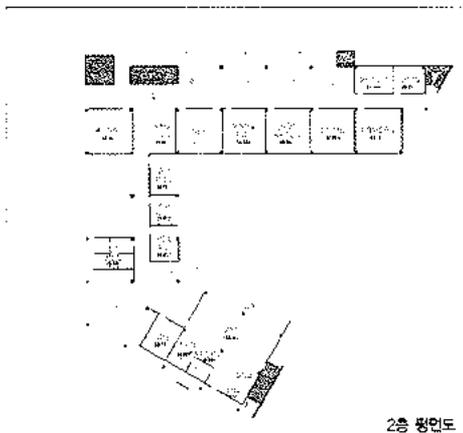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신, 아동, 청소년 장애인 교육 및 재활, 사회참여공간을 층별로 분

리하여 접근성, 안전성, 식별성을 갖춘 효율적인 실 구성을 하였고, 각종의 공용 복도는 휠체어 장애인의 활동영역을 고려하여 넓게 계획하여 동선의 흐름을 원활히 해주고 일부 알코브를 형성하여 휴게 및 전망, 대기공간으로서의 보호자 및 대기자를 배려한 계획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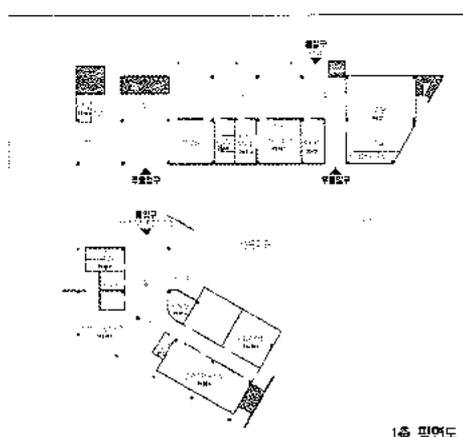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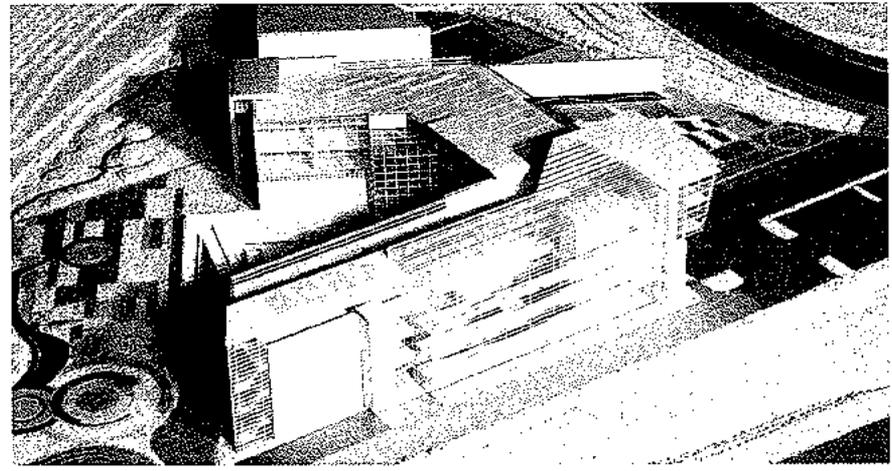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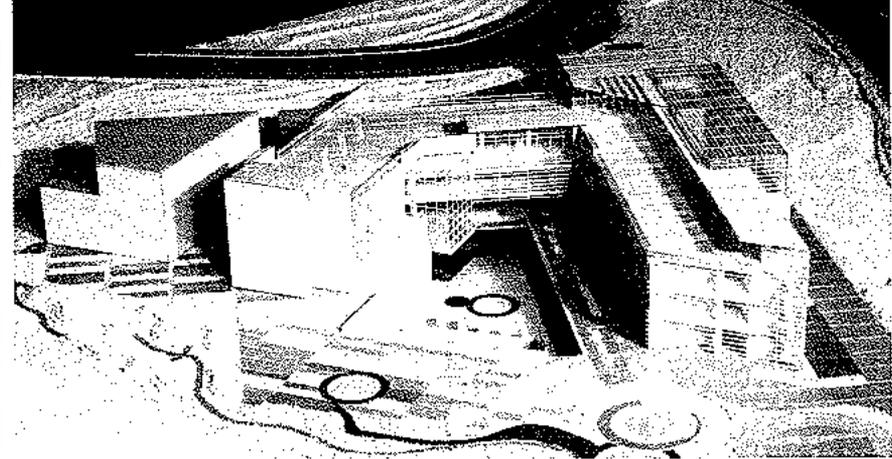
입면도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설계경기 | Competition

경상북도 학생종합문화회관

Gyeongsangbuk-do Multiculture Center for Students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심신수련, 각종 문화 행사 및 체험학습을 위한 기제공공과 청소년 문화조성의 중심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설계경기를 실시한 결과 당선작으로 (주)포스 에이.씨 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의 안을, 우수작으로는 (주)동우 E&C 건축사사무소 + 토식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가작으로는 (주)성림종합 건축사사무소 + 서린건축사사무소의 안을 각각 선정,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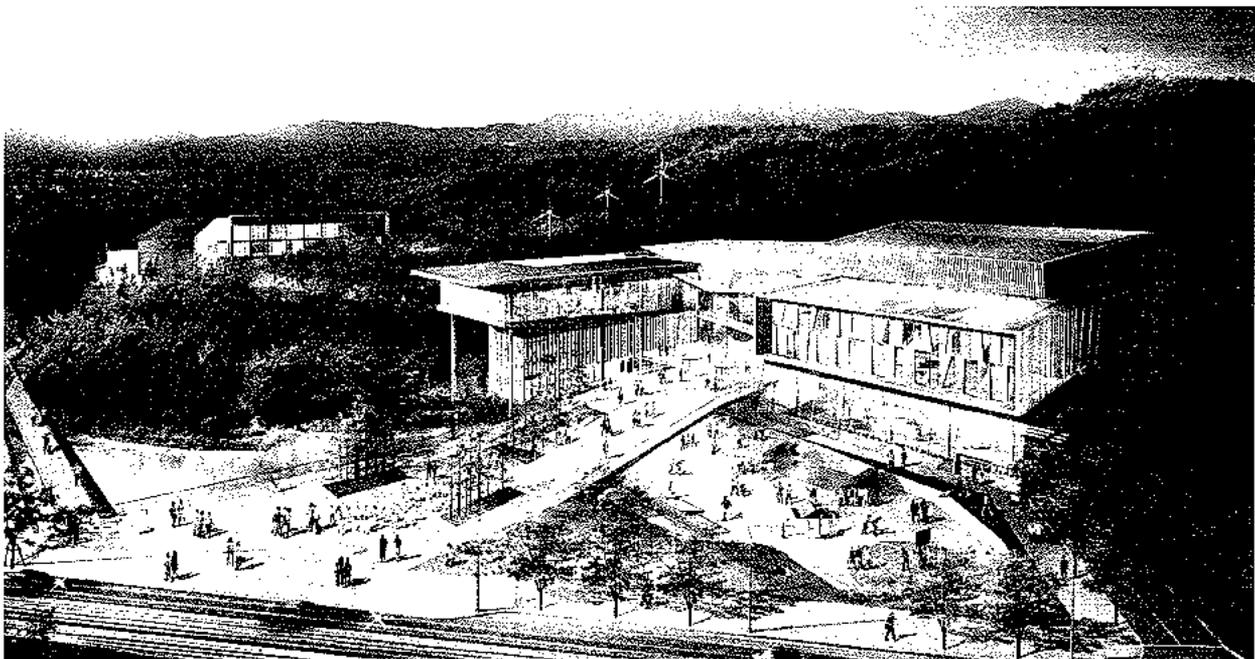
당선작 / (주)포스 에이.씨 종합감리
건축사사무소(김성현)

대지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255필지 일원
응도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
대지면적	41,000㎡
건축면적	7,106㎡
연면적	15,980㎡
건폐율	17.3%
용적율	25.6%
규모	공연장 관람석 1,320석(장애인관람석 22석), 기숙사 200명 수용
층수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주차대수	총 102대 (장애인주차 6대 포함)
설계팀	이영주, 최진달미, 김상수, 고윤영, 이택준, 김해진, 김태진, 윤지훈, 서윤희
협력업체	구조: 토담, 토목: 청하, 기계: 전기신일ENC, 무대: 음향OSD·GNT, 조경: 해인, OG: 데이릭스·다온, 보고서: LOOPS

Students Eco Village

- 미래의 짝을 띄우는 Cultural Garden

- 입체적인 부지활용계획
경사지원을 통해서 내·외부 공간을 연계하여 공간적 체험을 풍부하게 하고, 주된 입방장 하부를 야외운동시설과 통합하여 활용함으로써 공간의 효율을 높인다.
- 자연시형에 순응하는 Green Network 형성
대지의 능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지내부로 자연을 최대한 관입시키고 주변녹지와와의 밀접한 연계성을 높인다. 또한, 단지 내 계곡지형을 건물의 다이내믹한 기능적 요소인 스포츠·오락시설과 결합시켜 자연의 흐름을 살리면서 동시에 함목적인 공간을 구현한다.
- Barrier-Free의 다양한 Open Space
다양한 Activity를 유발하는 테마화 된 외부공간 계획으로 주변녹지의 활용도를 함께 높이고, Void 공간계획과 투명한 유리 외장재 사용으로 Open Space를 최대로 조성하였다. 자연으로 열린 공간을 구성함으로써 내·외부 공간의 상호 유기적 연계



를 시각적·공간적으로 강조한다.

• 기능적·유기적 내·외부 공간구성

- 기능적·유기적 동선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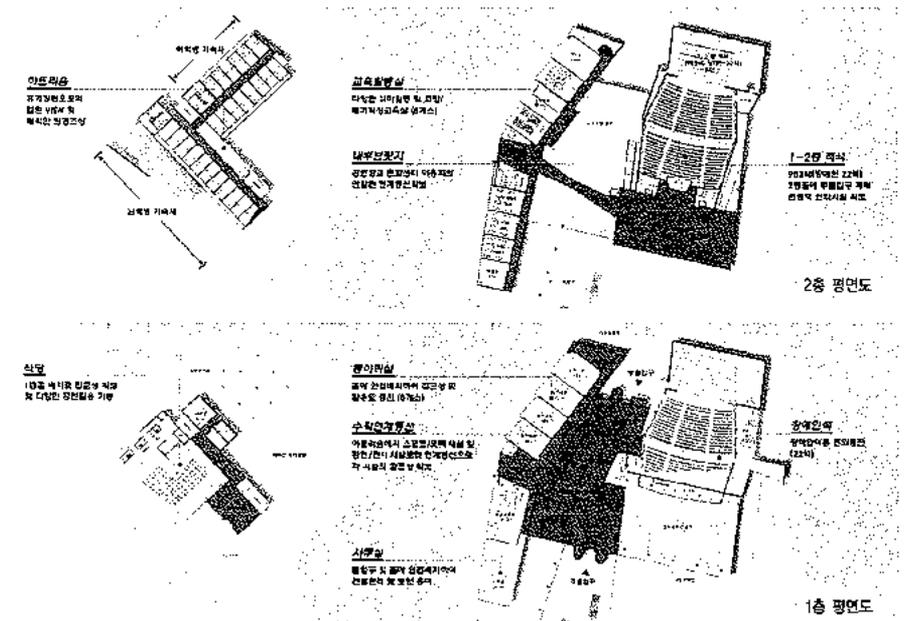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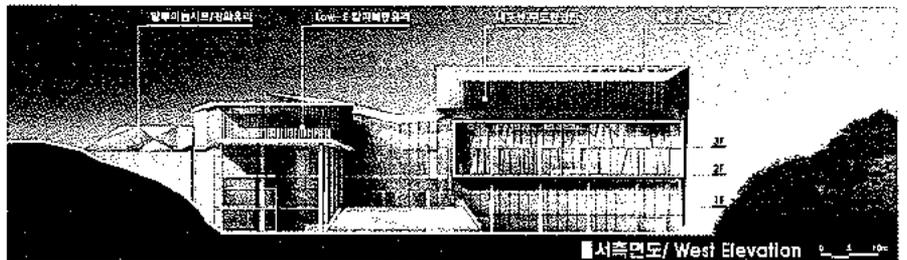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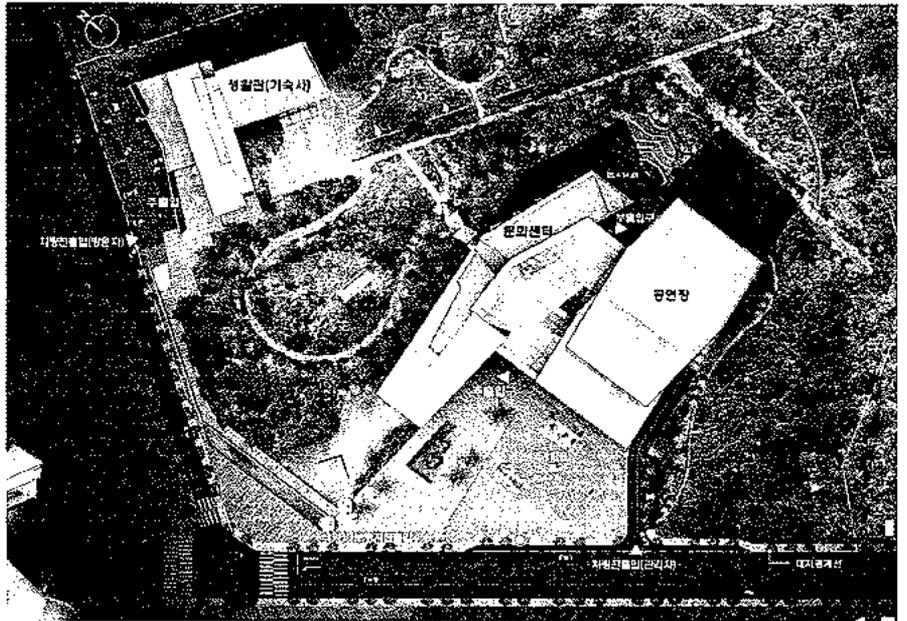
진입광장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보행동선을 계획하여 각 건물의 기능에 적합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 건물로의 접근성과 인지성을 높이며, 또한 지형의 흐름을 따르는 자연스러운 연계동선을 계획하여 쾌적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함.

- 친환경적 교통체계

대지 내 도로면적을 최소화하여 보행공간과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함.

- 기능의 구별과 공간의 통합

각 기능별 특성에 따른 테마화된 공간을 계획하여 시설을 분리하고, 자연지형과 대지레벨의 적극 활용 및 자연, 건축, 수공간, 광장 등 다양한 요소간의 관계형성으로 공간을 통합하여 공간적 Network를 형성함.



우수작 / (주)동우 E&C 건축사사무소(남효철·김태영) + 토석건축사사무소(황창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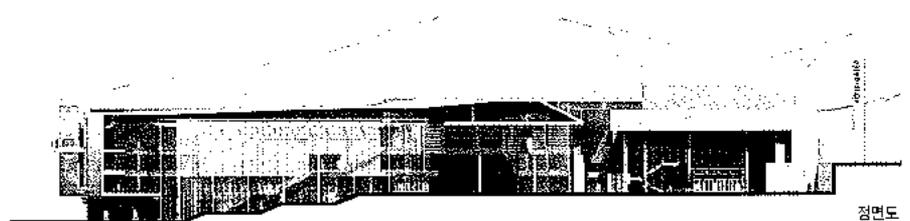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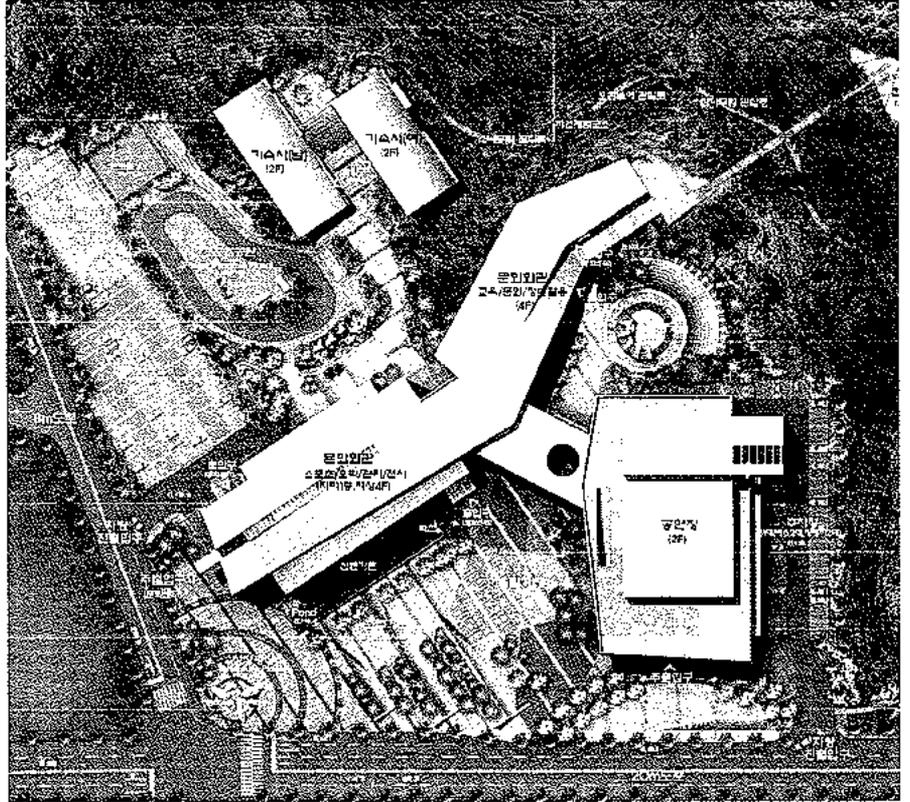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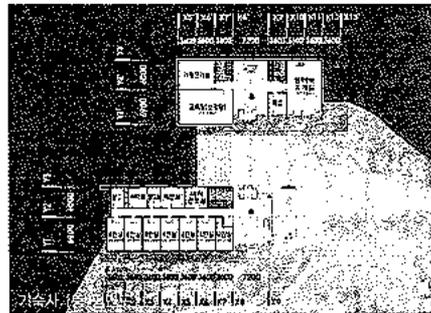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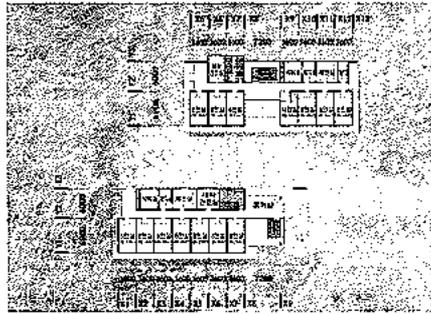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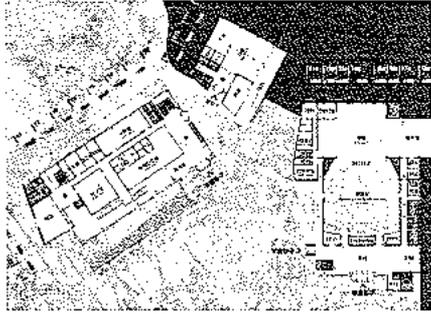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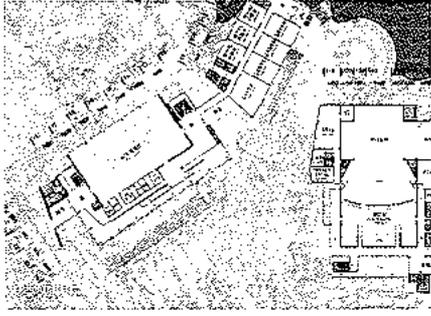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255필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41,000.00㎡
건축면적	7,812.26㎡
연 면 적	15,684.5㎡
건 폐 율	19.05%
용 적 륜	32.97%
규 모	지하1층, 지상4층
주요마감	SRC
주차대수	160대(주차인5대/버스5대)
설계담당	심재현, 강상훈, 최준섭, 김민정, 유선아, 이교재(동우 E&C)

‘호미꽃의 햇살이 굽어쳐 넘어드는 文化的의場 호미꽃 바다의 조망이 가능한 자연 지형에 놓이게 될 학생문화회관은 학생들의 창조적 정신이 변화하고, 육체와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듯 성장의 불결을 의미하는 자연 능선의 흐름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담는 형태로 연장되어 호미꽃을 향한 불결로 이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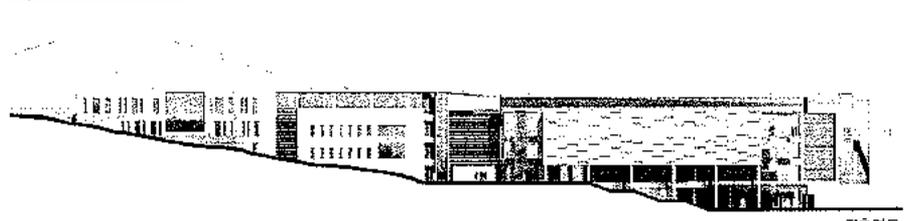
문화의 성장 커뮤니티와 자연이 성장하는 물 청소년 성장의 의미를 기존 자연 능선 방향에 따라 불결 흐름이 있는 형태로 재해석하여 자연의 흐름은 이어가고 도시의 흐름은 받아주는 물결을 이어가는 움직임임을 의도하였다. 자연의 능선을 따라 땅과 만나는 곳에 문화 프로그램을 엮어주는 ‘자연을 이어가는 물’로써 볼륨을 만들고, 도시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중심 가로인 ‘문화의 거리’는 커뮤니티가 성장해 나가는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기존 수림대가 연장되는 지형의 레벨에 따라 외부공간을 이어가는 ‘숲속 스포츠 공원’은 자연의 성장을 의미한다.

자연에 자리잡기 자연이 이어진 집, 앉혀진 집, 떠있는 집
기능적으로 본관, 공연장, 기숙사 세 개의 등으로 나뉘는 프로그램은 볼륨의 크기와 특성에 따라서 자연과 이어지고, 앉혀지며 떠있는 모습으로 자연에 순응하며 자리 잡는다. 본관동은 자연과 만나는 접점에 프로그램을 엮어주는 판을 들어 올림으로써 자연 능선과 하나되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의 기능과 동선을 입체적인 판으로 이어간다. 큰 공연장 볼륨은 자연스럽게 대지에 앉음으로써 자연 속 시각적인 볼륨의 부담감을 해소하며, 기숙사동은 기존 지형을 활용하여 자연위에 떠있는 방법으로 자연과 중첩된 경쾌한 볼륨 만들기를 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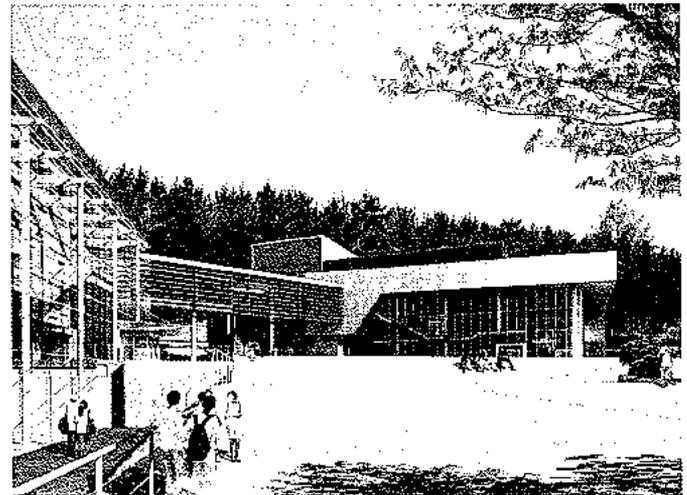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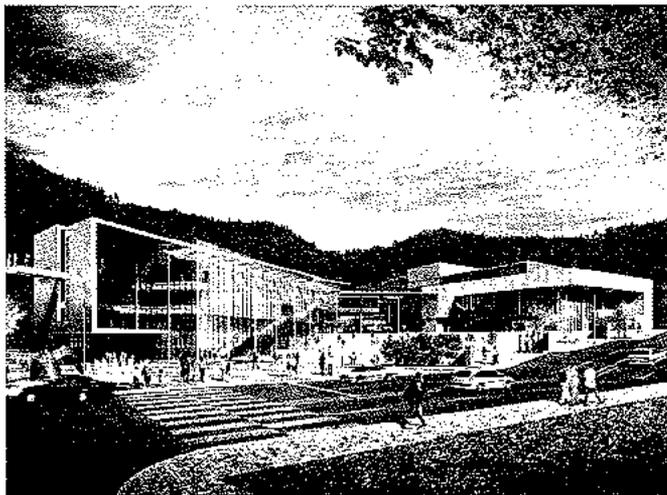




정면도



좌측면도



경상북도 학생 종합문화회관
Gyeongsangbuk-do Multiculture
Center for Students

가작 / (주)성림종합건축사사무소(임정렬 · 이상준) + 서린건축사사무소(정재기 · 김국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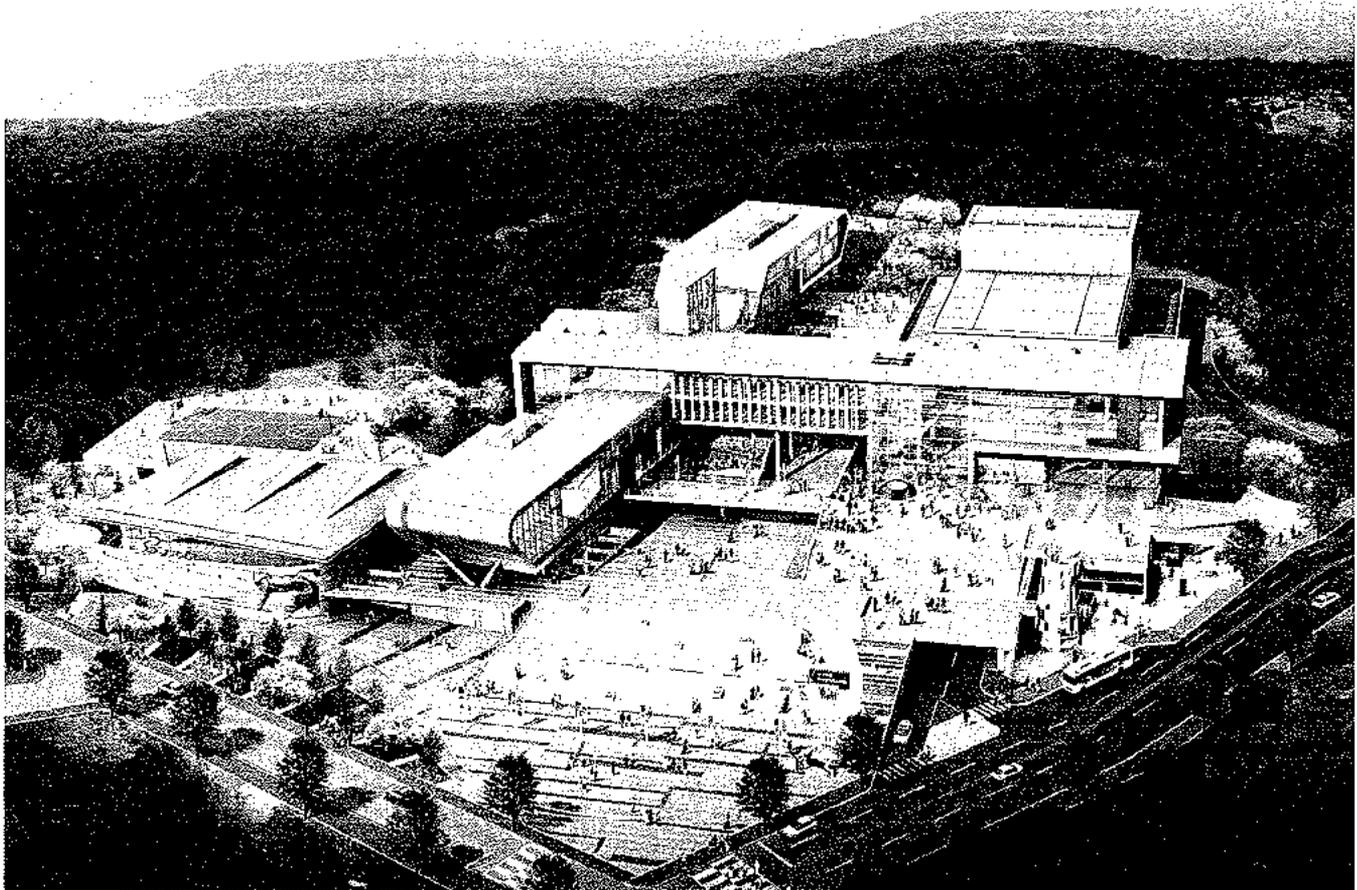
대지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255필지 일원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주요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대지면적	41,000㎡
건축면적	7,511.98㎡
연면적	15,622.42㎡
건폐율	5%
용적률	34.93%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설계담당	성림 : 조호환, 구남구, 안영훈, 신성환, 김경민, 정재영, 김효성 서린 : 배철학, 김상돈, 김성균

계획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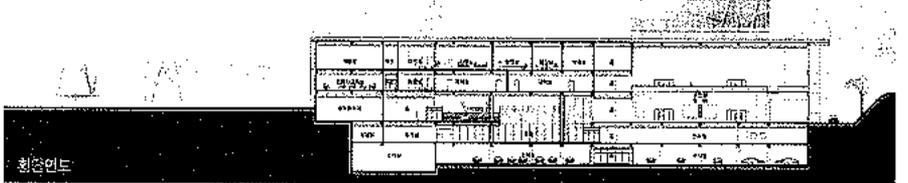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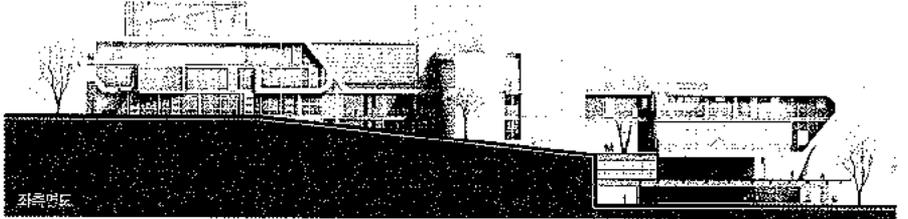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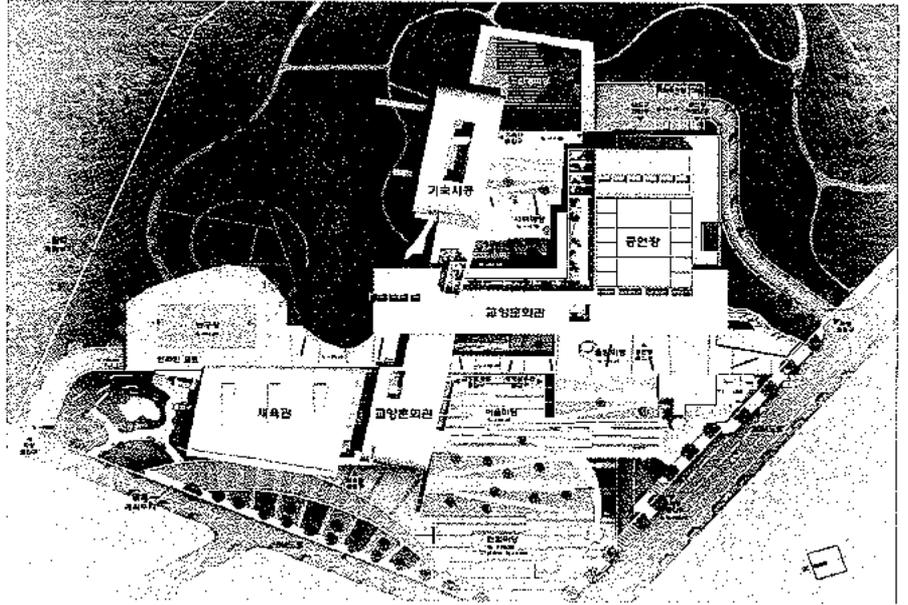
경상북도 학생종합문화회관이 들어설 대지는 환호 해맞이 공원과 장량택지개발지구 사이, 즉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다. 따라서 우리는 21세기를 선도하며 정직하고 창의적인 인재로 자라나는 호연지기의 배움터라는 건축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여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커뮤니티 조성, 자연지세와 도시문맥의 상호관입이라는 대지특성의 적극적 활용, 도시에서의 당당한 이미지 표현을 건축목표로 삼아 계획안을 진행시켜 나갔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생문화회관의 본 기능의 충실한 고려, 지세를 반영하며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배치계획, 자연과 소통하고, 사람과 소통하는 마당의 형성, 경사지를 적극 활용한 분동 형식, 관리·지원시설의 중앙배치, 보존되는 자연과 발전하는 도시의 공존을 계획의 수 계획 개념으로 수립하게 되었다.

배치계획

배치의 기본 방향은 대지를 구성하는 자연축을 최대한 부각시키며 이에 순응하는 마당을 조성하여 각 필요 기능들을 분산 배치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지를 공적, 사적, 중간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필요기능에 맞도록 조닝하였으며 각 기능들을 이어주는 마당이 자연축을 따라 자연스럽게 생성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배치의 주된 개념인 데크는 사용자들을 진입장에서 자연으로 유도하며 분동배치된 시설들을 연계하는 길로써의 역할을 하고 자연의 산세를 데크로 받아들여 건축물과 자연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매개적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데크에서 우리는 도시에서 자연으로 나아가는 과정과 청소년들이 성장, 수련하는 과정과 같은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의미를 부여하였다.



- **관(觀)**: 진입광장 / 자연과 시설을 인지하는 공간 / 한얼마당
- **지(知)**: 교양문화시설, 공연장 / 배움을 시작하고 알아가는 공간 / 어울마당, 울림마당
- **호(好)**: 기숙사 / 자연을 좋아하게 되는 공간 / 정적인 사색마당
- **락(樂)**: 야외공연장, 자연산책로 / 자연과 동화되어 즐기는 공간 / 능동적인 교육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신명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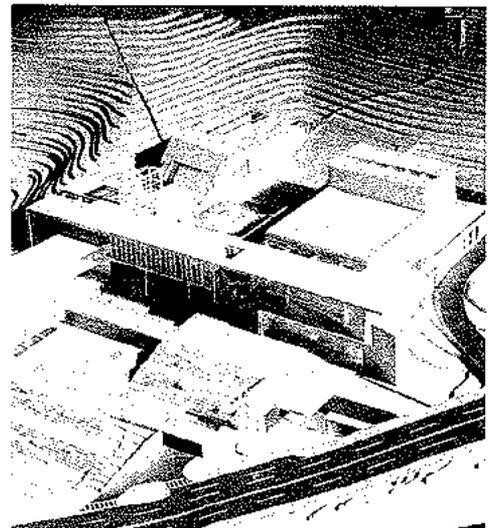
기숙사 2층 평면도



주치장, 체육관 1층 평면도



도서관, 교양문화관 1층 평면도



서구건축문화의 이식통로-원조프로그램과 한국건축계 재편

안창모 /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교수
by Ahn Chang-mo

6.25전쟁이 도시와 건축에 미친 물리적 피해는 논의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막대하였지만, 전쟁으로 인한 불적 피해가 건축계에는 기회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건축의 기회가 많아졌다는 측면을 넘어서, 도시와 건축을 재건한다는 것은 개항 이후 우리의 도시를 만드는데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배하의 건축인들에게 해방 후 스스로 삶의 터전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회는 준비되어 있는 자들의 몫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해방은 도적처럼 왔다가 상처와 회한을 남기고 도적처럼 가버렸다.'고 누군가 이야기했지만, 도적처럼 찾아온 해방에 이어 날벼락이 된 전쟁은 전 국토를 폐허로 만들었고, 그 이후를 대비할 준비와 능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건축계가 암울한 현실을 딛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이 투영된 오늘의 도시와 건축의 모습은 이러한 전쟁이후의 상황을 극복하는 도정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의 관성이 여전히 가운뎃 전쟁과 외국원조에 의해 새롭게 재편되는 1950년대 한국건축의 모습을 드러내자 한다. 전쟁과 외국원조가 우리의 도시와 건축은 물론 한국건축계의 구조 개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피는 것은 오늘의 한국건축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해 줄 것이다.

전후 한국건축계의 구조개편

■ 건축인의 공간 이동: 남으로... 북으로... 해외로...

전쟁이 종료되면서 상이한 이데올로기를 지닌 건축인들의 정치지가 이념에 따라 정리되었다. 일제강점기에 고등공업학교 이상에서 건축교육을 받은 건축인은 해방 당시 경성고공 출신이 60여명, 일본 유학생 출신이 60여명(추정치) 정도였다. 이 중에서 경성고공 출신 건축인 중 북한거주자는 월북건축인 12명, 재북건축인 7명 정도로 추정되며, 일본유학 건축인에 대한 통계치는 존재하지 않지만 경성고공 출신과 비슷한 비율의 건축인들이 월북 내지 재북의 형태로 북한에 거주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월북건축인에 비해 월남건축인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쟁을 전후로 월남한 건축인으로는 김종업, 김두섭, 나상기, 정인국, 김봉우, 길경일, 정경운, 박형삼, 김참전, 이연섭 등이 있다. 해방공간에서 남과 북의 건축인들은 어느 정도 서로의 소식을 전할 수 있었고 왕래도 가능했었지만, 전쟁은 이러한 상황을 물리적으로 종식시켰다.

해방과 전쟁을 전후한 건축인의 남북으로의 이동은 숫자보다는 내용 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전쟁 전 남한의 조선건축기술협회에서 역할이 두드러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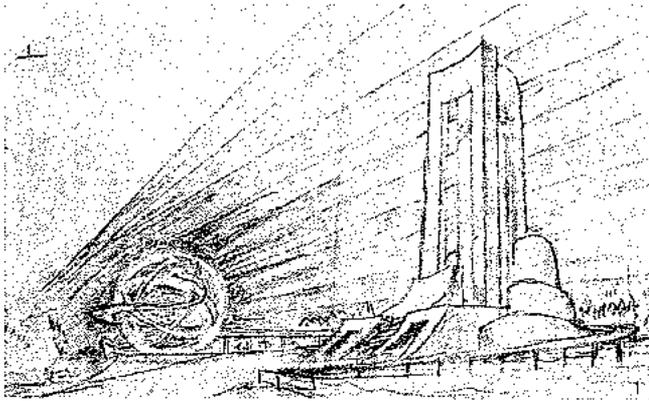
던 진보성향의 젊은 건축인들은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건축론과 건축의 현실 참여 및 사회적 역할을 기관지 「조선건축」을 통해 제기한 바 있으며, 식민지 체 청산과 주택문제뿐 아니라 통일에 관한 현실적인 정치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월북으로 남한 건축계는 건축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반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중의 건축인 사망과 월북건축인은 남한 건축교육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염창현 등을 비롯한 4명의 서울대 건축과교수(김면식, 황의근, 강상천)이 월북했고, 「조선건축역사」를 강의했던 김한철이 전쟁 중 사망함으로써 남한 건축계는 오랫동안 건축역사 교육의 공백기를 갖게 되었다. 실제로 전후 재건된 건축학회의 기관지 「건축」에서 1950년대 내내 건축역사 및 이론에 관한 글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해방전 고등건축교육기관이 부재했던 북한의 경우 월북건축인은 사회주의 국가체제 구축을 위한 도시와 건축활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나 그 내용이 밝혀진 것은 없다.

한편, 소수이기는 하지만 해외로 나가는 건축인들도 있었다. 김종업, 김수근, 김한섭이 대표적인 예가 된다. 서울대 교수로 재직중이던 김종업은 1952년 9월 22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개최된 제1회 세계예술가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f Artists, 주제: 근대사회에서의 예술가)에 한국대표의 일원으로 참가한 것을 계기로 현지에서 만난 포르투갈의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서울대 건축과에 재학중이던 김수근은 일본으로 밀항하여 동경예술학교 건축과에서 수학하게 되었다. 김종업과 김수근의 해외행에 비해 김한섭의 도일은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해방전 일본대학 고등공업학교 유학중 만난 월북건축인 오영성의 영향으로 진보성향을 갖게 된 김한섭은 1952년 전쟁의 흐름이 역전되자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한국을 떠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김한섭의 도일 배경은 김종업과 김수근의 해외행과는 다른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인 단면을 잘 보여준다. 이들의 해외행의 목적이 각기 달랐고, 귀국 후의 활동 역시 각기 다른 면모를 보이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한국 현대건축의 형성과 전개에 큰 족적을 남기게 된다.

■ 전후복구기의 해방전후 교육세대 등장

해방공간과 전후복구기에 건축인의 역할은 설계, 시공, 구조 등에서 전문성을 갖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건축계의 전문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능력과 소질에 관계없이 돈이 되는 곳에 건축인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해방 전에 자신의 건축작품을 남긴바 있는 중견 건축인들은 해방공간에서 대부분 건설 청부업에 진출하였고, 이로 인해 해방공간에서 50년대 후반에 이르는 10여 년 동안 건축계는 건축설계의 공백기를 갖게 되었다. 빈곤과 전쟁은 건축의 직능해체를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건축설계의 맥이 단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엔참전기념탑

미군의 전주와 함께 일어난 건설업 호황은 대부분의 건축인들을 건설청부업으로 몰아갔지만, 해방 전후 교육세대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젊은 건축인들은 증건건축인들이 자리를 비운 건축설계 부문에서 간헐적으로 진행되었던 현상공모(서울만물전 현상공모, 국민주막 현상공모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제한적이지만 건축계에 그 존재를 드러낼 수 있었다. 해방 전후 교육세대가 전쟁 전에 개최되었던 현상설계 뿐 아니라 전후에 진행된 현상설계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증건건축인의 기득권 독점으로 인해 해방 전후 교육세대가 돈이 안 되는 현상설계로 내몰린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기 피난지 수도였던 부산에서 2건의 현상공모가 진행되었다. 당시 '유엔참전기념탑'(그림 1)과 '국난충혼탑'의 현상공모에는 당시 현역 작가들이 모두 참여했으나, 두 현상공모에서 이광노가 당선되어 건축계에 등단함으로써 해방 후 교육세대의 등장을 예고했다.

전후 전 국토가 폐허화된 상황에서 건축기술자의 절대 부족으로 해방 전후 교육세대의 전후복구 참여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1950년대 초에는 건축인을 배출할 수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와 한양공과대학 뿐으로 그 수가 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전후 복구과정에서 이들의 참여는 보장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들 역시 건축사사무소보다는 각기 관공서 및 건설업으로 진출했는데, 이는 전후복구의 한국사회가 건축사보다는 기술자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들 중 일부는 현상설계를 통해서 건축계에 등장하였고, 원조프로그램에 의한 건축유학으로 서구 건축을 직접 체험한 젊은 건축인들은 교육계로 진출함으로써 일제하 교육세대에 의해 주도되던 건축교육에 미국의 영향이 접목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현업의 젊은 건축인들은 해방 전 교육세대와는 달리 외국의 건축경향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새로운 건축기술과 조형의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하여 이전의 건축디자인과는 다른 흐름을 형성해 나아가는 주역이 되었다.

■ 원조프로그램과 증건건축인의 부활

전쟁 직후 건축계의 모습은 전쟁 전과 크게 다를 바 없었지만 50년대 중반 이후 재건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1950년대 중반 이후에 건설청부업으로 진출했던 상당수의 건축인들이 건축설계와 학계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는 전재복구를 위한 미국원조가 본격화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이들이 다시 건축사로서의 삶으로 복귀하는 데는 미국의 원조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건축설계로의 복귀는 크게 2가지 경로를 밟게 된다. 하나는 미

국으로의 연수기회였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원조 하에 건설되는 각종 건축에서의 설계수주였다. 이 두가지 경로는 학교를 통해 하나로 이어졌다. 미국연수에서 돌아온 건축인들은 대부분 기존 또는 신설 대학의 건축과에서 교수겸 건축사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쟁 전 국립대학교 설치안에 따라 건축과도 4년제 체제를 갖추어 미국식 건축교육의 틀을 외형적으로 갖추게 되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과거 일제강점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해방 전에 비해 오히려 부실했다고 할 수 있다.

전쟁 중에도 건축교육은 전시연합대학 체제로 지속되어 건축인들이 배출되기는 하였지만, 교육내용의 내실을 따질 상황은 아니었다. 진전에 설립되었던 서울대학교와 한양공과대학 이외에 1952년 10월에 경북대학교, 전북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에 건축과가 설치되었으며, 1953년에는 부산대학교, 충남대학교, 청구대학교, 1954년에는 홍익대학교에 건축미술과가 설치되었다. 이처럼 전후 설립된 많은 대학에 건축과가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과장원도 대폭 증원된 것은 전후복구에 필요한 건축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급증하는 건축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학교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진의 확보가 불가능하고 시설지원과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한 학교교육을 사회가 부담하는 기형적 구조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기술중심교육은 전후 복구과정을 통해서 더욱 심화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전후복구에 이루어진 미국연수의 혜택을 받은 건축인들은 귀국 후 학계와 현업에서 중심적 임무를 구축하게 되었다.

미네소타 프로젝트

전후 복구기 원조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소비재와 생산재 부문에 집중되었으나, 미네소타프로젝트는 전쟁으로 폐허화된 대학교육을 재건하는 원조프로그램이었다. 미네소타프로젝트는 서울대학교가 미국 원조당국의 지원을 받아 성립된 것으로 인적교류에 집중되어, 공대와 의대 및 농대를 중심으로 교수 등 학자 133명이 미네소타대학에 파견되었다.

건축부문에서는 미네소타대학 건축과의 그라폰다 교수로부터 교육방향과 시설개선 등에 대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며, 김희춘, 김정수, 윤정섭 등이 선발되어 6개월에서 1년에 걸쳐 미네소타대학에서 연수가 이루어졌다. 이 들중 김희춘은 서울대학교 교수 신분이었으며, 윤정섭은 귀국후 서울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고, 김정수는 연세대학교 교수로 부임하였다.

당시 미네소타대학에는 MIT출신의 램슨(Ralph Rapson) 교수가 재직하고 있었으며, 미국 건축교육계는 미스와 그로피우스, 르코르뷔제와 호세 루이 서트 등이 주도하는 국제주의 건축의 영향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다.¹⁾

미네소타 대학을 다녀온 김희춘 교수는 자신의 교회 기념 논문집에서 '저는 미네소타 대학원에 가게 됐어요. 서양건축사를 주로 공부했지요. 미네소타는 과장이었던 램슨 교수에 의해 모던 디자인에 대한 강력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그 시작은 1938년부터였다고 합니다. 램슨교수는 Contemporary Design에 대한 강력한 시도자였어요. 보수적인 풍토에서 새로 시작한 것이지요.'라고 당시를 회고한 바 있다.

미네소타대학에서 연수를 마친 3인중 윤정섭은 도시계획을 전공하였고,

1) 류전희, 근대건축교육 학계의 형성파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3

김희춘과 김정수는 이후 국제주의 건축 경향의 디자인을 추종하였는데, 김희춘의 서울대 농과대학 캠퍼스 프로젝트와 김정수의 명동성모병원과 종로 YMCA빌딩은 그러한 경향이 표현된 대표적인 예가 된다.

주택건축 원조프로그램

미네소타프로젝트가 대학교육 재건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 USOM과 미국무성 등을 통해 이루어진 건축연수는 당면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적 측면의 연수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이들의 연수는 대학교 보다는 건축사무소나 특정 목적을 위한 연수형태로 이루어졌다.

USOM의 지원에 의해 윤장섭, 안영배, 이정택의 연수가 이루어졌고, 강명구, 이광노, 이균상 등이 각종 명목의 원조프로그램의 지원으로 해외 시찰 또는 연수의 기회를 가졌다. 미국의 원조계획에 따라 미국연수 또는 유학을 다녀온 대부분의 건축인들은 학계에 등지를 틀고 건축설계를 주도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조프로그램은 해방에서 전후복구기에 이르는 10여년 동안 건설청부업에 종사하던 많은 건축인들이 교수와 건축사로 재기하는 부활의 통로였던 셈이다. 서울대, 연대, 홍대 등 국내 유수의 대학에 자리를 잡은 원조프로그램 수혜자를 통해 미국건축의 영향이 한국건축교육과 현대건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를 짐작하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미재단 후원으로 새로운 도시주택 개발을 위해 I.M.Pei 사무실에 연수를 다녀온 이광노는 행촌동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설계하였으며, 주택영단의 건축인들은 각종 공공주택의 새로운 모형 개발을 담당했다.

표 1 원조프로그램에 의한 해외유학 건축인

이름	목적	나라	출국전소속	기간	귀국후소속	후원
이광노	한국부흥주택설계	미국	대학원	54. 10 ~ 55. 10	서울대	한미재단
이건영	한국부흥주택설계	미국		54. 10 ~ 55. 10		
이수영	한국부흥주택설계	미국		54. 10 ~ 55. 10		
김태업	한국부흥주택설계	미국		54. 10 ~ 55. 10		
강명구	한국부흥주택설계	미국	사무소	54. 2 ~ 55. 3	홍익대	
이균상	도시계획과 공영주택	미국	서울대	54. 3 ~ 55. 8	서울대	미국무성
안대섭	건축설계	미국		~ 55. 5		
김정수	미네소타대학원 수료	미국	종합건축	56. 8 ~ 57. 7	연세대	ICA
윤정섭	미네소타대학원 수료	미국	서울대대학원	56. 8 ~ 57. 8	서울대	ICA
김희춘	미네소타대학원 수료	미국	서울대	56. 8 ~ 58. 3	서울대	ICA
윤장섭	MIT유학	미국	서울대	58. 2 ~ 59. 9	서울대	USOM

일제강점기 도시계획의 관성과 원조프로그램하의 국제주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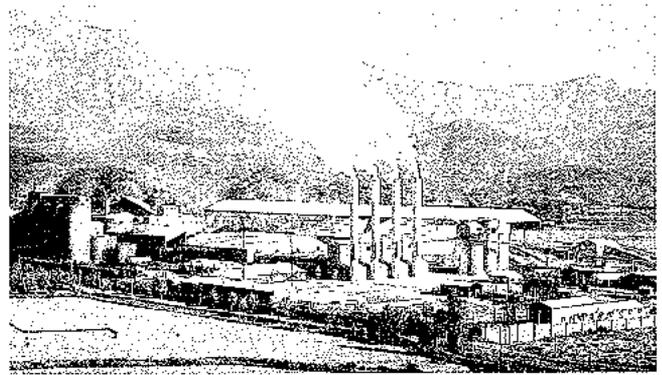
전후에 쏟아진 외국원조는 한국건축계 전반에 걸쳐 미국문화의 영향을 곳곳에 심어놓는 계기가 되었다. 전쟁 전 건축교육과 건축실무에서도 그대로 잔존해 있던 일제강점기하의 관행이 전쟁으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청산되었으며, 일본의 빈 자리에는 원조를 배경으로 미국문화가 빠르게 자리잡아갔다.

전후 시설의 복구와 재건에는 유엔민사처(CAC), 유엔한국재건단(UNKRA), 대한군사원조단(AFAK), 국제개발처(AID), 국제협조처(ICA), 한미재단(AFK) 등 다양한 외국기관의 원조가 있었는데, 원조의 대부분은 미국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반공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마샬플랜을 운영한 미국정책의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미국이 주도하는 대한 원조는 건축뿐 아니라 국가 전반에 걸쳐 미국체제로의 급속한 편입을 재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양한 원조프로그램 중에서 한국의 건축 또는 건설부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원조에는 UNKRA와 FOA/ICA가 있다. 이중 유엔한국재건단

(UNKRA: United Nations Korean Reconstruction Agency)의 원조가 1951년부터 60년까지 10년 동안 총 1억 2,200만달러에 달했는데, 이 자금은 생산시설 복구 및 건설에 집중되어 인천유리공장, 문경시멘트공장(그림 2), 삼척시멘트 공장 등의 건설에 사용되었다. FOA(Foreign Operation Administration)/ICA(International Cooperation Administration)원조는 1951년 7월에 제정된 '상호안전보장법(Mutual Security Act)에 따른 것으로 준 군사적 성격의 원조였지만 1953년부터 1961년까지 약 17억 4,300만달러가 제공되었으며, 충주비료 등의 화학공장과 전력,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복구 및 확충 등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건설된 산업시설은 대형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대형 철골구조물이나 대형공간 구성을 위한 새로운 철근콘크리트 구법들이 사용되면서 구조기술과 시공기술의 수준을 진일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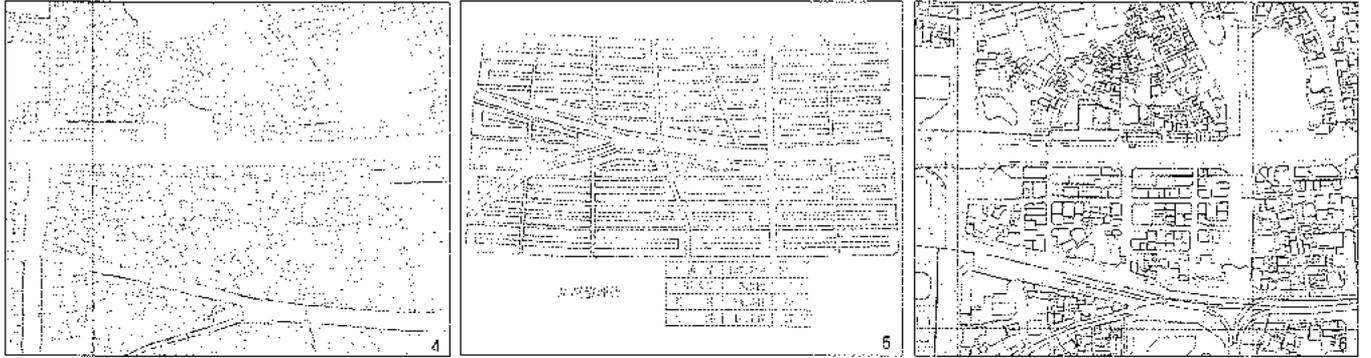
■ 전후복구사업과 식민지 도시계획의 관성

해방이후 5년의 시간동안 서울의 과밀화가 급속히 진행되었지만 이렇다할 도시계획이 시행되지 않았다. 미군정을 거치고 단독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도시행정이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전재복구를 위한 복구계획이 1952년 3월 2일 '서울 도시계획 가로변경·토지구획정리지구 추가 및 계획지역 변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가로광장조성계획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주였다.

피해지역 분포(그림 3)를 살펴보면 6.25전쟁 피해복구사업의 특징은 전재복구 사업지구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전쟁피해를 대비해 마련되었던 소개공지대의 그것과는 다른 양상일 뿐 아니라 화재나 홍수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의 차이점이기도 하다. 따라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된 전재복구에서 대상지역의 도시조직은 변하였지만, 도시 전체에서 보면



4. 관악동 지적지도 1942(여송구 책) 5. 관악동 일제강점기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도 6. 관악동 수치지적도 2000

기존 역사도시 조직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격자형 도시조직이 삽입되는 결과를 낳았다.

전후복구사업이 식민지기의 도시계획정책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된 것은 이상적인 전제복구계획을 수립할 만한 도시계획 전문가가 부재했고, 재원조달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재정을 외국원조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원조예산이 시급한 주택보급이나 교육시설에 재건에 투자되어, 도시계획 사업을 위한 적절한 국가재정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어, 전후 복구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 수립된 대경성계획의 한 방안이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도시계획 전문가의 부재로 인해 전후 복구사업은 일제강점기의 유산에 의해 이루어진 셈이다.

■ 원조프로그램하의 국제주의 건축

미국의 원조는 인적자원에서 설계와 시공 및 자재지원에 이르기까지 건축 전 부분에 걸쳐 폭넓게 이루어졌다. 이중에서 외국 건축사에 의해 설계된 USOM빌딩, 메디컬센터 등은 동시대 선진 공법과 건축경향의 총체적 결과물로서 당시 건축학도들에게 있어서 이들 건물의 현장견학은 부실한 학교교육을 보충할 수 있는 중요한 산 교육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1955년경부터 수도 서울에는 건축사의 작업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이 등장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신축 보다는 파괴된 건물의 수리가 대부분이었으며, 주요 건물의 경우 윤 공병대의 역할이 컸다. 육군본부 공병대는 영세한 건설회사에서 보유하지 못하는 중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큰 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데, 공공주택 공급과 공공시설물의 개보수는 물론 반도호텔의 개보수 공사에도 공병대가 투입되었다. 반도호텔은 당시 서울에서 가장 돋보였던 대형빌딩이었다. 폭격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사용한 자재는 모두 미국에서 직송한 최신의 것이었으며 세련된 미국 디자인이 많이 소개되었고, 서울시민은 유리화문과, 형광등 및 천장재의 아크릴 조명재 및 호마이카²⁾ 등에 의한 공간 연출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반도호텔의 마감처리하는 서울 시내 모든 다방의 내장 처리의 보탬이 되어 ‘호마이카 문화’라는 말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2) 네다어판에 범람질을 입힌 라디네이커드 합판의 일종

원조프로그램과 공공건축

정부와 원조자금의 지원을 받는 대표적인 공공건축으로 교육시설과 산업건축 그리고 병원건축 등이 있고, 민간건축으로는 중소규모의 상업건축과 극장건축이 주를 이루었다.

정부 공공건축물 중 원조프로그램에 의해 건축된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유솜(USOM)청사였다. 유솜청사는 미국의 빈벨사에 의해 설계되고 시공되었는데, 디자인은 동시대 미국의 전형적인 관공서 건축의 모습을 따르고 있지만, 군더더기 없는 단정한 모습에 한국건축계에는 처음 시도되는 무량판 슬라브 공법 등 당시로서는 최첨단 공법과 디자인이었다.(그림7, 그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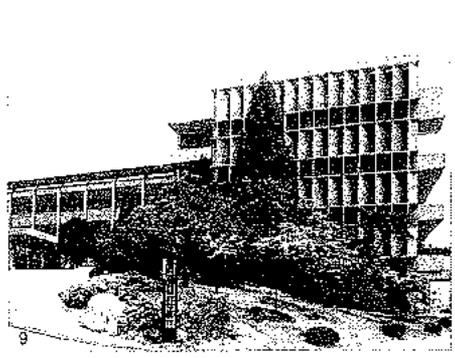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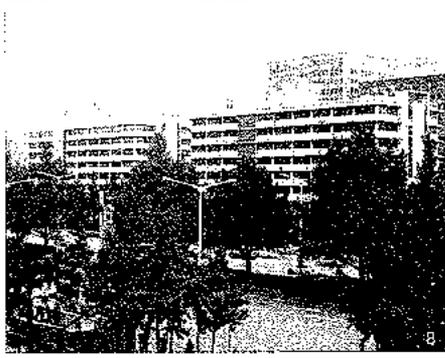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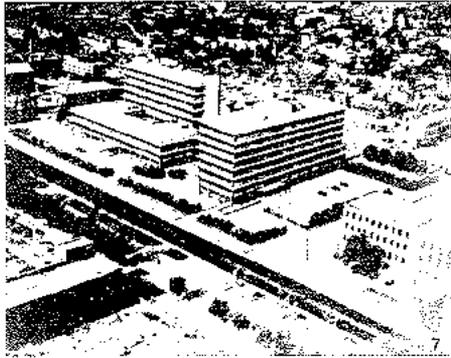
공공건축물중 가장 시급했던 것은 교육시설이었다. 전쟁직후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교실의 약 60%가 파손되었거나 혹은 군대가 점유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학교는 야외나 천막교실에서 열리고 있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의 파괴율이 50%이상으로 교육기관 중 가장 피해가 극심했는데 그 이유는 당시 고등교육기관이 집중된 서울의 전쟁 피해가 가장 극심했었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의 학교건축들이 표준설계로 진행되었던 반면에, 많은 대학교의 건축물들이 건축사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특히, 대학교의 본관과 각종 건축물들은 전후 밀려들어온 국제주의 건축의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하는 대상이 되었다.

특히, 김종업의 서강대 본관(그림9), 정인국의 인하대 거계공학관, 차경순의 중앙대 도서관, 김희춘의 서울농대 교사, 박학재의 한양대 도서관 등은 일제강점기나 전쟁 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조형 감각을 선보였다. 서강대 본관과 한양대 도서관의 수직 부부, 중앙대 도서관에 나타난 커튼월의 조적조 변안 등 대학교의 건축물의 디자인은 국제주의 건축 경향이 열악한 건축자재 생산과 뒤쳐진 기술을 지닌 한국적 건축생산 체제하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이 된다. 김종업의 경우 꼬르뷔지에에게서 사사를 받아 세계건축의 흐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건축사들은 미군이나 일본을 통해 수입되는 건축잡지를 통해 국제주의 건축을 수용하고 있었다.

의료시설

병원건축의 경우 국제보건기구(WHO)와 UN이 1952년 작성한 한국에 의료사업 전반에 걸친 조사보고를 기준으로 1955-56년에 걸쳐 건설이 추진되었다. 최초로 착공된 것이 WHO지원으로 건축된 국립공주병원이었으며, 이어서 국립정신병원, 국립의료원을 비롯하여 도립병원과 보건소 등이 전



7. USOM빌딩 원투시도 8. LSOM빌딩 현모습(미디어사관과 문화관광부) 9. 서강대 본관 김종업 작

설되었다. 국내 병원건축은 1962년 국립의료법이 제정 공포될 때까지 1945년 9월에 공포된 미군정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생국에서 주관하다가 정부 수립후인 1949년에 보건사회부 설립과정에서도 대체로 이를 따랐기 때문에 병원건축의 규준은 미국보건 규준을 많이 준용해왔다.

이 시기에 건축된 대표적인 의료시설로 국립정신병원, 국립의료원, 명동성모병원 그리고 부산 메리놀수녀병원* 등이 있다.

국립의료원(Medical Center)은 전후 복구기에 건축된 가장 규모가 큰 의료시설로 6.25전쟁으로 인한 전상병을 비롯한 환자 진료 및 의료요원의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1956년 3월에 정부와 UNKRA 그리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3국 대표자간에 '중앙의료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협정'으로 건축(1958.12.27~1964.12.27)되었다. 이 병원은 450명상으로 개원 당시 동양에서는 가장 현대식 장비와 설비를 갖춘 병원으로 병원건축의 지침이 되었으며, 서구의 선진의료 기술과 문화를 도입하여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교량적 구실을 하였다. 특히 국립의료원의 건축도면은 이후 한국병원 건축의 바이블이 되었다. (그림10)

정부가 직접 개입되지는 않았지만 가톨릭교회에 의해 건축된 부산 메리놀수녀병원과 명동 성모병원은 당시 한국건축의 디자인 지향성과 건설기술의 상황을 매우 잘 보여준다.(그림11)

부산 메리놀수녀병원은 국내에서는 선례가 없는 노출콘크리트와 당시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모나리틱 피니쉬** 등 새로운 공법으로 설계된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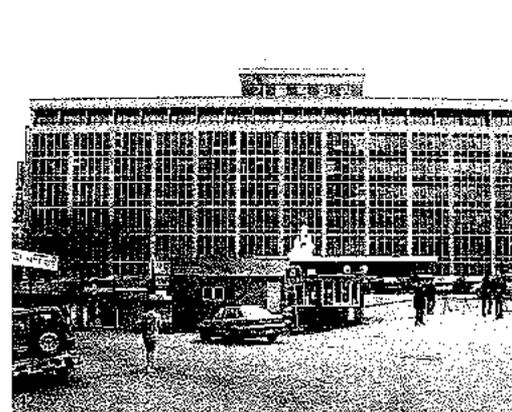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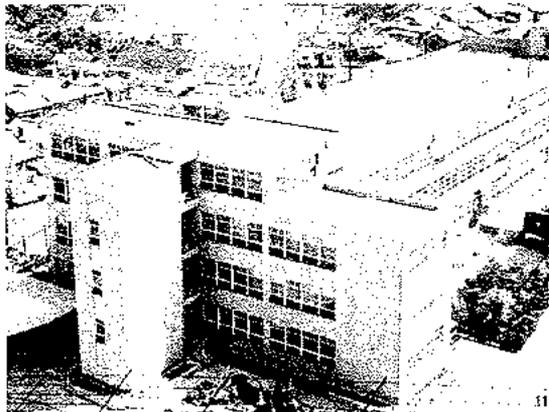
원이었다. 삼환기업에 의해 시공된 이 병원에서 노출콘크리트시공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당시 한국건축계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국내에서 선례가 없는 노출콘크리트로 병원을 신축하는데 기술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은 당시 공사 감독관으로 미국에서 공과대학을 졸업한 메리놀병원의 아가스타 수녀였다고 한다. 당시 아가스타 수녀는 기술지원뿐 아니라 콘크리트 믹서기 및 바이브레이터 도입 주선하여 노출콘크리트 건물을 성공적으로 신축할 수 있었다. 당시로서는 기계화 시공의 첫 시도였으며, 메리놀병원 공사후 '건축은 삼환을 따를 수 없다'는 별칭이 삼환기업에 붙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김정수에 의해 설계되고 성모병원에 의해 직영으로 시공된 명동성모병원은 디자인과 시공 측면에서 동시대 한국건축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명동 성모병원은 1957년 비네스타프로그래에 의해 미국에서 1년간 연수한 김정수는 당시 미국에서 견학한 커튼월공법으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산업발달의 미비로 금속 별리온 등을 생산할 수 없었던 한국적 건축생산체제하에서 김정수는 미국에서 가져온 커튼월 도면에 기초해 알루미늄 비에 의한 멀리온이 아닌 알루미늄슈트를 접어서 만들 멀리온으로 디자인을 변경하였고, 내부 공간은 일본의 건축자료집성에 기초해 디자인 하였다. (그림12, 그림13)

당시 기능주의와 합리주의에 배려되어 있던 한국의 건축사들에게 미스 반 데 로에의 시그렘 빌딩으로 상징되는 공업기술미학의 정수인 커튼월이 매력적이었지만, 한국에서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 전무한 상황이었

*) 메리놀수녀병원은 6.25전쟁 직전인 1950년 4월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81이 설립되었으며, 1951년 초 위치한 부산시 중구 대청동 4가 12번지에 160명상 규모로 신축되었다.
**) 모나리틱 피니쉬란 콘크리트계를 마감으로서 콘크리트 바닥에 불만을 버리지 않고 콘크리트를 직접 마감하는 공법이다.

10. 국립의료원 전경 11. 메리놀병원 전경 12. 명동성모병원 김정수 작



으며, 대규모 병원건축 설계의 노하우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명동성모병원의 커튼월 디자인과 시공은 선진 건축에 대한 강한 지향성을 보여주며, 김정수는 일본의 건축자료집성에 기초한 병원계획과 자신이 미국 연수를 통해서 견학한 커튼월 공법의 한국적 변안을 통해서 자신의 건축이상을 구현시킬 수 있었다.

민간건축

민간상업건축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극장건축이었다. 민간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극장건축은 꾸준히 건축되어 건물의 규모나 디자인뿐만 아니라 도심 주요부에 위치함으로써 가로경관을 주도하였다. 경제적 궁핍기에도 극장건축이 활발했던 것은 특별한 위락시설이 없던 당시에 시민들에게 유일하게 오락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정수와 이천승의 국제극장과 이광노의 대한극장 그리고 김중업의 명보극장은 동 시기 세계건축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전후 모더니즘 건축의 백미라고 할 수 있다. 국제극장은 국제주의 스타일의 외관뿐 아니라 스타디움 형식의 내부공간구성의 참신성이 돋보이는 건축이었고, 명보극장은 프르뷔지에에게서 사사한 영향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프르뷔지에의 보들리에 입각한 입면구성이 돋보였다.

한편, 종로 네거리의 화산백화점 건너편에 위치한 신산백화점은 중앙에 물을 갖는 근대적 쇼펍센터로 계획되었으며 수직루버를 채용한 입면 구성은 현대적 상업시설의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그림 14, 그림 15)

이밖에 주목할 만한 건축물로 종로 YMCA가 있다. 전쟁 중에 소멸된 대한제국의 황성YMCA 터에 신축된 현 YMCA 건물의 초기 모습은 현재와 달랐다. 당초의 설계는 층을 기준으로 직사각형의 격자형 패턴을 갖는 디자인(그림 16)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현재와 같은 커튼월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변경된 디자인의 실체이다. 완공된 건물은 명동성모병원과 유사한 커튼월의 외관을 갖고 있지만, 실제 디자인은 커튼월 디자인이 아니다. 원 디자인의 격자패턴에서 층간을 나누는 가로 부재를 없애고 일반적인 커튼월 디자인에서 스펀드럴 글라스 또는 금속 슈트로 마감되는 부분을 조적조위에 타일로 마감하였으며, 기둥 사이에 위치한 멀리은은 PC부재 위에 은색페인트로 마감하여 외관을 커튼월디자인처럼 변경한 것이다.(그림 17) 이러한 디자인의 변경은 김정수가 명동성모병원에서 거둔 성과를 종로YMCA에 적용한 것으로 김정수가 미국연수 후에 국제주의

건축경향에 깊이 경도되었음을 보여준다.

■ 도시주거의 새로운 유형

이 시기 공공주택은 기존의 유형에 대한 관성과 새로운 구법과 계획에 의한 새로운 전형을 구축하려는 전환기의 모습을 보여준다. 해방직후 보건사회부와 주택영단에서는 주택재건위원회를 구성하여 표준주택의 기본방침을 정한 바 있는데 이 때 공공기관에서 공급하기 위해 마련한 10평, 15평, 20평형 평면(그림 18)을 살펴보면, 이는 일제강점기 조선주택영단의 주거의 연속선상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후 복구과정에서 주거의 대량공급이 현안으로 등장하면서 한국형 공공주택 개발을 위해 원조프로그램 의한 해외연수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건축재료와 구법에 대한 실험이 전개되었다.(그림 19)

새로운 재료, 새로운 구법 그리고 새로운 주거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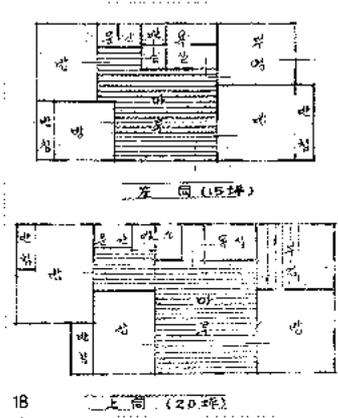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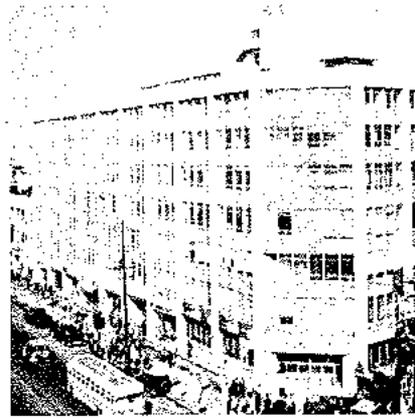
전후 공공기관을 통해서 공급된 주택으로 재건축, 희망주택, 부흥주택, 국민주택 등이 있다. 이들 주택은 원조경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는데, 이와 같은 관 주도의 주택공급은 제한된 몇 개의 유형에 의해 대량 공급되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래의 거주관습에서 탈피하여 LDK system 주방과 식당 그리고 거실이 하나로 연결되는 개방형 공간구성이 적극적으로 도입되면서, 일제강점기 조선주택영단류의 도시주택에서 서구식 공간구성을 지닌 도시주택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도판: 주택평면)

재건축주택은 UNKRA원조에 의해 정릉동, 전농동, 안암동, 대현동 등에 건설되었고, 서울시와 주택영단에 의해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주택자금의 성격에 따라 재건축 뿐만 아니라 ICA주택, 희망주택, 시영주택, 후생주택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공공주택의 건설에는 군대가 동원되기도 하였다. 1955년 9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당동에 2만평, 청량리에 3만평의 대지에 육군 제 1101 건설공병대에 의해 국민부흥주택 등이 건설되었다. 부흥주택은 2층의 새로운 주택형인 1동 4세대 입주에 1세대당 15평의 연립주택 형식이였다. 이들 주택은 흙, 석회, 시멘트를 혼합한 흙벽돌과 합석지붕 등으로 지어졌는데, 흙벽돌은 한국의 전통주택에 흙벽이 많은데 착안하여 유엔이 아프리카 등에서 사용한 바 있는 흙벽돌 생산기계를 경제원조로 제공함에 따라 생산 공급되었다. 흙벽돌주택은 1953년 9월 운크라의 지원으로 조선주택영단에 의해

13. 명동성모병원 커튼월 상세 14. 신산백화점 전경 15. 신산백화점 내부쇼펍들





처음으로 381호가 서울시에 지어졌다.

흙벽돌은 주요재료인 흙(백토)과 세멘트 혹은 석회를 혼합 압축하여 제작한 것으로 시멘트가 부족한 전쟁 직후 현실에서 주거공급을 위한 건축자재의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했다. 당시 건축학회에서 실시한 '흙벽돌 시험보고서'에 따르면 흙벽돌 제조기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원되었으며, 시멘트는 캐나다에서 공급되었다고 한다.

공업화주택과 한미재단 행촌동아파트

전체폐쇄가 심각했던 주택부문에 공급 촉진을 위해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업화주택에 대한 실험도 진행되었다. 그 첫 시도가 미국의 I.M. Pei 건축사사무소 연수를 다녀온 이광노에 의한 한미재단 행촌동 아파트였다. 행촌동 아파트는 3층 아파트 및 2층 연립주택으로 지어졌는데, 바닥 구조에 처음으로 Pre-stressed Concrete Beam과 Dome Block을 사용함으로써 공업화건축을 이용한 집합주택건축의 첫 시발점이 되었다.(그림20, 그림21)

한미재단은 주택사업으로 조립식 공동주택을 공급하기로 하고, 경기도 안양에 콘크리트공장을 세우는 한편, 행촌동에 그 1단계 시범주택사업을 시작하였다. 초기의 건설자금은 미국의 원조에 의하고, 다음에는 이를 유상분양하여 재원을 확보하여 계속하고자 하였으나 원조자금의 성격상 무상분양할 수 밖에 없었고, 이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주택영단으로 사업주체가 이관되면서 행촌동 단지에 이은 주택단지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미재단의 시범주택은 당시 미국 기준에서 최소한의 주택규모를 산정하여,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형식으로 집없는 서민들에게 보급하여 주택난을 해결하고자 시도되었으나 서민층보다는 중산층 이상에게 분양되었다고 한다.

행촌동 아파트는 해방후 첫 공동주택이라는 점과 조립식공법에 의한 건축 및 다층주거에 공기에 의한 온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도시주거사에 획기적인 전기가 되는 건축이다.

행촌동 아파트는 지하층의 기계실을 통한 중앙난방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난방설비는 더운 물을 파이프로 순환시켜 방을 덥히는 것이 아니라, 더운 공기에 의한 Hot Air Central System이라는데 그 특징이 있다. Slab 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dome block의 구멍이 duct의 역할을 하여 더운 공기가 dome block을 통해 각 방의 바닥으로 들어가서 방을 덥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더운 공기를 순환시키는 온돌 난방방식으로 당시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그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이라 하겠다. 열효율은 그리 높지 않았으며, 방의 한쪽 바닥에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서, 필요

에 따라 더운 공기를 방안으로 직접 유입시킬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한미재단 프로젝트의 목적은 당대 한국인 몇 세대에게 주택을 공급하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차 한국주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는 데 있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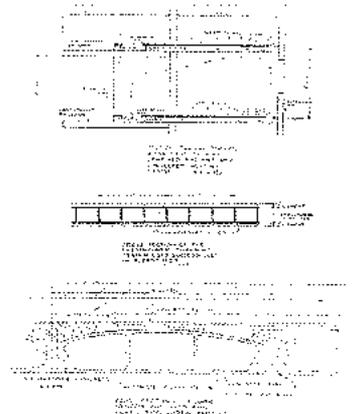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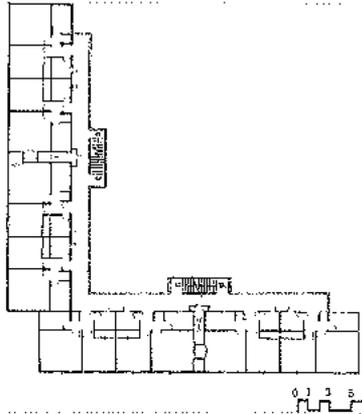
주한미군공사와 건축기술

해방공간에서 미군의 주둔으로 일시적으로 활기를 띠었던 건설시장이 주한미군의 철수로 점차 축소되면서 미국대사관 시설공사와 기술원조사절단 업무를 담당하는 AMIK(American Mission In Korea)가 1948년 만들어졌고, 이후 중단되었던 미군공사는 한국전쟁이후 다시 재개되었다. 특히 1954년 11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주한 미군강화, 이듬해 1월 한미 군사원조협정 체결, 7월 미 극동지상군 사령부 및 미8군 사령부의 서울이전 등으로 반영구적인 각종 군 관련 시설물이 발주되어 1950년대 중 후반은 미군공사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흔히 당시의 미군공사는 대부분 수주조건이 양호했을 뿐 아니라 환율변동에 따른 차익까지 행할 수 있어서 수익성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대립60년사에 따르면 선진기술과 시방서를 익히고 국제계약 방법을 배우는데 '비싼 수업료'를 지불해야했던 것이 미군공사였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57년 KCA(미국동공병단)가 발주한 '미8군 주택신축공사' 사례다. 당시 대립산업은 낙찰 예정가 1억 6,200만원의 절반 수준인 8,005만 4,463원으로 수주하였는데, 공사 내용은 미8군 영내에 평균 95평 규모의 3종류의 고급주택 19동 건설로 연건평은 1,800평에 달했다. 이 공사에서 대립산업은 손실을 보았는데, 1958년 영입보고서에 나타난 손실의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다.

1. 낙찰가격이 예정가격의 5할 미만인 점
2. 판급자재 지급 지연으로 당초 예정공기 10개월이던 것이 22개월이 경과하였고 차후도 약 6개월 소요할 것이며 이로 인한 손실 보상이 전무함.
3. 취급하는 관급자재가 천여종인데 문서정리 수속 절차 등이 복잡하여 영어문서, 통화 등을 완전 해독하는 기술자, 기타 종업원이 보통 한국공사장에 소요되는 종업원 수의 5배가 필요함.
4. 설계료 일본인이 단기간 출장으로 급작히 한 고로 실시 시공상 부합되지 않는 점 다유(多有) 업자손실이 다대한 바 미군당국은 책임을 회피하느라



고 손실을 완전 목실함.

대림산업의 사례는 여타 건설업체에도 동일한 상황이었다. 미군공사를 통해서 국내 건설업계는 온정주의 내지 적당주의에서 탈피하여 건설은 계약서와 시방서의 절처에 따르는 현대적인 건설경영과 공사기법의 근대화를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고, 주한미군 공사를 통한 학습은 1970년대 해외건설 공사에서 그 빛을 발하게 되었다.

맺음말

1945년 해방이 되었지만 6.25전쟁에 이르기까지 각종 건축 관련 제도과 생산체제는 일제강점기의 강한 연속선상에 있었다. 전쟁을 거치면서 건축계는 재편되고, 많은 부분에서 일제의 흔적들이 물리적으로 제거되면서 냉전체제하에서 한국에 대한 원조프로그램은 일본의 빈자리를 빠르게 메워갔다. 건축교육제도는 미국식으로 개편되었고, 기술이 아닌 문화 예술로서의 건축에 대한 자부심이 젊은 건축인들 사이에 자리 잡는 한편으로 전통장인은 몰락하고 건설청부업이 건축계의 중심에 자리잡는 시대가 열렸다.

전쟁으로 더욱 피해를진 한국에서 서구세계에 대한 막연한 동경 속에서 생존 본능에 기대어 건축과 건설을 일으켜야 하는 50년대의 상황은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야 하는 현실을 건축에 강요했다. 비를 피하고 잠을 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건축에 만족해야하는 현실 속에서 단순하고 간결함에 담겨있는 합리주의와 기능주의에 기초한 서구 모더니즘건축은 한국의 건축인들에게는 사치이자 동경의 대상이면서도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었다. 명동성모병원엔 강한 서구건축 지향성의 발현으로 공업기술미학

을 달성할 수 없는 건축생산시스템의 한계를 수공예적 생산시스템으로 구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미처 청산하지 못한 이전시기의 건축생산시스템이 여전한 가운데 새롭게 부가된 미국식 건축생산시스템의 모습은 보랏빛과 해골이 당면 과제이던 시절 버거운 삶 속에 묻혀버렸다.

1950년대의 한국건축계는 전쟁 상황에 종속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사회에는 일제강점기에 구축된 건축생산시스템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고 여기에 냉전체제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덩으로 얹혀졌다. 6.25전쟁으로 확대 강화된 반공이데올로기의 제약과 전재복구라는 당면 과제 속에 식민잔재의 청산은 유보되었고, 한국의 전후 복구에 결성적으로 도움을 준 외국의 원조는 해방이후 10여 년간 건축설계를 떠나있던 건축사들이 건축실제로 복귀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해방전후 교육세대와 등장도 촉진하였다. 특히, 건축인들의 해외유학과 연수는 한국건축계가 국제주의건축을 본격적으로 수용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건축이 '국전'에 가입하는 성과를 거둬으로써 공식적으로 예술의 한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지만, 기술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 속에서 예술로서의 건축의 길은 우리의 길일 수 없었다. 오히려 전재복구라는 당면한 현실에 대응하면서 신설된 다수의 건축교육기관으로 인해 건축교육은 더욱 부실해졌으며, 부실한 학교교육은 사회적 책임으로 넘겨졌다.

이 시기는 한국건축의 새로운 장을 개척하는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50년대가 실질적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의 건축을 만들어 가는 첫 번째 시기이자 현대건축을 학습하는 결음과 단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50년대의 도전과 실천을 통해서 세계건축을 학습하고 우리 건축은 이들과 어떻게 달라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될 60년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반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

한 규 봉
(주)철인건축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by Han Kyu-bong, KIRA

평양 안과병원 설계 · 감리후기(上)

Afternote on design & Supervision for
Pyongyang Ophthalmology Hospital.

2002년 7월 시작된 평양안과병원건설사업은 필자가 건설위원장으로 위촉된 이래 국내에서의 공사에 비하면 3배 이상의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등 갖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평양 라이온스 안과병원 건설공사를 마무리하고 2005년 6월 18일 준공한 뒤의 후기이다.

순조로운 계획의 수립 및 진행

평양라이온스 안과병원 건설은 국제라이온스협회 이태섭 제1부회장이 라이온스의 가장 중요한 봉사분야인 'SightFirst' 사업을 의료혜택이 열악한 북한동포를 위한 지원사업에 연결시킨 우리민족 사랑의 봉사사업 즉 한국 7만9천여 라이온의 북한 봉사사업으로 출발하였다.

이렇게 출발한 북한 봉사사업은 한국연합회(회장 : 국제이사 이시욱) 사업으로 2002년 8월부터 건설사업위원회(위원장 정연통) 4인의 전원 합의제로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이시욱 회장 및 이태섭 제1부회장에게 보고하면서 업무를 진행하였다.

건설계획은 순조롭게 확정되었다.

건설사업위원회에서 필자의 컨셉디자인(Conceptual Design)을 토대로

- 병원건물 : 3,325.3㎡(1,005.9평), 76명상

- 설치예정의료장비 : 60여종
- 의료진의 교육 : 2~3회 실시
- 소요예산 : USD 6,500,000

LCIF: USD 4,800,000

한국라이온스 모금: USD 1,700,000

• 공사기간 : 2003년 3월에 착공하여 2004년 3월에 공사를 끝내고 2004년 5월에 준공행사를 하는 건설공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 계획으로 국제협회의 승인을 받을 준비가 시작되었다.

자금계획에서 LCIF 480만불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느냐는 걱정이 뒤따랐으며 자문회의에서는 병상 100Beds가 76Beds로 줄었음에도 병원시설규모가 크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있었다. 그러나 국제협회에 올린 계획(안)이 우리의 계획대로 480만불을 투자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는 이태섭 제1부회장의 국제전화 연락을 받자 걱정하던 것이 사라져 버렸으며, 이후 설계 및 기타의 준비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북측과의 건설계획 협의는 큰 어려움 없이 합의하였다.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는 진행하면서 먼저 기본계획을 북측과 협의하기로 하고 정연룡 건설사업위원장, 필자 및 기계기술사 등이 2002년 7월 23일 평양에 첫 발을 디뎠다.



평양라이온스 안과병원의 모형사진

북측 조선의학협회 정봉주 부회장 및 최경렬 병원건축 연구실장 등과 만나서 진술한 기본계획에 합의하였으며, 기계·전기 설계자료의 대체적인 조사(추후 송부약속도 있음)도 완료하였다. 주요협의 사항은, 북측은 건축물의 기초설계, 옥외 상수도 설계, 정화조설계, 단지조성 및 옥외 토목·조경설계 등을 자기경비로 부담하고 공사용 자재·의료장비 등의 남포항까지 운반은 남측이, 남포항에서 평양 현장까지의 육로 운송은 북측이 담당. 다만, 육로운송에 소요되는 연료는 남측이 지원한다. 그리고 북측은 공사용 골재(모래·자갈)의 현장반입, 공사용수 및 전력을 무상 제공하고, 따라서 북측은 병원건설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장비 및 의료장비의 책임 보관, 제반 물품에 대한 무관세 반입한다. 또 남측이 북측에서 구매 사용하는 자재·장비는 국가승인 가격으로 구매 지원(시멘트, 석재, 시멘트 벽돌 등 3종에 불과함)하고, 공정계획은 남측의 계획에 따르며, 인건비, 골조공사비 등 남측의 경비 지불방법은 별도 협의 결정한다 등이었다. 또한 2002년 11월중 기공식을 행하며 참석범위 기타 구체적 사항은 추후협의 결정하기로 하는

등 양측간의 첫 협의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주요한 사항에 합의하고 서명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계획을 상호합의하기 전날 건설부지로 정해졌다는 대동강변의 대지에 가 보았으나 위치가 바뀔지도 모른다면서 배치계획 설계를 유보해 달라는 정봉주 부회장의 부탁이 있어서 한번의 위치변경은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때 이른 평양행 건설자재

기공식을 하기 전에 골조공사용 자재를 먼저 평양으로 보내야만했다.

북측의 희망에 따라(희망사항에 따라라기 보다는 북측의 공사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골조공사는 북측 시공으로 정하고 골조 이외의 마감공사는 국내업체를 선정하기로 하였다.

평양에서의 공사 여건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돌발적인 공사환경의 변화도 있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 그리고 라이온 상호간에는 믿음이 있고 라이온스 사업에 대한 봉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이온이 경영하는 건설업체에서 시공을 담당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필자의 동기 부총재 몇 분과 의논을 하게 되었다.

건설회사 사장인 동기 부총재 세분 중 한 분이 "북측에서의 공사업이 대단히 어려울 것이고... 손해보는 공사가 될 것은 뻔하지만 라이온스사업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시공을 맡겠다"는 대답이었다.

이와 같은 대답 내용을 위원회에 보고하였고 설계가격의 90~92%의 일반적인 수준에서 계약하면 손해도 안보고 이익도 최소화하는 적정한 공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국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준비과정에서 라이온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께 의심받지 않은 방법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경쟁입찰에 참여했고 결과는 설계가격의 75%(설계가의 84.3%로 사정된 예정가격의 89.2%)로 록우종합건설(주)(대표이사 서정용)이 낙찰되어 2002년 10월 10일 계약을 체결(공사비 3,614,500천원)하였다.

우리측 시공업체가 선정된 후부터 기공식 행사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북측에서는 기공식전에 안과병원을 건설한다는 증표로 자재·장비를 먼저 보내라는 것이다.

평양을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 어느 단체의 지원사업으로 대동강변에 골조공사만 완성하고 여러 해 동안 방치된 치과병원 공사현장을 보았기때문에 남측의 지원사업을 믿지 못하여 사전에 물자 반입을 요구하는 것으로 좋게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많은 자재·장비 등을 남포항으로 실어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2002년 11월 13일에 철근(476톤), 거푸집 공사용 각종 자재(합판 12m/m 4,540매 등), 다젤발전기(100kw 380/220V 60Hz 1,800RPM)1대, 굴삭기(06w 2002신품)1대, 미니버스 5대 및 승합차 1대 등 시멘트를 제외한 자재 전량 613,688천원 상당의 자재·장비들이다.

차량을 보내는 것은 안과병원건설의 직접공사와 무관하게 퍼주기 식 지원이 아니냐는 일부의 오해가 있다는 소문도 들은바 있으나 북측의 골조공

사비 대전으로 사전에 보낸 것이고 필자가 평양을 방문하여 2003년 01월 17일 골조공사비 대전으로 인수하였다는 영수증을 받았다.

세번째로 바뀐 부지에서 2002년 11월 22일 기공식을 하게 되었으며, 한 달 반 후에 북측과 골조공사 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추위를 느끼는 11월 하순 세 번째로 바뀐 건설부지(평양시 락랑구역 승리3동)에서 우리측에서는 J.Frank Moore III 직전국제 회장, 이태섭 제1 부회장, 이시욱 국제이사 외 29명과 북측에서 김수학 보건장, 권현봉 부상, 박정민 대외사업 국장, 민화협 직원 및 15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기공식을 거행하였으며, 뒤이어 약466㎡의 창고·사무실 등의 가설건물을 지을 자재를 남포행정기화물선에 선적하였다.

가설건물을 건축할 록우종합건설(주)의 기능공 6명을 인솔하고 2003년 01월 14일 평양에 들어간 필자는 1월 17일자로 북측조선의학협회와 골조공사 시공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먼저 북측에 골조공사를 시공하게 한 이유는 2002년 7월 22일부터 평양에 출장하였을 때 설계를 하기 위한 자료와 북측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재 및 인건비를 조사하였으며, 북측이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는 모래, 자갈과 우리나라에서 톤당 가격 76,250원에 비하여 저렴한(\$35/ton) 사멘트만이 평양에서 구입,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기타의 모든 자재·장비는 인천에서 남포항으로 선박 운송하고 남포에서 평양까지는 육로 운반하여야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형편 때문이었다.

조선의학협회가 요구한 인건비는 '보통 인부 \$7/일·인, 기능직 \$9~10 일·인'으로 우리의 인건비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저렴하였고, 골조공사용 시

멘트(980ton)는 인천에서 운송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1/3가격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조선의학협회 측의 요청에 따라 골조공사는 북측의 도급으로 시공하기로 귀국 후 결정하였던 것이다.

<공사 시공계약의 주요내용>

- ① 공사의 범위 : 연면적 3,325.3㎡의 지하1층, 지상3층의 골조공사와 설계도서에 의한 전선관의 배관 및 각종 파이프의 스라브 설치
 - ② 공사금액 : USD 451,881.00 공사금액에는 북측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시멘트(980톤) 가격 USD 34,300.00 포함
 - ③ 북측의 무상공급자재 : 골재(모래, 자갈) 전량
 - ④ 남측에서 운송하는 자재 : 시멘트 및 골재 이외의 전 품목 전량
 - ⑤ 육상운반(남포에서 평양현장까지) : 남측의 유류 지원을 받아 북측의 책임 운송
 - ⑥ 공사기간 : 2003년 3월 1일부터 5월 30까지.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아무리 늦어도 2003년6월말까지는 설계도서대로 좋은 품질의 골조가 생산되기를 기대하였으며, 지체의 공급을 비롯하여 제반 지원업무에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확신한다.

네 번째의 위치 변경과 골조공사 착공준비

네 번째 옮겨진 장소가 마지막 라이온스 안과병원의 터가 되었다.

록우종합건설(주)의 기능공 6명이 10여일 동안 사무실·창고·현상식당 및 숙소 등을 다 건설하였고, 철근 함판 등의 자재를 이미 반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공식을 거행했던 부지에서 4번째의 또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 첫 시현을 겪게 되었다. 우리측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여러 차례 부지를 옮기는데 대하여 항의(FAX문서)도 하였으나 북측이 더 좋은 장소로 옮긴다는 데에는 이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일은 가설건물과 철근 등의 반입자재를 옮기는 어려움보다는 앞으로의 공사에서 난관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현 위치인 평양시 락랑구역 승리2동의 병원부지는 시내에 있는 고려호텔에서 자동차로 8~9분, 양각도호텔에서는 더 가까우며 3대현장 기념탑에서 약 2km 떨어진 곳으로서 10만 가구(약 35만 인구)의 아파트 주서단지(18~20층의 아파트, 40층의 아파트도 있음)의 외곽에 위치하여 병원 입지로는 손색이 없는 장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북측의 골조공사 시공준비를 우리가 해 주어야 할 실정이었다.

북측(조선의학협회)은 병원 골조공사에 사용할 건설장비 및 공구 등을 준비하지 못하였으며, 무상으로 공급할 골재를 현상으로 실어올 자동차 한대도 없음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다만 한 가지, 인력이 있을 뿐이었다. 이들 인력은 거의 대부분이 다기능기술인력(多技能技術人力)이다. 누구나 망치를 들면 거푸집 공력이 되고, 너댓 삼씩 담아 운반할 수 있는 콘크리트 운반용 들것이나 삼을 잡으면 보퐁인부가 되어 막일을, 철근 결속 공구를 잡으면 철근 공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였다.

기공식이 있던 날 행사의 사회자였던 권현봉 부상께서 북측 기능공의 수



시찰하는 이태섭 국제라이온스협회 제1부회장, 김수학 보건장, J.Frank Moore III 직전국제회장(좌로부터)



현장 가설건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최초로 평양을 방문한 록우종합건설(주)의 기능공들이 가설건물공사를 부름받고 앞에서 기념촬영, 왼쪽에서 세번째는 최경열 조선의학협회의 병원건축연구실장 그 오른쪽이 김은석 현장소장

준 및 공사의 품질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생각난다. 필자가 물어 보지도 않았는데 마리 반입된 철근·합판 등 각종 자재를 보내 준데 대하여 고맙다고 하시면서 “이 병원 공사현장에는 일류 기술자들을 투입하여 공사를 잘하도록 할 것이고 철근을 다른 현장으로 빼돌려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북측에서는 자재의 분실로 부족현상이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 있어 자재관리 문제에 불안감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골조공사의 품질 수준을 걱정하던 터이라 필자에게는 대단히 반가웠고 더 없이 고마웠던 것이다.

미리 이에 대한 결과를 언급하면 ‘철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은 지켜졌으나 ‘일류 기술자의 현장 투입’ 약속은 현장에서 멀지 않은 대동강의 강바람에 바로 그 날 날려 보내버린 것이라 여겨진다.

골조공사 시공

골조공사용 굴삭기·철근·합판 및 각종 농 제반자재 전량이 남포항으로 보내졌으나 남포항에서 평양현장으로의 운반 수단이 부족한 것이 또 문제였다. 북측이 골조공사비 범위 내에서 요구하는 증고차량(15톤 덤프트럭 2대, 25톤 초장축 가고 트럭 1대)을 지체 없이 보내는 것도 공사 촉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증고차량이지만 좋은 것으로 고르느라 필자의 회사직원이 전국에 수소문한 끝에 2003년 3월 7일 남포항으로 보내었다.

이렇게 운송차량을 보냄으로서 공사준비는 다 해준 것이라 하겠으나 골조 공사비의 거의 전액이 미리 지불되었다는 것이 걱정되어 필자의 머리를 대단히 무겁게 하였으며, 공사비를 절약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평양 방문 때마다 북측이 보여주는 기념비적 시설물들이나 고층 아파트의 외관(비록 물발 철 마감으로 끝났지만)을 보면서 북측의 시공 수준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 감리자로 평양에 여러 달 동안 체류하는 업무에 흔쾌히 동의하는 감리 기술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골조공사 기간 중의 감리자 파견을 아예 배제하였던 것이다.

골조공사 시공결과에 실망하며 건설위원장으로서는 책임을 통감한다.

북측과 골조공사 계약에서 2003년 5월말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늦어도 6월말까지는 끝내기로 계약하였으나 결과적으로는 2004년 3월말에 공정 95%수준으로 끝나기도 전에 특수종합건설(주)이 마감공사를 착수하였다.

지하층 터파기 공사 및 골재 운반용의 연료부족으로 공사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기초철근 배근이 잘못되어 필자의 출장 시 지적에 따라 전부 해체·재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동원된 인력의 시공능력 부족, 계약 기간 내에 공사를 끝마치겠다는 의지의 결여등 공사가 지연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들이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다.

지하층 골조의 콘크리트 치기작업이 끝났을 때(2003년 10월 14일) 필자가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된 것이다. 설계도서·계약서 상의 공사범위에 명시되었으며 공사내용의 설명 그리고 이미 보낸 전선관의 참고보관 이 같은 것들 중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보거나 명심했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골조공사비 대견으로 보낸 운반용차량. 붉은색은 후에 보낸 신물차량이며 뒷편에 굴삭기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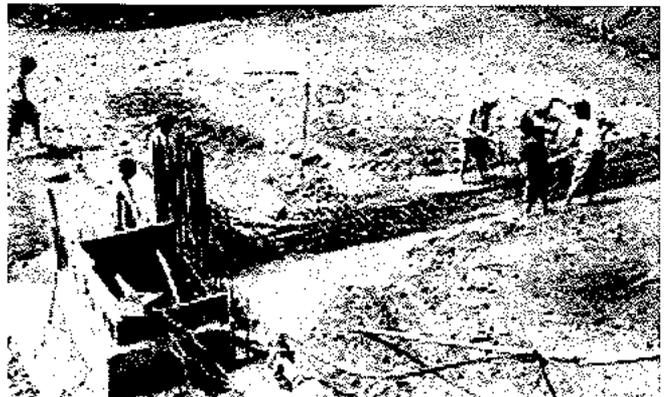
전선 및 전화선을 인입할 전선관을 깔지 않고 콘크리트를 타설 해버린 것이다.

이것으로 끝났으면 좋으련만 철근 배근을 마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전선관을 시공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1층에서 3층까지는 시공누락이 안 되도록 공사시공 지침을 상세히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간곡히 부탁하고 귀찮았는데 남측 전기 기술자들이 전선인입 공사를 할 때 나타난 문제점은 매설된 파이프 속에 시멘트 물이 들어가서 굳어버렸으니 인입된 전선관은 무용지물이 되어 이중삼중으로 공사비만 더 들어가게 되어 버린 것이다.

북측의 시공 잘못은 어쩔 수 없이 우리들의 추가공사비 부담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 되었다.

시공 잘못은 잘못된 사람이 책임지고 재시공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상식 이면서 관행이고 계약상의 약정이다. 북측에서는 잘못된 것에 대하여 책임질 생각은 아예하지도 않고 재시공할 능력이 없다면서 우리들의 처분만 바라 보고 있는 것이다. 건설사업위원회에서 논의결과는 도움을 주는 우리들이 재시공 공사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여 천정에는 파이프를 달아내는 방법, 바닥에는 파이프를 깔고 콘크리트 덮어치기, 벽·기둥에는 콘크리트를 파서 전선관을 묻는 방법으로 전선관 전체량의 95%를 재시공하였는데 추가공사비는 82,500천원이며 이것이 감리자를 파견하지 못한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는 첫 번째 사안이다.

기공식을 하기도 전에 보낸 철근 476톤은 보건설 부상의 농담성 약속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설계도서 대로 배근 되었으며 지급자재로 남측이 북한산을 구입하여 사용제한 시멘트의 배합을 적게 사용하는 사례가



기초 철근 배근이 잘못되어 해체하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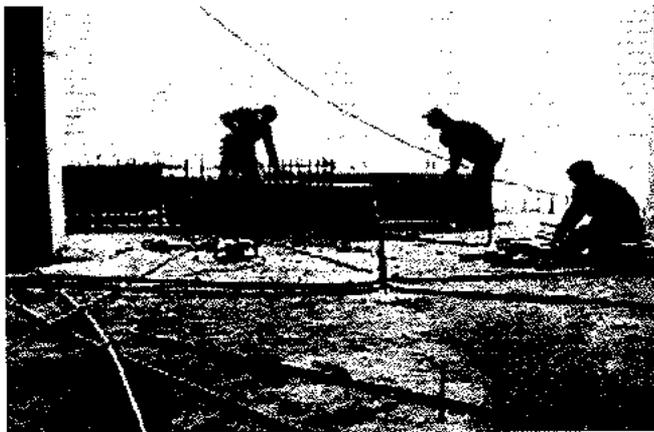
없었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공방법상의 문제·장비의 부족 및 우수품질로의 시공의욕이 부족하였음에도 구조안전상의 문제는 다음에 열거하는 일부분에 국한 되었다고 믿으면서 다소 걱정을 덜게 되었다.

콘크리트 타설 방법을 소개한다. 현장 책임기술자 혼자서 바빠서인지 몰라서 인지 필자가 대학에서 배우고 이 나이 될 때까지의 현장경험, 어느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시공법을 안과병원 현장에서 보게 되었으며 중국에는 추가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들이 나타났다.

설계치수대로, 철근 피복두께, 동절기시공 보양 등 세가지를 출장갈 때마다 강조하고 부탁했는데...

물이봐도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수 없지만 한 층에서 작업반은 2~3개로 나누어 책임제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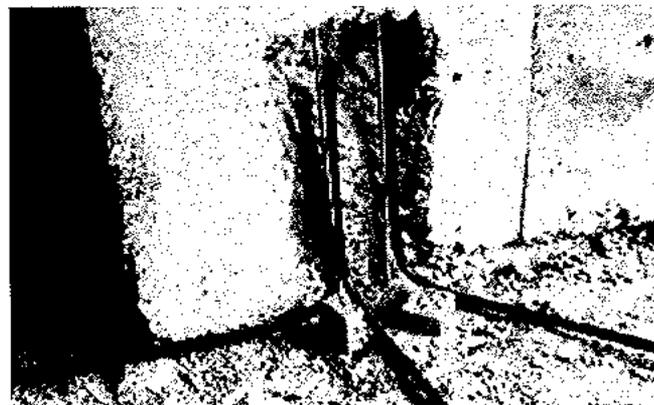
반 별로 나누어 저서 거푸집 → 철근 배근이 끝나는 대로 전선관 배관은



바닥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야 할 전선관을 CO 타설후 바닥에 깔고 그위에 CO를 썼다



천정에 달이엔 전동용 전선관을 시공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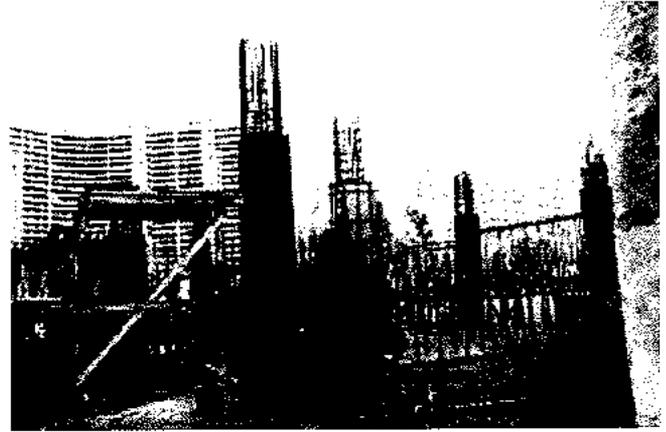


벽체 콘크리트를 깨어내고 콘센트 전선관을 매설하는 작업

잊어버리고 스투브가 20㎡이건 30㎡이건, 보의길이 1/3이건 1/2이건, 그리고 기둥의 반 또는 2/3이건, 인접 작업반의 공사진도에도 관계없이 네댓 삼십 씩 운반하는 콘크리트 들것으로 날라 오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것이다.

지하 보일러실 천정의 질반 정도와 몇 개의 보는 철근피복두께가 '0'에 가까운 상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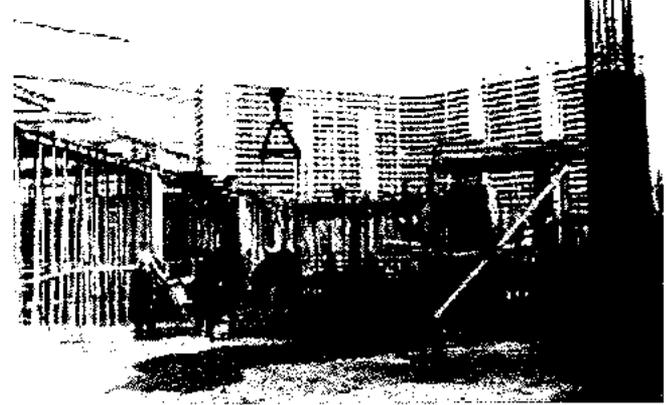
이 같은 문제가 건물 전체의 현상의 아니기를 애타게 조사한 결과 구조상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층 뿐이었고 2층의 보에 콘크리트 충전이 대단히 불량한 몇 개소가 있을 뿐이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하였으며 지하층의 구조보강을 결심하고 귀국후 구조 기술사의 검토를 거쳐 지하층 천정에는 에폭시 몰탈로 피복두께를 보완하고 스크류 조정식 H형강 철기둥 5개 보강으로 53,340 천원의 추가공사비가 더 소요되게 되었다.



기둥과 보의 철근과 콘크리트를 따로 따로 시공하고 있는 모습



기둥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후 보의 배근을 준비하는 철근공(?)



스투브의 거푸집·철근이 시공되기도 전에 보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있다

복우종합건설(주)의 시공 착수

2003년 3월에 전체공사를 끝내고 동년 5월에 준공행사를 한다는 최초의 계획은 골조공사의 지연으로 대동강물에 흘러가 버렸다.

2002년 10월 21일 계약체결과 때를 같이하여 골조공사용 철근·합판 등 각종 자재를 구입하여 남포행 배에 선적하고 현장 가설물을 건축하는 등 공사를 준비하는 업무는 착수하였으나 계약상으로 준공하여야 할 시점인 2004년 3월 중순이 되어서야 남측 건설업체의 공사가 착공되었다.

골조공사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뜯어 고쳐가면서 마무리 공사가 시작되었다.

후속공사를 하는 기능공들이 선행공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불평하는 것은 극히 일반적이지만 안과 병원 건설의 경우를 보면 기둥·보의 단면적, 기둥간격·각종 부위의 높이 등이 설계대로 된 것을 찾아보기 힘들게 제작각이며, 요철이나 비틀림 투성이다.

기둥·보의 배부른 부분을 깎아내고 철근의 피복두께가 부족한 부분의 몰탈바름 작업등은 마무리 공사를 지연시키는 큰 원인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공사의 최종 품질을 A-의 수준으로 끌어 146 평양라이온스 안과병원을 올리려는 목표에 크나큰 장애물이 되었다. 골조공사에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품질 수준을 높이면서 2004년 내에 준공하는 것을 감리 책임자와 현장소장의 공동목표로 삼도록 필자는 지시하고 독려하였던 것이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항들이 공기를 지연되게 하였으며 공사비를 상승시켰다.

- 기능공 속으로 정해진 양가도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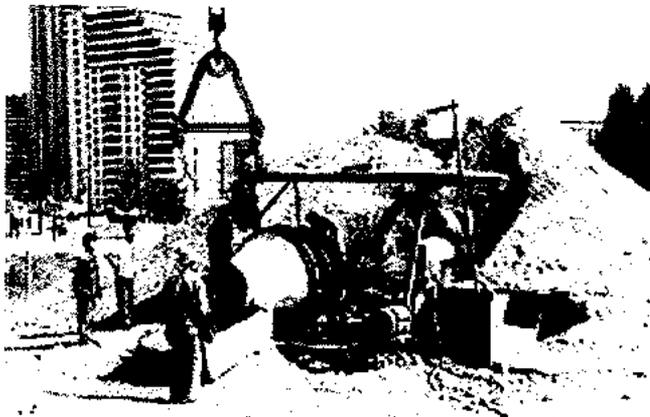
건설공사 현장 기능공들의 숙소가 평양의 최고급 일류호텔이었는데 놀라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남측 기능공 및 공사관계자의 숙식을 현장에서 하기로 양측이 사전 합의하고 공사 착공전(2002년말)에 가설건물(숙소·식당)을 건설하였는데, 북측에서 현장 숙식이 불가하다는 방침으로 바뀌어서 여러 차례의 협의를 하였으나 헛수고가 되어버렸다. 어쩔 수 없이 기능인력의 숙소(아침식사 포함)는 양가도 호텔로 결정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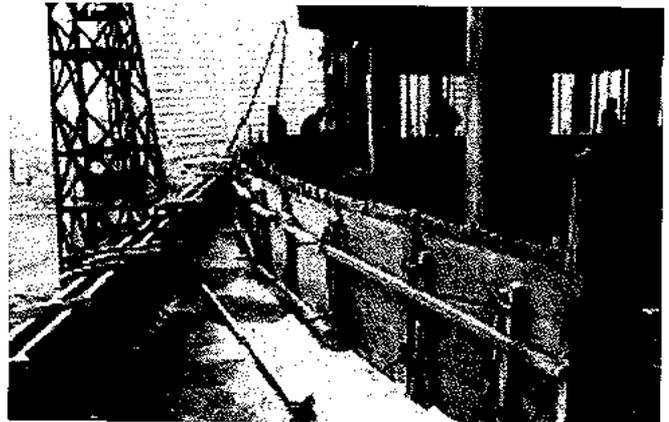
이는 골조공사의 품질 및 공사기간에 대한 약속위반에 이은 두 번째의 약속 위반인 것이다. 그러나 조선의학협회 정봉주 부회장께서 하루 일인당 100euro가 넘는 호텔비를 30euro로 정해준 것은 대단히 고맙고 다행이지만 호텔에 가서 고생하며 동숙하는 안내요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08:00시가 넘어 현장으로 출발하면 작업 시작시간은 09:00부터나 가능하니 우리의 작업게시 시간이 통상 07:00부터인 점으로 본다면 건설업체로서는 공사관리상의 큰 문제이다. 하나 더하여 12:00가 되면 현장 밖으로 나와서 외출 점심식사를 하게 되는 시공능률 저하 현상이 겹치는 것이며 이 같은 현상은 공사기간 및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것이다.

- 원활하지 못한 공사용 자재의 현장 반입

공정계획에 따라 기능인력은 북경(1바)을 거쳐 평양으로 들어가고, 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콘크리트 문서기



2004년 3월 남측의 마무리 공사가 시작될 때 까지도 끝나지 않은 골조공사



콘크리트 운반용 들 것, 콘크리트 운반용 손수레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받아 있었다.



미리 발령받은 간호원들이 자재운반·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자재는 보다 먼저 남포항으로 보내는데 북측이 책임운송(남측의 운송연료 지원)하기로 한 자재의 현장 반입지연으로 인하여 호텔비를 내고 인건비를 주면서 기능인력이 호텔방에서 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 또한 공기 및 공사비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은 것이었다.

- 적정인력이 동시에 갈수 없는 평양현장

공종별로 2~3명은 남측인력으로, 나머지는 현지의 북측 인력으로 시공하는 경제적인 시공 방법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어려움은 적었다고 보지만, 공종별 동시파견 적정 인원대로 보낼 수 없는 점, 동시에 병행 시공하여야 할 공종의 기능공들이 같이 갈 수 없는 방북초청의 수적인 제약이나 초청장 발급 지연 등도 공기 지연 및 공사비 증가의 큰 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는 한 부분이다.

북측은 전문분야별 감리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였다.

북측이 골조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그들의 시공능력을 믿고 감리자의 파견을 고려하지 않았으나 마무리 공사에서는 책임감리원(건축) 1명이 시작할 때부터 준공할 때까지 8개월간, 기계감리원(1명)과 전기감리원(1명)은 각각 7개월간 현장 상주 감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C급인 골조공사의 시공상태를 고쳐가면서 목표수준(A-)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에 현장 출장시 또는 FAX 통신으로 감리기술자와 시공사의 기술진에게 상호간에 기술적 협력관계와 신속한 공사추진을 강조하면서 품질수준 목표 A-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감리제도가 없기 때문에 감리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잘못 시공된 것은 철거하여 재시공 한 후 후속공사가 진행됨으로서 공사진도가 늦어진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를 일이다. 결과적으로 3명의 감리자 파견 계획을 부정하는 것이다.

골조공사 지연, 적정인원 동시 방북의 어려움, 원할치 못한 자제반입 기타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지연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계 감리원 및 전기 감리원의 초청장 발급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2~3회의 출장 감리 방식을 채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최초에 파견한 감리책임자(이성재 실장)가 한달 반 근무 후 휴가를 겸한 업무 협의차 귀국하였는데, 재입국비자 발급이 불가하다는 통지가 있어서 철저한 감리기술자라는 평을 받는 자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다. ㉔

김 석 환
터울 건축사사무소
by Kim Seok-hwan, KIRA

한국전통건축의 좋은느낌

사진전을 열며

Holding a Photo-exhibition of
Favorable Impression o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지난 3월 「한국전통건축의 좋은느낌」이라는 책을 낸 것을 계기로 사진전까지 갖게 되었다. 그동안 자료로서 사진은 많이 찍었지만, 사진전을 스스로 기획하거나 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번에 전시를 열게 된 것은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김애경 선생님의 우호적인 배려 때문이다. 나온 책을 들고 김애경 선생님께 보여 주며 어떨느냐고 물어 보았다. 그런데 인사치레처럼 금세 좋다고 하면서 그 책 안에 있는 사진들로 전시를 하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순간 움찔해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나온 후 얼음찜 후 다시 둘러 하겠다고 했다. 전통건축을 대중에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건축을 시작하면서 전통 건축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 보다 근대 건축의 거장 르 꼬르뷔제의 작품집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그의 생각과 건축이 공감되었고 근대 건축의 사상적 맥락에서 건축을 해 왔다. 그러던 중 필자가 전통 건축을 돌아볼 생각을 한 것은 96년 미국과 멕시코로 루이스 칸과 바라칸 등의 건축 답사를 다녀올 때였다. 그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지는 하버드대학에 있는 르 꼬르뷔제의 카펜타 센터였는데, 유럽과 인도 등지의 르 꼬르뷔제의 생애와 건축을 몇 차례에 걸쳐 돌아 본 후 마저 찾아본다는 심정으로 관심을 갖고 갔었다. 그런데 기대했던 그 건물에서 꼬르뷔제의 건축에 대해 처음으로 의문이 들었다. 르 꼬르뷔제 건축에는 그의 합리적 사상과 훌륭한 조형 감각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카펜타 센터에서는 건물을 관통하는 경사에 따른 과도한 표현성으로 건축적 건강함이 손상되고 있다고 느껴졌다. 그에 비해 루이스 칸과 바라칸의 건축에서는 상대적으로 진솔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훌륭히 여긴 건축적 감각에 대한 실망은 스스로의 마음도 심란하게



하였다. 나는 그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우리 전통 건축을 돌아보면서 우리 땅에서 형성된 건축의 힘을 발견하여 스스로 건축적 사고를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전국 곳곳의 전통 건축을 탐나는 데로 열심히 찾아 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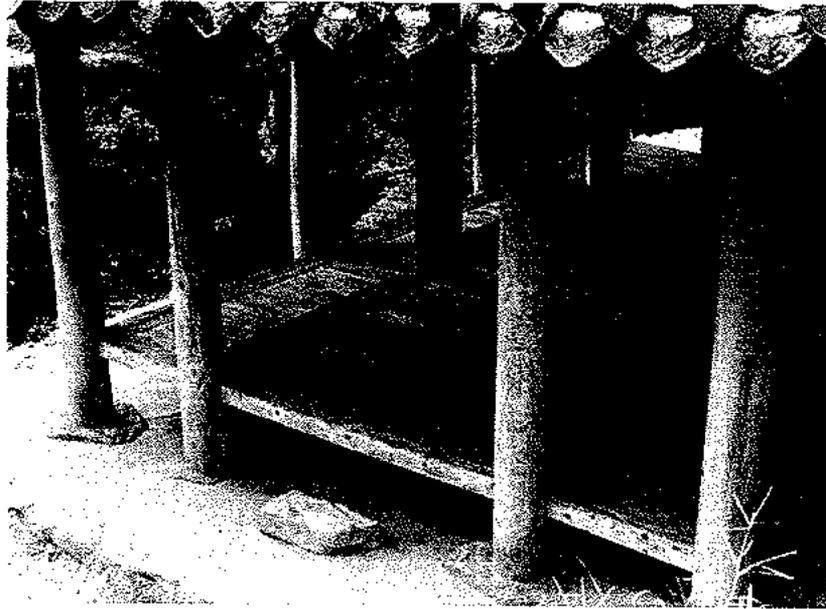
전통건축을 음미하면서 건축 창작 의미에 대해 좀더 냉철한 생각도 하게 되었다. 현대에는 건축이 작가의 창작물이라는 의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건축 행위에 작가관이 형성된 것은 14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대두된 인본주의 사상과 관련이 있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고 종교적 맹종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인식 바탕위에서 사물을 이해하고자 했고, 주관적 사고를 통한 창의성을 중시하게 되었으며 인간이 설정한 의미에 가치를 부여하였다. 그것은 20세기 초 형성된 근대 건축의 이념과도 상통하는 것으로서 근대 건축의 슬로전인 기능주의는 쓰임의 요구에 부응해 창조한다는 생각이 적용되어 있다. 그리면서 프로그램, 규모 등 사용자의 요구가 건축 생성 조건으로 절대시 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 전통 건축은 섭리에 순응한다는 우주적 세계관이 적용되어 있다. 인간의 의지로 모든 것을 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 인식하지 못할망정 자연의 섭리를 도리코 여기고 순응해야 한다는 태도이다. 그런 태도로 다루어진 대상에는 우주 본연의 질서와 에너지가 함양된다고 생

각한다. 그리고 자연과의 균형, 우주의 근원적 질서에 부응하며 띠게 되는 힘이 건축적 감각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현대에 눈리와 주관적 잣대를 들이댈으로써 망각하기 쉬운 부분일 것이며, 그래서 건축의 본연성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된 것이 전통 건축을 통해 경험한 소중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전통 건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며 책을 쓰고 기록의 수단으로서 사진을 찍게 된 동기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건축사로서 전통 건축에 담겨진 건축적 의미를 나름대로 정리해 둘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오랜 세월이 걸쳐 풍토에 맞게 지혜가 축적된 건축적 가치들을 이해하고, 그 바탕위에서 이 시대 건축사로서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발견하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전통 건축이 가치 있다고 해서 현대에 그러한 방법론으로 모든 건축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새롭게 대두된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실감인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필자가 전통건축을 들여다보는데 의미를 부여하려는 것은 지난 시대 건축에 담긴 힘과 가치를 통해 생각과 안목에 균형을 갖추고자 함이다. 건축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한 상태에서 건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다. 그러나 작업자로서의 나의 관심은 학문적 시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좋은 건축에 관한 것이고 내가 책이나 사진을 통해 전하려는 것도 그 점이다.





이번 전시는 내가 쓴 책에 수록된 사진들로서 필자가 말하고자 한 전통 건축의 힘을 다른 수단으로 전달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내가 쓰고 찍고 했지만 각각의 기능에는 차이가 있다. 글은 대상을 각각에 알맞고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 구조를 도구로 삼고 있다. 그런데 사진은 그러한 문맥적 서술의 연결이라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 원전(原典)적 의미로써 대상을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어 사유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고 본다.

나에게 사진 작업은 대상을 파악하고 그 뉘앙스를 살피고 그 가치를 음미하며 전달하기 위해 생각을 가다듬던 글쓰기와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므로 사진적 가치가 아닌 건축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진가는 아니지만, 내가 주목한 장면에 그 진솔한 힘을 전달 할 수 있는 의미 부여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필자는 이 번 전시에서 내 사진이 작품으로서 어떻게 평가될지에 대한 의식은 갖고 있지 않다. 다만 소개하는 장면마다 한정된 앵글에 내가 중시한 건축적 감각을 최대한 담아 보려고 애쓴 나의 기억이 서려 있다. 책의 제목과 같은 이 전시 주제가 책처럼 그 내용을 전달하려는 것이므로 그 안에 포착된 힘과 의미 전달에서는 감히 적임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이 전시를 마련해주신 김애경 사장님과 사진가 최광호 선생님, 그리고 격려의 글을 써주신 김원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호의로 귀중한 자리를 마련 해주신 기회에 부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것을 바라는 바이다. ㉮

협회소식_kira news

이사회

■ 제6회 이사회

2006년도 제6회 이사회가 지난 6월 8일 오후 4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한·중·일건축사 친선 축구대회 지원금 집행에 관한 건, 2006년도 상근임직원 연봉조정 기준 추인의 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협의사항으로 건설업체 설계검업 요구에 관한 건, 건축사등록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논의되었다.

주요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의안건

- 제1호의안 : 한·중·일건축사 친선 축구대회 지원금 집행에 관한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 지원금액 : 1,100만원
 - ▷ 지출과목 : 문화활동지원사업비
- 제2호의안 : 2006년도 상근임직원 연봉조정 기준 추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협의사항

- 제1호 : 건설업체 설계검업 요구에 관한 건
 - 건설업체의 설계검업 요구에 관한 사항은 절대 수용이 불가함을 재확인함.
- 제2호 : 건축사등록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건
 - 건축사등록기구 설립에 대한 협회의 기본방향 정립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대책반을 구성키로 하고, 운영방안 등은 대책반에 위임함.
 - ▷ 부회장 2인(신인기, 이근창), 이사 3인(박찬정, 이영수, 한명수), 감사 1인(송평문)

▲ 기타사항

- 2006. 6. 21일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부산시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임을 보고하고, 동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함.

■ 제3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회장 합동회의

2006년도 제3회 임원 및 시·도건축사회회장 합동회의가 지난 6월 8일 오전 11시 우리 협회 회의

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설업체 설계검업 요구에 관한 건과 건축사등록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건설업체 설계검업 요구에 관한 건
 - 건설업체의 설계검업 요구에 관한 사항은 절대 수용이 불가함을 재확인함.
- 제2호 : 건축사등록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건
 - 현재 검토되고 있는 건축사등록기구 설립방안에 대하여 시·도건축사회에서 관련위원회 및 간담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재협의하기로 함.

■ 수도권 임원회의

수도권 임원회의가 지난 6월 19일 오전 10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전시에 관한 건과 (가칭) 건축문화신문 창간 사업계획(안)에 관한 건이 논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 전시에 관한 건
 - 한국건축산업대전 개최기간 동안의 한국건축문화대상 계획부문의 출품자 전시에 관한 사항은 전시공간 배정에 따른 협회수의 손실 및 한국건축문화대상 공동주최기관(보합회, 건교부, 서울경제)간의 관계를 감안하여 한국건축산업대전과 연계하지 않기로 함.
- 제2호 : (가칭)건축문화신문 창간 사업계획(안)에 관한 건
 - (가칭)건축문화신문은 창간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기로 하되, 사업계획(안) 내용 중 협회와 관련한 내용은 가급적 배제하고 국민의 건축문화 의식 고양과 범 건축계를 대변하는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기로 함.

■ 제4회 시·도건축사회회장 회의

2006년도 제4회 시·도건축사회회장 회의가 지난 6월 30일 오후 2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칭)건축문화신문 창간계획에 관한 건, 건축사등록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가칭)건축문화신문 창간계획에 관한 건
 - (가칭)건축문화신문 창간계획 중 「건축사」지의 방향설정, 광고문제 등에 관한 사항은 9월 신문창간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등록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건
 - 건축사등록기구 설립을 포함한 건축사법 개정애 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함.
 - ▷ 일자 : 2006년 7월 14일 ~ 15일
 - ▷ 장소 : 삼성화재 유성 연수원

▲ 기타사항

- 한국건축산업대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시·도건축사회 회장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함.
- 서울건축사회에서 요청한 본협회 지원금 배분방안에 관한 사항은 시·도건축사회 회장단에서 자체적으로 의견을 통일한 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하도록 함.

■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 간담회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 간담회가 지난 6월 21일 오후 3시 부산시청 1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는 우리 협회에서 이철호 회장과 이근창 부회장, 이영수 이사, 강신감사, 신재호 국제위원장, 강정삼 국제위원이 참석하고, 부산건축사회 박신욱 회장과 정태복, 유석문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부산광역시에서는 윤여목 주택국장, 정지용 주택과장, 강신운 건축행정담당관이 참석하고, 부산컨벤션뷰로에서 김미태 사무국장과 강다운 과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 시기 결정에 관한 건, 유치위원회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건, 행사장소 선정에 관한 건, 행사지원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협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협의사항

- 제1호 :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개최시기 결정에 관한 건
 - 행사시기는 2008년 10월경에 개최되는

부산국제영화제와 BEXCO 대관 일정,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의 연계문제를 고려하여 추후 계속 협의하기로 함.

- 부산시청측이 요구한 아시아건축사대회와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의 연계문제는 행사의 중복(학술세미나, 전시회 등)과 ARCASIA 정관문제를 감안하여 유치위원회 구성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유치위원회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건
 - 유치위원회 구성은 행사주최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에 위임하되 부산건축사회 및 부산광역시 등의 관계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하기로 함.
 - 부산광역시에서 동 행사 유차에 필요한 홍보 영상물 및 안내책자 등의 제작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
- 제3호 : 행사장소 선정에 관한 건
 - 행사장소는 누리마루, BEXCO, 아르피나(유스호스텔) 등의 시설규모, 수용인원, 사용료 등을 비교·검토한 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행사지원에 관한 건
 - 부산광역시 주최만찬 등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은 2006년 9월 북경에서 대회유치가 확정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기타사항

- 올해 9월 북경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단(부산시 및 부산컨벤션뷰로 관계자 등) 구성 등은 유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함.
- 아카시아 임원회의 부산개최 등은 동 행사가 유치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함.

■ APEC Architect 관련 간담회

APEC Architect 관련 간담회가 지난 6월 7일 오후 2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APEC 등록건축사 제도에 관한 건이 협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APEC 등록건축사 제도에 관한 건
 - "APEC Architect"의 명칭은 "APEC 등

록건축사"로 정하기로 함.

- APEC 등록건축사의 등록공고시 공고자의 명의를 건설교통부장관과 대한건축사협회장으로 하기로 함.
- APEC 등록건축사 제도가 국내 입찰시 적용되지 않도록 등록증 등에 명문화하기로 하고, 약용시에는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 APEC 등록건축사제도의 시행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사법 개정 및 등록기구설립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이 일정을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함.
 - 추진일정
 - ▷ '06. 9월 : APEC 등록건축사 신청공고
 - ▷ '06. 10월~11월 : APEC 등록건축사 등록신청 접수
 - ▷ '06. 12월 : APEC 등록건축사 심사완료
 - ▷ '07. 2월 : APEC 등록건축사 등재개시

위원회 회의

■ 제5회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

2006년도 제5회 APEC 등록건축사 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 오후 7시 강남역 소재 강강술래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APEC 등록건축사 제도에 관한 건이 협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APEC 등록건축사 제도에 관한 건
 - APEC 등록건축사 제도 관련 업무는 건설교통부가 대한건축사협회에 위탁한 업무로서 건축사 관련 위탁업무와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건축사 등록원 관련 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대한건축사협회 소위원('06. 6. 7)에서 논의된 사항을 수용하기로 함. 다만, 협회장 명의로 농락·공고를 할 경우에는 APEC 등록건축사 제도 운영에 따른 모든 예산을 협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협회와 협의를 요망함.

■ 제1회 건축위원회

2006년도 제1회 건축위원회가 지난 6월 12일

오후 4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건축위원회 사업추진에 관한 건과 “조달청 설계용역업자·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건이 협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2006년도 건축위원회 사업추진에 관한 건

①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분야 정립

- ▷ 부절서하게 진행되고 있는 리모델링의 문제에 대한 법적근거를 확보하여, 리모델링의 체계를 확립하기로 함.
- ▷ 세부적인 추진 계획(안)을 장현숙 위원이 작성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② 자료집 발간 및 복간

- ▷ 전통건축 자료집 5집(사찰건축)과 기존의 1-3집의 복간을 통해 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를 정리하기로 함.
- ▷ 세부적인 추진 계획(안)을 손창수 부위원장이 작성하기로 하고,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제2호 : “조달청 설계용역업자·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건
- 우리 협회의 기존 의견과 개정(안)의 검토의견을 위원들 각자가 작성한 후 위원장이 최종 검토하여 조달청에 제출하기로 함.

■ 제5회 정보관리위원회

2006년도 제5회 정보관리위원회가 지난 6월 13일 오후 4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사 자격시험용 CAD System 개발”에 관한 건이 협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사 자격시험용 CAD System 개발”에 관한 건

- “건축사 자격시험용 CAD System 개발 사업”을 위한 선행연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키로 함.
- ▷ 소위원회 위원 : 고일두, 박경배, 노중기, 안종성, 신현기 위원

■ 제1회 법제소위원회

2006년도 제1회 법제소위원회가 지난 6월 14일 오후 4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법(가칭) 제정에 관한 건과 건축사의 건설기술자 인정여부에 관한 건이 협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물 유지관리법(가칭) 제정에 관한 건

- ①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 ▷ 건축주 및 사용자에게 많은 혜택(조세 감면 등)이 주어지도록 제정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함.

② 법령의 체제

- ▷ 건축법과는 별도의 법령으로 제정하여 대상, 업제 및 건축물의 등록기준 등을 정하기로 함.

③ 유지관리 대상

- ▷ 시설물의 안전관리 관련 특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의 건설기술자 인정여부에 관한 건

- 건축사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관리를 받는 경우의 장·단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하며, 6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6월 16일 개최되는 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 제2회 법제소위원회

2006년도 제2회 법제소위원회가 지난 6월 21일 오후 2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축물 유지관리법 제정(안)에 관한 건이 협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물 유지관리법 제정(안)에 관한 건

- 유지관리업은 건축물을 건축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유지·관리하는 업으로 정하고, 유지관리업은 건축물이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유지·관리되는 지를 점검

하는 활동으로 정함.

- 유지관리의 내용은 엘리베이터, 보일러, 소방설비, 창소, 경비, 기능 및 안전, 기계식 주차장, 전기 등 건축관련법에 규정된 내용을 포괄함.
- 유지관리업자는 유지관리의 각 부분을 직접 수행하거나 일부 용역을 주는 등으로 건축주를 대행하여 유지관리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 정함.
- 유지관리업은 건축사사무소로 업무신고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적관리는 필요시 점진적으로 도입하기로 함.
- 유지관리업체에는 건축사를 반드시 보유하도록 등록기준에 정하도록 해야 함.

■ 제5회 법제위원회

2006년도 제5회 법제위원회가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에서 연구한 건축물의 유지관리법 초안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협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소위원회에서 연구한 건축물의 유지관리법 초안에 관한 건

- 소위원회에서 작성한 연구(안)의 조목목에 대하여 수정, 변경 및 통합정리함.
- 소위원회에서 최종안이 작성되면 워크숍을 통해 축조심의하기로 함.
- 정부의 유지관리법 연구용역 추진에 맞춰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함.

▲ 기타사항

- 기반시설부담금과 개발부담금은 명칭만 변경하여 국민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하는 세금제도이므로 대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함.

■ 제2회 정책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정책위원회가 지난 6월 16일 오전 10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건설사 설계검업 요구에 관한 건, 건축사 등록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건, 건축사에 대한 건설기술자 인정 건의에 관한 건, 2006년도 정책위원회 추진과제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협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설사 설계겸업 요구에 관한 건
 - 건설교통부 내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 일단 유보된 사항이므로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대응하기로 함.
- 제2호 : 건축사등록기구 설립방안에 관한 건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등록기구의 설립에 대하여는 동의함
 - 건축사법에 의해 특수법인으로 건축사협회를 설립한 취지가 건축사등록, 관리 등의 정부업무 위탁을 위한 것임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별도의 특수법인을 만들어 등록관련 정부업무를 전부 위탁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 ▷ 기존 협회의 기능을 보완해서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 ▷ 등록기구는 국제기준에 적합한 등록 건축사들에 의해 운영되어야 함
 - ▷ 등록기구 설립주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들이 제시됨
 - ① 정부가 직접 공공사무로서 건교부 내에 등록위원회를 설치하여 등록업무 수행
 - ② 건축사협회의 공공기능을 강화하여 등록업무 위탁수행
 - ③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협회를 등록원으로 전환해서 등록사무를 수행
 - 다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하여 집중적으로 구체적인 연구를 하기로 함
- 제3호 : 건축사에 대한 건설기술자 인정 건에 관한 건
 - 건축사는 건설기술자로서의 성격도 있으나 건축설계는 기술과 예술이 복합된 종합예술로서 고유한 성격이 있으므로 단순히 건설기술자로 취급될 수는 없음.
- 제4호 : 2006년도 정책위원회의 추진과제에 관한 건
 - 건축사법 개정 및 등록기구 설립방안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논의하되, 정책위원회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은 추후 계속 협의해 가기로 함.

▲ 기타사항

- 건축계를 이끌어 갈 차세대 리더를 육성

하기 위하여 (가칭)건축문화연대의 발족이 필요함.

■ 제3회 국제위원회

2006년도 제3회 국제위원회가 지난 6월 15일 오전 10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12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에 관한 건,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에 관한 건, 한·몽 건축사협회 상호교류에 관한 건, 한중일건축사협회 회장편찬에 관한 건, 아카시아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건과 기타사항이 협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제12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참가에 관한 건
 - 행사별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하여 자료를 준비하기로 함.
 - 아카시아 학생 캠프리에 많은 학생이 참가할 수 있도록 홍보하기로 함.

업무 내용	담당자
아카시아 이사회	심재호, 최계희
아카시아 교육위원회	정재욱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관련	이근창, 강정삼
아카시아 학생 캠프리 학생 선발관련	정재욱
Country Report 작성	심재호
ACAE Report 작성	정재욱

- 협회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국제위원이 참석하기로 함.
- 제2호 :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에 관한 건
 - '06. 6. 21(수) 15:00에 개최예정인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관련 간담회에 이근창 부회장, 이영수 담당이사, 심재호 국제위원장, 김지덕 전문위원, 최재희 국제위원, 강정삼 국제위원이 참석하여 협의하기로 함.
 - ▷ 간담회 개최 후, 부산시와의 협의 진행상황에 따라 아카시아 사무국에 제13차 아시아건축사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함.
- 제3호 : 한·몽 건축사협회 상호교류에 관한 건
 - 한·몽 건축사협회 상호교류 협정 체결과 관련, 한·몽 건축사협회 상호교류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위원(이근석, 정재욱, 차

성민)이 협의하여 작성하기로 하고, 올해 몽골건축사협회 방문시 협정 체결을 하기로 함.

- ▷ 한·몽 건축사협회간 상호교류의 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실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기로 함.
- ▷ 몽골건축사협회에서 제안하였던 학생 교환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올해 본협회 대표단의 몽골 방문시 논의하기로 함.

- 제4호 : 한중일건축사협회 회장편찬에 관한 건
 - 중국건축사관리위원회에서 일본건축사협회와 측에 제시한 저작권 및 로열티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관련 자료를 보내기로 함.
- 제5호 : 아카시아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건
 - 아카시아 "Heritage Architecture" 프로그램은 UNESCO 세계문화유산에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재희 국제위원이 진행하기로 함.
 - 『Architecture Asia』2006년도 제3호의 작품제출과 관련하여 이영수 담당이사과 오근석 국제위원이 작품을 제출하기로 함.
 - 아카시아 건축실무위원회(ARCASIA Committee on Professional Practice)의 각 회원국 현황조사에 관하여는 심재호 국제위원장이 담당하여 진행하기로 함.

▲ 기타사항

- 한중일건축사 친선축구대회 등 국제적인 문화·체육행사 교류에 있어서는 동호회 차원의 행사이므로 국제위원회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기로 함.
- 이성란 건축사를 국제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기로 함.
- 국제회의의 참가시 해당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회의 참가여부를 통보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제1차 건축사등록기구 설립 특별대책반 회의
2006년도 제1차 건축사등록기구 설립 특별대책반 회의가 지난 6월 19일 오전 11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사등

록기구 설립 대책에 관한 건이 협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사등록기구 설립 대책에 관한 건
 - 새로운 건축사제도에 맞도록 건축사법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건축사등록기구의 업무는 건축사법에 의해 설립된 건축사협회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협회의 의견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울 것인 바, 별도의 등록기구 설립시에는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기로 함.

〈전제조건〉

- ▷ 설립형태는 재단법인이 아닌 사단법인의 형태로 함.
- ▷ 구성원은 등록건축사로 하고, 임원은 등록건축사 외에 공무원, 교수, 변호사 등의 직정 배분을 통해 공공성을 유지해야 함.
- > 등록원과 건축사협회의 역할 및 업무를 적절히 분담하여 상호 보완·협력 체제를 유지해야 함.
- 협회의 기능 및 역할 변화와 등록원의 참여형태 등에 대해서는 추후 이사회 및 총회 등 협회 내부의 폭넓은 의사 결정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함.

■ 건축사등록기구 설립관련 간담회

2006년도 건축사등록기구 설립관련 간담회가 지난 6월 26일 오전 11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축사등록기구 설립에 관한 건이 협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건축사등록기구 설립에 관한 건
 - 건축사등록기구는 공공성과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정부내에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함.
 - 건축사협회는 내부 혁신을 통해 조직과 기능, 역할 등을 대폭 개선하여 회원의 결집력과 대외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함.

▲ 기타사항

- '06.6.30 개최되는 시·도건축사회장회의에 특별대책반 위원들도 함께 참석하기로 함.

■ 제3회 건축사법개정 특별위원회

2006년도 제3회 건축사법개정 특별위원회가 지난 6월 20일 오후 2시 우리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워크샵에서 정리된 건축사법 개정안에 관한 건이 협의되었다.

주요 협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회의결과

- 제1호 : 워크샵에서 정리된 건축사법 개정안에 관한 건
 - 등록원에 대한 내용은 협회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별도의 장으로 구성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다시 협의하기로 함.
 - 워크샵에서 정리된 내용을 확인한 후 보완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박종철위원이 정리하기로 함.

▲ 기타사항

- 별도의 등록원 설립시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우리 협회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건축사법 개정 워크샵 개최

우리협회는 지난 6월 2일(금)부터 6월 3일(토)까지 1박 2일간 강원도 평창군 금당곶지 펜션에서 WTO에 의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 워크샵 결과

- 건축사법 개정안에 대하여 전체조문을 축조 심의하여 수정·변경하였음.
- “건축사 등록기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세 개의 방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서 기본 방향이 결정되면 건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함.
 - ① 우리협회의 체질개선 및 구조를 혁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방안
(“대한건축사협회”를 “대한민국 건축사 등록원”으로 명칭 변경)
 - 미등록된 건축사에 대하여는 업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 미등록된 건축사는 건축사자격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자격과 면허를 이원화)
 - ▷ 공공건축사 제도의 도입
 - ② 제3의 기구를 별도로 설립하고, 우리협

회가 참여하는 방안

③ 건설교통부장관이 우리 협회에 위탁하여 협회내에 등록원을 두는 방안

- 건설업체의 설계점업 요구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 “50층이상 단일건축물로 200,0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상설계를 의무화하고, 등록 건축사가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경우에 한하여 “설계·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함.
- 대한건축사협회에 (가칭)현상설계심사위원을 설치하여 심사하는 조건임.

2006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자격증 수여



지난 3월 19일 서울과 부산, 광주에서 동시에 실시됐던 2006년도 제1회 건축사자격시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이번 시험은 4,915명이 응시한 결과 210명이 합격해 4.27%의 합격률을 보여 지난해(192명 합격, 합격률 3.45%)보다 다소 상승했다.

한편 최종합격자(3과목합격자)에 대한 건축사 자격증 및 자격수첩 수여식이 지난 7월 5일 오후 2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소재한 전문건설공제조합 3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수여식에서는 합격자 중 각 시도대표 및 여성대표가 이철호 회장으로부터 자격증을 수여받았다.

조성중 회원, 민현식 건축사
AIA Honorary Fellow 추대



우리 협회 회원인 조성중(주.일건 건축사사무소), 민현식(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건축과 교수) 건축사가 미국건축가협회명예회원(Honorary Fellow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으로 추대되었다.

우리 협회,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에 축구공 기증

우리 협회는 지난 2002년 인도 델리에서 개최되었던 제10차 아시아건축사대회에 참가하던 중 '2002한일월드컵'에서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선전에 감동을 받은 방글라데시 대표단으로부터 축구 교류에 관한 요청을 받은 바 있다.

계속된 교류 중 우리협회는 지난 2005년 10월 국제협력 및 교류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축구공 50개를 방글라데시건축사협회(IAB, Institute

of Architects Bangladesh)에 기증하였고,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건축사협회에서는 방글라데시 디카의 20세 이하 유소년 축구팀에게 이 축구공을 전달하는 기념식을 개최했으며, 이 기념식에는 방글라데시건축사협회와 방글라데시축구협회의 관계자들은 물론 여러 현지 언론사들이 참석하여 이를 보도했다.

지난 6월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추대식에서 조성중 회원이 국제건축가연맹(UIA)과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등 여러 단체에서 활동, '봉사' 분야에서 그 성과를 인정받았고, 민현식 건축사는 한국전통문화 학교와 신도리코, 임진각 평화누리 등으로 건축 설계 등에 기여한 업적에 따라 '건축설계' 분야로 인정된 것이다.

명예회원은 미국건축사협회(AIA)에서 그 해 건축설계, 교육, 기술, 환경, 봉사 분야에서 건축과 사회에 크게 기여한 5명 정도의 미국 외 건축사를 추대, 수여하는 제도이다. 역대 AIA 명예회원으로 선정된 한국 건축사는 고 김수근, 이광노, 장석웅, 원정수, 이경희, 송효상, 황일인, 이상림 건축사가 있다. □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 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661-5715~8
- 강남구건축사회/(17-307) · 강동구건축사회/(477-9404) · 강북구건축사회/(03-4666) · 강서구건축사회/(2661-6939) · 관악구건축사회/(885-2490) · 광진구건축사회/(46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5) · 노원구건축사회/(937-1100) · 도봉구건축사회/(3494-3221) · 동대문구건축사회/(927-9503) · 동지구건축사회/(814-8943) · 마포구건축사회/(339-5556) · 서대문구건축사회/(324-3810) · 서초구건축사회/(3474-6100) · 송파구건축사회/(2202-5365) · 성북구건축사회/(027-3238) · 송파구건축사회/(423-9159) · 양천구건축사회/(2644-6688) · 영등포구건축사회/(2834-3102) · 용산구건축사회/(719-5685) · 은평구건축사회/(357-8833) · 중랑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236-4804) · 중앙구건축사회/(495-367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8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6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6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5-566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29~30
- 고양지역건축사회/(031)983-5002 · 광명건축사회/(02)2664-5645 · 동부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977-9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6-8046~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6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0-2638) · 북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6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파주시지역건축사회/(031)945-1402 · 광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8 · 오산 · 화성지역건축사회/(031)234-3872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팔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 강릉지역건축사회/(033)853-8880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53-6651 · 속초지역건축사회/(033)837-6621 · 영평경제지역건축사회/(033)374-6478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5-2905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1-2443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9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7-5752 · 처천지역건축사회/(043)647-6633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3587 · 음성지역건축사회/(043)873-0180
- 충청남도건축사회/(041)252-4088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4-0070) · 공주지역건축사회/(041)888-5110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92-8890 · 아산시지역건축사회/(041)549-5001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62-3338) · 논산시지역건축사회/(041-662-3338) · 금산지역건축사회/(041)751-1339 · 연2 지역건축사회/(041)866-2276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3-2217 · 서천지역건축사회/(041)952-2356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예산지역건축사회/(041-335-1333) · 태안지역건축사회/(041)674-3733 · 당진지역건축사회/(041)366-0017 · 장항지역의정실/(042)941-5726 · 청양지역의정실/(041)942-5922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6171 · 남원지역건축사회/(063)8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151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944 · 364-7667
-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3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25-837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96-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66-5944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 간성지역건축사회/(053)801-0386 · 경주시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8-2651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02-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6-885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853-4455 · 영주지역건축사회/(054)831-4586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7-0085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3-1219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78-6129 · 군위·영성지역건축사회/(054)383-8808 · 형도지역건축사회/(054)373-2332 · 교령·성주지역건축사회/(054)331-3577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6-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8999 · 김해지역건축사회/(055)934-6844 · 마창지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65-1323 · 사천지역건축사회/(055-832-3026)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시지역건축사회/(055)741-8403 · 진해지역건축사회/(055)644-6666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2-4530 · 하동지역건축사회/(055)864-7400 · 함안지역건축사회/(055)595-8597 · 함양지역건축사회/(055)833-2473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63-1010

회관신축공사 진행경과

(2006년 5월 31일 현재)

공사진행 현황

'06. 6월 중 진행된 우리 협회 회관신축공사는 '06. 6월초 지붕층 바닥슬라브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어 '06. 6.8일 신축회관의 상량식이 협회 임직원, 회관건립위원, 설계자, 시공자 및 협력업체 등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06. 6.20일경 신축회관의 골조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지상1~4층의 화장실 방수공사 및 지하2~3층 주차장 벽체 미장공사, 지하2~4층 코어부 조적공사 그리고 지상층의 스프링클러 및 화장실 배관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창호공사는 철재창호문들의 70%가 반입·설치되었다.

회관신축공사의 공정진행은 '06.6월말 현재

63.1%(계획 63.09%)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회관건립위원회 회의현황

'06. 6.14일 개최된 제9회 위원회에서는 시공사로부터 청구된 거성금(3회분)에 대해 협회 거성금 지급기준에 따라 감리자 검토금액의 95%를 지급하였다.

그리고 회관 2차 설계변경부(지상 1, 2층 면적증가부 및 토목옹벽) 시공에 대해서는 회관건립위원이 각각 세부적으로 검토키로 협의하고, 난방 공사변경에 대해서는 지표면조정에 따른 면적증가부(지상 1, 2층)에 실내기 16대를 추가로 설치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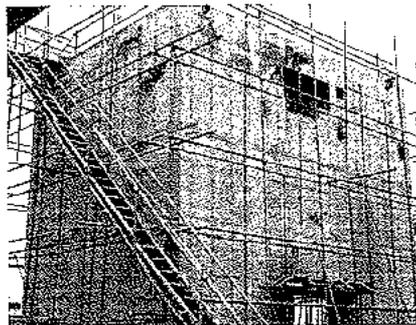
2차 설계변경 인정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추가 공사부에 대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회관공사가 예정공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유진건축에 설계변경도서를 납품토록 하였다.

그리고 회관 임대 및 사용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임대수지 분석자료를 제출한 3개 건설업 업체중 제안된 임대 수익성을 고려하여 2개 업체를 선정하여 해당업체로부터 구체적인 임대방안을 보고받아 임대사업 시행을 결정키로 하였다.

또한 '06. 6.21일 개최된 제10회 위원회에서 회관신축공사의 시공의 용이성 및 공기단축을 감안하여 마감재료를 일부 변경키로 협의하고, 회관 인테리어 공사발주는 공정성을 고려하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보유 업체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 경쟁입찰로 공사를 발주키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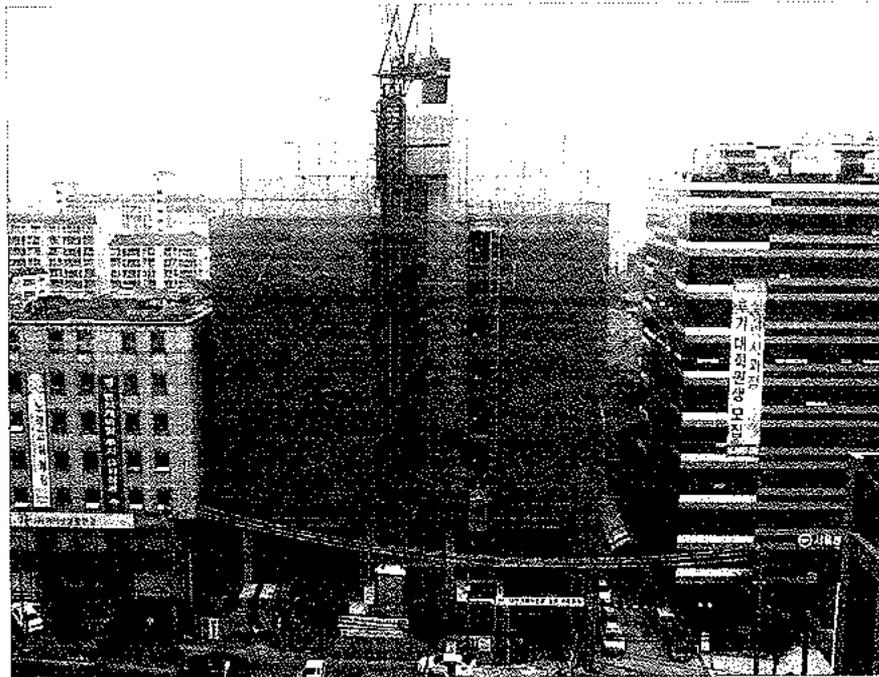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상량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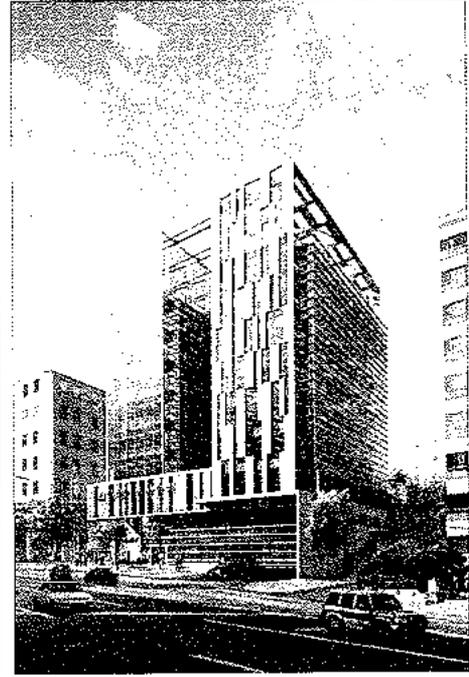
옥탑층 거푸집 해체



지하층 내벽미장 공사



공사 전경



투시도

2006년 인천건축문화제 개최, 학생건축공모전 국제 행사로 확대

相生

2006 인천건축문화제

제3회 인천국제학생건축공모전 제4회 도시건축사진공모전

인천의 도시건축을 재조명하고 건축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2006 인천건축문화제'가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주최하에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상생(相生, Symbiosis)'을 주제로 개최된다.

인천을 동북아시아 중심 국제도시로 재평가하는데 의의를 둔 이번 행사는 학생건축 공모전을 국제행사로 확대하였고, 도시건축사진공모전과 인천지역 대학생 우수작품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 작가초대전,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제3회 인천국제학생건축공모전〉

- 주제 : 상생(相生)
- 대지 : 인천광역시 전지역
- 용도 :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설정
- 자격 : 국내외 대학교(2~5년제) 및 대학원(석사과정) 재학생 및 휴학생(개인 또는 3인 이내 공동작품 가능)
- 접수기간 : 2006. 9. 20~9.23
- 시상 : 대상 1점(상금 700만원), 최우수 1점(상금 400만원) 우수상 3점(상금 250만원), 가작 5점, 입선 다수
- 전시 : 10월 27일~11월 2일(인천 예술회관 역 문화공간)
- 문의 :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032-437-3381, www.inkica.or.kr

〈제4회 도시건축사진공모전〉

- 주제 : 도시, 건축물과 인간, 상상적 도시건축과 인간
- 참가자격 : 제한없음
- 접수기간 : 9월 20일~9월 23일 오후 1시

- 규격 : 컬러 또는 흑백 11"×14" 디지털사진 가능(1인 3점 이내)
- 시상 : 대상 1점, 우수상 2점, 가작 10점

'울산대공원' 7월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회(위원장: 김진예)는 '문화의 북모지'로 여겨던 공업도시 울산을 환경도시, 경제도시로 격상시킨 '울산대공원'을 7월의 건축환경문화로 선정하였다.

울산시 남구 옥동에 위치한 '울산대공원'은 SK(주)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 1천여 억원을 들여 조성한 시설을 울산시에 무상 기부하여 기업의 이익을 시민들의 삶의 질터로 환원하여 줌으로써 울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기업과 공업도시의 이미지를 개선시켜준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110만평에 조성된 울산대공원은 '풍요의 못', '호랑이발 테라스', '노티나무 산책로' 등 생태도시공원을 시설하고 4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였으며 시민위주의 흥미롭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참여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으며, 주된 시설로는 아이들의 낙원인 어린이 동물농장, 한국적 풍토에 맞는 테마 초화원, 자연친화적 가치를 보여주는 나비식물원과 환경·에너지홍보관 및 테마놀이시설 등이 있다.

이밖에도 110만 송이의 장미축제, 장애인 합동 결혼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 가족과 연인들의 휴식 공간으로 연간 500만명의 관람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건축환경문화위원회인 성인수 교수(울산대학교

건축과)는 "울산대공원은 건축적, 기술적, 환경적 성취 이전에 우리사회에서 기업이 지역과 사회에 대한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그 선정 사유를 밝혔다.

• 시설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산 256번지 일원
- 공사기간
 - ▷ 1차시설 : 1997년 11월 ~ 2002년 4월
 - ▷ 2차시설 : 2004년 05월 ~ 2006년 4월
- 면적 : 3,653천㎡
- 시설물 :
 - ▷ 1차시설구역 : 수영장, 풍요의 못, 자연학습장, 잉어볼놀이공간 등
 - ▷ 2차시설구역 : 장미계곡, 어린이동물농장, 테마 초화원, 나비식물원 등
- 문의 :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기획단, 031-436-8900~1

제5차 한옥과의 만남 안내

한옥문화원은 '한국의 불교문화와 그 건축-땅끝에 구축된 문화와 불교'라는 주제로 5기 한옥과의 만남을 개최한다.

이번 탐구는 달마산이라는 멋진 산을 배경으로 '땅끝'에 자리잡은 절, 미황사의 구조와 배치에 집중할 계획이며, 대홍사, 무위사, 도감사 탐방으로 시야를 넓히고, 절집 탐구의 한 갈래로 미황사 괘불, 무위사 벽화들을 통하여 불화의 역할도 공부할 예정이다.

또한, 해남은 조선시대 많은 학자들이 유배 생활을 보냈던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인지암은 초이선사, 다산, 추사의 숨결을 담고 있는 19세기 최고 지성 교류의 현장이어서 차향 속에서 그 선도의 지취를 흠모하는 기회도 가진다.

- 주제 : 한국의 불교문화와 그 건축-땅끝에 구축된 문화와 불교
- 참가대상 : 한옥을 깊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과 연구자 및 관련분야 종사자(50명 선착순)
- 기간 : 2006년 8월 12일 ~ 2006년 8월 15일
- 행사지 : 땅끝마을을 달마산 미황사, 해남 대홍사, 일지암, 무위사, 도감사 및 녹우당 등
- 강사진 : 김대벽(문화재 전문 사진가), 남강스님(미황사 주지), 신영훈(한옥문화원장),

여연삼님(일지암 주지), 전연호(불화장), 현고스님(조계종 불교문화사업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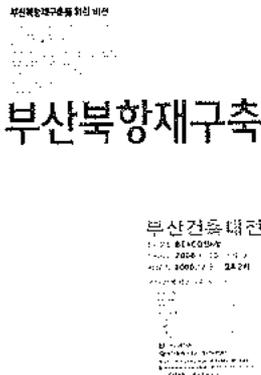
• 문의 : www.hanok.org

제22회 부산건축대전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는 '제22회 부산건축대전'과 '2006 제7회건축도시사진전'을 개최한다.

'부산건축대전'은 부산광역시와 부산북항재구축을 위한 비전, 복항을 21세기 새로운 부산의 비전을 제시할 공간으로 재구축하기 위해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건축도시사진전'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산광역시지회와 건축과 공간, 도시가 일차적 교섭 대상으로 만나는 도구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배려가 너물고 있는 거리가 어떻게 한정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사진이라는 주시양식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개최한다.

〈제22회 부산건축대전〉



- 공모일정
 - 1차 등록 : 6월 15일~7월 5일
 - 1차 작품접수 : 9월 4일~9월 8일
 - 1차 결과발표 : 9월 12일
 - 1차 등록 : 9월 12일~9월 15일
(1차 합격자에 한함)
 - 2차 작품접수 : 11월 24일
(2차 등록자에 한함)
 - 2차 공개심사 : 11월 26일(일)
오후2시 ~ 오후6시
 - 최종결과발표 : 11월 28일(화) 홈페이지
- 시상 : 대상 1점, 우수상 3점, 특선 5점, 장려 7점 이내, 특별상 2점(입상자 해외건축기행 참가 특전부여), 입선 다수, 시민상 2점
- 전시기간 : 11월 30일~12월 3일
- 전시장소 : BEXCO 전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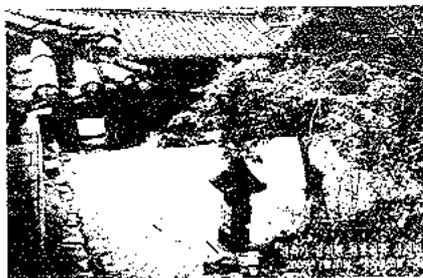
〈제7회건축도시사진전〉



제7회 건축도시사진전
김석환 회원의 작품 '한국의 전통건축'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of Korea)

- 참가접수 : 7월 20일~8월 4일
- 출품자격 : 제한 없음
- 공모부분 : 일반사진부분/디지털사진부분
- 작품규격 : 11"×14"(칼라 또는 흑백 - 규격 절대여수) / 제출 시 샘플(5"×7") 동봉 및 일반사진·디지털사진 구분표시
- 시상 :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특선 5점, 입선 다수
- 심사발표 : 2006년 8월 21일(월) 오후2시, 홈페이지 게시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8월 4일까지 작품도착)
- 시상식 : 9월 21일(목) 오후2시, 부산시민회관 집회실
- 전시기간 : 9월 21일(목)~9월 25일(월)
- 전시장소 : 부산시민회관 제1전시실
- 문의 : 한국건축가협회 부산지회
0502-555-4455, http://www.kiabb.org

김석환 회원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 사진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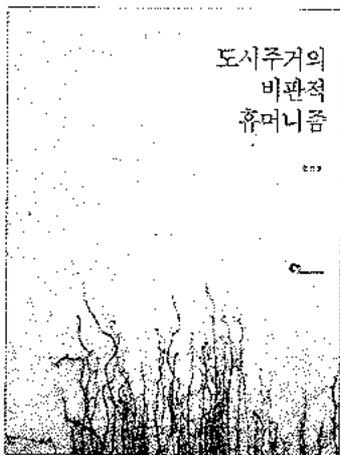
김석환 회원이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 약 보름여간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 사진전을 개최한다.

르 꼬르뷔제의 생애와 건축에서 영향을 받아 세계 각지의 건축을 답사했던 김석환 회원은 건축인으로서 이 땅에 건물을 세우며 지녀야 할 의미를 찾아보고자 1996년부터 전통건축을 본격적으로 답사하고 선인들이 이 땅위에 오랜 세월을 걸쳐 이룩한 전통건축에 녹아있는 의미를 탐색하는 창작 작업을 해왔고, 얼마 전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기문당)」이란 책자를 발행하기도 했다.(85쪽 참조)

- 전시명 : 한국전통건축의 좋은 느낌, 건축가 김석환 전통건축 사진전
- 전시일자 : 2006년 7월 31일~8월 13일
- 전시장소 : 사진쟁이 1019
- 문의 : 02-723-1977,
www.gellery.1019.com

도시주거의 비판적 휴머니즘

민병호(아주대학교 건축공학부)교수는 공부를 시작한 이래 작은 발자취라도 인본주의 세계 밖으로 나가려는 스스로를 크게 경계해 왔다. 그리고 도시화에 점점 사라져가는 인간의 모습을 자신만의 용어와 방법으로 말하고 싶어 했다. 이러한 저자가 새롭게 발간한 『도시주거의 비판적 휴머니즘』에는 휴머니즘 건축의 비판과 휴머니즘 건축의 새로운 대안, 장소의 의미와 자원, 인간 행동과 공간이용에 있어서의 자연과의 상호관계 등의 내용을 밀도있게 구성되어 있다. 권말 부록에는 'PCPND' 절차와 과정, 인간중심 계획의 과정별 작업, 단축모델, 도시주거 기술계획 항목 예시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민병호 / 363쪽 / 19,000원 / 시공문화사
02-3147-1212

공동주택감리 이야기

필자는 건설 감리의 성패가 곧 시공품질의 척도이나 현재 건설 감리업무는 열악한 기업환경 때문에 늘 현장에서 개발되고 개선된 Feed Back화된 기술이 다음 현장으로 이어져 발전되지 못하고 또 다시 구태를 답습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그리고 이러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16년 남짓 감리업무부름 수행해 오면서 개선하고 개발한 기술들을 한 데 모아 현행 개정 법규 및 시방에 따라 현장감 있게 일목요연하게 구성하여 책으로 엮어내었다. 또한 필자는 지극히 사소한 사안이라고 해서 이를 간과해 버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일들이 반복됨으로써 시공품질의 저하는 물론 이에 따른 안전 및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현장 관련 건설인들 사이에서 겪는 갈등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보고자 하는 바람으로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택순 저, 김무한 감수 / 355쪽 / 25,000원
/ 공간에술사 발행 02-737-1020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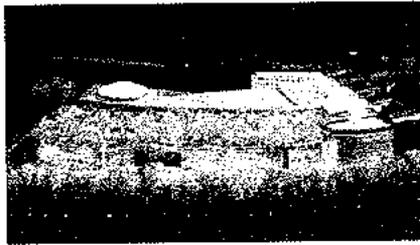
한국 근현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건축사인 김수근의 저작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을수록 좋다』는 한국전쟁 후 물리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켰던 세대로서 이미 29세에 국회의사당 설계경기 당선을 시작으로 '88 올림픽경기장' 까지 국내외 기념비적인 건축과 도시계획을 이끌었던 그의 건축과 글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 책을 통해 건축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보여주었던 건축사 김수근의 많은 글과 그림을 엿볼 수 있으며, 성장기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 사회적인 이슈와 쟁점에 대한 시론, 건축적 철학을 변화시켰던 중요한 가르침과 깨달음 그리고 『공간』지를 중심으로 한 문화 활동에 대한 의지들을 읽을 수 있다.



김수근 / 345쪽 / 12,000원/ 공간사 발행
02-747-2892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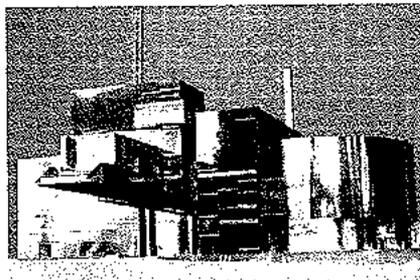
파리의 새로운 박물관 Musee du Quai Branly 개관



Jean Nouvel에 의한 파리의 새로운 박물관
 Musee du Quai Branly

지난 6월 새로운 박물관을 Musee du Quai Branly가 파리에서 새로이 개관되었다. 이 박물관은 Jean Nouvel에 의하여 설계되었다. 파리 박물관들이 모여 있는 파리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처에 루브르 및 오르세이 박물관 그리고 퐁피두 센터와 현대 미술관들이 있다. 따뜻한 색과 부분적으로 나무로 덮여 있어 숲속의 기다란 다리와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다. 수목이 우거져서 교통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다. 소장품과 미래 전시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설계하였다.

미국 Minneapolis의 새로운 Guthrie Thea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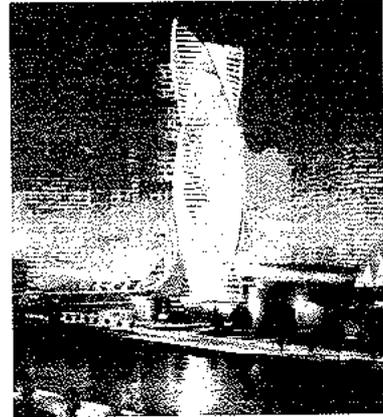


Jean Nouvel 의 새로운 건물인 Guthrie Theater 모형

이 난은 인터넷상의
 주요 건축관련 정보를
 정리한 것입니다.

세계적 건축사 Jean Nouvel 에 의하여 설계된 새로운 건물인 Guthrie Theater가 지난 6월 개관하였다. US\$1.25억의 예산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Jean Nouvel에게는 북미에서 완성된 첫번째 프로젝트이자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극장이다. 이 극장은 미네아폴리스 중심가이자 미시시피 강 독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거의 성취와 확고한 미래를 나타내는 상징적 건물로 지어 졌다.

모스크바의 새로운 건물 계획



남성과 여성의 계층으로 설계된 파비기 형태의 형태로 이루어 졌다.

모스크바 시장 유리 루츠코프는 영국 건축회사 RMJM에 의하여 설계된 46층 타워 건물에 대해 승인했다. 크레믈린으로부터 3마일 떨어진 이전의 산업지구를 중심 상업지구를 만드는 '모스크바 도시' 개발 계획의 일환이다. 유기적 형태를 한 이 건물은 스코틀랜드 예술가 카렌 포브스와 협업으로 RMJM에 의하여 설계 되었으며, 오피스와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City Palace' 라고 명명된 이 파비기형 건물은 85,000m²의 소매 및 레저 시설과 85,000m²의 사무소와 공공 기능 공간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Yale대학의 모듈화 강의동

모듈에 의하여 계획된 강의동은 일반적으로 싸구려 회색 박스의 콘크리트 블럭으로 만든 건물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Centerbrook Architects사의 건축가 Mark Simon은 예일대학 정치학과 강의동 설계를 통하여 모듈에 의한 건물도 멋있고 현대적이며 깔끔한 디자인으로 지어질 수 있다는 실제 사례를 보여주었다.

이 프로젝트는 단과대학 차원에서 본부, 강의실, 미팅 시설, 사무실 등이 필요성에 의하여 임

시 건물의 성격이었으며, 저 예산과 짧은 기간에 완성하여야 하는 건물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모듈에 의한 시공이 시도되었다. 예일대학교와 가까운 모듈 제작사를 선택함으로써 운송비의 절약과 짧은 스케줄에 맞출 수 있게 하였다. 많은 경우 모듈 건물이 형편 없는 외관을 하고 있는 반면, 이 건물을 미적 건물로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몇몇 디자인의 주요 요소들을 제어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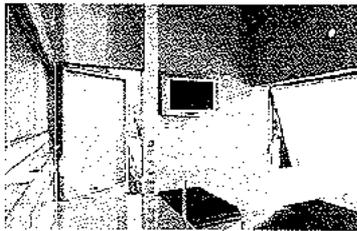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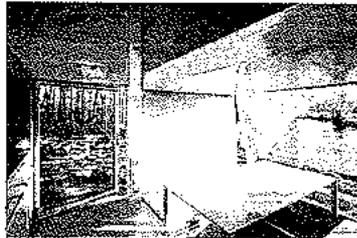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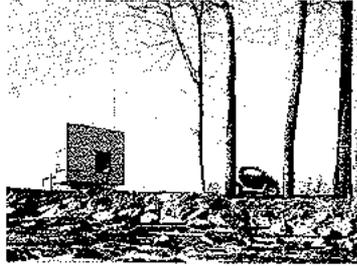
우선적으로 외장 사이딩과 창문 디자인이 건물 전체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별한 외장 마감 없이 지어질 건물의 모듈을 결정하고 자재를 구매하였다. 21개의 모듈로 구성된 이 건물의 일체감과 산업적 느낌을 위하여 강철 주름판을 사용하여 건물의 낮고 수평적인 느낌을 강조하였다. 이 강철 패널이 은회색의 페인트로 마감되었다. 창문 시스템으로 Fibonacci 시리즈의 비율을 적용하였다. (Fibonacci 수는 이전 2개의 숫자의 합이 추가되는 수학적 개념으로 0, 1, 1, 2, 3, 5, 8, 13 등의 수를 이야기 한다) 창틀은 녹색색으로 벽체의 회색과의 대조를 주었으며, 또한 주변의 녹지를 반영하도록 설계하였다.



수학의 Fibonacci 개념에 의한 창문의 비율은 광장생산의 느낌이 아닌 개별적 디자인에 의한 건물의 느낌을 갖게 하고 있다.

Micro-compact Home

Horden Cherry Lee Architects는 최근 micro-compact home을 영국에서 선 보였다. 이 집은 독일 뮌헨에서 학생기숙사 단지에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올해의 6월 2일-4일 Dockland ExCel의 Grand Designs Live 전시회에서 선보였으며, 그 후 영국 버클리 광장에서 전시되었다. 이 건물은 영국에서 인기 있는 TV 시리즈의 배경이 되었으며, 최신 주거개념을 선보이고 있다. 이 건물은 영국의 건축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런던의 버클리 광장의 남쪽에 설치되었다. 이는 매우 단출한 형태로, 스마트 리빙과 다양한 위치에서의 설치가 가능하다. 비즈니스와 여가 생활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졌다. 외관은 멋이 있는 알미늄



The Micro-Compact Ho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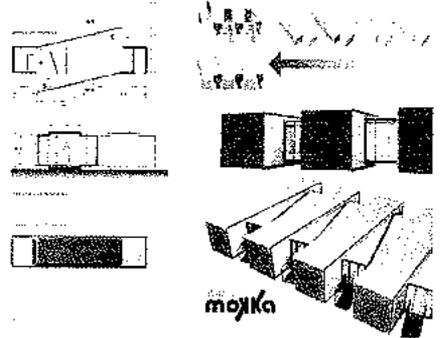
디자인으로 되어 있으며, 음향, 스크린, 커뮤니티케이션과 에너지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으며, 가구가 필요 없도록 설계 되었다. 건물의 크기가 작으며, 건물을 통한 자연 환기가 좋도록 하였다. 시범 단지로 7개가 배치 되어 학생 기숙사로 사용되고 있다.

영국의 건축 주간 행사

영국 런던에서는 6월 16일~25일 사이 제 10회 건축 주간을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즐거움과 정보를 통하여 예술과 문화로서 건축을 즐기 고자 매년 열리고 있다. 영국의 예술 위원회와 영국왕립건축가협회(RIBA) 그리고 전국의 건축센터 네트워크가 함께 주치를 하여 진행되었다. 올해의 주제는 'The Power of Ten'으로 10이라는 주제로 500개 이상의 이벤트들이 계획되어 진행되었다. 이 행사 중에는 건축 전문가에 의한 버스타워, 예술가, 건축사와 정신분석학자와의 대담,

건축 전시회, 건축사에 의한 집의 재설계 이벤트 등이 진행 되었다.

국제 LIVINGBOX 디자인 경연대회



국제 Living Box 공모전의 1등 작품 중 하나인 Architekturburo (lu:p), Rence Lorenz, - (Germ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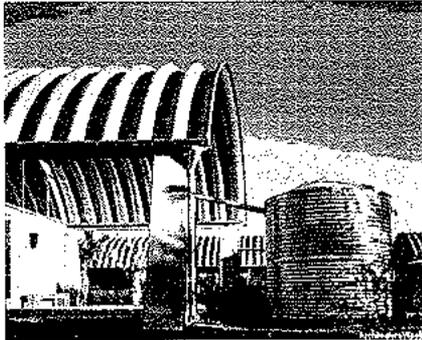
이 디자인 경연 대회는 조립식 주택에 관한 첫 국제 공모전이였다. 이 공모전에서 1등상을 독일의 Architekturburo(lu:p)과 이태리의 Alessandro Baldo가 같이 수상하였다. 그리고 3등상에는 한국의 디자이너 김민성씨가 수상하였다. 이 현상공모전에서는 전 세계 2,500명이 등록하였으며 1,000 프로젝트가 접수 되었다. 이 디자인 대회는 임시 주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거 제안을 주제로 하고 있다. 디자인 조건으로 도로나 기차 혹은 비행기로 옮길 수 있도록 크기의 제약이 있다. 또한 현장에서 조립이 가능한 작은 조립식 요소를 지닌 기술적 시스템의 제안을 요구하였다.

COVERINGS AWARDS 2006

외장재를 주제로 열리는 무역 및 학술대회인 'Covering'은 건축에서의 돌과 타일의 창의적 사용의 홍보와 연구를 주제로하는 대회이다. 지난 4월 이 대회에서는 석재 외장재를 대상으로하는 프리즘상과 타일 외장재를 대상으로 하는 스펙트럼 상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프리즘 상에는 미국 뉴욕 맨하탄 남부 90 West Street Building에 수여되었다. 1905년에 세워진 이 역사적 건물은 Cass Gilbert에 의하여 설계되었으며, 911 테러 당시 세계 무역센터의 북쪽 타일의 붕괴의 영향으로 입면에 손상을 받았다. Gilbert에 의하여 설계된 입면은 사자, 독수리 그리고 다양한 미국을 상징하는 조각물로 장식되어 유명하였다. 이

러한 석조 입면의 복원은 Conventional Stone & Marble Corporation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스펙트럼 부분의 대상은 세라믹 타일을 잘 사용한 North Carolina의 Charlotte 경기장의 벽면에 수여 되었다. 예술가는 Mike Mandel로 전통적 수공예와 컴퓨터 기술을 혼합하여 운동 선수들의 모자락을 만든 작품이다.

미국AIA협회, GREEN BUILDINGS 2006 선정



그린빌딩 2006에 선정된 The World Bird Center. 미국 텍사스에 있으며 1,210m² 규모이다. 이 건물은 농업적 목적으로 개간 된 지역과 보존지구의 출입구 역할을 한다. 모든 조경은 지역의 식물이 심어 졌다. 178m³ 우수수거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 물은 개간과 야생동물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절수 시스템과 물을 사용하지 않는 스펙기는 실내 소비를 최소화 하고 있다.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미국건축사협회의 환경위원회는 '녹색' 디자인과 시공방법에 관한 시범을 보이고 있는 건물을 선정하고 있다. 2006년도에 건축과 기술 그리고 자연 시스템을 훌륭히 통합한 10개의 그린 빌딩이 선정되었다. 작품들은 디자인 혁신, 대지의 사용, 유기환경 디자인, 수자원 및 에너지 보존, 재료, 내부 환경 등 10가지 요소에 의하여 평가되고 선정 되었다.

몬트리얼 시, UNESCO에 의한 디자인 도시 지정

문화의 다양성을 위한 세계 연합은 몬트리얼을 창의적 도시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유네스코의 디자인 도시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몬트리얼은, 2005년 8월 부에노스 아이레스, 2005년 11월 베를린에 이어 북미대륙의 디자인 도시로 최초로 지명 받은 도시가 되었다.

이 지정은 디자인 부문에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노력과 경제 사회적 개발의 가능성을 근거로 지명되었다. 몬트리얼은 디자인의 질과 혁신을 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몬트

리얼은 2005년 국제 디자인연합의 본부를 유치하였으며, 1986년부터 도심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몬트리얼은 현재 전략적 디자인 프로모션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은 뉴욕과 리옹 등의 도시 개발의 참조 대상이 되고 있다.

건축과 우편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1,000개의 우편 업서를 만드는 프로젝트이다. 각 업서는 무명의 작가들에 의하여 이전에 소개되지 않은 이미지를 담고자 하고 있다. 전 세계로부터 보지 못한 새로운 이미지들을 공모하고 있으며, 이들 이미지들을 배포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유토피아적 발상으로 건축 분야에서의 독립적 경력의 개발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우선적으로 1000명의 건축사, 도시계획가, 학계, 큐레이터, 저널리스트와 비평가들에게 보내지며, 이들로부터의 비평을 기대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1,000개의 이미지를 모으고 카탈로그를 만들고 전시회를 열려고 하고 있다.

Zaha Hadid 건축전

뉴욕의 구겐하임 박물관에서 오늘날 가장 혁신적인 건축사라고 인정받고 있는 Zaha Hadid의 회고전이 열리고 있다. 2004년 Pritzker상을 수상한 최초의 여성건축가로서 건축, 도시 그리고 디자인을 넘나드는 건축사로서의 작품전을 열고 있다. 이 작품전은 건축에서의 이론과 연구 업적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지어진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사진, 그림, 모델 그리고 가구 등이 전시되고 있다.

Le Corbusier 작품전

제네바의 Rath 박물관은 Le Corbusier의 작품전을 8월 6일까지 열고 있다. 이 전시회는 일반인에게 여러 분야에서 재능을 보인 예술가를 소개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Le Corbusier는 건축사이자 뛰어난 미술가 조각가이자 디자이너이며 엔지니어였으며, 작가이며 시인이었다. 134개 회화 작품, 20개 조각 그리고 많은 그림,

콜라주, 도서 디자인 계획, 건축도면, 모형, 도서 그리고 개인 소장품들이 시대적으로 전시되고 있다.

McGraw-Hill Construction사의 새로운 디자인 잡지

McGraw-Hill Construction사는 친환경적 건축을 다루는 새로운 잡지 'GreenSource'를 새로이 발간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잡지는 뉴스, 중요 프로젝트, 제품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잡지는 웹사이트 'BuildingGreen'과 협력을 통하여 출간되고 있다. 이와 함께 from McGraw-Hill Construction사의 Architectural Record지와 Engineering News-News와 연계되어 출간될 예정이다.

디지털

AIA TAP 2006 Conference

지난 6월 미국의 AIA National Convention and Expo 2006이 열리는 전주에 AIA 'TAP (Technology in Architectural Practice) conference가 열렸다. 올해는 건축 전문분야에서의 기술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Models for the Future of the Architecture Profession: The Risks, Rewards, and Opportunities of Technology.'가 제안되었다. 대부분의 내용은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으로 모아 졌다. BIM은 사용하여야만 하는 기술이라는 인식의 공유가 이루어 졌다. 또한 협업과 호환성의 문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졌다. 특히 BIM의 기술적인 문제보다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며, 이에 따른 설계 작업의 변화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 졌다.

Autodesk사 온라인 프로젝트 협업 서비스 Buzzsaw 7 발표

Autodesk의 Buzzsaw는 프로젝트 협업 서비스로 DWF 파일 형식에 의한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Buzzsaw에서는 자동으로 DWF 파일이 생성되며, 내용에 대한 부가적 기록이 된 디자인 데이터와 연계되어 DWF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다.

Buzzsaw는 모든 파일의 버전이 추적된다. 팀원 간 모든 디자인 데이터가 DWF 형식을 통하여 공유된다.

웹을 이용한 CAD: Web-CAD: DynaCADD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CAD의 개발의 상업화가 시도되고 있다. 비록 기존의 CAD 업계에서는, 많은 데이터 용량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접근방식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캐나다 온타리오의 View22사는 3년간의 개발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성능은 AutoCAD LT와 같은 CAD 프로그램을 대체할 정도의 기능이 아닌 Microsoft사의 Visio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성능으로 평가되고 있다.

Google, 매킨토시를 위한 무료 SketchUp 발표

Google사는 최근 매킨토시 사용자들을 위한 무료 Google SketchUp을 발표하였다. 이는 전문가용으로 만들어진 SketchUp Pro 5의 약식 버전이다. 무료 버전은 Pro 버전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 대신 파일 포맷간의 변환기능을 축소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 사용상의 차이는 없으나 다른 포맷과의 변환에 많은 제약이 있는 단점이 있다.

Visio 2007

Visio는 최근 2007 버전을 출시하였다. Visio는 다목적의 다이어그램 작성 도구로, 사용성이 뛰어나다. 또한 단순한 CAD의 기능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1999년 Microsoft사에 의하여 인수

되었으며, 그 후 2003 버전의 발표 이후 4년만의 제품 출시이며 새로운 Office 시스템의 부분으로 발표되었다.

U-홈 건설협의회 창립

미래 주거 복지환경을 위한 홈네트워크 연구와 u-홈(Home)을 통한 국내 첨단 주거문화산업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U-홈 건설협의회가 창립되었다. 이 협의회는 대한주택공사와 건설교통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및 한국홈네트워크 산업협회, GS건설, 삼성물산, 금호건설, KT, SK 텔레콤,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관계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협의회는 통신업체가 주도적으로 이끌던 다른 협의회와는 달리 건설사 및 정부기관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06.6.29 건설교통부령 523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39조 내지 제4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피난·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2>

제2조 (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라 함은 벽돌·자연석·인조석·콘크리트·아스팔트·도자기질재료·유리 기타 이와 유사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개정 2005.7.22>

제3조 (내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6.3, 2005.7.22>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 마. 고온·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 라.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 다. 철실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벽돌조 또는 석조
 -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품질시험을 한 결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품질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품질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으로 내화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개정 2006.5.12, 2006.6.29>

제4조 (방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1. 철망모르타르로서 그 바름두께가 2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석면시멘트판 또는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시멘트모르타르위에 타일을 붙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4. 두께 1.2센티미터 이상의 석고판위에 석면

시멘트판을 붙인 것
5. 두께 2.5센티미터 이상의 암면보온판위에 석면시멘트판을 붙인 것
6. 심벽에 흙으로 맞벽지기한 것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방화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것

제5조 (난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9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제6조 (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0. 6. 3, 2004. 10. 4, 2005. 7. 22, 2006. 6. 29>

1. 콘크리트 · 석재 · 벽돌 · 기와 · 철강 · 알루미늄 · 유리 · 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를 등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개정 2006.6.29>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제7조 (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라 함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6.29>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의 상하간에는 각각 지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①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지하 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5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된 지하 1층의 계단을 포함한다)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0.6.3, 2003.1.6, 2005.7.22>

1.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 가. 계단실은 창문 · 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

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사.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2.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가. 계단은 그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외의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나.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 계단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할 것

라.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3.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나. 계단실·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마.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불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차. 계단은 내화구조로 하되, 피난층 또는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도록 할 것

카.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을 것

③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들음계단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은 당해 건축물의 옥상으로 통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깃복도식 공동주택 “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신설 2006.6.29>”

제10조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는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 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관람석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각 출구의 유효너비는 1.5미터 이상일 것
3. 개별 관람석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석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제11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 출구의 설치 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래식당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

서는 아니된다.

③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판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에 있어서는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④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는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도에는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동사무소·경찰관파출소·소방서·우체국·전신전화국·방송국·보건소·공공도서관·지역의료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⑥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6.6.29>

제12조 (회전문의 설치기준)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회전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둘 것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벨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가. 회전문과 문틀 사이는 5센티미터 이상 나. 회전문과 바닥 사이는 3센티미터 이하
3.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조로 할 것
4. 회전문의 중심축에서 회전문과 문틀 사이의 간격을 포함한 회전문날개 끝부분까지의 길이는 140센티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회전문의 회전속도는 분당회전수가 8회를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자동회전문은 충격이 가하여지거나 사용자가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전자감지장치 등을 사용하여 정지하는 구조로 할 것

제13조 (헬리포트의 설치기준)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헬리포트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1.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는 각각 22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건축물의 옥상바닥의 길이와 너비가 각각 22미터이하인 경우에는 헬리포트의 길이와 너비를 각각 15미터까지 감축할 수 있다.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헬리포트의 주위계선은 백색으로 하되, 그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할 것
4. 헬리포트의 중앙부분에는 지름 8미터의 "H"표지를 백색으로 하되, "H"표지의 선의 너비는 38센티미터로, "O"표지의 선의 너

비는 60센티미터로 할 것

제14조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①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2.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할 것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1.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2. 급수관·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메울 것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에서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개정 2006.6.29>
3. 환기·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

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철재로서 철판의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기의 발생 또는 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닫힐 것

다. 닫힌 경우에는 방화에 지장이 있는 틈이 생기지 아니할 것

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상의 방화댐퍼의 방연시험방법에 적합할 것

제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의료시설·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

도·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본조신설 2003.1.6]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 <개정 2005.7.22>)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할 것
2.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 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3.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이고,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들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1. 초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중·고등학교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판매 및 영업시설(도매시장·소매시장 및 상점에 한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5. 기타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제1종 근린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문화 및 집회시설·판매 및 영업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을 제외한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에 한한다)·업무시설·숙박시설·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난간·벽 등의 손잡이와 바닥마감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손잡이는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으로 할 것
2. 손잡이는 벽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할 것
- ⑤계단을 대체하여 설치하는 경사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경사도는 1: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할 것

⑥제1항 각호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사로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승강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등 특수한 용도에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삭제 (2005.7.22)

제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구 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5미터 이상 (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②문화 및 집회시설(종교집회장·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에 한한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에 한한다), 위탁시설 중 주점영업 및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5미터 이상
2.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8미터 이상
3.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4미터 이상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석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05.7.22]

제16조 (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등·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탁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생략:별표1> 규정에 의한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제18조 (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제19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①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 및 간막이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7.22)

1.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 이상인 것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제20조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영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계단탑·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계단탑·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3.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으로서 건축물의 지붕속·반자위 및 가장 아랫바닥에 있는 굴뚝의 부분은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을 것
4. 금속제 또는 석면제 굴뚝은 목재 기타 가연재료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서 설치할 것. 다만, 두께 10센티미터 이상인 금속외의 불연재료로 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2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 건축물) 영 제5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이라 함은 별표 2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2층 이하의 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5.7.22>

[본조신설 2000.6.3]

제21조 (방화벽의 구조)

- ①영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뒷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당해 출입문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및 처마말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방화구조로 하되, 그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 함은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층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광장·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제23조 (방화지구안의 지붕·방화문 및 외벽등)

- ①「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지붕으로서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 ②「건축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제24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개정 2003.1.6>)

- ①「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동림대·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 ②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1. 영 제61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거실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개정 2006.6.29>
 2. 영 제61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 ③법 제43조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반자·벽(간막이벽 포함)·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 ④영 제61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 제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 ① 제61조제4호 가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라 함은 별표 3에서 정하는 용도를 말한다. 다만, 공장

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영 제61조제4호 나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출구”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③영 제61조제4호 다목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을 구비한 복합자재”라 함은 자재의 철판과 심재(심재)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품질기준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철판 : 도장용용어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 서 전면도장의 횡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2. 심재

가.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나. 경질우레탄폼보온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다. 그 밖의 심재는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인 것

〈개정 2005.7.22, 2006.6.29〉

제25조 (지하층의 구조)

①「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29〉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공연장·단란주점·당구장·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공연장,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주점영업 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으로 구획되는 각 부분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되, 이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할 것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의 비상탈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6.3〉

1. 비상탈출구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유효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3. 비상탈출구는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4. 지하층의 바닥으로부터 비상탈출구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벽체에 발판의 너비가 20센티미터 이상인 사다리를 설치할 것

5. 비상탈출구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장애가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

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7. 비상탈출구의 유도등과 피난통로의 비상조명등의 설치에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할 것

제26조 (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각각 비차열 1시간 이상 및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전문개정 2003.1.6]

부칙 〈제184호,1999.5.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 (내화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내화구조는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행하는 품질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방화구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영 제2조제1항제8호 사목·동항제9호·동항제10호 나목 및 동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그 성능이 확인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행한 품질검사에 합격된 방화구조·난연재료·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료는 제4조제7호·제5조·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차음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한 차음구조는 제1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방화문의 구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건축법시행규칙 제31조의4 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그 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한 방화문의 구조는 제26조제1항제3호 및 동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1호, 2000.6.3>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348호, 2003.1.6>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409호, 2004.10.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불연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불연재료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61호, 2005.7.22>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에 의한 건축기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다.

부칙 <제523호, 2006.6.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6조제2호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 ③(방화구획 관통부의 내화충전성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후 1년까지는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환경부고시 제2006 - 96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제1호, 동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 제1호 및 동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고시 제2001-168호, 2001. 11.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6월 26일
환경부장관

1. 목 적 : 오수처리시설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오수농도 산정방법과 단독정화조의 설치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의 용도별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근 거

- 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별표3제1호 후단
- 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5제1호 후단
- 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후단

3. 산정방법

- 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과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여야 한다.
-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 및 오수농도를 사전에 충분히 조사·예측한 자료를 인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사용 상황에 따라 별표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정 기준의 수치를 증감할 수 있다.

다. 산정기준의 적용방법

- (1) 산정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에 있어서는 유사용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 (2) 동일 건축물 등에 2이상의 건축물 용도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 (가)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은 각각 건축물 용도의 횟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나) 오수농도는 아래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text{오수농도}(C) = \frac{Q_1C_1 + Q_2C_2 + \dots}{Q_1 + Q_2 + \dots}$$

Q1:용도1의 오수발생량, C1:용도1의 오수농도,

Q2:용도2의 오수발생량, C2:용도2의 오수농도

(3) 2이상의 건축물등이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할 때에는 위 (2)목을 따른다.

(4)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부속건축물이 오수를 발생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 용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5) 건축물의 주 용도가 창고, 축사, 고물상 등으로서 당해 주 용도의 시설에서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오수가 발생하는 부속용도의 시설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6) 별표에서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의 총 오수발생량은 1일 오수발생량에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1일 오수발생량을 인원으로 산정하는 건축물 용도중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공업시설에 대한 인원은 정원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이전에 종전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 및 변경신고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라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을 산정한 것으로 본다.

〈별표〉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인)	BOD농도 (㎎/ℓ)	비고	인원산정식	산정단위	
1 주거 시설	단독주택	200ℓ/인	300	을·별지여의 1일 오수발생량은 170ℓ/인수 적용한다.	$n = 5 + \left(\frac{A-100}{30}\right)$	n: 인원(인) A: 연면적(㎡) 1.8에 미치지 A가 100㎡이 하인 때는 5인으로 하고, 100㎡를 넘는 부분의 면적이 다하여는 30㎡마다 1인을 가 산하여, 270㎡를 넘는 때는 10인으로 한다.	
	공동주택	200ℓ/인	300		$n = 0.5 \{ (R-2) \times 0.5 \}$	n: 1호당 인원(인) R: 1호당 기실 ² 의 개수 1호가 1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기숙사 다중주택(원룸) = 기숙	200ℓ/인	300		$n = 0.14A$ (정원이 병화하지 않은 경우) $n = P$ (정원이 병화한 경우)	n: 인원(인) A: 연면적(㎡) P: 정원(인) 고정침대 등으로 공원을 명 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정원으로 산정한다.	
2 근린 생활 시설	마을회관	16ℓ/㎡	150	-	$n = 0.15A$	n: 인원(인) A: 연면적(㎡)	
	기원	25ℓ/㎡	150	-	$n = 0.16A$	n: 인원(인) A: 연면적(㎡)	
	서점, 세탁소, 강의실, 종교단체소, 애완동물점	15ℓ/㎡	250	세탁소의 영영용 계 탁 오수를 오수처리 시설에 연계 처리한 경우는 시설별 설치 용량을 1일 오수발생 량에 추가한다.	$n = 0.08A$	n: 인원(인) A: 연면적(㎡)	
	독서실	15ℓ/㎡	150	-	$n = 0.14A$	n: 인원(인) A: 연면적(㎡)	
	의원, 한의원, 치과 의원, 검안원, 접골원, 요양소, 보육소, 진료소, 동물병원	일원시설 있음	80ℓ/병상	150	1. 부대급의 시설 적용 제외 2. 동물병원의 경우 일원시설 않은 적용	$n = 3.5B$	n: 인원(인) B: 병상수 A: 연면적(㎡)
		일원시설 없음	25ℓ/㎡	150		$n = 0.25A$	단, 동물병원의 경우 인원 시설 없음 적용
	식품 축적 재료 관리실, 제과실	65ℓ/㎡	130	-	$n = 0.2A$	n: 인원(인) A: 연면적(㎡)	
	이용원, 이용관	15ℓ/㎡	100	-	$n = 0.08A$	n: 인원(인) A: 연면적(㎡)	
	입원 복욕장	65ℓ/㎡	100	-	$n = 0.23A$	n: 인원(인) A: 연면적(㎡)	
	공중화장실	50ℓ/인	260	-	$n = \frac{20x + 120y}{R} \times t$ $t = 1 \sim 10$	n: 인원(인) x: 대변기 수(개) y: 소변기 수(개) t: 단위인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 / l)	비고	인원산 정식	산정단위	
2	근린 생활 시설	음식점	오염부하량 높은 경우 (한식, 중식)	120ℓ /㎡	330	-	n = 0.4A	n : 인원(인) A : 연면적(㎡)
			오염부하량 낮은 경우 (서양식, 정통 일본식 음식점, 찻집)	35ℓ /㎡	130	-	n = 0.2A	
			기다움식점 (상기외 음식점)	65ℓ /㎡	210	-	n = 0.3A	
		안마사술소	15ℓ /㎡	100	-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찜질방	16ℓ /㎡	100	-	n = 0.15A	n : 인원(인) A : 연면적(㎡)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16ℓ /㎡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3	문화 및 집회 시설	집회 장	예식장, 공회당, 경로당, 회의장, 교회, 사찰, 성당, 제실, 사당, 장례식장	16ℓ /㎡	150	-	n = 0.15A	n : 인원(인) A : 연면적(㎡)
			공연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연극극장, 서커스장	16ℓ /㎡	150	-	n = 0.20A
		경기장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200ℓ /인	200	-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전시장	체육관, 운동장, 경마장, 경륜장, 자동차경기장	10ℓ /㎡	260	-	$n = \frac{20c + 120u}{8} \times t$	n : 인원(인) c : 대면기 수(개) u : 소면기 수(개) t : 단위면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수족관, 과학관, 박람회, 모델하우스	16ℓ /㎡	150	-	t = 0.5~3.0	
		마권장외발매소	25ℓ /㎡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4	의료 시설	시장·상점	도매시장, 구판장, 소매시장, 양판점, 표구점, 소매점, 수퍼마켓, 사진관, 의약품도매점	15ℓ /㎡	250	유류, 어류점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의 20%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 오수발생량은 5ℓ /㎡ · 일, BOD 농도는 50mg/l 을 가산한다.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할인점	30ℓ /㎡	250		n = 0.16A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문화 콘텐츠설비제공업소, 전자오락실	25ℓ /㎡	15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어객, 철도역, 종합어객, 공항	50ℓ /㎡	3260	-	$n = \frac{20c + 120u}{8} \times t$ t = 1~10	n : 인원(인) c : 대면기 수(개) u : 소면기 수(개) t : 단위면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5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종합병원		1,300ℓ /병상	300	세탁시설 있는 경우 오수량은 별도 가산한다.	n = 3.5B	n : 인원(인) B : 병상 수
		병원, 치과병원, 한 방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산후조리원	급식시설 있음	1,000ℓ /병상	300		n = 3.5B	
			급식시설 없음	800ℓ /병상	150		n = 3.5B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 / l)	비 고	인원산 정식	산정단위	
6	교육 연구 및 복지 시설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30ℓ /인	100	직원은 100ℓ / 인· 일로서 실제인원을 가산한다.	n = 0.25P	n : 인원(인) P : 정원(인) P' : 야간정원(인)	
		중학교	주간 주·야간 병설	35ℓ /인 (중학교)		100		n = 0.33P
		고등학교, 학원, 대학, 대학교, 직업훈련소		40ℓ /인 (중학교 이외)				n = 0.33P+0.25P'
		연구소, 시험소, 동물검역소	40ℓ /인	100		n = 0.33P	n : 인원(인) P : 정원(인)	
		도서관	15ℓ /㎡	150		n = 0.14A	n : 인원(인) A : 연면적(㎡)	
		고아원,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양로원, 청소년수련원	200ℓ /인	200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유스호스텔	300ℓ /인	140	-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7	운동 시설	탁구장, 당구장	15ℓ /㎡	100	샤워시설이 있는 경우 별도 (목욕장 용도) 가산한다.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체육도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사격장, 라켓볼장, 스쿼시장, 실내낚시터,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수영장	15ℓ /㎡	100		$n = \frac{20c + 120u}{8} \times t$ t = 0.4~2.0	n : 인원(인) c : 데번기 수(개) u : 소변기 수(개) t :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골프연습장	50ℓ /석	100		n = 12H	n : 인원(인) H : 홀수 1. 총업원의 오수량은 별도가산한다.	
		골프장	50ℓ /인	100		n = 3S	n : 인원(인) S : 코트수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야간조명 시설 있음	600ℓ /코트		150	n = 2S	n : 인원(인) S : 코트수
야간조명 시설 없음	400ℓ /코트	150						
8	업무 시설	일반 사무소	사무소, 신문사, 상담소, 소개소, 소방서	15ℓ /㎡	100	-	n = 0.08A	n : 인원(인) A : 연면적(㎡)
		방문객 많은 사무소	대사관, 공공청사, 금융업소, 경찰서, 우체국, 전화국	15ℓ /㎡	100	-	n = 0.16A	n : 인원(인) A : 연면적(㎡)
		오피스텔		200ℓ /인	200	-	n = 3.5+(R-2)×0.5 + 0.04A	n : 인원(인) R : 거실의 개수 A : 연면적(㎡)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n=2+0.04A로 할 수 있다.
9	숙박 시설	관광호텔, 호텔, 모텔, 여관, 여인숙		250ℓ /인	70	-	n = 0.04A	n : 인원(인) A : 연면적(㎡)
		농어촌민박시설		250ℓ /인	140	-	n = 0.12A	n : 인원(인) A : 연면적(㎡)
		가족호텔, 콘도미니엄, 관광펜션		300ℓ /인	140	-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야영장(캠핑장), 자동차 야영장		70ℓ /인	320	-	n = P	n : 인원(인) P : 정원(인)

분류 번호	건축물 용도		오수 발생량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1일 오수 발생량	BOD농도 (mg / l)	비고	인원산 정식	산정단위
10	위탁 시설	무도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카바레	100ℓ /㎡	150	-	n = 0.3A A: 연면적(㎡)
		일반 유흥주점	룸살롱, 단란주점, 요정, 스탠드바	60ℓ /㎡	250	-	n = 0.23A A: 연면적(㎡)
		투전기업소, 카지노업소,		25ℓ /㎡	150	-	n = 0.16A A: 연면적(㎡)
		부도장, 무도학원, 플라렉		16ℓ /㎡	150	-	n = 0.2A A: 연면적(㎡)
11	공업 시설	공장, 작업소, 발전소, 정비공장(카센터 포함)		40ℓ /인	100	-	n = 0.5P P: 정원(인)
12	자동차 관련 시설	주유소, LPG충전소		50ℓ /인	260	-	$n = \frac{20c - 120u}{8} \times t$ t = 1~10 n: 인원(인) c: 대변기 수(개) u: 소변기 수(개) t: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주차장 ^{*)} , 주차장 ^{**)}		50ℓ /인	260	-	$n = \frac{20c + 120u}{8} \times t$ t = 0.4~2.0 n: 인원(인) c: 대변기 수(개) u: 소변기 수(개) t: 단위변기당 1일 평균 사용 시간(시간)
13	공동 용 시설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감화원		200ℓ /인	200	-	n = P P: 정원(인)
		촬영소		15ℓ /㎡	100	-	n = 0.08A A: 연면적(㎡)
		군대숙소		200ℓ /인	200	-	n = P P: 정원(인)
14	묘지 관련 시설	화장장, 납골시설		16ℓ /㎡	150	-	n = 0.15A A: 연면적(㎡)
15	관광 휴게 시설	휴게소		50ℓ /인	260	-	$n = \frac{20c + 120u}{8} \times t$ t = 1~10 n: 인원(인) R: 거실의 개수 A: 연면적(㎡) 1호가 1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n=2+0.04A로 할 수 있다.
		관망탑		16ℓ /㎡	150	-	$n = \frac{20c + 120u}{8} \times t$ t = 0.5~3.0
16	부대 급식 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업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의 상주인원에 대한 급식을 제공하는 시설		15ℓ /1인 1급식	330	-	-

- 주 (1) 연면적이란, 당해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공용면적을 포함)의 합계를 말한다.
(2) 거실이란, 「건축법」 제23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거실이며, 서주, 침주, 작업, 집회 및 오락 기타 이에 속하는 목적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다만, 공동 주택에 있는 부엌 및 식당은 제외한다.
(3)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의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4) 일반목욕장이란,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을 포함한다.
(5) 여자 전용 화장실에서 대변기수는 변기수로 하며, 소변기수는 변기수의 1/2로 한다.
(6) 음식점의 경우 한식, 중식 음식점은 오염부하량이 높은 경우, 양식, 정통 일본식 음식점, 찜집 등은 오염부하량이 낮은 경우, 이외 음식점의 경우 기타 음식점을 적용한다.
(7) 주차장에서 건축물의 부속주차장은 제외한다.
(8) 주차장이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3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계 등 중기(重機)를 세워두는 시설을 말한다.

2006년 건축허가 현황(5월)

표 용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5월)			누계 (5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2,582	14,032	11.5%	51,546	60,559	17.5%
	연면적	11,806,643	9,312,808	-21.1%	45,641,084	45,407,855	-0.5%
주거용	동 수	3,773	4,100	-8.7%	14,708	17,594	19.6%
	연면적	6,252,490	3,462,040	-44.6%	20,330,319	18,870,210	-7.2%
상업용	동 수	3,590	3,904	8.7%	15,396	16,930	10.0%
	연면적	2,007,932	2,342,020	16.6%	10,366,051	9,860,059	-4.9%
공업용	동 수	1,847	1,986	7.5%	8,046	9,334	16.0%
	연면적	1,131,246	1,348,479	19.2%	5,183,928	6,283,023	21.2%
문교및 사회용	동 수	855	945	10.5%	3,803	4,554	19.7%
	연면적	865,182	847,059	-2.1%	3,993,578	4,041,410	1.2%
기 타	동 수	2,517	3,097	23.0%	9,593	12,147	26.6%
	연면적	1,549,793	1,313,210	-15.3%	5,767,208	6,353,153	10.2%

표 구조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5월)			누계 (5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2,582	14,032	11.5%	51,546	60,559	17.5%
	연면적	11,806,643	9,312,808	-21.1%	45,641,084	45,407,855	-0.5%
철근 철골조	동 수	10,850	12,070	11.2%	44,933	53,441	18.9%
	연면적	11,661,806	9,151,761	-21.5%	45,076,772	44,793,109	-0.6%
조적조	동 수	1,522	1,590	4.5%	5,684	5,843	2.8%
	연면적	120,639	119,639	-0.8%	462,573	485,642	5.0%
목 조	동 수	210	372	77.1%	926	1,275	37.7%
	연면적	24,198	41,408	71.1%	101,532	129,104	27.2%
기 타	동 수	0	0	0.0%	3	0	0.0%
	연면적	0	0	0.0%	207	0	0.0%

표 시도별

(단위 : 동, 제곱미터)

구	분	당월 (5월)			누계 (5월)		
		2005년	2006년	증가율	2005년	2006년	증가율
계	동 수	12,582	14,032	11.5%	51,546	60,559	17.5%
	연면적	11,806,643	9,312,808	-21.1%	45,641,084	45,407,855	-0.5%
수도권	동 수	3,853	3,983	3.4%	15,791	18,022	14.1%
	연면적	6,042,280	3,678,118	-39.1%	21,668,106	17,764,031	-18.0%
서울	동 수	659	779	18.2%	2,722	3,442	26.5%
	연면적	1,058,487	857,964	-18.9%	4,967,133	4,364,804	-12.1%
인천	동 수	336	350	4.2%	1,521	1,510	-0.7%
	연면적	291,260	407,113	39.8%	2,394,092	1,415,637	-40.9%
경기	동 수	2,858	2,854	-0.1%	11,548	13,070	13.2%
	연면적	4,692,533	2,413,041	-48.6%	14,306,881	11,983,590	-16.2%
지방	동 수	8,729	10,049	15.1%	35,755	42,537	19.0%
	연면적	5,764,363	5,634,690	-2.2%	23,972,978	27,643,824	15.3%
부산	동 수	505	366	-27.5%	1,932	2,216	14.7%
	연면적	612,410	203,296	-66.8%	2,072,388	3,189,897	53.9%
대구	동 수	415	484	16.6%	1,836	2,203	20.0%
	연면적	784,518	533,679	-32.0%	2,605,329	2,340,216	-10.2%
광주	동 수	327	308	-5.8%	1,354	1,858	37.2%
	연면적	117,142	131,018	11.8%	1,126,799	2,072,015	83.9%
대전	동 수	278	263	-5.4%	1,218	1,397	14.7%
	연면적	250,671	256,504	2.3%	1,221,491	1,076,612	-11.9%
울산	동 수	302	426	41.1%	1,415	1,699	20.1%
	연면적	112,375	329,547	193.3%	660,897	1,098,329	66.2%
강원	동 수	727	859	18.2%	2,859	3,430	20.0%
	연면적	396,269	424,763	7.2%	1,809,419	1,601,508	-11.5%
충북	동 수	663	842	27.0%	2,957	3,596	21.6%
	연면적	376,620	297,325	-21.1%	2,215,471	2,385,686	7.7%
충남	동 수	938	937	-0.1%	3,703	3,958	6.9%
	연면적	677,554	400,992	-40.8%	2,910,977	2,253,309	-22.6%
전북	동 수	687	955	39.0%	2,699	3,812	41.2%
	연면적	279,596	315,213	12.7%	1,313,215	1,550,681	18.1%
전남	동 수	739	1,179	59.5%	3,171	4,514	42.4%
	연면적	233,848	373,409	59.7%	1,003,021	2,092,127	108.6%
경북	동 수	1,589	1,592	0.2%	5,775	6,630	14.8%
	연면적	904,403	807,580	-10.7%	3,024,855	3,305,821	9.3%
경남	동 수	1,274	1,470	15.4%	5,643	5,726	1.5%
	연면적	908,057	1,442,901	58.9%	3,659,507	4,240,811	15.9%
제주	동 수	285	368	29.1%	1,193	1,498	25.6%
	연면적	110,900	118,463	6.8%	349,609	436,812	24.9%

건축사사무소 등록현황

(사 : 사무소수, 회 : 회원수)

2006년 5월말

구분	개 인 사 무 소										법 인 사 무 소										용역		합계	비율(%)						
	1인		2인		3인이상		소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소계		사무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사	회								
합계	5,128	5,128	188	316	29	90			5,315	5,534	1,490	1,490	269	538	74	222	27	408	32	207			1,892	2,567	7	7	7,207	8,099	100.0%	100%
서울	1,177	1,177	43	86	13	40			1,233	1,303	854	854	177	354	42	126	18	72	18	123			1,119	1,539	6	6	2,352	2,842	31.2%	54%
부산	500	500	8	36	6	19			521	555	75	75	13	26	6	18	4	16	4	22			102	157			628	72	8.9%	9%
대구	414	414	25	50	7	22			446	496	48	48	22	44	7	21	1	4	2	10			86	127			526	613	7.3%	7%
인천	223	223	2	4	0	0			225	227	48	48	5	10	0	0	0	0	0	0			53	58			278	285	3.9%	3%
광주	218	218	2	4	0	0			220	222	32	32	7	14	2	6	1	4	3	7			45	73			265	295	3.5%	3%
대전	203	203	6	32	1	3			220	238	26	26	7	14	3	9	0	0	1	12			37	61			257	289	3.3%	3%
울산	163	163	6	12	1	3			170	178	6	16	2	4	2	6	0	0	0	0			20	26			183	204	2.6%	2%
경기	675	675	7	14	0	0			682	689	24	24	22	44	2	6	0	0	1	5			239	269			921	958	12.7%	11%
강원	158	158	3	6	0	0			161	164	21	21	4	8	0	0	0	0	1	5			26	34			187	198	2.3%	2%
충북	169	169	8	16	0	0			177	185	26	26	2	4	2	6	0	0	2	13			32	49			209	234	2.9%	2%
충남	158	158	5	10	0	0			163	168	32	32	1	2	2	6	2	8	0	0			37	48			200	216	2.7%	2%
전북	190	190	3	6	0	0			193	196	20	20	2	4	2	6	1	4	0	0			25	34			218	230	2.8%	2%
전남	130	130	0	0	0	0			130	130	9	9	0	0	2	6	0	0	0	0			11	15			141	145	1.9%	1%
경북	300	300	8	16	1	3			309	319	31	31	1	2	1	3	0	0	0	0			33	36	1	1	342	355	4.5%	4%
경남	349	349	12	24	0	0			361	373	21	21	4	8	1	3	0	0	0	0			26	32			387	405	5.2%	4%
제주	101	101	0	0	0	0			101	101	7	7	0	0	0	0	0	0	0	0			7	7			108	108	1.5%	1%

건축사회별 회원현황

구분	회 원				비율	준회원
	건축사	2급	계			
합계	8,099	10	8,199	100.0%	23	
서울	2,842	3	2,845	35.4%	10	
부산	721	1	723	9.1%	9	
대구	613	0	613	7.5%	0	
인천	285	0	285	3.5%	0	
광주	295	0	295	3.6%	0	
대전	299	1	300	3.7%	0	
울산	204	0	204	2.5%	0	
경기	958	2	960	12.1%	2	
강원	198	0	198	2.4%	0	
충북	234	0	234	2.9%	0	
충남	216	3	219	2.6%	0	
전북	230	0	230	2.6%	0	
전남	145	0	145	1.7%	0	
경북	355	0	355	4.2%	1	
경남	405	0	405	4.9%	1	
제주	108	0	108	1.4%	0	

사무소형태별 회원현황

구분	개인사무소	법인사무소	용역사무소	합계	비고
회원수	5,532	2,567	7	8,171	
비율	67.7%	31.42%	0.1%	100.0%	
사무소수	5,313	1,892	7	7,205	
비율	73.74%	26.26%	0.1%	100.0%	

DOMUS

5월호

이 번호는 Gillo Dorfles의 밀라노 가구축제 2006에 대한 리뷰 및 인터뷰, Giancarlo De Carlo의 베이루트 주거블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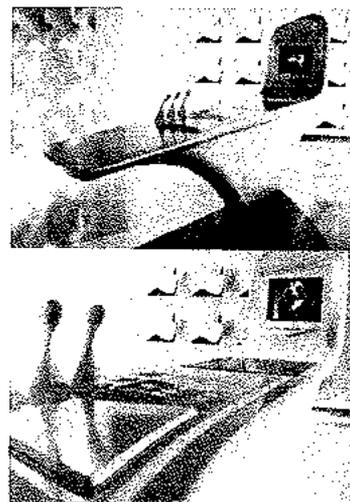
계획안, Toyo Ito의 진행중인 프로젝트인 Torre Vieja 휴양센터, Amos Gitai의 다큐멘터리의 여정을 재조명하는 기획기사 그리고 2006 프리츠커 상 수상자인 브라질 건축사 Mendes da Rocha의 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커비스토리로 다루어지고 있는 밀라노 가구축제관련 기사에서 필자는 정력적으로 많은 영역의 디자이너와 조우하면서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와 재료의 사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토해내고 있다. De Carlo의 작업은 베이루트의 중심 지역에 주거블록을 제시하면서 레바논 건축의 특징으로서의 절충주의적 특징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존중시키는가에 집중하고 있다. Relaxation Center에서 Toyo Ito는 야심찬 랜드스케이프 프로그램을 몇 개의 셀로 분산된 스파가 있는 요양시설에 적용시키고 있다. 한편 Mendes da Rocha는 미적, 기술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사로 소개되고 있으며 그의 미술관 건물을 중심으로 그의 건축관과 건물의 주요 특징들을 살펴보고 있다.

- A journey with Gillo Dorfles into a world of geodesign gathered in Milan for the Furniture Fair 2006
: 밀라노 가구축제 2006 리뷰 ·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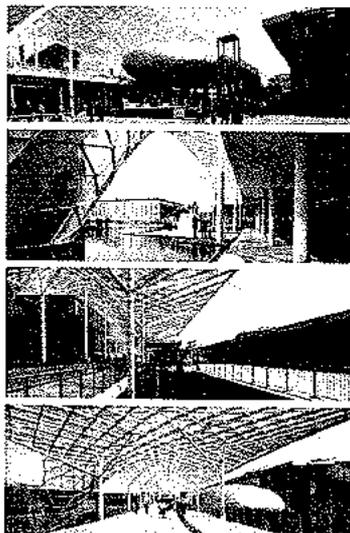
다소 긴 제목의 이 기사는 표지와 특별 기고문의 형식으로 여러 페이지에 걸쳐 다루어지고 있다.

1910년에 태어난 화가이면서 수필가이며 동시에 비평가인 Gillo Dorfles가 2006년 4월 6일 하루 동안 만난 12명의 디자이너(혹은 팀)에 대한 리뷰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돌체 앤 가바나의 Ron Arad와 Phillip Starck, Ingo Mauer와 같이 익숙한 이름이 보인다. 이 중에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인텔리전트 주방을 설계한 Zaha Hadid와 밀라노 가구축제가 열린 전시센터를 설계한 Massimiliano Fuksas에 대한 기사이다.

Ernestomeda and Scholtes의 빌트인 기구들을 가지고 만들어진 Zaha Hadid의 주방환경 디자인은 보다 즐겁고 보다 가사에 적합한 디자인으로 회귀하는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건축사의 작품'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Hadid는 유연한 조형성을 표현할 수



Zaha Hadid/intelligent kitchen



Massimiliano Fuksas/exhibition center



Toyo Ito/relaxation center

Fuksas가 설계한 전시센터는 상상력과 오락적인 요소들이 기술적 능력과 적절히 결합된 결과물이다. 파빌리온들은 단순하기에 고도로 기능적이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것이다. 이 건축물은 매우 단순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파빌리온이 각각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었다면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했을 것이다. 여기서 각각의 파빌리온은 다양한 '여정'이 되어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 La Concha Negra(the Black seashell) / Torrevieija 휴양센터

- 스페인, Torrevieija · Toyo Ito

스페인 남동부 해안가에 있는 Torrevieija는 자국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휴양도시이다.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를 바탕으로 북유럽과 스칸디나비아 반도로의 저가 항공선이 연결되면서 여름에는 평상시(6만명)의 10배에 달하는 인구가 여가를 즐기 위해 이 도시로 몰려든다.

Torrevieija 지방 당국은 2001년 Toyo Ito에게 8헥타르의 대지에 휴양 및 요양 시설 디자인을 의뢰했다. 대지는 해수욕장으로 유명한 호수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단계로 나누어 시공되는데(2008년 완공예정) 현재 1단계 프로젝트가 거의 완공 수준에 이르렀다. 이 휴양센터는 의심할 바 없이 '헬스 투어리즘(건강 및 휴양을 위주로 하는 관광사업)'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지향하는 도시적 특징을 강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1단계 프로젝트는 탈의실과 샤워시설을 갖춘 인포메이션 센터와, 레스토랑, 야외풀장 그리고 몇 개의 인공 사구(砂丘)를 포함한 외부공간과 식재를 포함한다. 염호 주변의 '형량한 아름다움'에 영향을 받기도 하였지만 Torrevieija 휴양센터

의 주요 디자인 모티브는 주변 해변에서 서식하고 있는 고둥과 같은 조개류의 껍데기였다. (La Concha Negra는 '검정 고둥(the black seashell)'이라는 뜻으로 이 프로젝트의 낙태임이기도 하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건물의 기하학적 구조와 시공은 매우 복잡하다. 셸은 5개의 Bezier 곡선(몇 개의 임의의 점을 지나는 3차원 곡선)형태의 강개의 강재사이를 연결하는 목재 장선을 사용하여 구조를 형성하고, 외부를 합판으로 덧대 마감한다. 결과적으로 생명체와 비슷한 방식의 외골격이 만들어진다. 추가적으로 상부구조를 바닥판에 고정시켜 전체가 일체화 되어 강성을 높여도록 고안되었다.

■ Extensive and Intensive(외연적인, 동시에 내포적인)

- 에세이/ Manuel DeLanda

건축가는 길이, 면적, 부피와 같이 물리학자들이 '외연적'이라고 일컫는 대상을 다루게 되는데 이런 것들의 특징은 일 미터의 자를 50cm 두께로 나누듯 기능적으로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내포적'이라고 설명되는 이런 특징들은 온도, 압력, 속도, 밀도 등과 같은 것으로 '외연적'인 특징들과 달리 기능적으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가령 90도의 물을 반씩 떨어낸다고 해서 온도가 45도로 내려가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다.

일반적인 지도는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점유한 각각 다른 면적의 영역과 해안선의 길이, 국경선 같은 것 등을 알려준다. 외연적이다. 반면 기상학 지도는 내포적이다. 고(저)기압과 온난(한랭)전선의 위치, 각 지역의 풍속 같은 것들은 유동적이며 중간과정적인 성질의 것이다. 폭풍우와 허리케인, 구름의 형성은 각 지역의 연속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러한 차이가 없다면 수증기에 의한 기상현상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외연은 프로세스의 결과물을, 내포는 프로세스 그 자체를 의미하는데, 이 둘 간의 구분은



mendes/brazilian sculptor museum

열역학의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하중을 견디는 구조물을 설계할 때 디자이너는 내포적 형태인 압력을 고려하면서도 중국에는 외연의 형태인 하중으로 결과를 낸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몇몇 내포적인 특성들이 실제로는 두 개의 외연적 가치들 간의 비율에 의해 표현된다는 점이다. (압력=하중/단위면적, 밀도=질량/단위부피) 또한 이런 내포적 가치들은 실제 재료의 지점에서 정의 된다. 19세기에 압력의 개념이 하중의 개념을 대체한 것은 압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직용되는 하중에 의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훨씬 대비하기 수월했기 때문이다.

그간 열역학 분야의 주요 관심은 결과로서의 평형상태-외연적-였다. 하지만 평형상태는 '프로세스'를 형성할 수 없다. 한편, 평형상태로부터 벗어나면 '프로세스'의 숫자와 다양성은 높아지게 된다. 만약 어떤 시스템에서 내포적 차이들이 많을수록 그 시스템은 많은 가능성과 잠재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의 비평형상태에 대한 패러다임이 득세를 하면서, 공학적 실습들이 달라질지도 모른다. 그 변화는 내포적 힘의 자율적 조절에 달려 있게 되는 것이다.

■ Concrete Poetry(콘크리트의 시학)

- 인터뷰/ Mendes Da Rocha

극소수의 건축사들만이 미적인 동시에 기술적으로 완벽한 형태와 디자인의 통합을 보여준다.

세싱과 기타 작업이 한편으로 진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디어와 창조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에게서는 나의 직업을 수행하는 것이 단순히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이유에서 나는 내 작업을 다양한 장소들과 공간에서 조직하고, 꾸준히 아이디어 자체를 위해 시간투자를 하고 있다.

HUO : 그러한 당신의 태도들이 동시대적 진실에 저항하는 형태인가?

MdR : 사실... 그렇지 않다. 나는 둘이 중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금전적인 문제에 대해서 위선적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나는 내 스스로의 전략을 통해 나의 목표가 금전적 성공에 있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싶다.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한 업무조직의 방식이 아닌 지적 유대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내가 '적절한 무질서'라고 묘사하곤 하는 자유로운 형태로 서로에게 기여하고 있다.

HUO : 당신이 설계한 문화시설과 미술관 건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MdR : 내가 설계한 각각의 미술관들은 고유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96년에 작업한 FTESP 문화센터는 현존하는 구조의 내부부터 시작해서 그 내부가 허공과 재료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구조와 명백히 구분되는 것을 추구했다. Pinacoteca do Estado(1993)는 동시대의 건축적 언어가 19세기에 작업한 벽돌작업과 섞이지 않고 병존하는 방식으로 도입된 복원작업이었다. 브라질 조각 미술관(1988)은 나에게 다양한 레벨에서의 수공간이 있는, 큰 콘크리트 캔틸레버 슬래브와 벽으로 둘러싸인 소우주를 떠올리게 한다. 기본적으로 구조물이 지어지면 그것은 거대한 콘크리트 조각이 된다. 위에 언급한 세 작품에는 모두 시간의 흐름과 건축이 그 흐름의 일부가 된다는 인식이 있다. 마치 누벽(樓壁)처럼 말이다.

내 생각에 미술관중의 으뜸은 바로 충들과 시간의 적층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다.

Stefano Boeri(이하 SB) : 당신의 작업은 국가에 의해 진행된 것이 많다...

MdR : 식민지의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민간 재원의 충당이 여의치 않다. 그런 국가에서(건축이

공적인 지원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좁은 시장에서 설계 작업은 사변적인 시나리오를 전개하는 경쟁터가 되어 간다. 문제는 갈수록 공고해지는 이런 상황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건축의 의무는 많이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재앙을 피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적 차원의 문제들은 민간 기업에 의해 해결책이 제안되기 어렵기 마련이다.

HUO : 요즘 새로운 미술관들이 민간 기업에 의해 지어지고 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MdR : 심각하다. 미술관이 사적인 소유물이 되는 것은 모순적이다. 나는 공공의 것과 사적인 것 사이에 흥미로운 관계를 발견했는데, 사적인 것의 가장 큰 욕망은 공적이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시나 책을 써 공공에 내지 않으려는 시인 혹은 작가가 없듯이 사적인 영역의 소망은 그들 스스로가 '선언'이 되고 공적인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언'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마치 시가 종이위에 인쇄되어 물질이 되는 것처럼.

SB : 건축과 정치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당신에게 유토피아는 무엇인가?

MdR : 건축과 현대도시는 온전히 정치적인 것이다. 이 공간에서 인간의 모든 행동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정치적이다.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도덕적 의무이다. 나는 남미대륙에서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 유토피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ARCHITECTURAL RECORD

5월호

5월호는 L.A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건축

사와 작품에 중심이 실려 있다. 건축붐이 일어나고 있는 다운타운의 현황과 Eric Owen Moss의 실험적인 시도들, Cesar Pelli의 red building, Greg Lynn 첫 번째 주거 프로젝트 등에 대한 간략한 기사가 지나면 젊은 세대의 L.A 건축사들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Christopher Hawthorne의 비평과 모포시스의 Thom Mayne, Joel Kotkin, Frank Gehry이 보고 있는 L.A의 문화적 의미와 미래상을 만나게 된다. 작품리뷰에서는 L.A적 정서가 물씬 풍기는 미술관과 주택, 모포시스의 Science Center School을 다루고 있으며, 건물유형 연구에서는 캘리포니아와 아리조나, 워싱턴에 지어진 도서관들이 소개되고 있다.

■ 비평 : 우리는 새로운 L.A 건축사 세대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What can we expect from the new Generation Of L.A architects?)

많은 면에서 현대 로스앤젤레스는 건축적 실험을 행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장소이다. 젊은 건축사들에게 상당한 위험과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는 많은 수의 의뢰인과 다른 곳보다 건축화의 가능성이 높은 도시인 것이다.

현재 L.A 씬을 지배하는 Frank Gehry, Thom Mayne, Eric Owen Moss 등을 위시한 논쟁적이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건축사들은 도시의 근린에 대한 연구와 자신들의 토대를 내리고 고유의 건축어휘를 만들어낼 여유가 있었다. 요즘의 젊은 건축사에게 그런 여유는 사치에 가깝다. 그들의 과잉되고 평탄하지 않은 초기작들은 비평가와 블로거들에게 즉각적으로 해부되고 분석된다. 만약 프랭크 게리와 모포시스가 더 많은 공간과 저가의 대지가 있었다면 지금 후대들은 더 많은 유산들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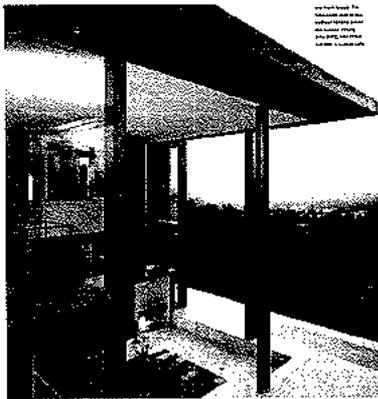
아직까지 L.A와 젊은 건축사들의 결합은 충분히 영글지 않았다. 하지만 L.A에서의 삶을 바꾸고 대변하는 그런 건축물을 만드는 설계조직들이

론 두권의 책에 대한 리뷰가 게재되었다.

: Robert Bruegmann이 쓴 『Sprawl』, Richard Ingersoll의 『Sprawltown』

■ 작품 리뷰

이번에 소개된 작품들은 LA적 정서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Redelco House에서 Pugh+Scarpa는 맵시있게 근대 미국주거를 변주하고 있으며, Clive Wilkinson은 미니멀리즘의 클함움 로스앤젤레스의 매력과 결합시켜 L.A 다운타운내의 FIDM 디자인 스튜디오에 표현하고 있다. Lorcan O’Herlihy의 JAI House는 영화와 동양적 명상이 산타모니카 산과 어울려 색다른 풍경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모포시스는 로스앤젤레스 박람회 공원에서 Science Center School을 통해 강력한 존재감을 발산한다.



• Redelco House

로스앤젤레스, Studio city / Pugh+Scarpa
이 주택에서 확인되는 단순함과 여유는 1920년대의 프랭크 모이드 라이트와 루돌프 쉰들러, 리처드 노이트라의 주택에서의 감성을 환기한다. 주택은 크게 스틸 프레임의 거실과 응접실과 빌라온과 주 침실과 주방이 있는 나무 프레임 구조의 두 개의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샌프란시스코 벨리의 뷰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유리벽은 북쪽과 동쪽 두방향으로 밀리는 미서기로 되어 있다. 내부의 스틸로 된 브리지는 오피스 파빌리온을 주택과 연계시키고 석회암은 거실의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사용되어 공간감과 영역성을

외부로 확장한다. 침실은 거실과 시선적으로 적당히 차폐되어 있는 동시에 연장되어 있으며,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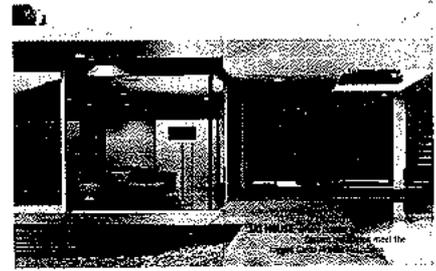


계 계단은 내부 스틸 브리지와 연결되어 주택의 각 부분들을 연결한다.

• FIDM Design Studio

로스앤젤레스 / Clive Wilkinson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변화는 매우 활기차다. 하지만 많은 건물들이 관습적으로 지중해와 캘리포니아 방갈로 혹은 뉴욕의 로프트 스타일을 차용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FIDM Design studio의 리노베이션 디자인은 매우 예외적인 사례이다. FIDM은 패션, 인테리어, 그래픽, 영화 세트 디자인과 디블러 마케팅과 경영을 특화하고 있는 사립대학이다. 1926년에 지어진 스탠다드 오일 빌딩의 은행을 리노베이션 하면서, Clive Wilkinson은 로비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L자형의 스튜디오는 컴퓨터 작업과 개인 연구를 위해 서쪽의 사각형의 스튜디오는 도면과 그룹활동을 위해 계획했다. 공간을 최대한 사용하기 위해 골조의 대부분이 노출되었으며, 팝 컬러의 흔적이 담긴 프린팅은 산들바람이 부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두 개층 높이의 공간에서 세 개의 눈길을 끄는 공간이 천장에 부착되어 있다. 동쪽 스튜디오의 tank는 푸른색 유리와 내온으로 처리 되어 있으며 내부는 그룹 미팅을 위한 장소로 사용된다. 여기에 멀지 않은 장소에 pool이 있으며 상부는 전등갓 형태로 막이 쳐져 있다. 이 ‘전등갓’의



내부에는 아자나무가 프린팅 되어 있고 외부는 예전의 천공 프린터로 출력된 작업같은 구멍들이 뚫려있다. 서쪽의 스튜디오에는 L자형태로 구부러진 공간이 들려져 있는데 이 공간은 토론을 위한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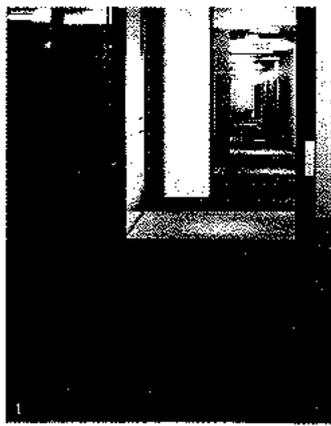
• JAI House

로스앤젤레스 / Lorcan O’Herlih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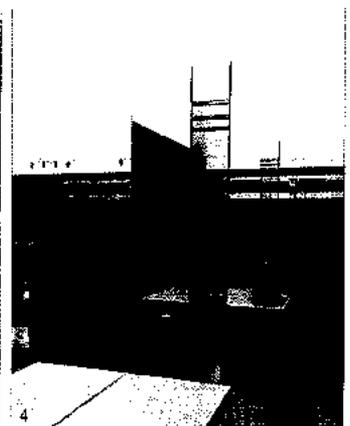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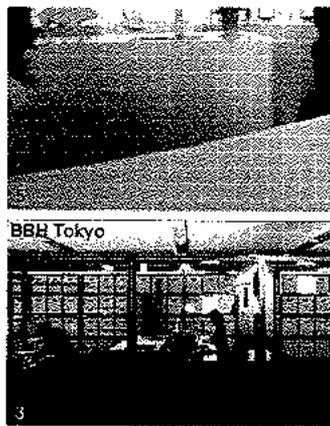
Jai House는 건축주의 동양 명상과 자연과의 교감에 대한 관심과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이라는 신분에 대한 대응이다. 그들은 O’Herlihy에게 요가 스튜디오와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요구했다. ‘Jai’는 산스크리트어로 ‘환영’, ‘평화’, ‘멋진’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이다. 슬라이딩 도어는 거실과 응접실이 직각으로 만나는 두면을 완전히 개방하며 이 공간을 풍장 있는 베란다로 변화시킨다. 주 출입구는 유리로 되어 있는데 독특한 ‘비경계감’을 느끼게 해준다. 주출입구의 양쪽에 모두 외기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2층의 “영화관”에서는 1층의 풍장과 철선으로 지지되는 계단을 볼 수 있다. 위층은 양쪽으로 뚫려되어 캔틸레버 박스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입구에 있는 일본식 연못(koi pond)은 주택을 가로 지르는 얇은 풀(lap pool)로 연

新建築

4



1. 시마 시마 L사이즈
2. 일리 에이지 오피스
3. BBH Tokyo
4. Xel-Ha by afloat
5. LOTUS BEAUTY SALON



알 수 없으나 소개된 작품의 양을 보면 웬만한 신건축지의 특집의 규모를 넘어선다. 총 16개의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작품의 종류 또한 오피스와 상점, 뷰티샵 등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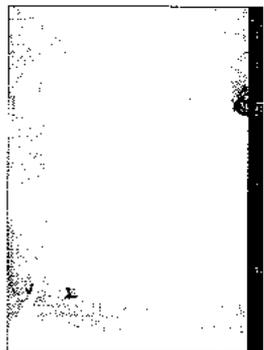
■ 건축사의 인테리어 디자인

▶클라인 다이삼 아키텍츠(Klein Dytham architects)는 총 3개의 작품이 소개되어 가장 많은 작품이 소개되었다. 「시마 시마 L사이즈」는 금융·부동산투자·기업재생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샤 파트너스」의 오피스로 클라인 다이삼 아키텍츠는 이번이 이들의 오피스만 벌써 5번째 작업이다. 회사의 로고마크로부터 차분한 푸른색과 회색을 따오고, 여기에 밝은 핑크색을 곁들여 세련되면서도 발랄한 스트라이프 무늬를 사무실 공간에 부여하였다. 이 스트라이프 무늬는 바닥과 벽을 온통 장식하고 있는데, 스트라이프 무늬가 적용된 곳은 복도와 미팅룸 공간들이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홀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스트라이프 무늬는 전 오피스 공간에 걸쳐 그 존재를 드러내 사무실 인테리어의 강한 중심적 테마를 형성하고 있다. 「일리 에이지 오피스」에서는 완전히 다른 컨셉을 보여주는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오피스 속에 꾸며진 외부공간과 그 안에 놓여진 '하우스'라는 개념이 적용되었다. 목재로 덮여진 L자형의 복도공간은 마치 옥외 테크를 연상시키고, 그 안에 미팅 룸과 미팅스페이스들을 만들어 놓았다. 사무실 공간에서 릴랙스할 수 있는 옥외공간과 같은 공간을 제공하고, 또한 이를 고객의 접객공간으로도 활용하는 것이다. 「BBH Tokyo」에서는 '아이디어 팩토리'라는 개념이 사용되었다. BBH는 도쿄, 런던, 뉴욕 등에 오피스를 갖고 있는 브랜드 메시니먼트 회사이다. 리바이스, 조니워커 등 글로벌기업들이 고객인 이 기

업을 위해 마련된 개념이 '아이디어 팩토리'인 것이다.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내놓은 것이 생명인 이 기업을 위해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공장이라는 개념이 제안되었다. 이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업무공간과 리셉션 공간을 구획하고 있는 수납함으로 이루어진 벽이다. 이를 설계자는 '아이디어박스'라고 이름 붙였다. 생산해낸 아이디어들이 수납되는 벽인 셸인데, 통상적인 서류철을 수납하는 가구의 형태가 아니라 물건을 담아두는 상자들을 쌓아 둔 모습을 해 공장의 이미지를 부여했다. 책상과 컴퓨터가 놓여져 있는 딱딱한 업무환경 외에도 자유로운 발상을 유도할 수 있는 개방적 공간 또한 필요했는데 '퀵렛 퍼니처 스페이스'가 이러한 공간이다. 기중기로 화물을 옮길 때 사용되는 정사각형의 운반선반을 이용해 만든 테이블과 소파가 이곳에 자리 잡아 직원들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공장의 이미지를 빌려온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컨베이어 벨트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오피스 공간이다. 즐지어 놓인 책상들은 낮고 기다란 붉은 색의 수납장에 모두 연결되어있다. 붉은 색의 수납장은 공장의 생산품을 실어 나르는 컨베이어 벨트를 연상시키는데, 여기에 붙어 있는 책상에서 직원들이 생산해내는 아이디어가 마치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는 듯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이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이 실제로 아이디어의 생산에 어떠한 작용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오피스에 걸맞은 워트 넘치는 디자인임에는 틀림없다.

▶아오키 준과 나카무라 히로시는 각각 뷰티살롱(미용실)의 인테리어를 선보였는데, 아오키 준은 천정에, 나카무라 히로시는 바닥의 디자인에 표현을 집중하였다. 아오키 준이 설계한 「Xel-Ha

by afloat」는 750개의 '워른시트(일본 전통 和紙를 절여 반짝거리게 만든 것)'를 이용한 조명이 사용되었다. 이 재질은 빛을 잘 산란시키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재료이다. 이 워른 시트를 꼭면으로 만들어 각각 하나씩 형광전구를 감싸게 했으며, 이러한 조명 패턴은 미용실의 천정 전체를 뒤덮고 있다. 천정이 모두 거대한 전통의 세이드로 사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살롱 공간의 분위기는 이 조명에서 시작되며, 또 완성되는 것이다. 반면 나카무라의 「LOTUS BEAUTY SALON」은 독특한 바닥면을 이용해 공간을 꾸미고 있다. 건축주로부터 요구받은 조건은 고객들을 개별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미용실이었다.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칸막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칸막이로 구획된 공간이 주는 답답함과 벽의 압박감이 문제였다. 여기서 고안해 낸 아이디어가 서서 일하는 스태프에게는 거대한 오픈공간으로 인지되고, 앉아 있는 손님에게는 개실(個室)로 인지되는 형태로 만드는 것이었다. 사있는 사람의 가슴 높이의 칸막이를 설치하면 이와 같은 것이 실현되지만 나카무라는 더욱 더 일체화되고 독특한 공간을 만들어 내었다. 바로 지면을 파내려가면서 원형의 공간들을 만들고, 파내려간 깊이를 사람의 가슴높이 정도로 하는 것이다. 비교적 넉넉한 공간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이 형상은 내부공간으로 진입시에는 파내려간 깊이가 낮아 100평 규모의 살롱 내부가 한 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리셉션 공간을 지나면서부터 점점더 파여진 바닥이 낮아져 각각의 좌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지만 이번 호에서는 특히 신진 건축사사무소들인 '스튜디오 마소'와 '유르겐 마이어 H'의 최신작품들을 4-5개 묶어서 인터뷰 기사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최신작 특집' 속의 작은 작가 특집인 셈이다.

■ 스튜디오 마소(Studio Massaud)

스튜디오 마소를 이끄는 장-마리 마소(Jean-Marie Massaud)는 1966년 프랑스 툴레즈 태생으로, 1990년 파리 국립창작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다. 마크 베르티에와 함께 작업한 도시계획 사업이 그를 디자인과 건축의 융합으로 이끌어 공업제품에서부터 가구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감성, 불가사의함, 그리고 생명의 감각에 대한 탐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제까지 '아마하 오프쇼어 나 '르노', 이태리 가구메이커인 '카펠라'와 '까시나', 그리고 아르

마나와 바카라와 같은 기업들과 일을 했다. 또한 수 차례 상을 수상한 바 있는 그의 작품들은 암스테르담, 시카고, 런던, 리스본, 파리, 취리히 등지의 디자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와 같은 디자인 활동을 계속하면서 2000년에 그는 다니엘 포재와 함께 스튜디오 마소를 설립하여 건축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분야를 넓혔다. 이번 호에서는 그의 최근 계획안들과 가구 디자인들을 소개하고 있다.

제품 디자인에서 시작한 건축사이기 때문일까? 그의 디자인은 사뭇 신선한 면이 있다. 그의 초기 건축활동은 예상하듯이 인체이러 디자인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스튜디오 마소를 설립한 2000년에 작업한 「세포라 블랑」이나 2002년의 「HIP」와 같은 작업들이 그의 가구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인테리어 디자인이었다. 이번 호에 소개된 그의 최신작들도 가구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 인테리어 디자인에 상당한 완성도를 보여준다. 세심하고 세련된 인테리어에 반해 건물 전체의 구성은 매우 개념적이면서 단순하고 과감한 구성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멕시코 푸에르토 발라타에 계획된 「만 호텔」은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걀 모양의 섬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다. 호수 속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통해 진입하는 이 호텔은 호수 밑 지하에 로비와 스파시설을 두고, 지상부의 객실은 수목으로 덮여진 외피로 감싸져 있다. '정신과 육체의 행복에 봉헌된 전당'이라는 설계자의 전념은 작은 호수 위에 평온히 고립된 섬의 이미지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호수의 물은 생명적인 에너지로서의 은유적 의미까지도 부여받고 있다.

아파트먼트 하우스형인 「Life Reef」는 단위 주호 유니트가 아니라 개별 필지를 적층하는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이미 여러 건축사들에 의해 제시된 바 있었던 개념이지만, 현실의 프로젝트에 적용해 보았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Life Reef」는 '살기 위한 기계'가 아니다. 이 타워들은 집적된 사유지들이며, 각자 고유한 풍경을 지니고 있다'라는 설계자의 설명은 이 작품의 성격을 잘 설명해 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젝트가 가지는 실질적인 어려움들(가령 외부 공간에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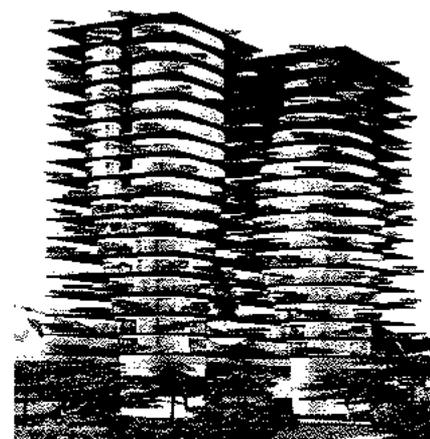
강한 풍입 발생 등)을 마소는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다. 「볼케이노 스타디움」도 단순하고 과감한 그의 설계 경향을 잘 보여준다. 축구경기장을 마치 초원에 생성된 거대한 크레이터(분화구)처럼 만든 후 그 위에 거대한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도우넛 모양의 지붕틀을 띄워 놓았다. 그의 재치를 읽을 수 있는 이 작품에서도 심플하고도 개념적인 전체 형태 속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에서는 세심한 설계가 이루어졌다.

■ 유르겐 마이어 H.(Jurgen Mayer H.)

1996년 베를린에 설립된 유르겐 마이어 H. 사무소는 건축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교차하는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작업하고 있다. 최근작으로는 독일 오스트프랄덴의 「쉐른하우저 파크 시청사」, 포르남 도크 지역의 마스터플랜, 칼스루에 대학의 학생회관, 스페인 세빌리아의 엔카르나시옹광장의 재개발「Metropol Parasol」 등이 있다. 도시계획에서 건축, 인스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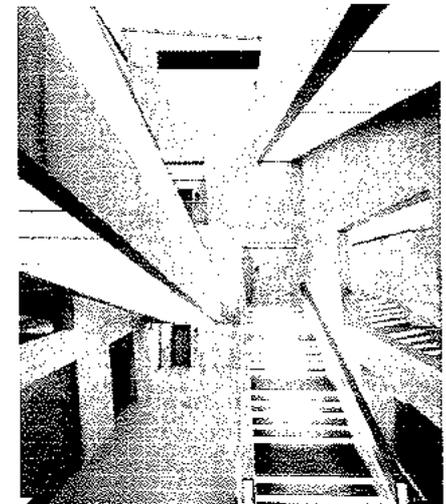
만 호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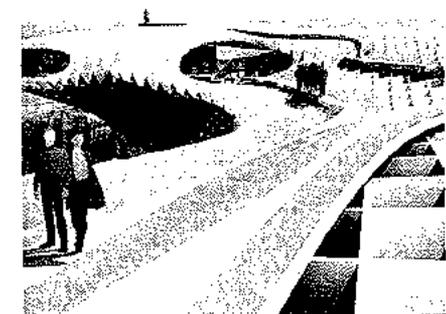
Life Reef



볼케이노 스타디움



쉐른하우저 파크 시청사



Metropol Parasol

(주)고령기와 '평판형 점토기와'
완벽한 방풍, 방수구조의 유편형 가능성 기와



고령 평판기와는 첨단 디자인 기법이 적용되어 기존의 점토기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단정하고 세련된 지붕선을 만들어낸 경부 고령에서 솔트된 순수 100%의 점토로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로서 건강한 주거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특별히 건축물의 유편을 가리지 않을만큼 어떤 건축물에도 잘 어울리며 건물의 외벽과도 조화를 잘 이루는 제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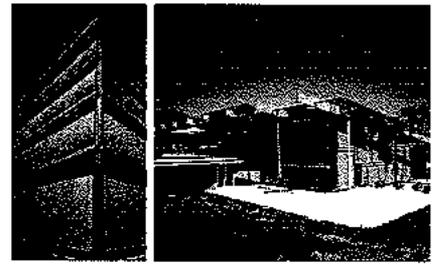
다양한 컬러와 고급스런 질감은 주택의 이미지와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줄 것이며, 다양한 부속기와들이 생산되고 있어 건축물의 유편이나 시공부분의 특수한 상황을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뛰어난 품질의 부속기와로 완벽한 지붕시공이 가능하다. 현재 고급주택단지, 군부대, 관공서, 종교건물, 아파트, 빌라, 상업건물, 일반주택등에 널리 보급되고 있다.

- 방수성능 : 110mm/h (일본 아마메이현 누수시험 검증 수치)
- 내풍성능 : 최대풍속 115m/s
- 시공성 : 시고효율의 극대화 경제성, 시공안정성 탁월

(주)고령기와

Tel_ 054-954-5335 / 02-412-9101 | www.roofile.co.kr

에너지 절감에 더욱 효율적인 외부 베네시안 블라인드
13칼라의 슬랫과 가이드레일로 진뿔미판 차별화



아이슬라인드가 자랑하는 외부차양의 내명사 E.V.B는 베네시안 슬롯을 건물 밖에 설치하는 신개념의 차양 방법이다. 외부차양은 일반적으로 내부차양에 비해 열차단 효과가 탁월하며 차별화 된 건물 외관의 가능성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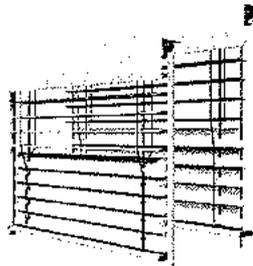
외부 베네시안 블라인드는 빛 조절, 사생활 보호와 외부 조망 기능이 탁월하며, 차양 고유의 기능인 탁월한 열 차단 효과로 냉방비 절감에 기여하고, 외부의 악천후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재질의 재료로 부식 방지 처리되어 있다. 일반 베네시안 보다 폭이 넓은 슬랫 사용으로 실내 적정 온도 조절이 용이하며 용도에 따른 다양한 디자인의 슬랫과 옵션 재공이 가능하다. 기능면에서 뿐 아니라 13 칼라의 슬랫과 가이드레일로 독특한 건물미판으로 차별화 할 수 있으며, 전동으로 작동하여 실내에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 슬랫 : 사이즈 60mm, 80mm, 100mm
- 재질 : 코팅된 알루미늄 합금 / 압출 알루미늄
- 두께 : 0.45mm

i-Blind PR

Tel_ 02-594-4311 | www.i-blind.co.kr

벽지, 페인트, 파티션, 쇼파 원단 전문 '아트플렉스'
APEC 정상회담장 및 국회의사당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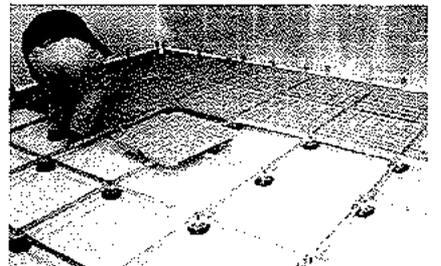
산업이 발달하고 소비자의 기호도 다양해 질수록 원단의 사용 범위는 또한 다양해 지고 있다. 아트플렉스는 아파트 사무공간, 공용공간 등에 요구되는 다양한 문양과 색상 원단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 모든 제품은 소방검정공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선방염 처리되어 있으며 필요 시 흡이온, 원적외선, 항균, 발수 처리 등이 가능하다. 더불어 전 제품 충분한 재고 보유를 확보하여 지체 없는 수급이 가능하며 필요 시 주문생산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운 요구와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신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 인증서류 : KFI 방염성적서, 공인기관 품질, 성능인증시험성적서 등
- 적용사례 : APEC 정상회담장(부산BEXCO), 김대중센터(광주전지컨벤션센터), 청와대 우실, 국회의사당, 국방부신청사, 각 지자체 신청사, 국내 건설사 시공아파트 아트월, 금융권 각 지점, 국내의 기업체 회의실 및 사무공간, 교회 예배당, 종합병원, 학교강의실, 대사관, 골프 클럽하우스, 스튜디오 등

아트플렉스

Tel_ 02-540-5491

'아파트 층간 소음' 안녕~
친환경 이중바닥 온돌시스템- 'EO2-150Slab System'



공동주택의 아래 윗집간의 소음분쟁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소음에 대한 차음구조의 강화로 소음의 차단과 관련된 기준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에 부응한 제품으로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을 제거하기 위해 이중바닥개념의 방진구조를 개발, 방진재와 공기층을 통해 층간소음이 현저히 저감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다.

특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Slab두께 150mm에서 경량층속음1급, 중앙층속음3급의 등급을 인정받은 최초, 최고 품질의 제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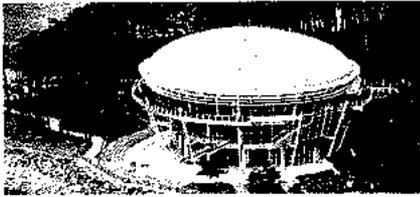
- 공동주택(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저감을 위한 구조
-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 아파트의 층간소음 차단 구조
- 층고 저감을 통한 1계 층을 추가, 사업성 증대
- 경속을 요하는 기타 용도의 건축물 바닥구조

(주)히트릭스오앤씨

Tel_ 032-431-8975

※자재정보 원고모집
선속사 회원과 우수한 건축사재정보
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재사용결과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자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gods@kira.or.kr
• 원고내용
- 사진1컷(300dpi 이상)
- 제품정보(원고지 3매 이내)
- 기업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담당
지명 기재

부산 13차 APEC 정상회의 회의장 지붕막재로 선정!
RHEINZINK 티타늄아연합 최고급 제품 - (주)미엔지산업



각국 정상들이 모인 자리인 만큼 'APEC누리마루'는 모임의 품격과 가치를 담아내며 해변에 건립됨에 따른 재료의 내구성과 오염 등에 특별한 보장이 필요했다.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 라인징크(RHEINZINK)의 고급스런 상화철강, 고도의 내구성 같은 장점들이 부각되며 지붕막재로 선정, 적용되었다.

<제품특징>

1. 영구적 수명을 가진다.
 - 아연만 특유의 산화막인 PATINA의 내부식성 내마모성이 탁월
 - WALL의 경우 150여년 이상의 수명을 가질 수 있다.
2. 천연의 질감을 가진다.
 - 청회색의 특유한 질감은 음영에 따라 다르게 표현
 - 휘도가 낮으며 자연광 또는 인공광에 따라 같이 있는 청회색 질감 표현
3. 환경 친화적인 소재이다.
 - 100% 환경에 부해한 재료
 - 재활용이 가능하다.
4. 생애주기 비용이 적게 든다.
 - 내구성과 표면 마감 산화층의 독특한 성능
 - 부착된 오염물에 대한 자정 기능이 있어 설치 후 외부적인 충격과 변형이 없는 이상 사후 관리 비용이 들지 않아 경제적이다.

㈜미엔지산업

Tel_02-3401-1100 | www.mijje.com

승위는 단열재 '그림폼(Green foam)
친환경 신소재 내·외장, 단열재 생산 - (주)코인사이엔씨



(주)코인사이엔씨는 건설부분의 내외장, 단열체로서 환경친화적 신소재(신기술, 신제품)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건설공정을 높여 가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 Building Insulation '그린폼(GREEN FOAM)'은 승위는 단열재, 동세없는 단열재, 외장전강재질로 Building science에 근거한 첨단단열 system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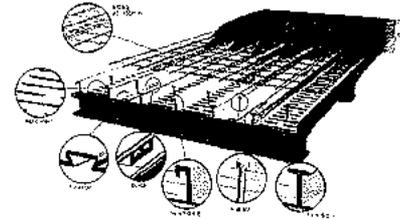
건축물의 단열, 방음재 '그림폼(열경량수성발포)

- 빌딩외벽, 내벽, 층간 등 단열과 방음이 필요한 부분(Curtain Wall Back Panel, Ceiling&Wall)에 사용되며 환경친화적 단열체로서 Energy Saving 효과가 뛰어나
-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널리 사용되며 Formaldehyde-Free '그린폼(Green Foam)'으로 유명한 이 제품은 시공성도 양호하여 공기단축, 원가절감에도 획기적임.
- 동절기 시공가능 / 즉시양생(스프레이 5초후 양생) / 연질 및 경량성 / 뛰어난 발포성(100배 발포) / SRMI-OPEN CELL 구조로 결코 미발생

(주)코인사이엔씨

Tel_02-571-8231 | www.koinsenc.com

생활속의 디자인 "바체하세요~~"
인간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욕실장조 - (주)바체



(주)바체는 70여건의 각종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상의 품질과 격조 높은 Design의 조화로 고객감동과 함께 업계의 신뢰창조로 이어졌다. 그 결과 Design에서 금형 개발은 물론 제품 생산으로 이어지는 Process System구축과 함께 초인류 안전기업, KS, ISO9002, SF(항공방위)등의 인증과 우수 산업디자인(Good Design), 한국 밀레니엄 상품 등에 선정되었고, 이어 품질경영연대대회대통령상, 한국산업디자인상 수상 등으로 이어져 명실상부한 욕실문화의 Leading 기업으로 자리 매김 하게 되었다.

바체는 '생활속의 디자인'이란 슬로건 아래 마감 중시의 디자인 전략을 발전시켜 Trend의 우위선점을 목표로 디자인 경쟁력 강화와 고객만족으로 제품개발의 다양성을 추구하여 '명품'의 개발로 세계시장을 공략해가고 있다.

<주요생산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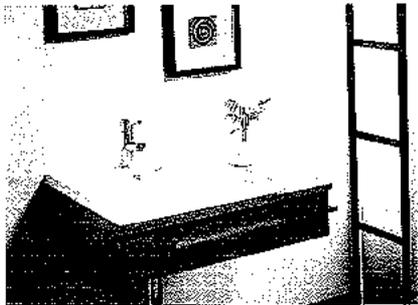
- 욕실용 욕조 욕조(Whirlpool Bath tub)
- 욕실용 세면대(Bath tub)
- 싱크 카운터(Sink counter)
- 샤워부스(Shower booth)

바체

Tel_031-375-0295 | www.bache.co.kr

세계적 데크플레이트 선진기술 보유

JIF · Power · Any deck Plate와 Steel Bar 개발 - (주)파워데크



(주)파워데크는 국내 데크플레이트 업체를 선도하고 있는 회사로서 1998년 국내 최초로 내화구조용 합성 데크플레이트인 JIF Deck Plate를 개발, 선진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특히, 건축물의 경량화, 구조적 안정화 및 경제성, 시공성이 좋은 Power Deck Plate를 개발 하였으며, 그 결과 2002년 3월 발명 특허를 획득한 바 있다. 또한 S구조, RC구조, SRC구조 등 어떤 구조에도 적용할 수 있는 Any Deck Plate를 개발하였고, 지하구조물에 사용되는 목재 토류판 대신 Steel Bar(강재 토류판)를 개발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주요생산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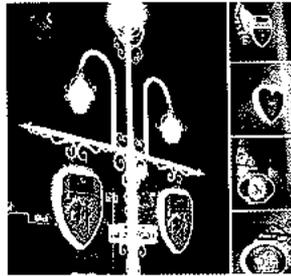
- 애니 데크플레이트(Any Deck Plate)
- 파워 데크플레이트(Power Deck Plate)
- 지프 데크플레이트(JIF Deck Plate)
- 스틸 바(Steel Bar)

파워데크

Tel_054-471-2121 | www.powerdeck.co.kr

새로운 개념의 고품격 유럽식 간판

클래식 간판과 입 · 지주간판, 배너걸이 제작-르네상스



르네상스는 간판 전문업체로서 '클래식간판'과 이를 이용한 입간판, 지주간판, 배너걸이 등을 제작하고 있으며, 건물을 유럽형으로 리모델링하는 일도 대행하는 업체이다.

<주요생산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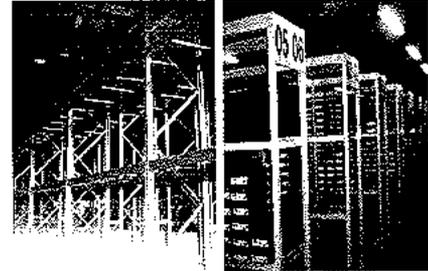
- 클래식간판: 획일화된 틀에서 벗어난 신선한 유럽형 조명간판
- 클래식 조명간판: PC(비선)소재로 빛 투과율이 좋고 선고하며, 시공이 간단하다. 또한 유럽의 거리를 연상시키는 세련된 질 단조 장식들은 클래식 간판과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 <개발특징>**
- 측면을 곡선 처리한 원형, 방파형, 타원형, 각타원형, 하트형의 5가지 모델이 고급스러운 결치와 1세트
- 단단한 PC(비선) 소재와 3차장 펌프, 전자안전기를 사용하여 깜박임이 없고 빛 투과율이 월등해 시선을 집중시킨.
- 질 단조 처리한 5가지 모델의 결치들은 녹물의 발생을 차단하고 내구력이 좋다.

르네상스

Tel_042-538-8204 | www.classic-sign.com

창고 및 공장의 제품보관 이송을 위한 설비 제작, 설치

파레트랙, 미들셀팩, 암랙 등 생산 - (주)오메가 지엘



(주)오메가 지엘은 창고 및 공장의 제품보관 및 이송을 위한 설비를 제작, 설치하는 업체로서 신규, 이전 창고설비의 배치 및 물류 운영 컨설팅이 주요업무이다.

<주요생산품>

1. 파레트 랙(Pallet rack)
2. 중랑보관 랙(Middle shelf rack)
3. 암 랙(Amr rack)
4. 파레트 경사랙(Pallet flow rack)
5. 전자분배 랙(Das rack)
6. 행거 랙(Hanger rack)
7. 경사 랙(Sliding rack)

(주)오메가 지엘

Tel_02-404-0988